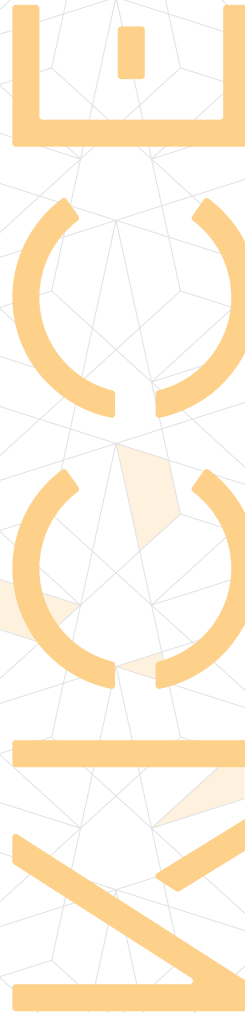




# 행복한 육아문화 조성을 위한 KICCE 육아정책 여론조사(III)

김동훈·김문정





사업보고 2019-05

# 행복한 육아문화 조성을 위한 KICCE 육아정책 여론조사(Ⅲ)

연구책임자 김 동 훈 (육아정책연구소 부연구위원)

공동연구자 김 문 정 (육아정책연구소 전문연구원)

**육아정책연구소**  
Korea Institute of Child Care and Education

사업보고 2019-05

행복한 육아문화 조성을 위한  
KICCE 육아정책 여론조사(Ⅲ)

발행일 2019년 12월  
발행인 백선희  
발행처 육아정책연구소  
주소 04535 서울시 중구 소공로 70 서울중앙우체국 9층  
전화 02) 398-7700  
팩스 02) 398-7798  
홈페이지 <http://www.kicce.re.kr>  
인쇄처 (주)정인에드 02)3486-6791

보고서 내용의 무단 복제를 금함.  
ISBN 979-11-90485-15-9 93330



육아정책연구소  
Korea Institute of Child Care and Education

정부의 다양한 출산·육아정책들이 가정과 사회, 보육과 유아교육 일선 현장에 잘 정착되어 바람직한 육아 환경이 조성되기를 기대한다. 그런데 육아정책들이 적용되는 과정을 보면 크고 작은 어려움들이 있다. 대표적으로 출산과 육아에 대한 전통적 인식과 관행들이 문화로 정착되어 있고, 이러한 문화가 육아정책의 정착에 장애 요인이 되기도 한다.

출산과 양육 문제는 이와 떼어서 생각할 수 없는 문제라는 점에서 다양한 육아정책이 도입되어 시행되고 있다. 이러한 상황 속에서 육아정책의 수요자인 국민들이 육아정책과 출산·육아문화 현실을 어떻게 바라보고 있는지, 육아정책 과제들을 어떻게 인식하고 평가하는지, 향후 우리나라 육아정책이 어떻게 변화되어 갈 것으로 예측하는지를 주기적으로 살펴보는 것이 필요하다.

KICCE 육아정책 여론조사는 바로 이러한 취지에서 수행된 조사로 2017년부터 수행되고 있다. 본 연구는 3차년도 연구로 육아정책의 현재와 미래에 대한 대국민 의식과 태도가 어떻게 변화해 가고, 최근의 출산·육아 현안에 대한 국민들의 여론이 어떠한지를 체계적으로 조사하여 그 결과를 충실히 담은 것이다. 이러한 여론조사 결과가 우리나라의 육아정책을 입안하고 전개해 나가는 정책관계자들에게는 좋은 시사점을 주고, 영유아 보육·교육 현장에게는 올바른 실행 방법을 제시하는 기초자료가 되어 저출산 문제를 완화하고, 건강한 육아문화 창출에 실질적으로 공헌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

끝으로 본 보고서의 내용은 연구진의 의견이며, 육아정책연구소의 공식적인 입장이 아님을 밝혀둔다.

2019년 12월  
육아정책연구소  
소장 백 선 희



<b>요약</b>	<b>1</b>
<b>I. 서론</b>	<b>13</b>
1.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	15
2. 연구내용 .....	16
3. 연구방법 .....	17
<b>II. 선행연구 및 육아정책 동향</b>	<b>21</b>
1. 1~2차년도 육아정책연구소 육아정책 여론조사(KICCE POLL) .....	23
2. 국내 육아관련 여론조사 .....	28
3. 2019년 정부 육아정책 동향 .....	32
<b>III. 3차년도 KICCE 여론조사 결과</b>	<b>45</b>
1. 부모됨에 대한 여론 .....	47
2. 결혼 및 자녀 양육관에 대한 여론 .....	78
3. 육아 행복감에 대한 여론 .....	102
4. 육아정책 인식 및 방향에 대한 여론 .....	114
5. 소결 .....	134
<b>IV. 1~3차년도 KICCE 여론조사 추이분석</b>	<b>141</b>
1. 부모됨에 대한 여론 .....	143
2. 결혼 및 자녀 양육관에 대한 여론 .....	149
3. 육아 행복감에 대한 여론 .....	155
4. 육아정책 인식 및 방향에 대한 여론 .....	157
<b>V. 정책제언</b>	<b>167</b>

---

참고문헌	173
Abstract	175
부록	177

---





## 표 목차

〈표 Ⅰ-3- 1〉 KICCE POLL 3차년도 여론조사 응답자 .....	18
〈표 Ⅱ-1- 1〉 KICCE POLL 1-2차년도 조사 개요 .....	23
〈표 Ⅱ-1- 2〉 KICCE POLL 1-3차년도 정기조사내용 .....	24
〈표 Ⅱ-1- 3〉 KICCE POLL 1-2차년도 수시조사내용 .....	26
〈표 Ⅱ-2- 1〉 인구보건복지협회 인식조사 개요 .....	28
〈표 Ⅱ-3- 1〉 문재인 정부 육아정책 관련 국정목표-전략-과제 .....	33
〈표 Ⅱ-3- 2〉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저출산·고령사회 정책 로드맵’-육아정책 ..	36
〈표 Ⅱ-3- 3〉 보건복지부 ‘포용국가 아동계획’ 2019년 추진계획 .....	40
〈표 Ⅱ-3- 4〉 교육부 2019년 계획-유아교육정책 .....	41
〈표 Ⅱ-3- 5〉 여성가족부 2019년 계획-육아정책 .....	42
〈표 Ⅲ-1- 1〉 부모됨 관련 동의 정도 .....	48
〈표 Ⅲ-1- 2〉 부모와 자녀의 역할에 대한 인식 .....	50
〈표 Ⅲ-1- 3〉 부모의 경제적 지원 기간에 대한 인식 .....	52
〈표 Ⅲ-1- 4〉 양육비용이 가장 많이 드는 시기에 대한 인식 .....	54
〈표 Ⅲ-1- 5〉 가정 내 부모의 역할에 대한 동의 정도(4점 만점) .....	55
〈표 Ⅲ-1- 6〉 이상적 자녀 양육 및 가사 분담 비 .....	56
〈표 Ⅲ-1- 7〉 (영유아 자녀 부모) 실제 자녀양육 및 가사 분담 비 .....	57
〈표 Ⅲ-1- 8〉 (영유아 자녀 부모) 가사 및 양육 활동별 주 담당자 .....	58
〈표 Ⅲ-1- 9〉 (영유아 자녀 부모) 가사 및 양육 활동별 주 담당자-집안 일 (식사 준비, 빨래 등) .....	59
〈표 Ⅲ-1-10〉 (영유아 자녀 부모) 가사 및 양육 활동별 주 담당자-자녀 밥 먹고, 옷 입는 것 도와주기 .....	59
〈표 Ⅲ-1-11〉 (영유아 자녀 부모) 가사 및 양육 활동별 주 담당자-자녀와 놀아주기, 책 읽어주기 .....	60
〈표 Ⅲ-1-12〉 (영유아 자녀 부모) 가사 및 양육 활동별 주 담당자-자녀의 기관 등·하원 도와주기 .....	61
〈표 Ⅲ-1-13〉 (영유아 자녀 부모) 가사 및 양육 활동별 주 담당자-자녀 물품 알아보고 구매하기 등 .....	62
〈표 Ⅲ-1-14〉 조부모의 정기적 손자녀 돌봄에 대한 인식 .....	62

---

〈표 Ⅲ-1-15〉 자녀 양육시기별 가장 바람직한 부모의 경제활동 상태	64
〈표 Ⅲ-1-16〉 자녀 양육시기별 가장 바람직한 부모의 경제활동 상태 - 영유아기	64
〈표 Ⅲ-1-17〉 자녀 양육시기별 가장 바람직한 부모의 경제활동 상태 - 초등학교시기	65
〈표 Ⅲ-1-18〉 자녀 양육시기별 가장 바람직한 부모의 경제활동 상태 - 중학교시기	66
〈표 Ⅲ-1-19〉 (자녀가 있는 경우) 현재 좋은 부모 정도: 자기 평가	68
〈표 Ⅲ-1-20〉 (자녀가 없는 경우) 미래에 좋은 부모가 될 가능성: 자기 평가	69
〈표 Ⅲ-1-21〉 좋은 부모 역할 수행을 위해 중요한 요소	70
〈표 Ⅲ-1-22〉 부모의 자녀 체벌에 대한 인식	71
〈표 Ⅲ-1-23〉 일·가정 양립의 어려움에 대한 인식	72
〈표 Ⅲ-1-24〉 영유아 부모의 자녀 양육 시 스마트폰 사용 정도_자녀와 함께 놀이할 때(5점 척도)	73
〈표 Ⅲ-1-25〉 영유아 부모의 자녀 양육 시 스마트폰 사용 정도_자녀와 함께 식사할 때	74
〈표 Ⅲ-1-26〉 영유아 부모의 자녀 양육 시 스마트폰 사용 정도_자녀를 재울 때	74
〈표 Ⅲ-1-27〉 영유아 부모의 시간사용에 대한 만족도	75
〈표 Ⅲ-1-28〉 영유아 부모의 시간사용에 대한 만족도 - 근무시간	75
〈표 Ⅲ-1-29〉 영유아 부모의 시간사용에 대한 만족도 - 집에 머무는 시간	76
〈표 Ⅲ-1-30〉 영유아 부모의 시간사용에 대한 만족도 - 자녀와 함께 보내는 시간	77
〈표 Ⅲ-2- 1〉 결혼의 필요성	78
〈표 Ⅲ-2- 2〉 결혼과 자녀에 대한 생각에 대한 동의정도 - 결혼을 하지 않고 자녀를 가질 수 있다	79
〈표 Ⅲ-2- 3〉 결혼과 자녀에 대한 생각에 대한 동의정도 - 자녀를 낳아 기르려면 결혼을 해야 한다	81
〈표 Ⅲ-2- 4〉 결혼과 자녀에 대한 생각에 대한 동의정도 - 결혼을 하면 자녀가 있어야 한다	82
〈표 Ⅲ-2- 5〉 결혼과 자녀에 대한 생각에 대한 동의정도	83
〈표 Ⅲ-2- 6〉 자녀존재의 필요성 여부	84
〈표 Ⅲ-2- 7〉 자녀가 있어야 하는 주된 이유	85
〈표 Ⅲ-2- 8〉 자녀가 있어야 하는 주된 이유(연령별 비교)	86
〈표 Ⅲ-2- 9〉 자녀가 없어도 되는 주된 이유	87
〈표 Ⅲ-2-10〉 자녀가 없어도 되는 주된 이유(연령별 비교)	88
〈표 Ⅲ-2-11〉 자녀양육 태도에 대한 동의정도 - 부모가 지나치게 허용적이면 자녀의 버릇이 나빠진다	89

---

---

〈표 Ⅲ-2-12〉 자녀양육 태도에 대한 동의정도 - 부모는 자녀가 어릴 때 엄격하게 대해야 바르게 키울 수 있다 .....	90
〈표 Ⅲ-2-13〉 자녀양육 태도에 대한 동의정도 - 자녀가 잘못할 때는 매를 들 수도 있다 .....	91
〈표 Ⅲ-2-14〉 자녀양육 태도에 대한 동의정도 - 자녀가 할 수 있다면 안스럽지만 힘든 일도 혼자서 해야 한다 .....	92
〈표 Ⅲ-2-15〉 자녀양육 태도에 대한 동의정도 - 자녀들은 부모의 말에 순종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	93
〈표 Ⅲ-2-16〉 자녀양육 태도에 대한 동의정도 - 자녀를 훌륭하게 키우기 위해서는 사교육이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	94
〈표 Ⅲ-2-17〉 자녀양육 태도에 대한 동의정도 .....	95
〈표 Ⅲ-2-18〉 자녀 양육의 어려움(1순위) .....	96
〈표 Ⅲ-2-19〉 우리 사회에서 자녀교육 성공의 의미 .....	98
〈표 Ⅲ-2-20〉 자녀의 미래에 대한 선호도-경제적 안정 vs 열정에 따른 삶 ...	99
〈표 Ⅲ-2-21〉 부모역할 선호도-친구같은 부모 vs 권위 있는 부모 .....	100
〈표 Ⅲ-2-22〉 자녀의 최종학력에 대한 희망 .....	101
〈표 Ⅲ-3- 1〉 자녀 양육의 가장 큰 즐거움 .....	102
〈표 Ⅲ-3- 2〉 자녀 양육에 대한 인식 - 나는 아이를 키우는 것은 행복한 일이라고 생각한다 .....	103
〈표 Ⅲ-3- 3〉 자녀 양육에 대한 인식 - 나는 아이를 키우는 것은 육체적으로 힘들다고 생각한다 .....	105
〈표 Ⅲ-3- 4〉 자녀 양육에 대한 인식 - 나는 아이를 키우는 것은 심리적으로 부담된다고 생각한다 .....	106
〈표 Ⅲ-3- 5〉 자녀 양육에 대한 인식 - 나는 아이를 키우는 것은 경제적으로 부담된다고 생각한다 .....	107
〈표 Ⅲ-3- 6〉 영유아 자녀 양육의 경제적 가치(월 평균) .....	109
〈표 Ⅲ-3- 7〉 영유아 자녀 양육에 대한 책임 분담에 대한 인식 .....	110
〈표 Ⅲ-3- 8〉 자녀 양육이 가장 힘든 시기에 대한 인식 .....	111
〈표 Ⅲ-3- 9〉 노키즈존에 대한 인식 .....	113
〈표 Ⅲ-4- 1〉 국가 차원 육아정책 설계 시 우선 순위 .....	114
〈표 Ⅲ-4- 2〉 정부의 육아를 위한 재정지원 설계 시 우선 순위 .....	115
〈표 Ⅲ-4- 3〉 아동학대 관련 정부가 비중을 두어야 할 사항 .....	117
〈표 Ⅲ-4- 4〉 영유아 사교육 이유에 대한 인식(1순위) .....	118

---

---

〈표 III-4- 5〉 영유아 사교육 이유에 대한 인식(1+2순위) .....	119
〈표 III-4- 6〉 사교육 과열 현상의 지속여부에 대한 의견 .....	119
〈표 III-4- 7〉 영유아에 대한 국가 책임 강화를 위한 세금 추가 부담 의향 ...	120
〈표 III-4- 8〉 세금 추가 부담의사가 없는 이유 .....	122
〈표 III-4- 9〉 정부의 자녀 출산 및 양육 지원 수준에 대한 인식 .....	123
〈표 III-4-10〉 정부의 출산·육아지원 정책에 대한 우선순위(1순위) .....	124
〈표 III-4-11〉 보육료·유아학비 전계층 지원에 대한 인식 .....	126
〈표 III-4-12〉 보육료·유아학비 전계층 지원이 바람직하지 않은 이유 .....	127
〈표 III-4-13〉 양육수당 전계층 지원에 대한 인식(2019) .....	128
〈표 III-4-14〉 양육수당 전계층 지원이 바람직하지 않은 이유 .....	129
〈표 III-4-15〉 정부의 출산·육아 비용지원 정책의 출산에 대한 영향력 .....	130
〈표 III-4-16〉 영유아 자녀 양육을 위한 우리 사회의 안전성 .....	131
〈표 III-4-17〉 (안전하지 않다고 응답한 경우)가장 큰 불안 요인(1순위) .....	132
〈표 III-4-18〉 정부의 영유아 육아지원정책에 대한 전반적 평가 .....	133
〈표 IV-1- 1〉 부모됨 관련 동의 정도 추이(2017, 2019) .....	144
〈표 IV-1- 2〉 부모와 자녀의 역할에 대한 인식 추이(2017, 2019) .....	144
〈표 IV-1- 3〉 부모의 경제적 지원 기간에 대한 인식 추이(2017, 2019) .....	145
〈표 IV-1- 4〉 가정 내 부모의 역할에 대한 동의 정도 추이(2017, 2019) ...	146
〈표 IV-1- 5〉 이상적 자녀 양육 및 가사 분담 비 추이(2017, 2019) .....	146
〈표 IV-1- 6〉 (영유아 자녀 부모) 실제 자녀양육 및 가사 분담 비 추이(2017, 2019) ..	147
〈표 IV-1- 7〉 자녀 양육시기별 가장 바람직한 부모의 경제활동 상태 추이 (2017, 2019) .....	148
〈표 IV-1- 8〉 좋은 부모 역할 수행을 위해 중요한 요소에 대한 인식 추이 (2017, 2019) .....	148
〈표 IV-2- 1〉 결혼의 필요성에 대한 인식 추이(2017, 2019) .....	149
〈표 IV-2- 2〉 결혼과 자녀에 대한 생각에 대한 동의정도 추이(2017, 2019) ...	150
〈표 IV-2- 3〉 자녀존재의 필요성 여부에 대한 인식 추이(2017, 2019) .....	150
〈표 IV-2- 4〉 자녀가 없어도 되는 주된 이유 추이(2017, 2019) .....	151
〈표 IV-2- 5〉 자녀양육 태도에 대한 동의정도 추이(2017, 2019) .....	152
〈표 IV-2- 6〉 자녀 양육의 어려움에 대한 인식(1순위) 추이(2017, 2019) ..	152
〈표 IV-2- 7〉 우리 사회에서 재학교육 성공의 의미에 대한 인식 추이(2017, 2019) ...	153
〈표 IV-2- 8〉 자녀의 미래에 대한 선호도 추이(2017, 2019)-경제적 안정 vs 열정에 따른 삶 .....	154

---

---

〈표 IV-2- 9〉 부모역할 선호도 추이(2017, 2019)-친구같은 부모 vs 권위 있는 부모 · 155	155
〈표 IV-3- 1〉 자녀 양육의 가장 큰 즐거움에 대한 추이(2017, 2019) ……	156
〈표 IV-3- 2〉 자녀 양육에 대한 인식 추이(2017, 2019) ……	156
〈표 IV-3- 3〉 영유아 자녀 양육에 대한 책임 분담에 대한 인식 추이(2017, 2019) …	157
〈표 IV-4- 1〉 국가 차원 육아정책 설계 시 우선 순위에 대한 인식 추이(2017~2019) …	158
〈표 IV-4- 2〉 정부의 육아를 위한 재정지원 설계 시 우선 순위에 대한 인식 추이 (2017~2019) ……	158
〈표 IV-4- 3〉 아동학대 관련 정부가 비중을 두어야 할 사항에 대한 인식 추이 (2017, 2019) ……	159
〈표 IV-4- 4〉 영유아 사교육 이유에 대한 인식 추이(2017, 2019) ……	159
〈표 IV-4- 5〉 사교육 과열 현상의 지속여부에 대한 의견 추이(2017, 2019) …	160
〈표 IV-4- 6〉 영유아에 대한 국가 책임 강화를 위한 세금 추가 부담 의향 추이 (2017~2019) ……	160
〈표 IV-4- 7〉 세금 추가 부담의사가 없는 이유 추이(2017~2019) ……	161
〈표 IV-4- 8〉 정부의 출산·육아지원 정책에 대한 우선순위에 대한 인식 추이 (1순위)(2018~2019) ……	161
〈표 IV-4- 9〉 보육료·유아학비 전계층 지원에 대한 인식 추이(2017~2019) …	162
〈표 IV-4-10〉 양육수당 전계층 지원에 대한 인식 추이(2017~2019) ……	162
〈표 IV-4-11〉 정부의 출산·육아 비용지원 정책의 출산에 대한 영향력에 대한 인식 추이(2017, 2019) ……	163
〈표 IV-4-12〉 영유아 자녀 양육을 위한 우리 사회의 안전성에 대한 인식 추이 (2017~2019) ……	163
〈표 IV-4-13〉 정부의 영유아 육아지원정책에 대한 전반적 평가 추이(2017, 2019) …	164

---



## 그림 목차

[그림 Ⅱ-3-1] 문재인 정부 국가비전 - 5대 국정목표 -20대 국정전략- 100대 국정과제 .....	32
[그림 Ⅱ-3-2] 저출산·고령사회 정책 로드맵 추진개요 .....	35
[그림 Ⅱ-3-3] 포용국가 아동정책의 방향 개념도 .....	40



## 1. 서론

### 가.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 2017년부터 5년간 수행되는 ‘행복한 육아문화 조성을 위한 KICCE 육아정책 여론조사’의 3차년도 연구임.
- 육아정책 여론조사 및 국민 인식조사를 지속적으로 실시하여, 육아정책 및 육아관련 여론과 인식의 추이를 파악하고 관련 정책 수요를 모니터링함.
  - 육아정책에 대한 대국민 여론을 분석하고 정책수요자의 요구에 부합하는 정책방향을 제시하고자 함. 또한 정책적 주요 현안에 대하여 여론조사를 포함하여 각 정책을 모니터링 함과 동시에, 수요자의 의견수렴을 통해 정책수요자의 요구를 반영한 정책방향을 제시하고자 함.

### 나. 연구내용

- 육아정책 및 육아문화와 관련한 최근 정책과 이슈를 분석하였음.
- 이전 여론조사 설문문항에 대한 검토와 수정·보완을 통해 3차년도 설문문항을 구성하고, 육아정책이나 문화와 관련된 분석 등을 통해 도출된 현안을 중심으로 우리나라 육아정책 및 육아문화와 관련한 여론조사 문항을 수정·보완하였음.
- 육아문화나 육아정책 전반에 대해 KICCE 육아정책 여론조사를 실시하여 현행 정책에 대한 의견 수렴 및 개선점을 모색하고, 이전 여론조사 결과와 비교하였음.
- 정책수요자와의 쌍방향 의사소통을 위한 부모 모니터링단을 신규로 구성하였음.
- 여론조사 결과에 기초하여 정책방향을 제시하였음.

### 다. 연구방법

- 문헌분석
  - 육아정책 현안 주제 선정을 위한 관련 기본계획, 업무보고 자료, 국내외 선행 연구 등 분석

□ 대국민 여론조사

- 전국 만 15세 이상 75세 미만 남녀를 대상으로 성별, 연령, 지역규모를 고려하여 3,000명을 비례표집함.
- 조사방법은 온라인 패널을 대규모로 확보하고 있고, 여론조사 경험이 풍부한 전문조사기관을 활용함.

□ KICCE POLL 홈페이지 운영 및 부모 모니터링단 운영

- 주요 정책이슈와 여론조사 결과를 공유하고, 정책수요자의 온라인 정책제안 창구를 마련하여 다각적인 의견 수렴 및 정책제안을 유도하기 위해 KICCE POLL 홈페이지를 운영함.
- 영유아 자녀를 둔 부모를 중심으로 모니터링단을 별도로 구성함.

## 2. 선행연구 및 육아정책 동향

### 가. 1-2차년도 육아정책연구소 육아정책 여론조사

□ 정기조사의 경우 전국 15세 이상 75세 미만의 국민 3,000명을 대상으로 한 조사로 고정문항과 변동문항으로 구성하여 국민의 연령, 소득 등 개인 특성에 따른 의식 및 태도의 추세변화를 파악하고자 하였음.

- 2017년도(1차년도)는 부모됨, 양육관, 결혼관, 육아행복감, 유아교육·보육 정책, 정책만족도 등에 대한 전반적인 조사가 이루어졌음.
- 2018년도(2차년도)는 매년 변하지 않는 항목은 제외하되 육아현황, 저출산 인식, 희망 육아지원 정책, 신규정책 관련 의견에 대한 항목을 추가하였음.

□ 수시조사는 영유아 부모 500명을 대상으로 한 긴급하게 발생하는 육아관련 이슈에 대한 조사임

- 2017년도에는 영유아 보육·교육 서비스 정책, 가정 내 양육, 일·가정 양립 등과 관련하여 구체적인 실태를 파악하기 위한 문항을 구성하여 설문을 실시하였음.
- 2018년도에는 육아와 관련된 이슈(미세먼지 관련 정책, 영유아 영어교육, 아동수당 등)를 조사하였음.



## 나. 국내 육아관련 여론조사

### □ 인구보건복지협회 인식조사

- 저출산 인식조사와 특정 주제와 관련된 수시 조사를 비정기적으로 실시하고 있으며 조사 내용은 결혼, 임신, 출산, 육아와 관련되어 있음.

## 다. 2019년 정부 육아정책 동향

### □ 문재인 정부 5개년 계획

- ‘국민의 나라 정의로운 대한민국’을 국가비전으로 5대 국정목표를 수립하고, 이를 달성하기 위하여 20개 국정전략과 100대 국정과제를 선정하였음
- 정부의 20대 국정전략 중 육아정책과 관련된 국정전략은 국정목표 ‘내 삶을 책임지는 국가’에 해당되는 국정전략 2. ‘국가가 책임지는 보육과 교육’, 전략 4. ‘노동존중·성평등을 포함한 차별 없는 공정사회’, 그리고 전략 5. ‘자유와 창의가 넘치는 문화국가’임.

### □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저출산·고령사회 정책 로드맵

- 출산 장려 위주의 정책에서 모든 세대의 삶의 질을 높이는 정책으로 패러다임을 전환하고, 비전은 ‘모든 세대가 함께 행복한 지속가능사회’로 1)삶의 질 향상, 2)성 평등 구현, 3)인구변화 적극 대비를 목표로 설정하였음.

### □ 교육부 2019년 주요 업무계획

- ‘모두를 포용하는 사회, 미래를 열어가는 교육’이라는 주제로 2019년 업무계획을 보고하였으며, ‘교육현장의 신뢰도 제고’와 ‘사람 중심 미래교육 실현’을 중점으로 추진함.

### □ 제3차 건강가정기본계획(보완계획)(2016~2020)(2018.8)

- 가족환경 변화에 대응한 가족정책의 패러다임을 전환하기 위하여 ‘제3차 가정기본계획’ 보완
- 평등하고 민주적인 가족관계, 가족형태의 다양화(한부모, 다문화, 1인가구 등), 결혼·가족에 대한 관점 변화를 반영한 정책 보완

### 3. 3차년도 KICCE 여론조사 주요 결과

#### 가. 부모됨

- 비교적 부모가 된다는 것은 행복하고 기대되는 일이라고 인식하고 있었음(4점 중 3.22점).
  - 그러나 50~60대 이상의 중·노년층에 비해 10~20대의 젊은 응답자의 경우 부모됨에 대한 기대감이 상대적으로 낮은 것으로 나타남(60대: 3.43점, 50대: 3.35점 vs 20대: 2.89점, 10대: 2.92점).
- 한편 ‘부모가 되기 위해서는 경제적으로 준비가 되어 있어야 한다’는 문항에 대해서는 4점 평균에 3.47점으로 높은 동의 정도를 보임.
  - 특히 10대의 경우 3.65점, 20대의 경우 3.66점으로, 부모로서 경제적 준비에 있어 중·노년층보다 높은 동의 정도를 나타냄.
  - 또한 결혼하지 않는 경우에 부모됨에 있어 경제적 준비의 필요성을 많이 느끼고 있는 것으로 나타남(3.61점).
- 젊은 연령층은 부모됨에 대한 기대감이 낮으며, 동시에 일반 국민들은 부모됨의 가치에 있어 경제적인 준비가 많이 필요하다고 인식하고 있음
  - 이는 젊은 연령층의 가족 형성 및 자녀양육에 대한 이미지가 다소 부정적인 것으로 해석되며, 이러한 젊은 층의 인식이 최근 저출산의 원인 중 하나로 볼 수 있음.
- 심화되는 저출산을 개선하기 위해서는 청년층을 대상으로 부모됨의 긍정적 가치를 전달할 필요성이 있음.
- 자녀를 낳기 전에 부모가 되기 위한 교육이 필요하다는 것에 많은 응답자들이 공감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남(4점 평균에 3.53점).
- 부모의 경제적 지원 기간에 대해 응답자들은 대학졸업 때까지라는 응답이 전체 응답의 45.7%로 절반 가량을 차지하였고, 취업할 때까지 해야 경제적으로 지원해야한다는 응답이 23.5%로 나타남.
  - 높은 대학 등록금과 청년실업이라는 현실속에서 부모들의 자녀에 대한 경제적 지원에 대한 부담이 자녀가 성인이 된 이후에도 속되고 결국 부모들의 삶의 질도 저하될 우려가 있음을 짐작할 수 있음.

- 양육비용이 가장 많이 드는 시기로는 고등학생 시기가 71.3%로 가장 많았는데, 이는 대학입시와 연관되어 사교육 지출이 특히 집중적으로 들어가는 시기로 인식하는 것으로 보임.
- 이상적인 자녀 양육 분담 비율은 어머니 5.60 : 아버지 4.40, 가사 분담 비율은 어머니 5.67 : 아버지 4.33으로 어머니 분담비율이 약간 더 높게 나타남
  - 그러나 영유아 자녀가 있는 응답 대상자에게 실제 자녀양육 및 가사분담 비율을 질문한 결과 자녀양육의 경우 어머니 6.65 : 아버지 3.35, 가사의 경우 어머니 6.60 : 아버지 3.40으로 분담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남.
  - 이상적인 분담비율에서 응답한 결과와 다소 괴리가 있고, 실제로는 여전히 자녀양육과 가사에 있어 어머니의 역할과 비중이 컸음.
  - 다만, 남자들이 여자보다 실제로 가사에 좀더 기여하고 있다고 인식하고 있고, 연령대가 낮을수록 아버지 역할에 대한 분담비율이 다소 커지는 것으로 나타나 자녀양육과 가사 분담에 있어 부부간 동등한 역할 분담 문화가 확산되고 있다고 보임.
- 자녀 양육시기별로 바람직한 부모의 경제활동에 차이를 보였음.
  - 먼저 영유아기일 때는 응답자의 70.1%가 '부모 둘 중 한명은 경제활동을 하고, 한명은 집에서 양육함', 자녀가 초등학생인 경우에는 '부모 모두 경제활동을 하고 어머니는 시간제로 근무함'이 44.7%였고, 자녀가 중학생 이상인 경우 '부모 모두 경제활동을 함'이 62.7%로 어린 시기에 가정에서의 부모돌봄이 더 중요하다고 보고 있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음.

## 나. 결혼 및 자녀 양육관

- 우선 결혼에 대한 생각을 살펴보면 남자의 경우에는 해야한다는 비율이 64.7%였으나, 여자는 41.1%로 성별로 결혼의 필요성에 대한 인식차를 보였음.
  - 연령대가 장노년층에 비해 상대적으로 젊은 연령층에서 결혼을 해야한다는 응답 비율이 낮아 향후에도 비혼성향이 더 증가할 것이라고 추측해 볼 수 있음
- 결혼과 자녀에 대한 생각에 대한 조사 결과에서는 아직까지 자녀를 낳기 위해서는 결혼을 해야 한다고 생각하는 경향이 높은 것으로 나타남.
  - 결혼을 하지 않고 자녀를 가질 수 있다고 응답한 비율이 약 30.0% 수준에 머물렀음.

- 그러나 미혼인 경우나 연령이 어릴수록 결혼을 하지 않고 자녀를 가질 수 있다고 동의한 비율이 높기 때문에 자녀출산을 위해 결혼이 전제되어야 한다는 인식이 차츰 변화하고 있는 추세라고 볼 수 있음.
- 응답자의 74.6%는 자녀가 있는 것이 좋다고 응답하였음.
  - 미혼인 경우는 없어도 무방하다는 의견이 45.7%이상을 차지하고 있었고, 연령이 낮을수록 없어도 무방하다는 응답이 많아 향후 출산율을 향상시키는 것이 어려울 것이라고 예측할 수 있음.
  - 자녀가 없어도 되는 주된 이유로는 좋은 부모가 될 자신이 없어서가 29.2%, 경제적으로 여유롭게 생활하기 위해서 23.2%, 자녀가 있으면 자유롭지 못할 것이기 때문에 14.1%, 자녀 양육비용 부담이 많이 되어서 12.1% 순으로 나타남.
- 자녀 양육에 대한 일반적인 생각을 조사한 결과, 양육의 관점이 세대차가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음.
  - 부모는 자녀가 어릴 때 엄격하게 대해야 바르게 키울 수 있다, 자녀가 잘못 할 때는 매를 들 수 있다, 자녀가 할 수 있다면 안쓰럽지만 힘든 일을 혼자서 해야한다고 같이 자녀 양육의 엄격성에 대해서 조사한 결과 연령이 낮을수록 동의하는 수준이 떨어지는 것으로 나타남.
  - 반면 자녀를 훌륭하게 키우기 위해서는 사교육이 필요하다는 대해서는 20~40대 연령대와 거주지가 서울특별시나 광역시인 경우, 가구소득이 높을수록 동의하는 비율이 높게 나타남.
- 자녀 양육의 어려움으로는 자녀 양육과 일의 병행이 37.8%, 양육비용에 부담이 28.7%로 상당부분을 차지함.
  - 남자에 비해 여자가 자녀양육과 일의 병행이 어렵다는 응답비율이 더 높고, 10대에서는 상대적으로 자녀의 심리적 안정을 중요시하였고, 20~30대는 자녀양육비용에 대한 부담비율이, 60대 이상에서는 자녀의 학업/직업적 성취를 상대적으로 중요하게 여기는 등 세대간에 인식의 차이를 보임.
- 자녀의 성장 선호도는 남자와 여자에 따라 다소 다른 경향을 보임.
  - 남자가 여자에 비해 열정보다는 경제적 안정성을 중요시하고 친구같은 부모보다 권위적인 부모를 선호하는 것으로 나타남.

- 또한 미혼인 경우는 기혼인 경우보다 자녀가 열정적인 삶을 살길 원하고 친구같은 부모가 되는 것을 선호하였고, 응답자의 연령대가 낮을수록 자녀를 열정에 따라 살도록 기르고 싶다는 경향이 더 크게 나타남.
- 희망하는 자녀의 최종학력과 관련하여서는 여전히 대졸이 절반가량 차지하여 학력에 대한 욕구를 알 수 있었으나, 연령대가 낮아질수록 대졸학력 이상에 대한 희망비율은 낮아지고, 학력은 상관없다라는 응답이 크게 증가하는 경향을 보이고 있다.

#### 다. 육아행복감

- 육아행복감에서는 자녀양육의 즐거움, 가치, 경제적 가치 등에 대해서 조사하였음.
- 자녀양육의 가장 큰 즐거움으로는 자녀의 발달과 성장을 지켜보는 부모로서의 성취감이라고 응답한 비율이 높음.
  - 성별로는 남자는 부모로서의 성취감이 42.1%로 가장 많았고, 여자는 부모-자녀관계에서의 애정과 지지가 36.3%로 가장 많아 응답비율에서 차이를 보였음.
  - 연령대별로는 연령대가 높아질수록 부모로서의 성취감이 즐거움이라고 응답한 비율이 높아지는 등 응답비율에서 차이를 보임.
- 응답자의 거의 대부분인 90.4%가 자녀를 양육하는 것이 행복한 일이라고 응답하였음.
  - 다만 자녀를 양육하는 것이 육체적으로 힘들고 심리적, 경제적으로 부담된다고 응답한 비율도 높았으며 여자가 남자보다, 연령대로는 40대 미만에서 자녀를 키는데 있어 육체적으로 힘들다고 생각하는 비율이 높게 나타남.
  - 또한 거주지가 서울특별시인 경우 평균이 다소 높고, 미혼이 기혼인 경우보다, 자녀가 없는 경우가 있는 경우보다, 영유아 자녀가 있는 경우가 없는 경우보다 자녀를 키우는 것이 육체적으로 힘들다고 응답한 비율이 높게 나타남.
- 자녀 양육의 경제적 가치에 대해 조사한 결과 월 평균 200~300만원 미만이라고 응답한 비율이 34.1%로 가장 높았고, 월 평균 가치로 환산하면 약 234만원이었음.
  - 연령이 높을수록 자녀 양육의 경제적 가치를 낮게 인식하는 경향이 나타남.

- 영유아 자녀의 양육에 대한 책임소재는 우선적으로 부모의 책임이고 국가가 지원해야 한다는 응답이 높았음.
  - 연령대가 낮을수록 부모가 우선 책임지고 국가 지원해야 한다는 응답이 줄어드는 경향이 있고, 반대로 국가가 우선 책임지고 나머지를 부모가 부담한다는 응답이 높아지는 경향을 보여 응답비율에 차이를 보임.
- 자녀 양육이 가장 힘든 시기에 대해서는 전체적으로 영아기 28.9%, 유아기 26.9%, 고등학생 12.6%, 중학생 11.3% 순으로 자녀양육이 힘들다고 하였음.
  - 10대와, 40대 이후 연령대에서는 중고등학생인 자녀양육에 대한 고충이 타 연령대에 비해 크게 나타났고, 2, 30대에서는 영아 비율이 크게 나타남.
- 영유아 및 어린이의 입장을 금지하는 장소/업소인 노키즈존에 대해서는 55.8%가 찬성하는 입장, 21.9%가 반대, 22.3%가 잘모르겠다고 하여 노키즈존의 필요성에 일정부분 공감대가 있었음.
  - 그러나 주된 영유아 및 어린이를 양육하는 주된 시기인 30대의 경우 상대적으로 노키즈존 필요성에 대한 응답비율이 낮았고, 미혼이거나, 자녀가 없는 경우에 그렇지 않은 경우보다 노키즈존에 대한 찬성비율이 더 컸음.

## 나. 육아정책 인식 및 방향

- 국가차원에서 육아정책 설계에 있어 중점을 두어야 하는 것으로 남자는 ‘부모의 양육부담 경감과 지원’을, 여자는 ‘부모의 일가정 양립’에 중점을 두어야 한다는 의견이 많았음.
- 정부의 육아지원 재정지원 우선순위에서는 차별적 지원(50.1%)이 전계층 무상지원(40.0%)보다 다소 높게 나타남.
  - 연령대별로는 연령대가 높을수록 차별적 지원 비율이 높고, 기혼이 미혼보다, 영유아자녀가 없는 경우가 있는 경우보다 차별적 지원에 응답한 비율이 높아 다른 양상을 보임.
  - 정책의 핵심수요층인 영유아 가정은 여전히 보편적 무상지원에 대한 정책우선순위가 더 높은 것으로 보이나, 영유아 가정 이외의 다른 국민들의 차별적 지원에 대한 수요를 고려한다면 국가차원에서 한정된 재원에 대한 합리적이고 효율적 배분 전략이 수립되어야 할 것임.
- 아동학대와 관련하여서는 전체적으로 처벌 강화와 교육, 교사의 근로환경 개

선 등의 요구가 많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낮은 연령대에서는 처벌 강화 비율이 높고, 높은 연령대에서는 교육실시 비율이 상대적으로 높아지는 경향을 보여 세대간 정책우선순위에 차이를 보임.

- 영유아 자녀가 있는 부모들이 사교육을 시키는 이유로는 ‘다른 아이들이 하나 까 뒤쳐질까봐’가 40.1%, ‘자녀의 발달과 학습에 도움이 된다고 생각해서’가 30.9%, ‘하원 후에 돌봐줄 사람이 없어서’ 10.1%, ‘자녀에게 어떤 재능이 있는지 알아보기 위해’가 9.4%의 순으로 나타남.
  - 또한 86.1%는 우리나라에서 향후에도 영유아 대상 사교육 과열현상 지속될 것으로 보았음.
- 영유아 보육·교육을 위한 추가 세금 부담과 관련해서는 연령대가 높을수록 세 금에 대한 추가부담 의향이 없다는 비율이 높아지고는 경향을 보임.
  - 미혼보다 기혼이, 자녀가 있는 경우가 없는 경우보다, 영유아 자녀가 없는 경 우가 있는 경우에 ‘없다’고 응답한 비율이 높은 경향을 보임.
  - 추가 세금 부담의사가 없다는 응답한 이유로는 재정지출의 효율성 전제와 세 금 용처에 대한 불신 비율이 높게 나타남.
- 우리사회는 영유아 자녀를 키우기에 안전하다는 비율이 24.4%, 안전하지 않 다가 35.9%로 안전에 대한 우려가 있는 것으로 나타남.
  - 특히 범죄발생, 경제적 위험, 계층간 갈등, 도덕성 부족 등이 중요 사회불안 요인이라고 보았음.
- 정부의 영유아 육아지원정책에 대해서는 5점 중 3.01점으로 전반적으로 보통 수준이었음.
  - 연령대가 낮을수록 정부의 육아지원정책에 대한 만족도가 낮아지는 경향을 보였고, 미혼이 기혼보다, 자녀가 없는 경우가 있는 경우에 만족수준이 더 낮 았음.

#### 4. 정책제언

- 여성의 경제활동 증가와 함께 부부간 역할이 동등한 수준으로 변화하고 있음 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전통적인 남녀간의 역할분화가 지속되고 있어, 자녀양

육 및 가사에서 성평등한 역할 분담에 대한 인식 확산이 요구됨.

- 무상보육과 교육, 양육비용 지원, 일·가정 양립 지원 등 다양한 제도가 시행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더 많이 수요자 입장에서의 정책대안 마련이 요구됨.
- 부모로서의 책임과 역할에 대한 교육을 통해 부모됨과 자녀 양육의 가치를 알릴 필요가 있고, 취약계층을 중심으로 한 수요자 맞춤형 교육이 요구됨.
- 정책의 핵심수요층인 영유아 가정 입장에서는 여전히 보편적 무상지원에 대한 정책우선순위가 높으나, 국가차원에서 한정된 재원의 배분을 위해서 육아지원에 대한 재정지원 설계의 차별적 지원에 대한 검토가 필요함.
- 아동학대에 대한 예방교육 및 처벌을 강화하고, 교사의 근로환경을 개선할 필요가 있음.
- 정부의 영유아 육아지원정책에 대한 전반적인 만족도는 보통수준으로, 연령대가 낮은 세대가 향후 정부 육아지원 정책의 수요자가 된다는 점에서 정부의 실수요자 입장에서의 정책집행이 필요함.







# I

## 서론

01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02 연구내용

03 연구방법



# I. 서론

## 1.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육아정책은 모든 국민과 긴밀하게 연관되어 있어 함께 고민해야 하는 관심사이기 때문에 국민들의 육아정책에 대한 인식과 태도는 향후 육아정책의 방향과 규모를 결정하는 데에도 영향을 끼친다. 심각한 저출산 사회에서 주요 원인의 하나로 지적되는 소비주의적 육아문화와 교육열에 따른 사교육 문화는 단순한 재정 지원 정책만으로는 개선하기 어려운 한계를 갖고 있다.

저출산 심화와 함께 부모의 자녀에 대한 돌봄이나 교육이 양에서 질로 대체되면서, 자녀에 대한 관심이나 투자, 돌봄, 교육의 형태 등이 다양하고 빠르게 변화하고 있다. 반면, 단기간에 변화되기 어려운 육아문화에 대해서는 지속적인 조사를 통해 문제를 파악하고, 이를 개선해 나갈 수 있는 정책개발 등의 해결방안 모색이 필요하다. 이를 위해 전국 단위의 여론조사를 통해 정책수요자의 요구에 맞는 정책을 개발한다면, 건강한 육아문화의 창출에 필요한 국민의 인식 형성이 가능할 것이다.

이와 관련하여 2017년부터 5년간 ‘행복한 육아문화 조성을 위한 KICCE 육아정책 여론조사’ 연구가 수행 중이며, 본 연구는 3차년도 연구이다. 1차년도에는 육아정책에 대한 일반 국민의식을 알아볼 수 있는 조사 대상 표집 및 설문문항 구성을 통해 여론조사를 실시하였다. 조사결과 젊은 층은 부모됨에 대한 기대감이 낮으며, 동시에 부모됨에 있어 경제적인 준비가 많이 필요하다고 인식하고 있었고, 부모교육의 의무화에 대한 찬성 비율이 자녀양육 및 가사에 있어 공평한 분담을 지지하고 있지만 여전히 조사 대상자 가정에서는 부부간 불평등한 분담이 이루어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김동훈·이재희·이혜민, 2017). 또한 국민들은 정부에 국공립 유치원과 어린이집 확충, 서비스 질 향상, 육아휴직제도나 유연근무제 확대에 대한 높은 요구도를 나타냈으며, 0~5세 전계층 무상 보육·교육비 지원에 있어서 재정의 효율적 배분 전략을 요구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되었다(김동훈 외, 2017).

2차년도 연구에서는 1차년도 연구에서 조사한 가치관은 쉽게 변화하지 않는다

고 보고, 실제적으로 느끼는 육아 관련 고충 및 어려움, 최근 정책 관련 의견을 포함하고자 하였다. 자녀가 있는 경우 추가적 출산계획이 대부분 없었고, 주된 이유는 연령과 양육비 부담으로 나타났고, 자녀 돌봄 지원정책의 효과가 높다고 인식하고 있었다. 보편적 비용지원에 대해서는 응답자의 50%가 바람직하다고 하였으며, 이외의 추가적인 비용지원 정책에 대해서는 인지도가 다소 낮았다. 유치원과 어린이집의 공공성 및 질 제고를 서비스 지원이 정책의 우선순위로 되어야 하고, 출산 휴가, 육아휴직 기간 연장 등 일·가정양립 지원 정책의 강화를 제안하였다.

3차년도(2019년)는 1, 2차년도 연구설계를 토대로 육아정책 여론조사 및 국민 인식조사를 지속적으로 실시하여, 육아정책 및 육아관련 여론과 인식의 추이를 파악하였다. 세부적으로는 육아정책에 대한 대국민의식 조사를 1, 2차년도 조사자료와 비교하여 추이를 분석하고 정책수요자의 요구에 부합하는 정책방향을 제시하고자 하였다. 또한 정책적 주요 현안에 대하여 여론조사를 포함하여 각 정책을 모니터링함과 동시에 수요자의 의견수렴을 통해 정책수요자의 요구를 반영한 정책방향을 제시하고자 하였다.

## 2. 연구내용

본 연구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

첫째, 육아정책 및 육아문화와 관련한 최근 정책과 이슈를 분석하였다. 이를 위해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보건복지부, 여성가족부, 교육부 등 주요 중앙부처별 육아정책 및 계획에 대한 분석을 통해 육아 관련 현안을 확인하고 국내외 선행연구를 검토하였다.

둘째, 1, 2차년도 여론조사 설문문항에 대한 검토와 수정·보완을 통해 3차년도 설문문항을 구성하였다. 육아정책이나 문화와 관련된 분석 등을 통해 도출된 현안을 중심으로 우리나라 육아정책 및 육아문화와 관련한 여론조사 문항을 수정·보완하였다. 이때 성별, 연령대, 학력, 결혼, 자녀유무 등 다양한 특성을 고려하여 상황에 따른 육아환경 분석이 가능하도록 설계하였다.

셋째, KICCE 육아정책 여론조사를 실시하였다. 여론조사는 육아문화나 육아정책 전반에 대해 대국민 여론조사를 실시하여 현행 정책에 대한 의견 수렴 및 개선

점을 모색하였다. 조사내용은 응답자의 개인배경, 유아교육 및 보육, 가치관 등 육아정책과 관련한 국민들의 의식 및 태도 관련 내용 등으로 구성되어 있고, 향후 변화를 비교할 수 있는 문항으로 구성하였다. 또한 현안 이슈에 대해서도 문항을 개발하여 여론조사를 실시하였다.

넷째, 정책수요자와의 쌍방향 의사소통을 위한 부모 모니터링단을 구성하였다. 여론조사뿐만 아니라 건전하고 행복한 육아문화 형성과 정착을 위해 영유아 부모 및 초등저학년 부모를 대상으로 한 부모 모니터링단(i-POL)을 구성하였다.

### 3. 연구방법

#### 가. 문헌분석

육아관련 주요 부처의 육아정책 및 육아지원제도를 검토하고, 육아정책과 관련한 선행연구들의 성과분석을 통해 기존의 결과 외에 정책수요자의 관점에 집중하여 육아문화 및 육아정책에 관한 이슈를 도출하였다. 육아정책 현안 주제 선정을 위한 관련 계획 및 자료, 국내외 선행연구 등을 분석하였다.

#### 나. 대국민 여론조사

대국민 여론조사는 2019년 11월 하반기에 진행되었으며, 육아관련 정책 및 인식에 관한 조사 실시를 통해, 일반 국민이 체감하고 있는 육아정책이나 육아문화에 대한 인식과 개선사항 등에 관한 의견을 수합하고 결과를 분석하였다. 또한 이슈 및 현안 관련 문항에 대해서 분석하였다.

조사대상은 육아정책에 대해 관심을 갖고 있는 전국 만 15세 이상 75세 미만 남녀를 대상으로 성별, 연령, 지역규모를 고려하여 3,000명을 비례표집하여 추진하였다. 육아문제는 누구에게나 과거, 현재 혹은 미래의 문제라는 인식하에 영유아 자녀를 둔 정책 수요자를 포함하여 전 세대에 걸쳐 오늘날 우리의 육아문화에 대한 전체적 인식을 확인할 수 있도록 여론조사를 실시하였다.

조사방법은 온라인 패널을 대규모로 확보하고 있고, 여론조사 경험이 풍부한 전문조사기관을 활용하였다. 온라인 조사 방식을 적용하고 조사업체에서 확보하고

있는 패널을 대상으로 이메일, 문자, 유선통화 등을 통해 조사참여를 독려하고 진행할 예정이다. 조사내용은 차수별 추이분석이 필요한 경우 고정문항으로 연속적으로 조사하고, 검토를 통해 일부 문항은 유동적으로 조정하여 실시하였다.

KICCE POLL 3차년도 설문조사 응답자는 다음과 같다. 1~2차년도 조사와 마찬가지로 총 3,000명이 조사에 참여하였으며, 이 중 남성은 1,522명, 여성은 1,478명이었다. 거주지역별로 살펴보면 서울특별시 거주자는 전체 응답자의 19.3%였고, 광역시 및 특별시 거주자는 26.8%, 중소도시 거주하는 경우는 49.5%, 군(읍면지역)에 거주하는 경우는 4.4%였다. 응답자 연령별로 살펴보면 20대에서 60대 이상까지 20% 내외를 보였고, 10대도 2.1%를 포함하였다. 학력은 초졸 0.3%, 중졸 1.9%, 고졸 22.1%, 전문대졸 15.4%, 대졸 51.0%, 석사 7.8%, 박사 1.5%로 대졸자가 절반을 차지하였다. 맞벌이인 경우는 53.6%, 맞벌이가 아닌 경우는 46.6%였다.

자녀가 있는 응답자는 1,962명으로 이중 영유아자녀가 있는 경우는 26.7%, 없는 경우는 73.3%로 나타났고, 평균자녀수는 1.81명이었다.

〈표 I-3-1〉 KICCE POLL 3차년도 여론조사 응답자

단위: (명), %

구분	사례수	비율	구분	사례수	비율
전체	(3,000)	100.0	지역규모		
성별			서울특별시	( 580)	19.3
남성	(1,522)	50.7	광역시	( 805)	26.8
여성	(1,478)	49.3	중소도시	(1,484)	49.5
학력			군(읍면지역)	( 131)	4.4
초등학교 졸업	( 9)	0.3	연령		
중학교 졸업	( 56)	1.9	10대(15~19세)	( 62)	2.1
고등학교 졸업	( 664)	22.1	20대	( 619)	20.6
전문대 졸업	( 461)	15.4	30대	( 510)	17.0
대학교 졸업	(1,531)	51.0	40대	( 600)	20.0
대학원 석사	( 234)	7.8	50대	( 623)	20.8
대학원 박사	( 45)	1.5	60대 이상(60~74세)	( 586)	19.5
종사상 직업			혼인 여부		
관리자	( 231)	7.7	미혼	( 910)	30.3
전문가 및 관련종사자	( 308)	10.3	배우자 있음	(1,942)	64.7
사무 종사자	(1,094)	36.5	배우자 없음	( 148)	4.9
서비스 종사자	( 258)	8.6	종사상 지위		
판매 종사자	( 108)	3.6	고용주	( 39)	1.3
			자영업자	( 273)	9.1



구분	사례수	비율	구분	사례수	비율
농림어업 종사자	( 18)	0.6	상용근로자	(1,664)	55.5
기능원 및 종사자	( 79)	2.6	임시근로자	( 194)	6.5
장차 등 종사자	( 40)	1.3	일용근로자	( 75)	2.5
단순 노무 종사자	( 123)	4.1	무급가족종사자	( 38)	1.3
군인	( 12)	0.4	무직	( 688)	22.9
기타	( 729)	24.3	무응답, 모름	( 29)	1.0
맞벌이 유무			자녀 취학 등 현상태 <sup>1)</sup>		
맞벌이	(1,040)	53.6	가정양육(영유아)	( 150)	4.2
맞벌이 아님	( 902)	46.4	영유아 기관	( 531)	14.9
자녀 유무			초등학교	( 419)	11.8
있음	(1,962)	65.4	중학교	( 186)	5.2
없음	(1,038)	34.6	고등학교	( 270)	7.6
영유아 자녀 유무			대학 이상	( 578)	16.2
있음	( 524)	26.7	직장인	( 983)	27.6
없음	(1,438)	73.3	출가 및 미취업	( 378)	10.6
총 자녀 수(있는 경우)			기타	( 62)	1.7
1명	( 575)	29.3	영유아 자녀 이용 기관		
2명	(1,197)	61.0	유치원	( 390)	73.4
3명	( 175)	8.9	어린이집	( 139)	26.2
4명 이상	( 15)	0.8	기타	( 2)	0.4
(자녀 있는 경우) 평균	1.81명		영유아 자녀 이용 기관		
가구소득 <sup>2)</sup>			국공립어린이집	( 116)	21.8
60% 미만	( 608)	20.3	사회복지법인어린이집	( 19)	3.6
60 - 80% 미만	( 525)	17.5	법인단체 등 어린이집	( 30)	5.6
80 - 100% 미만	( 449)	15.0	민간어린이집	( 156)	29.4
100 - 120% 미만	( 522)	17.4	가정어린이집	( 51)	9.6
120 - 140% 미만	( 315)	10.5	직장어린이집	( 14)	2.6
140 - 160% 미만	( 198)	6.6	협동어린이집	( 4)	0.8
160% 이상	( 383)	12.8	국공립유치원	( 44)	8.3
			사립유치원	( 95)	17.9
			기타(협동어린이집 포함)	( 2)	0.4

주: 1) 자녀가 2명 이상인 응답자는 중복응답함에 따라 사례 수 합계가 자녀 있음 응답자 1,962명보다 많음.

2) 가구소득은 2018년 2/4분기 통계청 가계동향조사의 월평균 가구소득(453만원)을 100%로 한 것임.

#### 다. KICCE POLL 홈페이지 운영 및 부모 모니터링단 운영

여론조사 연구에서는 주요 정책이슈와 여론조사 결과를 공유하고, 정책수요자의 온라인 정책제안 창구를 마련하여 다각적인 의견 수렴 및 정책제안을 유도하기 위해 KICCE POLL 홈페이지를 운영하고 있다. 이를 통해 1~3차년도 여론조사의 주요 결과들을 공유하였다. 또한 영유아 자녀를 둔 부모를 중심으로 모니터링단을 별도로 구성하는 등 쌍방향 소통 창구를 마련하여 육아정책의 방향 및 정책수요에 대한 의견을 수렴하고 정부의 육아정책 등을 홍보하고자 하였다.



# II

## 선행연구 및 육아정책 동향

- 01 1-2차년도 육아정책연구소 육아정책 여론조사(KICCE POLL)
- 02 국내 육아관련 여론조사
- 03 2019년 정부 육아정책 동향



## II. 선행연구 및 육아정책 동향

### 1. 1-2차년도 육아정책연구소 육아정책 여론조사(KICCE POLL)

육아정책연구소 육아정책 여론조사(KICCE POLL)는 2017년부터 시작된 조사로 매년 실시하고 있으며 2021년까지 계획되어 있다. 조사는 크게 정기조사와 수시조사로 이루어져 있으며 정기조사는 연 1회, 수시조사는 연 1-2회 실시하고 있다. 연도별 조사 개요는 다음의 <표 II-1-1>과 같다.

<표 II-1-1> KICCE POLL 1-2차년도 조사 개요

연도	조사 목적	조사 대상	조사 시기	조사 방법
1차년도 (2017)	육아지원 정책에 따른 정책 수요자의 만족도 및 인식과 체감 파악	<정기> 전국 15세 이상 75세 미만 국민 3,000명	2017. 11. 7 - 14	온라인 조사
		<수시> 영유아 부모 500명	2017. 12. 7 - 11	
2차년도 (2018)		<정기> 전국 15세 이상 75세 미만 국민 3,000명	2018. 11. 15 - 26	온라인 조사
		<수시 1차> 영유아 부모 500명	2018. 5. 14 - 17	
	<수시 2차> 영유아 부모 500명	2018. 9. 7 - 14		

자료: 최은영·최효미·이혜민(2018). 행복한 육아문화 정착을 위한 KICCE 육아정책 여론조사(II). 육아정책연구소. pp. 15-22, 33.

정기조사의 경우 전국 15세 이상 75세 미만의 국민 3,000명을 대상으로 한 조사로 고정문항과 변동문항으로 구성하여 국민의 연령, 소득 등 개인 특성에 따른 의식 및 태도의 추세변화를 파악하고자 한다. 2017년도에는 1차년도로 부모됨, 양육관, 결혼관, 육아행복감, 유아교육·보육 정책, 정책만족도 등에 대한 전반적인 조사가 이루어졌고, 2018년도(2차년도) 조사에서는 매년 변하지 않는 항목은 제외하되 육아현황, 저출산 인식, 희망 육아지원 정책, 신규정책 관련 의견에 대한 항목을 추가하였다. 연도별 정기조사내용은 다음 <표 II-1-2>와 같다.

〈표 II-1-2〉 KICCE POLL 1-3차년도 정기조사내용

(○: 기존문항, ●: 신규문항)

영역	문항내용	상세내용	1차 (2017)	2차 (2018)	3차 (2019)
기초 자료	성별	응답자 성별	○	○	○
	거주지	지역 규모별 구분	○	○	○
	연령	응답자 출생년도	○	○	○
	혼인여부	혼인 여부	○	○	○
	자녀 일반사항	자녀 여부 자녀 수 및 연령 영·유아 자녀일 경우, 재원하는 종일제 기관 종류	○ ○ ○	○ ○ ○	○ ○ ○
부모됨	부모됨 인식 및 역할	부모됨에 대한 의견	○	-	○
		부모의 자녀에 대한, 자녀의 부모에 대한 일반인식	○	-	○
		자녀에 대한 부모의 경제적 지원 시기	○	-	○
		자녀 1인당 양육비용 부담 시기	-	-	●
		부모 취업과 자녀양육	○	-	○
	부모역할의 실제	자녀양육 및 가사 부담정도 및 적절수준 의견	○	-	○
		가사 및 양육 실제 부담 정도	○	-	○
		가사 및 양육 활동별 주된 담당	-	-	●
		조부모의 손자녀 돌봄에 대해 인식	-	-	●
		자녀양육시기별 부모의 바람직한 경제활동 상태	○	-	○
		좋은 부모 인식 여부	○	-	○
		과거로 돌아간다면 자녀를 낳는 시기	○	-	-
		좋은 부모 가능성 전망	○	-	○
		좋은 부모 필요요건	○	-	○
		자녀 체벌에 대한 인식	-	-	●
		일·가정 양립 어려움	-	-	●
	육아 현황	영유아 부모의 스마트폰 사용 수준	-	-	●
		영유아 부모의 시간사용 만족도	-	-	●
		양육 효능감	-	●	-
양육 스트레스		-	●	-	
결혼 및 자녀 양육관	사회적 관계망	-	●	-	
	육아 인프라	-	●	-	
	결혼 가치관	결혼필요성	○	-	○
	결혼과 출산	결혼과 출산의 관계	○	-	○
	적정 자녀 수 및 성 선호도	일반적인 이상 적정 자녀 수	○	○	○
		자녀 성 선호도	○	○	○
	자녀에 대한 필요성	자녀 필요성에 대한 의견	○	-	○
자녀가 있어야 한다고 응답한 이유		○	-	○	
자녀가 없어도 된다고 응답한 이유		○	-	○	
양육 태도	자녀양육 태도에 대한 일반적인 생각	○	-	○	
자녀양육 어려움	자녀양육에서의 어려움	○	-	○	

영역	문항내용	상세내용	1차 (2017)	2차 (2018)	3차 (2019)	
	자녀 교육관	자녀교육의 성공에 대한 관점	○	-	○	
		자녀양육 선호도	○	-	○	
		자녀의 적정 교육수준	-	-	●	
저출산	개인 출산 관련	추가 출산 계획 및 미계획 시 이유	-	●	-	
	저출산 정책	저출산 관련 국가 심각성 인지 여부	-	●	-	
육아 행복감	육아행복감 및 가치	자녀양육 즐거움	○	-	○	
		양육 및 육아의 가치 및 자신감	○	-	○	
	양육의 경제적 가치	영유아 육아의 경제적 가치 환산 금액(월 평균)	○	-	○	
	양육의 책임	영유아 자녀 양육에 대한 책임	○	-	○	
		자녀양육이 어려운 시기	-	-	●	
	사회적 관심	노키즈존 인식	-	-	●	
육아 정책 인식 및 방향	보육·유아교육 에 대한 정부의 역할	정부의 육아정책 설계 우선순위	○	○	○	
		정부의 육아 재정지원 설계 우선순위	○	○	○	
		유치원·어린이집에서 더 강조될 역할과 기능	○	○	-	
		유치원·어린이집 선택 시 고려사항	○	○	-	
	교사	유치원·어린이집 교사의 능력과 자질에 대한 신뢰 정도	○	○	-	
		유치원·어린이집 교사에게 우선적으로 필요한 능력	○	○	-	
	비용지원 정책	보육료·유아학비 등 육아비용 지원정책 인지 여부	○	○	-	
	아동학대 관련 의견	아동학대 예방 및 방지 방안		○	-	○
				○	-	○
	영유아 사교육 관련 의견	영유아 사교육 근본 원인		○	-	○
			사교육에 대한 미래 전망	○	-	○
	세금 추가 부담 의사	육아정책 관련 재정 확보를 위한 세금 추가 부담 의사		○	○	○
			추가세금 부담에 대한 반대 이유	○	○	○
	육아지원 정책 희망	현재 필요한 육아지원 정책		○	○	-
			정부의 출산 및 육아 지원 의견	-	●	○
			출산 및 육아 지원을 위해 바라는 정책	-	●	○
	일-가정 양립 의견	직장에서의 출산 및 육아 지원 의견		-	●	-
			일-가정 양립을 위한 육아지원 정책	○	○	-
	무상보육·교육 정책 만족도	무상보육·교육정책 만족도		○	○	○
			보육료·유아학비 불만족 시 불만족 이유	○	○	○
양육수당 불만족 시 불만족 이유			○	○	○	
저출산 정책에 대한 의견	저출산 대응 정책에 대한 중요도와 예상 정책효과	○	○	-		
추가 출산	출산·육아 비용지원 정책의 추가 출산 영향 여부	○	-	○		

영역	문항내용	상세내용	1차 (2017)	2차 (2018)	3차 (2019)
신규 정책 관련		다자녀 가구 관련 정책 의견	-	●	-
		영유아 대상 영어교육 금지 관련 의견	-	●	-
아동수당 도입에 관한 의견		아동수당 도입과 출산율과의 관계	○	○	-
		아동수당 도입 적정 금액 및 적정 연령	○	○	-
		아동수당 적정 대상 의견	-	○	-
보육료 지불방식		보육료를 바우처 형태로 지불하는 형태에 대한 인식	○	○	-
안전한 사회		영유아 자녀양육을 위한 안전한 사회 인식 정도	○	○	○
		영유아 자녀양육을 위한 사회 불안 요인	○	○	○
전반적 만족도		육아지원정책의 전반적 만족도	○	-	○

자료: 1) 김동훈·이재희·이혜민(2017). 행복한 육아문화 정착을 위한 KICCE 육아정책 여론조사(Ⅰ). 육아정책연구소. pp. 187-189.

2) 최은영·최효미·이혜민(2018). 행복한 육아문화 정착을 위한 KICCE 육아정책 여론조사(Ⅱ). 육아정책연구소. pp. 16-17.

수시조사의 경우는 영유아 부모 500명을 대상으로 한 긴급하게 발생하는 육아 관련 이슈에 대한 조사로 연도별로 1-2회 실시한다. 2017년도에는 영유아 보육·교육 서비스 정책, 가정 내 양육, 일·가정 양립 등과 관련하여 구체적인 실태를 파악하기 위한 문항을 구성하여 설문을 실시하였다. 2018년도에는 육아와 관련된 이슈(미세먼지 관련 정책, 영유아 영어교육, 아동수당 등) 발생에 따라 2회 조사하였다. 연도별 수시조사내용은 다음 <표 II-1-3>과 같다.

<표 II-1-3> KICCE POLL 1-2차년도 수시조사내용

년도	문항내용	연번	상세내용
1차년도 (2017)	영유아 보육·교육 서비스 정책 관련	1	적절한 기관 이용 시작 시기
		2	원하는 기관 이용 시간
		3	보육료 전계층 여부가 기관 이용 시기에 미친 영향
		4	교사 1인당 적절한 영유아 수 및 보육실 면적 의견
		5	국공립 기관 확대 계획 찬성여부
		6	직장어린이집 확대 계획 찬성여부
		7	기관 바우처 지급에 대한 의견
		8	어린이집, 유치원 만족도
		9	적절한 기관 기본이용시간 의견
		10	기본이용시간 외 추가 비용 부담 의사
		11	보육료 및 유아학비 지원수준 의견
	가정 내 양육	12	배우자 이외 자녀양육 참여
		13	부모교육 의무화 의견



년도	문항내용	연번	상세내용	
2차년도 (2018) 1차		14	양육지원센터 도입 의견	
		15	양육수당 지원 수준 의견	
		16	가정 내 양육을 위한 정부의 우선 정책	
	일·가정 양립	17	일·가정 양립을 위한 정부의 우선 정책	
		18	일·가정 양립 정책 중 보완이 필요한 부분	
		19	일·가정 양립에 대한 본인 직장 평가	
		20	영유아 가구에서 일·가정 양립을 위해 적절한 근로시간	
	2차년도 (2018) 2차	육아/육아문화	1	주관적인 육아 행복감
			2	육아 행복감이 낮은 이유
			3	육아 행복감이 높은 이유
4			다자녀 가구에 대한 일반적 인식	
5			다자녀 가구 관련 정책 의견	
영유아 생활환경: 미세먼지 관련 정책		6	미세먼지 발생 시 결석할 경우 보육료/ 유아학비 지원금 산정 관련 정책 인지 여부	
		7	미세먼지 발생 시 자녀 기관 등원 의견	
		8	미세먼지로부터 영유아 보호 방안 중 가장 원하는 방안	
영유아 영어교육		9	유치원·어린이집 영어 수업 금지에 대한 의견	
		10	영어수업 허용 의견에 대한 이유	
2차년도 (2018) 2차	영유아 자녀 돌봄	1	배우자 간 영유아 자녀 양육 및 가사 역할 분담 정도	
		2	자녀 양육 중 각종 역할 담당자	
		3	갑작스럽게 자녀를 돌보기 어려운 경우 도움 받는 사람	
	아동수당	4	아동수당 신청여부	
		5	아동수당 신청자격 인지 경로	
		6	아동수당 미신청 이유	
		7	아동수당 사용처	
		8	아동수당 자녀 양육 부담 완화 도움 예상 정도	
		9	아동수당 적정 수급 대상에 대한 의견	
	자녀와의 놀이	10	가구 구성원과 자녀가 놀이하는 시간	
		11	자녀가 혼자 놀이하는 시간	
		12	자녀의 놀이 충분성	
		13	자녀가 충분히 놀지 못하는 이유	
		14	영유아 놀이에 대한 정의	
유치원과 어린이집에서의 안전	15	유치원·어린이집 생활 안전성 의견		
	16	유치원·어린이집이 안전하지 않다고 생각하는 이유		
	17	유치원·어린이집 학대 의심 여부		
	18	유치원·어린이집 학대 의심 이유		
	19	유치원·어린이집에서 훈육을 위한 체벌 필요 의견		
	20	훈육으로서 체벌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이유		

자료: 1) 김동훈·이재희·이혜민(2017). 행복한 육아문화 정착을 위한 KICCE 육아정책 여론조사(Ⅰ). 육아정책연구소. p. 22.

2) 최은영·최효미·이혜민(2018). 행복한 육아문화 정착을 위한 KICCE 육아정책 여론조사(Ⅱ). 육아정책연구소. pp. 20-21.

## 2. 국내 육아관련 여론조사

### 가. 인구보건복지협회 인식조사<sup>1)</sup>

인구보건복지협회는 ‘출산 장려를 위한 환경조성과 국민의 건강을 추구하는 단체’로서 ‘저출산 인식개선 및 가족 친화적 출산양육 환경조성을 위해 대국민 홍보, 교육 사업 수행’과 ‘어린이, 여성 등 취약계층의 질병예방과 치료를 통해 생식보건과 건강증진에 기여’를 미션으로 하고 있다.<sup>2)</sup> 본 협회에서는 저출산 인식조사와 특정 주제와 관련된 수시 조사를 비정기적으로 실시하고 있으며 조사 내용은 결혼, 임신, 출산, 육아와 관련되어 있다. 2014년 이후 조사 개요는 다음 <표 II-2-1>과 같다.

<표 II-2-1> 인구보건복지협회 인식조사 개요

연도	조사명	조사 대상	조사 시기	조사 방법	조사 내용
2014	1차 저출산 인식조사	기혼남녀 1,843명	2014. 1. 14 - 19	모바일 조사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이상 자녀수/현재 자녀수</li> <li>• 계획보다 적게/많이 나온 이유</li> <li>• 후속출산 자녀수</li> <li>• 조부모의 손주 육아에 대한 인식</li> </ul>
	2차 저출산 인식조사	기혼남녀 1,586명	2014. 2. 21 - 25	모바일 조사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부부의 경제권 담당자</li> <li>• 비자금 마련 여부/이유</li> <li>• 가사 담당자</li> </ul>
	저출산 인식조사	기혼남녀 2,495명	2014. 12. 16 - 18	모바일 조사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결혼해서 가장 행복한/후회한 순간</li> <li>• 배우자의 조건</li> <li>• 이혼하고 싶은 이유</li> <li>• 2014년 나를 힘들게 한 것</li> <li>• 결혼생활 만족도</li> <li>• 2015년 목표</li> </ul>
	임산부 배려 인식 실천수준 조사	임산부 2,399명, 일반인 2,070명	-	-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임산부 배려 경험</li> <li>• 배려받지 못하는 이유</li> <li>• 임산부 배려 실천 수준</li> <li>• 임산부 배려를 위한 과제</li> </ul>

1) 본 항은 인구보건복지협회 홈페이지를 참조하여 작성함.(<http://www.ppfk.or.kr/main.asp> 2019. 3. 7. 인출)

2) 인구보건복지협회 홈페이지 협회소개-비전 참조.(<http://www.ppfk.or.kr/sub/company/vision.asp> 2019. 3. 7. 인출)

연도	조사명	조사 대상	조사 시기	조사 방법	조사 내용
2015	1차 저출산 인식조사	기혼남녀 1,725명	2015. 3. 30 - 4. 3	모바일 조사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만혼화 이유</li> <li>• 혼인율 상승에 필요한 것</li> <li>• 결혼 준비 비용</li> <li>• 결혼 비용 마련 방법</li> <li>• 결혼 준비시 힘든 점</li> </ul>
	2차 저출산 인식조사	20-40대 여성 1,069명	2015. 6. 2 - 5	모바일 조사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결혼 후 첫 임신까지 기간</li> <li>• 계획임신 여부</li> <li>• 임신 전 검진 종류</li> </ul>
	3차 저출산 인식조사	20-50대 부부 1,516명	2015. 10. 6 - 11	모바일 조사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부부간 하루 대화 시간/방해요소/만족도</li> <li>• 부부간 대화 주제</li> <li>• 배우자와의 결혼생활시 후회이유</li> <li>• 부부싸움 후 화해 방법</li> </ul>
	4차 저출산 인식조사	분만경험이 있는 20-40대 기혼여성 1,309명	2015. 11. 10 - 15	모바일 조사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산후우울감 경험</li> <li>• 산후우울증 원인</li> <li>• 산후우울증으로 인한 아이에 대한 태도</li> <li>• 산후우울증 극복을 위한 노력/지원</li> </ul>
2016	2차 저출산 인식조사	20-50대 남녀 910명	2016. 11. 9 - 11	모바일 조사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출산에 대한 육아예능 TV프로그램의 영향</li> <li>• 육아예능 TV프로그램의 현실적인 부분</li> <li>• 육아예능 TV프로그램의 장점</li> </ul>
2017	저출산 인식조사	20-59세 남녀 1,000명	2017. 7. 14 - 18	온라인 조사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저출산 체감 이유</li> <li>• 저출산 원인</li> <li>• 저출산이 생활에 미칠 영향</li> <li>• 저출산 해결가능성</li> <li>• 저출산 정책 인지도/효과성</li> <li>• 저출산 해결을 위한 정책</li> <li>• 부모보험제도의 필요성</li> </ul>
	저출산 인식조사	대학생 1,061명	2017. 6. 1 - 27	온라인 및 모바일 조사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취업희망 기업/희망연봉</li> <li>• 대출 경험/아르바이트 경험</li> <li>• 청년실업의 원인</li> <li>• 청년수당제도 찬성여부</li> <li>• 연애 시 부담요인/연애조건</li> <li>• 결혼의향/이유</li> <li>• 혼전임신과 결혼</li> <li>• 가족수용성</li> <li>• 희망 자녀수</li> <li>• 자녀양육의 조건/책임</li> <li>• 저출산에 대한 태도</li> <li>• 육아휴직 사용 의향</li> </ul>

연도	조사명	조사 대상	조사 시기	조사 방법	조사 내용
	육아휴직 사용실태 및 육구조사	남녀 육아휴직 경험자 각 200명	2017. 11. 24 - 12. 7	온라인 조사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육아휴직으로 인한 어려움</li> <li>• 육아휴직 사용기간</li> <li>• 육아휴직 결정 시 고민사항</li> <li>• 육아휴직 당시 필요한 도움</li> <li>• 육아휴직 당시 배우자의 양육·가사 참여/만족도</li> <li>• 육아휴직 시 좋았던 점</li> <li>• 육아휴직 경험 후 변화</li> <li>• 육아휴직 후 퇴사율/이유</li> <li>• 희망하는 육아휴직 기간/급여수준</li> <li>• 육아휴직 신청시 의무 육아교육에 대한 찬성여부</li> <li>• 육아휴직 시 활동 범위</li> </ul>
2018	임신경험으로 본 배려문화와 지원정책 조사	출산 경험이 있는 20~40대 임신부 401명	2018. 1. 1 - 8. 31	온라인 조사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계획임신 여부</li> <li>• 결혼 후 첫 임신까지 기간</li> <li>• 임신을 위한 준비 내용</li> <li>• 임신 전 검진 여부</li> <li>• 임신·출산·양육 정보 출처</li> <li>• 배우자 교육 필요성</li> <li>• 임신기동안 경험(우울증, 유산 등)</li> <li>• 배우자와의 가사분담</li> <li>• 배우자에 대한 불만족 이유</li> <li>• 임신시 직장 분위기</li> <li>• 직장인 임신부를 위한 제도</li> <li>• 임신부배려 엠블럼 사용 경험</li> </ul>
	양육미혼모 실태 및 육구조사	미취학 자녀를 양육하고 있는 미혼모 359명	2018. 4. 20 - 5. 8	온라인 조사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월평균 소득</li> <li>• 아이 아버지의 출산/양육 인지 여부</li> <li>• 아이 아버지의 경제적 지원</li> <li>• 산후우울증/양육우울증 경험</li> <li>• 양육의 어려움</li> <li>• 양육 스트레스</li> <li>• 사회의 차별 경험</li> <li>• 사회적 편견과 차별 개선을 위한 방안</li> <li>• 임신 중인 미혼모를 위한 조언</li> <li>• 향후 우리나라 미혼모 양육 환경의 전망</li> </ul>
	2019년 제1차 저출산인식조사	미취학 자녀 양육 2040세대 남성 1,000명	2019. 5. 10 - 13	온라인 조사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좋은 아버지에 대한 생각</li> <li>• 아빠역할 자기평가</li> <li>• 부모교육 경험 여부</li> <li>• 배우자 관계 만족도</li> <li>• 양육행태</li> <li>• 양육에 대한 자기평가</li> <li>• 양육시 어려웠던 점</li> </ul>

연도	조사명	조사 대상	조사 시기	조사 방법	조사 내용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일-생활균형상태로 인한 경험</li> <li>• 승진과 양육에 대한 선택</li> <li>• 남성 육아참여 활성화를 위한 지원</li> <li>• 대중매체상 아빠상에 대한 의견</li> </ul>
	2019년 제2차 저출산인식조사	20대 청년 1,000명 (남녀 각 500명)	2019. 10. 23 - 28	온라인 조사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취업상태, 거주형태</li> <li>• 주관적 경제상태</li> <li>• 아르바이트 경험</li> <li>• 결혼하면 생각나는 키워드</li> <li>• 비혼/혼족에 대한 이미지</li> <li>• 향후 결혼 의향, 이유</li> <li>• 우리나라 결혼제도에 대한 생각</li> <li>• 자녀하면 생각나는 키워드</li> <li>• 무자녀 부부에 대한 이미지</li> <li>• 향후 출산 의향, 이유</li> <li>• 애완(반려)동물 유무</li> <li>• 노키즈존에 대한 인식</li> <li>• 사회의 불공정함 경험 여부, 내용</li> <li>• 행복도, 행복 구성요소, 필요지원</li> <li>• 미래의 행복전망</li> </ul>

주: 현재 해당 홈페이지를 통해 작성한 자료임.  
 자료: 인구보건복지협회 홈페이지 자료실-보도자료 참조.([http://www.ppfk.or.kr/sub/data/report\\_material.asp](http://www.ppfk.or.kr/sub/data/report_material.asp) 2019. 3. 7.과 2019. 12. 10 인출)



### 3. 2019년 정부 육아정책 동향

#### 가. 문재인 정부 5개년 계획<sup>3)</sup>

문재인 정부는 ‘국민의 나라 정의로운 대한민국’을 국가비전으로 5대 국정목표를 수립하고, 이를 달성하기 위하여 20개 국정전략과 100대 국정과제를 선정하였다. 정부의 20대 국정전략 중 육아정책과 관련된 국정전략은 국정목표 ‘내 삶을 책임지는 국가’에 해당되는 국정전략 2. ‘국가가 책임지는 보육과 교육’, 전략 4. ‘노동존중·성평등을 포함한 차별 없는 공정사회’, 그리고 전략 5. ‘자유와 창의를 넘치는 문화국가’이다. 해당 국정과제 세부내용은 <표 II-3-1>과 같다.

[그림 II-3-1] 문재인 정부 국가비전-5대 국정목표-20대 국정전략-100대 국정과제

국가비전	국민의 나라 정의로운 대한민국				
5대 국정목표	국민이 주인인 정부	더불어 잘사는 경제	내 삶을 책임지는 국가	고르게 발전하는 지역	평화와 번영의 한반도
20대 국정전략	1. 국민주권의 촘촘한 민주주의 실현 2. 소통으로 통합하는 광화문 대통령 3. 투명하고 유능한 정부 4. 권력기관의 민주적 개혁	1. 소득 주도 성장을 위한 일자리경제 2. 활력이 넘치는 공정경제 3. 서민과 중산층을 위한 민생경제 4. 과학기술 발전이 선도하는 4차 산업혁명 5. 중소벤처가 주도하는 창업과 혁신성장	1. 모두가 누리는 포용적 복지국가 2. 국가가 책임지는 보육과 교육 3. 국민 안전과 생명을 지키는 안심사회 4. 노동존중·성평등을 포함한 차별 없는 공정사회 5. 자유와 창의를 넘치는 문화국가	1. 풀뿌리 민주주의를 실현하는 자치분권 2. 골고루 잘사는 균형발전 3. 사람이 돌아오는 농산어촌	1. 강한 안보와 책임국방 2. 남북 간 화해협력과 한반도 비핵화 3. 국제협력을 주도하는 당당한 외교
100대 국정과제 (487개 실천과제)	15개 과제 (71개 실천과제)	26개 과제 (129개 실천과제)	32개 과제 (163개 실천과제)	11개 과제 (53개 실천과제)	16개 과제 (71개 실천과제)

자료: 대한민국정부(2017). 100대 국정과제, p. 3. (국무조정실 국무총리비서실 홈페이지 <http://www.opm.go.kr/opm/info/government01.do>에서 2019. 3. 6. 인출)

3) 본 항은 대한민국정부(2017)의 「100대 국정과제」를 기초로 작성함.(국무조정실 국무총리비서실 홈페이지 <http://www.opm.go.kr/opm/info/government01.do>에서 2019. 3. 6. 인출)

〈표 II-3-1〉 문재인 정부 육아정책 관련 국정목표-전략-과제

국정목표	국정전략	국정과제(담당부처)	주요내용
내 삶을 책임지는 국가	전략 2 국가가 책임지는 보육과 교육	미래세대 투자를 통한 저출산 극복 (복지부)	(결혼·출산 친화 환경 조성) • '22년까지 공공임대주택의 30% 신혼부부 우선 공급, '17년부터 난임시술비 등 건강보험 적용, 출산지원금 도입방안 검토
			(보육·양육 지원 강화) • '18년부터 아동수당 지급(0~5세, 월 10만원), 매년 어린이집 대폭 확충하여 '22년 국공립 어린이집 이용률 40% 달성
			(일-가정양립 지원 강화) • '17년부터 첫 3개월 육아휴직급여 2배 인상, '18년부터 아빠 육아휴직 보너스 제도 도입 및 육아로 인한 근로시간 단축 지원(10to4 더불어 돌봄)
			(저출산 대책) • 저출산 대책에 대한 컨트롤타워 기능 강화
			(아동보호 종합지원체계 구축) • 학대아동, 입양아동, 요보호아동 등 지원에 대한 중앙과 지방의 컨트롤타워 기능과 공공성 강화 • '17년부터 빅데이터 활용 위기아동 조기 발견 시스템 구축 • 공공중심의 아동보호 종합지원체계 구축 및 아동보호 전문기관 기능 역할 재정비 중점 추진
		유아에서 대학까지 교육의 공공성 강화 (교육부)	(유아교육 국가책임 확대) • '18년 어린이집 누리과정 전역 국고지원, 국·공립 유치원 취학률 확대('17년 25%→'22년 40%)
			(유치원과 어린이집 격차 완화) • 교사·교육프로그램·교육시설 질 균등화 • 교사자질 향상과 교사처우 개선('18년), 전문교육과정 운영, 자격체계개편 추진(교육부·복지부)
			(온종일 돌봄체계 구축) • 온종일 돌봄교실을 초등학교 전 학년으로 점차 확대하고 내실화방안 병행 추진 • 부처 간(교육부, 복지부, 여가부 등), 지자체-교육청 간 협력을 통해 학교안·밖 온종일 돌봄체계 모델 개발·확산('17년~)
		교실혁명을 통한 공교육 혁신 (교육부)	(학생 중심 교육과정 개편) • 유아·초등학생 적정 학습시간 및 휴식시간 보장 법제화
		미래 교육 환경 조성 및 안전한 학교 구현 (교육부)	(선진국 수준 교육환경 조성) • 교사 1인당 학생 수를 OECD 평균 수준으로 개선, 비교과교사(유아·특수 등) 확충, 학교 비정규직 정규직화 및 처우 개선

국정목표	국정전략	국정과제(담당부처)	주요내용
			(학교 주변 교육환경 개선) • '18년 아동학대 조기 발견을 위한 시스템 간 연계, 교육환경보호구역 인근 도박시설에 대한 합리적 규제조치 마련('18년) • 유치원 안전교육 이수 의무화, 초등 생존수영 교육 연차적 확대 운영('17년 초등 3학년~5학년 → '20년 초등 전 학년)
	전략 4 노동존중·성평등을 포함한 차별 없는 공정사회	다양한 가족의 안정적인 삶 지원 및 사회적 차별 해소 (여가부)	(한부모가족 자립) • 한부모가족 아동양육비 및 지원연령 단계적 인상 확대 • 자립의지가 높은 청소년 한부모를 대상으로 자립 지원 패키지 도입 (양육비 이행 지원 강화) • 비양육자의 양육비 이행을 위한 소득재산 조회 등 제도 개선 (다문화가족 지원) • '다문화 자녀 성장지원 프로그램' 운영으로 다문화가족의 사회적 자립 도모 • 일반국민 대상 다문화 이해교육 확대 실시 (취약가족 지원) • 취약·위기가족 등 지원 서비스 확대로 가족해체 예방
		실질적 성평등 사회 실현 (여가부)	(성평등 의식문화 확산) • 성평등 교육 강화, 언론 미디어 종사자 및 공적 서비스 전달자 대상 성인지 교육 실시
	전략 5 자유와 창의가 넘치는 문화국가	휴식 있는 삶을 위한 일·생활의 균형 실현 (고용부)	(휴식 있는 삶 보장) • 근로시간 외 업무 지시 금지, 공휴일 민간 적용 및 1년 미만 근무 연차휴가 보장 등 일가정 양립을 위한 종합 개선방안 마련 (육아·돌봄 지원 확대) • '17년부터 첫 3개월 육아휴직급여 2배 인상, '18년에 육아휴직 보너스 제도 도입 등 인센티브 강화 추진 •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기간 확대를 위한 '10 to 4 더불어 돌봄', 질병·사고·노령 가족을 위한 가족돌봄휴직제도 등 추진

자료: 대한민국정부(2017). 100대 국정과제, pp. 65-67, 71, 82-83. 88.(국무조정실 국무총리비서실 홈페이지 <http://www.opm.go.kr/opm/info/government01.do>에서 2019. 3. 6. 인출)



## 나.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저출산·고령사회 정책 로드맵<sup>4)</sup>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는 2018년 12월 7일 「저출산·고령사회 정책 로드맵」을 확정·발표하였다. 이번에 발표한 내용은 문재인 정부의 첫 번째 저출산·고령사회 로드맵으로 출산 장려 위주의 정책에서 모든 세대의 삶의 질을 높이는 정책으로 패러다임을 전환하였다(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보도자료, 2018.12.6.: 3). 로드맵의 비전은 ‘모든 세대가 함께 행복한 지속가능사회’로 1)삶의 질 향상, 2)성 평등 구현, 3)인구변화 적극 대비를 목표로 설정하였다. 또한 기존의 백화점식 대책이라는 비판을 수용하여 기존의 3차 저출산·고령사회 기본계획(‘16-’20)을 핵심과제 위주로 재정비하여 3대 분야의 12대 과제를 제시하였다(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보도자료, 2018.12.6.: 3-4). 이를 도식화하면 다음의 [그림 II-3-2]와 같다.

[그림 II-3-2] 저출산·고령사회 정책 로드맵 추진개요



자료: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보도자료(2018. 12. 6). 아동, 2040 세대, 은퇴세대의 더 나은 삶 보장에 역량 집중. p. 4. <https://www.betterfuture.go.kr/PageLink.do> (2019. 3. 20 인출)

4)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보도자료(2018. 12. 6) ‘아동, 2040 세대, 은퇴세대의 더 나은 삶 보장에 역량 집중’을 기초로 작성함. <https://www.betterfuture.go.kr/PageLink.do> (2019. 3. 20 인출)

위원회는 이번 재구조화를 통하여 정책 추진 방향과의 정합성, 목표 달성 상 중요성, 정책의 시의성을 기준으로 과제를 평가하여 총 194개의 과제를 역량집중과제(35개), 계획관리과제(65개), 부처자율과제(94개)로 분류하였다(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보도자료, 2018.12.6: 5). 육아와 관련된 역량집중과제의 로드맵을 3차 기본계획이 종료되는 2020년까지의 1단계와 4차 기본계획 추진 시기인 2025년까지의 2단계로 구분하여 제시한 내용을 정리하면 다음의 표와 같다(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보도자료, 2018.12.6.: 6). 육아와 관련된 정책은 3대 분야 중 ‘함께 돌보고 함께 일하는 사회’에 해당된다.

〈표 II-3-2〉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저출산·고령사회 정책 로드맵’ - 육아정책

분야	12대 핵심과제	역량집중과제 주요내용		
		역량집중과제	1단계(~2020)	2단계(2021~2025)
함께 돌보고 함께 일하는 사회	(비용) 출산·양육비 부담 최소화	출산·양육비 부담	부담을 낮추고 유자녀 가구에 대해서 집중 지원	
		아동수당	6세 미만('19. 4월)→7세 미만('19. 9월), 전계층지원('19. 4월)	아동수당 확대 사회적 논의
		영유아 의료비 제로화	1세 미만 아동의 의료비 경감('19), 국민행복카드 금액 인상(50→60만원)	조산아·미숙아 건강보험 본인부담 10→5%, 중증질환에 걸린 소아청소년 환자 대상 재택의료서비스 제공, 초등학교 입학 전까지 의료비 부담 최소화
		안전한 출산		난임에 대한 지원 확대(건강보험 본인부담 비율 인하, 건강보험 적용연령 확대), 고위험 출산 진료를 위한 전문인력 확충, 미숙아·조산아 등에 대한 건강보험수가, 분만전후 관리수가 가산 개선
		건강 관리 강화	산모·신생아 건강관리서비스 지원대상 확대('19: 기준중위소득 80%→100%)	
		다자녀 지원 확대		3자녀 이상에서 2자녀부터로 변경
		출산휴가급여 사각지대 해소	고용보험 적용대상이 아닌 단시간 근로자, 특수고용직, 자영업자 등에게 월 50만원의 출산지원금 지급('19)	

분야	12대 핵심과제	역량집중과제 주요내용		
		역량집중과제	1단계(~2020)	2단계(2021~2025)
(시간) 아이와 함께하는 시간 최대화	국민연금 출산크레딧 개편		출산크레딧을 둘째아에서 첫째아부터 지원하는 방안 논의	
	사회적 캠페인 전개		범국가적 캠페인 전개	
	근로시간 단축		사용기간 확대(임신초기 및 말기→임신기 전 기간, 육아 휴직과 합산하여 최대 1년→최대 2년 및 임금지원 확대), 근로시간 단축 청구권 도입	
	근로자의 휴식 시간 보장		연차휴가 사용 활성화, 정시퇴근 문화 확산, 퇴근 후 업무연락 자제 등 근로자가 휴식할 수 있는 시간을 충분히 보장하는 문화 확산	
	남성의 육아참여 확대		배우자 출산휴가 확대(유급 3일→10일)(*19 하반기), 일·생활 균형 중소기업 확산	
	일·생활 균형 기업문화 확산		가족친화인증기업 등 일·생활 우수기업 인센티브 지원 강화, 근로 감독 강화, 인식개선을 위한 캠페인 집중 추진	
(돌봄) 촘촘하고 안전한 돌봄체계 구축	육아휴직제도 개편		육아휴직 기간 중 건강보험료 부담 경감: 휴직 전 보수월액(250만원 상한)을 기준으로 산정한 보수월액보험료에서 60% 경감한 금액→직장가입자 보수월액보험료 하한액(*19)	육아휴직 초기에 휴직급여를 충분히 받을 수 있도록 계단식으로 개편
	영유아 보육·교육의 공공성 강화		국공립 어린이집·유치원(1,000개 학급 신·증설, ~'19)을 조기에 확충: 신증설, 매입, 장기임대, 아파트(500세대 이상) 건설시 국공립시설 설치의무화, 공영형 사립유치원/부모협동형 유치원 등 다양한 방식 활용, 직장어린이집 설치의무 사업장도 확대(상시근로자 500인 이상, 여성근로자 300인 이상→상시근로자 300인 이상)(*19)	보육교사 등 인력배치 확대, 12시간기본인 보육지원구조를 '기본 + 연장보육' 체계로 재구성, 보육교사 자격체계 개편 추진(1·2급 중심 개편 및 학과제 도입 추진, 보수교육 커리큘럼 다양화)
	온종일 돌봄			초등학생 온종일 돌봄체계를 안정적으로 정착시키고 질 관리를 강화: 학교-지자체 협력, 초등돌봄 '22년까지 20만명 추가 확대(현 33만명 → '22년 53만명)

분야	12대 핵심과제	역량집중과제 주요내용		
		역량집중과제	1단계(~2020)	2단계(2021~2025)
		가정 내 돌봄 지원	민간 돌봄비를 포함한 아이돌봄 종사자에 대한 국가자격제도 도입을 추진: 국가자격제도 도입 관련 연구용역 실시('19), 아이돌봄지원법 개정, 원활한 수요·공급 연계를 위하여 「실시간 신청·대기관리 시스템」 과 모바일 어플리케이션을 구축·운영 (~'20)	아이돌봄서비스 이용가구 (9만→18만, '22)와 활동하는 아이돌보미 수(2만→4만, '22)를 2배로 확대, 아이돌보미 수당 인상 등 처우를 개선(돌봄수당 시간당 7,800→8,400 인상, 주휴·연차·연장근로수당 등 법정수당 지급), 아이돌보미를 광역 단위로 통합 관리하는 방안을 검토: (가칭)가족센터, 아이돌봄 사업 체계를 전면 개편: 민간 서비스(신원보증, 교육) 연계 등 사업 체계 변경 추진
		지역 협력체계 구축	지역단위 서비스 지원을 한 눈에 알 수 있는 종합플랫폼을 구축하고 각종 지원서비스를 연계하는 네트워크 확충 (지역 내 코디네이터 기관을 중심으로 기존 자원 연계·조정, 생활 SOC를 활용한 도심 내 거점 놀이공간 확충 추진)	
		아동이 안전한 환경	위기가동을 조기에 발견하기 위하여 사례관리 강화, 국가 중심으로 아동보호체계 재편 등 아동 학대 예방 체계도 강화(지자체 전담인력 추가 배치, 위기가동 발굴·보호 및 서비스 연계 위주로 기능 개편)	
(문화) 혼인, 출산 여부와 관계없이 모두 담당할 수 있는 사회	모든 아동이 차별없이 보호받을 수 있는 여건 마련	비혼 출산·양육에 차별을 야기하는 불합리한 법제 개선 ('19)	출생통보(등록)제와 함께 (가칭)보호출산제 도입	
	포용적이고 평등한 가족문화 조성	한부모 가족의 아동양육비 확대, 육아휴직 사용기간 연장 등 한부모 가족에 대한 지원 확대, 난임시술 지원 대상을 비혼자까지 확대		
(기반) 2040세대의 안정적인 삶의 기반(일·주거·	차별없는 일자리: 남녀 평등한 노동환경 마련	공공기관, 편의시설 등에서 임신부 편의를 증진하는 방안을 마련(공공기관, 대중시설 등의 fast-track, 임신부 배려석 및 엠블럼 확대), 지자체의 우수한 아동친화도시 모델을 전국으로 확산, 노키즈 존 등 아동 배타적 문화를 "통합적 문화"로 전환하는 캠페인 추진, 미혼모·부의 일상 속 차별을 개선하고 다문화 가족을 포용하는 문화 확립, 부부재산의 실질적 평등 구현 등 평등한 가족문화 조성		
	맞춤형	경력단절 예방을 위해 육아휴직 후 회사에 다시 복귀하는 경우 인건비 세액공제(1년간 10%, 중견기업 5%) 신설		
			안정된 양육환경을 갖춘 공공주택 공급을 강화: 임대주택	

분야	12대 핵심과제	역량집중과제 주요내용		
		역량집중과제	1단계(~2020)	2단계(2021~2025)
	교육 조성	주거지원	공급평형 확대, 국공립어린이집/공동육아나눔터 등 돌봄 공간을 갖춘 신혼부부 특화단지 조성(행복주택 공급평형 확대-36㎡ 위주→ 44/59㎡ 확대, 국민임대·행복주택 특화단지 조성, 매입임대주택 돌봄공간 설치, 도시재생뉴딜 사업지 내 돌봄서비스 연계 등), 신혼부부의 내 집 마련이 수월하도록 저렴한 신혼희망타운 공급(법정 기준보다 2배 넓은 어린이집 등을 설치하는 신혼희망타운 15만호 공급)(*18~22)	
		교육 혁신	학생 개개인의 역량을 최대한 키워주는 양질의 공교육 제공, 초등학교 입학 초기부터 누구나 쉽게 학업에 적응할 수 있도록 기초·기본교육 집중 지원, 놀이연계수업 등 활동중심수업 확대·운영, 기초생활수급가구 교육급여 대폭 인상(*19)을 통해 저소득층에 대한 교육의 기회 보장 강화: (초)116천원→ 203천원, (중·고)162천원→ 290천원(고교 학비 별도 지원)	

자료: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보도자료(2018. 12. 6). 아동, 2040 세대, 은퇴세대의 더 나은 삶 보장에 역량 집중. pp. 6-15. <https://www.betterfuture.go.kr/PageLink.do> (2019. 3. 20 인출)

### 다. 보건복지부 2019년 포용국가 아동정책 추진 방향<sup>5)</sup>

보건복지부는 2019년을 ‘아동에 대한 국가책임 확대의 원년’으로 선포하기 위해 종합대책을 마련하고, 지난 2월 19일 이 같은 내용이 포함된 ‘포용국가 아동정책 추진방향’을 발표하였다(보건복지부 보도자료, 2019.2.19: 2). 본 정책은 ‘아동에 대한 국가책임 확대를 통해 혁신적 포용국가 실현’을 기본방향으로 하며 1) 아동 양육지원, 2) 건강증진, 3) 취약아동보호 등을 중심으로 한 추진과제를 포함하고 있다. 포용국가 아동정책의 방향 개념도는 다음과 같다(보건복지부 보도자료, 2019.2.19: 3).

5) 보건복지부 보도자료(2019. 2. 19) ‘포용국가의 주춧돌인 아동에 대한 국가 책임을 더욱 확대한다’와 보건복지부(2019)의 ‘포용국가 아동정책 추진 방향’을 기초로 작성함. [http://www.mohw.go.kr/react/al/sal0301vw.jsp?PAR\\_MENU\\_ID=04&MENU\\_ID=0403&page=1&CONT\\_SEQ=347826](http://www.mohw.go.kr/react/al/sal0301vw.jsp?PAR_MENU_ID=04&MENU_ID=0403&page=1&CONT_SEQ=347826) (2019. 3. 20. 인출)

[그림 II-3-3] 포용국가 아동정책의 방향 개념도



출처: 보건복지부 보도자료(2019. 2. 19). 포용국가의 주춧돌인 아동에 대한 국가 책임을 더욱 확대한다. p. 3.

2019년 아동 정책의 주요 계획은 다음의 <표 II-3-3>과 같다.

<표 II-3-3> 보건복지부 ‘포용국가 아동계획’ 2019년 추진계획

목표	추진과제
양육·돌봄	(아동 돌봄 인프라 확충 및 아동수당 확대 추진) • (3월) 국공립 어린이집, 초등돌봄교실 등 아동 돌봄 인프라 우선 확충 - 국공립어린이집 322개, 국공립유치원학급 692개, 초등 방과 후 돌봄 (초등돌봄교실 1,200여실, 다함께돌봄센터 100여 개소) 확충 • (6월) 어린이집 평가 인증제도 의무화 • (9월) 아동수당 7세 미만으로 확대, 500세대 이상 공동주택 국공립어린이집 설치 의무화 • (12월) 아동 돌봄 인프라 지속 확대 설치 - 국공립어린이집 685개, 국공립유치원 1,080학급, 초등 돌봄교실 1400여실, 다함께돌봄센터 150개소 신설(3월까지 개소한 시설 포함)
아동건강	(아동의료비 부담 경감 등 추진) • (1월) 0세 아동 의료비 경감 대책 시행 - 임신출산 국민행복카드 지원 10만원 인상, 0세 외래진료비 본인부담 인하 • (3월) 제1차 학생건강증진 5개년 기본계획 수립 및 발표(예정)
아동보호	(아동보호 전달체계 혁신 등 아동보호종합지원체계 구축) • (4월) 아동정책영향 평가제도 시행, 보호종료아동에게 매월 30만원 자립수당 지급 • (6월) 보호 중인 경계선지능아동을 위한 맞춤형 자립지원서비스, 보호종료아동 주거지원 통합서비스 사업 추진 • (7월) 아동권리보장원 출범 (학대 및 입양 등 아동권리 보호 강화)

자료: 보건복지부(2019). 포용국가 아동정책 추진 방향. p. 7. [http://www.mohw.go.kr/react/al/sal0301vw.jsp?PAR\\_MENU\\_ID=04&MENU\\_ID=0403&page=1&CONT\\_SEQ=347826](http://www.mohw.go.kr/react/al/sal0301vw.jsp?PAR_MENU_ID=04&MENU_ID=0403&page=1&CONT_SEQ=347826) (2019. 3. 20. 인출)

라. 교육부 2019년 계획6)

교육부는 2018년 12월 ‘모두를 포용하는 사회, 미래를 열어가는 교육’이라는 주제로 2019년 업무계획을 보고하였으며, ‘교육현장의 신뢰도 제고’와 ‘사람 중심 미래교육 실현’을 중점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세부계획 중 유아교육과 관련된 계획은 다음과 같다.

〈표 II-3-4〉 교육부 2019년 계획-유아교육정책

목표	세부목표	주요 추진내용
교육현장의 신뢰도 제고	비위당사자 엄정 대응 및 교육비리 근절	(교육비리 근절 전담조직 설치 및 공익신고 활성화) • 유·초·중·고 및 대학 감사결과를 학교명까지 실명 공개하여 학교현장의 자정 노력 강화 및 투명성 제고 - 유치원: 감사결과 실명 공개(18.10)
사람중심 미래교육 실현	평등한 출발선 보장	(질 높은 국·공립 유치원 확대) • '21년까지 국·공립 유치원 40% 달성('19. 1.080개 학급 신설)을 통해 학부모가 학비 부담 없이 믿고 맡길 수 있는 유아 교육기관 확충 • 돌봄 확대 등 현장수요를 반영하여 국·공립 유치원 서비스 개선 - 통학권역 넓은 유치원 및 농어촌, 집단 폐원·모집보류 지역 중심 통학차량 우선지원 원칙, 돌봄 필요 자녀의 방학 중 돌봄 및 학기 중 오후 돌봄 참여 보장 등 • 유아·놀이 중심의 유치원 교육과정 개정('19.하)을 통해 유치원 현장의 자율성과 창의성 확대 및 놀이교육 문화 조성 및 확산 - 혁신 유치원: '18. 36개 → '19. 60개 - 방과후 놀이유치원: '18. 51개 → '19. 500개 - 미취원 유아 학부모 대상 놀이중심교육 사례 및 누리과정 안내서 제공('19) (교육비 부담 경감) • 사립유치원 유아학비 추가 지원 - 저소득층의 유아교육기관 선택권 보장을 위해 저소득층 유아 대상 사립유치원 유아학비(학부모부담금) 10만원 추가 지원('19.3월~)

자료: 교육부(2018). 2019 교육부 업무보고-모두를 포용하는 사회, 미래를 열어가는 교육. pp. 7-8, 10. <https://www.moe.go.kr/boardCnts/view.do?boardID=294&boardSeq=76150&lev=0&searchType=S&statusYN=C&page=1&s=moe&m=020402&opType=N> (2019. 3. 20. 인출)

6) 교육부 보도자료(2018. 12. 11) '2019년 교육부 업무보고-모두를 포용하는 사회, 미래를 열어가는 교육'과 교육부(2018)의 '2019 교육부 업무보고-모두를 포용하는 사회, 미래를 열어가는 교육'을 기초로 작성함. <https://www.moe.go.kr/boardCnts/view.do?boardID=294&boardSeq=76150&lev=0&searchType=S&statusYN=C&page=1&s=moe&m=020402&opType=N> (2019. 3. 20. 인출)

### 마. 여성가족부 2019년 계획<sup>7)</sup>

여성가족부는 2018년 12월 ‘다양성을 존중하는 성평등 포용사회’를 정책비전으로 2019년 업무계획을 보고하였다. 5개 중점 과제 중 ‘가족의 다양성을 존중하는 사회 실현’ 과제의 세부 내용 중 육아정책 내용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표 II-3-5〉 여성가족부 2019년 계획-육아정책

중점과제	세부내용 및 이행계획
가족의 다양성을 존중하는 사회 실현	<p>(다양한 가족에 대한 차별적 제도와 인식 개선)</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가족형태의 다양성을 존중하는 제도적 기반 마련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다양한 가족을 포괄하는「건강가정기본법」전면 개정 추진</li> <li>- 관련부처와 협력하여 출산·양육과 가족관련 차별적 법·제도 정비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친부 등이 자녀를 사후인지 하더라도 종전 성(姓) 사용, 출생 신고 시 혼중-혼외자 구별 폐지, 자녀 성(姓)결정은 출생신고 시 부모협의원칙, 한부모 육아휴직 개선 등</li> </ul> </li> <li>- 동거가족·1인 가구 등 다양한 가족에 대한 실태파악을 위한 통계생산 기반 마련 (통계청)</li> </ul> </li> <li>• 보편적 가족서비스 제공을 위한 지원 체계 개편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건강가정지원센터·다문화가족지원센터를 지역 특성에 맞는 가족센터로 개편하여, 아동·여성 등 가족서비스 관련 중추기관의 역할 수행</li> <li>- 다양한 가족의 문제를 원스톱으로 상담·연계하는 가족전용상담정보체계(‘가칭 가족콜’) 구축</li> </ul> </li> <li>• 가족 다양성에 대한 인식개선과 평등한 가족문화 조성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다양한 가족에 대한 차별 사례를 발굴하여 제도 개선하고, 다문화·한부모가족 등에 대한 인식개선 교육과 홍보 강화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공무원, 산부인과 전문가, 교사 등 대상으로 교육, 미디어 모니터링 강화</li> </ul> </li> <li>- 시민단체, 전문가, 이해 당사자 등이 참여하는 사회적 논의기구를 구성하여 다양한 가족의 포용성 제고를 위한 공론화 추진</li> <li>- 평등한 가족문화를 위해 가족평등지수 개발 추진</li> </ul> </li> </ul> <p>(아이를 건강하게 키울 수 있는 양육 환경 조성)</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아이돌봄 서비스 질을 높이고, 자녀 육아부담 완화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아이돌봄 서비스 정부 지원시간 및 대상 확대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18년) 연 600시간, 중위소득 120% 이하(지원비율 30~80%)</li> <li>→ (‘19년) 연 720시간, 중위소득 150% 이하(지원비율 55~85%)</li> </ul> </li> <li>- 아이돌봄 서비스의 미스매칭 문제를 해소하고, 이용자 편의를 높이기 위해 실시간 신청·대기관리시스템과 아이돌봄 서비스 앱 개발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실시간 대기 순번, 서비스 연계 예상 시기 등 현황 파악, 실시간 만족도 평가 등</li> </ul> </li> <li>- 서비스에 대한 신뢰도를 높이기 위해 아이돌봄미 국가자격 제도 도입을 추진하고, 민간 베이비시터 서비스와 연계 방안 검토</li> </ul> </li> </ul>

7) 여성가족부(2018) ‘2019 여성가족부 업무보고’를 기초로 작성함.  
[http://www.mogef.go.kr/as/asl/as\\_asl\\_s001.do](http://www.mogef.go.kr/as/asl/as_asl_s001.do) (2019. 3. 20. 인출)



중점과제	세부내용 및 이행계획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아이돌보미에 대한 근로자로서의 권리 보장 등 처우개선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시간당 급여: ('18년) 7,800원 → ('19년) 9,650원(돌봄수당 8,400원 + 주휴수당)</li> </ul> </li> <li>- 자녀에 대한 육아부담을 완화하고, 지역의 돌봄 공동체 활성화를 위해 공동육아 나눔터 확대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공동육아나눔터: ('18년) 205개소 → ('19년) 276개소</li> </ul> </li> <li>• 미혼모, 한부모가족에 대한 실질적 지원 강화와 양육부담 완화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한부모 자녀 아동양육비 지원연령 및 금액 확대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18년) 만 14세 미만, 연156만원(청소년한부모 연 216만원)</li> <li>→ ('19년) 만 18세 미만, 연 240만원(청소년한부모 연 420만원)</li> </ul> </li> <li>- 시설입소 미혼모·한부모의 일·학업 등 자립 지원을 위해 시설파견 아이돌보미 신규 지원</li> <li>- 미혼모·한부모가족의 주거지원을 위한 매입임대주택 확대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매입임대주택: ('18년) 145개소 → ('19년) 159개소</li> </ul> </li> <li>- 한부모가족 양육비 지원 대상 확대 등 관련 제도개선 추진</li> <li>- 청소년한부모에게 낙인효과 없이 학습권을 보장하기 위해 지역에 상관없이 위탁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위탁교육기관 선택권 확대</li> </ul> </li> <li>• 비양육부·모의 자녀양육에 대한 책임성을 제고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비양육부·모 주소·근무지 조회절차를 개선하고, 면접교섭 활성화</li> <li>- 양육비채무자 제재조치 강화 추진</li> </ul> </li> </ul>

자료: 여성가족부(2018). 2019 여성가족부 업무보고. pp. 5-7. [http://www.mogef.go.kr/as/asl/as\\_asl\\_s001.do](http://www.mogef.go.kr/as/asl/as_asl_s001.do) (2019. 3. 20. 인출)





# III

## 3차년도 KICCE 여론조사 결과

- 01 부모됨에 대한 여론
- 02 결혼 및 자녀 양육관에 대한 여론
- 03 육아행복감에 대한 여론
- 04 육아정책 인식 및 방향에 대한 의견
- 05 소결



### Ⅲ. 3차년도 KICCE 여론조사 결과

#### 1. 부모됨에 대한 여론

##### 가. 부모됨의 인식 및 가치

〈표 Ⅲ-1-1〉은 부모됨에 대한 일반적 인식을 조사한 결과로, 조사대상에게 부모됨과 관련된 7가지의 문장을 제시하고 응답자의 생각과 일치하는 정도에 응답하게 하였다.

우선 ‘부모가 된다는 것은 행복하고 기대되는 일이다’에 대한 동의 정도의 경우 4점 척도에서 3.22점으로 비교적 높았다. 응답자 특성별로 구분하여 살펴보면, 여성보다는 남성이, 연령이 높을수록, 미혼보다 결혼한 경우, 자녀가 있는 경우에 부모 역할로서의 가치를 보다 긍정적으로 평가하였다. 소득별로 살펴보면 가구소득 60% 미만 집단과 타 집단 간의 차이가 나타난 소득이 낮은 집단의 부모됨에 대한 인식이 다소 떨어졌다.

‘자녀를 낳기 전에 부모가 되기 위한 교육이 꼭 필요하다’에 대한 동의 정도의 경우 3.53점으로, 본 문항에서 주어진 7개의 각 문장 중 가장 높은 동의 정도를 나타냈다. 남성보다는 여성의 동의 정도가 높고, 젊은 연령층의 부모교육 필요성에 대한 인식이 다소 높았다. 또한 결혼한 경우보다 미혼인 경우, 자녀가 있는 경우보다는 없는 경우에 동의 정도가 높게 나타났다.

‘부모가 되기 위해서는 경제적으로 준비가 되어 있어야 한다’의 경우에도 4점 평균에서 3.47점으로 높은 동의 비율을 나타냈다. 남성보다는 여성이, 노년층보다는 10~30대의 젊은 연령대에서 부모로서 경제적 준비에 대하여 더 높은 필요성을 나타냈다. 또한 지역규모가 큰 곳에 거주하는 응답자가 읍면지역 거주 응답자보다 경제적 준비의 필요성에 더 공감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결혼한 경우보다 미혼인 경우에, 그리고 자녀가 있는 경우보다 없는 경우에 경제적 준비에 있어 높은 동의 정도를 나타냈다.

‘자녀가 영유아일 때에는 부모가 자녀를 직접 돌보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문장의 경우에도 3.30점으로 높은 동의 정도를 보였다. 20~30대의 젊은 층보다는 40대 이상의 연령에서 영유아 자녀는 부모가 직접 돌봐야 한다는 응답이 높게 나타났다.

‘자녀양육을 믿고 맡길 수 있는 사람이 있다면 부모가 꼭 양육을 전담할 필요는 없다’는 문장의 경우 동의정도는 2.68점(4점 만점)으로, 남성보다는 여성이, 영유아 자녀가 있는 경우 자녀 양육을 꼭 부모가 할 필요는 없다는 인식이 상대적으로 컸다.

‘부모는 자신의 행복을 희생해서라도 자녀를 위해 최선을 다하는 것이 도리이다’라는 문장의 경우에도 동의정도는 2.89점(4점 만점), 여성보다는 남성이, 20~30대보다는 장·노년층에서 부모자신의 행복을 희생해서라도 자녀를 위해 최선을 다하는 것이 도리라는 인식이 높았다.

마지막으로 ‘부모가 되는 것은 내 인생 최대의 도전이다’의 경우 평균 3.0점으로 나타났다. 남성이 여성보다, 연령대가 높을수록, 미혼인 경우보다 기혼인 경우에 이에 대한 동의 점수가 높았다.

〈표 III-1-1〉 부모됨 관련 동의 정도

단위: 점

구분	부모가 된다는 것은 행복하고 기대되는 일이다	자녀를 낳기 전에 부모가 되기 위한 교육이 꼭 필요하다	부모가 되기 위해서는 경제적으로 준비가 되어있어야 한다	자녀가 영유아일 때에는 부모가 자녀를 직접 돌보는 것이 바람직하다	자녀양육을 믿고 맡길 수 있는 사람이 있다면 부모가 꼭 양육을 전담할 필요는 없다	부모는 자신의 행복을 희생해서라도 자녀를 위해 최선을 다하는 것이 도리이다	부모가 되는 것은 내 인생 최대의 도전이다
전체	3.22	3.53	3.47	3.30	2.68	2.89	3.00
성별							
남자	3.29	3.42	3.42	3.32	2.62	3.00	3.03
여자	3.15	3.64	3.53	3.28	2.74	2.77	2.97
t	5.35***	-10.89***	-5.01***	1.95	-4.74***	8.78***	1.97*
연령							
15~19세	2.92	3.56	3.65	3.21	2.66	2.79	2.84
20대	2.89	3.61	3.66	3.24	2.66	2.63	2.89
30대	3.19	3.54	3.52	3.14	2.74	2.83	2.97
40대	3.28	3.50	3.45	3.30	2.69	2.91	3.01
50대	3.35	3.52	3.39	3.38	2.63	3.02	3.07
60대 이상	3.43	3.48	3.33	3.42	2.69	3.07	3.11
F	50.11***	4.17**	26.03***	16.86***	1.45	28.70***	6.15***

구분	부모가 된다는 것은 행복하고 기대되는 일이다	자녀를 낳기 전에 부모가 되기 위한 교육이 꼭 필요하다	부모가 되기 위해서는 경제적으로 준비가 되어있어야 한다	자녀가 영유아일 때에는 부모가 자녀를 직접 돌보는 것이 바람직하다	자녀양육을 믿고 맡길 수 있는 사람이 있다면 부모가 꼭 양육을 전담할 필요는 없다	부모는 자신의 행복을 희생해서라도 자녀를 위해 최선을 다하는 것이 도리이다	부모가 되는 것은 내 인생 최대의 도전이다
<b>지역규모</b>							
서울특별시	3.23	3.54	3.50	3.28	2.71	2.86	2.96
광역시/특별자치시	3.22	3.55	3.49	3.30	2.64	2.90	3.04
중소도시	3.21	3.52	3.47	3.30	2.69	2.90	3.01
군(읍면지역)	3.20	3.51	3.35	3.34	2.68	2.82	2.96
F	0.09	0.49	2.67*	0.38	1.23	0.90	1.37
<b>혼인 여부</b>							
미혼	2.83	3.58	3.61	3.26	2.66	2.61	2.83
배우자 있음	3.40	3.51	3.41	3.30	2.69	3.01	3.08
배우자 없음	3.22	3.50	3.46	3.45	2.70	3.05	3.10
F	240.87***	4.95***	41.34***	6.71**	0.58	100.25***	33.66***
<b>자녀 유무</b>							
유	3.41	3.51	3.41	3.32	2.69	3.03	3.10
무	2.86	3.57	3.60	3.26	2.66	2.61	2.83
t	22.21***	-2.98**	-9.51***	2.41*	1.02	14.74***	8.29***
<b>영유아 자녀유무</b>							
유	3.42	3.47	3.45	3.08	2.75	3.03	3.10
무	3.40	3.52	3.39	3.40	2.67	3.03	3.09
t	0.68	-1.87	2.25*	-9.63***	2.24*	0.05	0.28
<b>취업여부</b>							
취업	3.24	3.52	3.47	3.29	2.68	2.89	3.01
미취업	3.17	3.56	3.49	3.32	2.67	2.89	2.99
t	2.30*	-1.85	-0.70	-10.9	0.45	0.06	0.58
<b>맞벌이 유무</b>							
맞벌이	3.40	3.53	3.45	3.27	2.72	2.98	3.08
외벌이	3.40	3.48	3.37	3.34	2.65	3.03	3.08
t							
<b>가구소득</b>							
60% 미만	3.06	3.50	3.47	3.31	2.63	2.88	3.01
60 - 80% 미만	3.26	3.48	3.49	3.30	2.74	2.90	3.00
80 - 100% 미만	3.21	3.54	3.47	3.25	2.63	2.86	2.98
100 - 120% 미만	3.28	3.55	3.45	3.36	2.64	2.96	2.99
120 - 140% 미만	3.28	3.56	3.51	3.31	2.70	2.85	3.07
140 - 160% 미만	3.25	3.57	3.44	3.23	2.75	2.86	2.99
160% 이상	3.27	3.57	3.49	3.27	2.73	2.86	3.00
F	7.09***	1.86	0.60	20.8	20.53	1.30	0.41

주: 1) 가구소득은 2017년 2/4분기 통계청 가계동향조사의 월평균 가구소득(4,346,500원)을 100%로 한 것임.

2) '전혀 동의하지 않음(1점)~전적으로 동의함(4점)'으로 산출한 결과임.

\*  $p < .05$ , \*\*  $p < .01$ , \*\*\*  $p < .001$ .

〈표 III-1-2〉는 부모의 자녀에 대한 일반적 역할과 자녀의 부모에 대한 도리 등 상호 역할에 대한 조사결과이다. 전체적으로 조사대상자들은 부모의 역할을 ‘자녀가 성공할 수 있도록 앞에서 이끌어주는 사람’이라고 생각하기 보다는 ‘자녀의 뒤에서 묵묵히 도와주는 사람’이라고 생각하는 경향이 크게 나타났다. 전체 응답자의 69.4%가 부모의 역할을 뒤에서 자녀를 도와주는 것이라 인식하였고, 각 독립변수간의 통계적 유의성은 나타나지 않았다.

부모에 대한 자녀의 생각의 경우, ‘부모가 키워주고 지원해준 것에 대해 자녀가 나중에 보답해야 한다’ 보다는 ‘자녀를 키워주고 지원해 주는 것은 부모로서의 의무이므로 자녀가 부담가질 필요가 없다’는데 동의하는 정도가 높았다. 특히 연령에 따른 응답 차이가 크게 나타났는데, 10대의 경우 59.7%가 부모가 키워주고 지원해준 것에 대해 자녀가 나중에 보답해야 한다고 응답하였으나, 40~50대의 경우 20%의 적은 비율이 이에 동의하였다. 또한 혼인유무, 자녀유무, 취업여부, 가구소득에 따라서 응답비율에 차이가 있었다.

〈표 III-1-2〉 부모와 자녀의 역할에 대한 인식

단위: %, (명)

구분	부모의 역할		자녀의 역할		수
	부모는 자녀를 뒤에서 묵묵히 도와주는 사람이다	부모는 자녀가 성공할 수 있도록 앞에서 이끌어주는 사람이다	부모가 키워주고 지원해준 것에 대해 자녀는 나중에 보답해야 한다	자녀를 키워주고 지원해 주는 것은 부모로서의 의무이므로 자녀가 이에 대해 부담가질 필요가 없다	
전체	69.4	30.6	28.9	71.1	(3,000)
성별					
남자	69.0	31.0	29.6	70.4	(1,522)
여자	69.9	30.1	28.2	71.8	(1,478)
$\chi^2(df)$	0.3(1)		0.7(1)		
연령					
15~19세	72.6	27.4	59.7	40.3	(62)
20대	69.6	30.4	46.0	54.0	(619)
30대	68.6	31.4	26.9	73.1	(510)
40대	68.0	32.0	19.8	80.2	(600)
50대	69.3	30.7	22.6	77.4	(623)
60대 이상	71.2	28.8	25.4	74.6	(586)
$\chi^2(df)$	1.9(5)		157.4(5)***		



구분	부모의 역할		자녀의 역할		수
	부모는 자녀를 뒤에서 묵묵히 도와주는 사람이다	부모는 자녀가 성공할 수 있도록 앞에서 이끌어주는 사람이다	부모가 키워주고 지원해준 것에 대해 자녀는 나중에 보답해야 한다	자녀를 키워주고 지원해 주는 것은 부모로서의 의무이므로 자녀가 이에 대해 부담가질 필요가 없다	
지역규모					
서울특별시	69.8	30.2	29.7	70.3	(580)
광역시/특별자치시	67.5	32.5	29.4	70.6	(805)
중소도시	70.6	29.4	28.4	71.6	(1,484)
군(읍면지역)	66.4	33.6	28.2	71.8	(131)
$\chi^2(df)$	3.1(3)		0.5(3)		
혼인 여부					
미혼	69.6	30.4	46.8	53.2	(910)
배우자 있음	69.1	30.9	21.0	79.0	(1,942)
배우자 없음	73.0	27.0	23.6	76.4	(148)
$\chi^2(df)$	1.0(2)		203.6(2)***		
자녀 유무					
유	69.5	30.5	20.6	79.4	(1,962)
무	69.4	30.6	44.7	55.3	(1,038)
$\chi^2(df)$	0.1(1)		191.9(1)***		
영유아 자녀유무					
유	67.9	32.1	18.5	81.5	(524)
무	70.0	30.0	21.3	78.7	(1,438)
$\chi^2(df)$	0.8(1)		1.9(1)		
취업여부					
취업	68.8	31.2	26.9	73.1	(2,170)
미취업	71.0	29.0	34.2	65.8	(830)
$\chi^2(df)$	1.3(1)		15.6(1)***		
맞벌이 유무					
맞벌이	67.6	32.4	20.6	79.4	(1,040)
외벌이	70.8	29.2	21.4	78.6	(902)
$\chi^2(df)$	2.4(1)		0.2(1)		
가구소득					
60% 미만	67.8	32.2	35.7	64.3	(608)
60 - 80% 미만	73.5	26.5	30.1	69.9	(525)
80 - 100% 미만	69.5	30.5	25.8	74.2	(449)
100 - 120% 미만	70.7	29.3	26.1	73.9	(522)
120 - 140% 미만	70.2	29.8	27.3	72.7	(315)
140 - 160% 미만	62.6	37.4	20.7	79.3	(198)
160% 이상	67.6	32.4	29.8	70.2	(383)
$\chi^2(df)$	10.3(6)		25.1(6)***		

주: 1) 가구소득은 2017년 2/4분기 통계청 가계동향조사의 월평균 가구소득(4,346,500원)을 100%로 한 것임.

2) 독립변수에 따라 사례수 합이 일치하지 않을 수 있음.

\*\*\*  $p < .001$ .

〈표 III-1-3〉은 부모가 언제까지 자녀에게 경제적인 지원을 해주어야 한다고 생각하는지에 대한 조사결과이다. 조사결과 ‘대학 졸업할 때까지’가 45.7%로 절반 가까이 차지했으며, 그 다음으로는 자녀가 취업할 때까지 경제적으로 지원해줘야 한다는 응답이 약 23.5%를 차지했다. 비교적 이른 시기인 자녀가 고등학교 졸업할 때까지 지원해줘야 한다는 응답은 17.2%였으며, 평생 동안 부모가 자녀에게 경제적으로 지원해줘야 한다는 응답은 1.8%로 나타났다.

성별, 연령, 혼인 여부 및 자녀 유무, 취업 관련 변수에서 모두 통계적 유의성을 나타냈는데, 여성의 경우 고등학교 및 대학 졸업 때까지 자녀에 대한 경제적 지원이 적절하다고 응답한 비율이 높았던 반면, 남성의 경우 그 이후 시기까지 자녀에게 경제적 지원을 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생각하는 경향이 나타났다.

또한 조사대상 중 자녀가 없거나 취업한 경우에 더 이른 시기의 경제적 독립이 적절하다고 응답하는 비율이 타 집단보다 비교적 높게 나타났다.

〈표 III-1-3〉 부모의 경제적 지원 기간에 대한 인식

단위: %(명)

구분	고등학교 졸업할 때까지	대학 졸업할 때까지	취업할 때까지	결혼할 때까지	결혼 후 기반이 마련되고 안정될 때까지	평생 동안	계
전체	17.2	45.7	23.5	7.8	4.0	1.8	100.0(3,000)
성별							
남자	15.2	45.0	23.7	9.1	4.7	2.4	100.0(1,522)
여자	19.1	46.4	23.4	6.5	3.4	1.2	100.0(1,478)
$\chi^2(df)$			22.7(5)***				
연령							
15~19세	22.6	51.6	22.6	0.0	3.2	0.0	100.0( 62)
20대	23.4	41.5	24.9	4.4	3.9	1.9	100.0(619)
30대	28.2	46.1	14.3	5.5	3.9	2.0	100.0(510)
40대	18.2	53.2	19.2	5.7	1.3	2.5	100.0(600)
50대	9.0	47.2	29.1	9.0	4.8	1.0	100.0(623)
60대 이상	8.0	39.9	28.8	15.2	6.3	1.7	100.0(586)
$\chi^2(df)$			246.6(25)***				
지역규모							
서울특별시	17.9	46.9	21.4	7.1	5.9	.9	100.0(580)
광역시/특별자치시	17.0	47.3	23.4	7.0	3.9	1.5	100.0(805)
중소도시	16.8	44.7	24.1	8.6	3.4	2.4	100.0(1,484)
군(읍면지역)	18.3	41.2	28.2	6.9	4.6	.8	100.0(131)
$\chi^2(df)$			20.4(15)				

구분	고등학교 졸업할 때까지	대학 졸업할 때까지	취업할 때까지	결혼할 때까지	결혼 후 기반이 마련되고 안정될 때까지	평생 동안	계
혼인 여부							
미혼	25.1	43.0	23.7	3.5	3.3	1.4	100.0(910)
배우자 있음	13.4	46.6	23.8	9.8	4.4	2.0	100.0(1,942)
배우자 없음	18.2	50.7	18.9	7.4	3.4	1.4	100.0(148)
$\chi^2(df)$	88.3(10)***						
자녀 유무							
유	12.6	47.0	24.2	9.9	4.4	1.9	100.0(1,962)
무	25.7	43.3	22.4	3.9	3.4	1.4	100.0(1,038)
$\chi^2(df)$	105.0(5)***						
영유아 자녀유무							
유	21.9	51.7	13.9	6.5	3.6	2.3	100.0(524)
무	9.2	45.3	27.9	11.1	4.7	1.8	100.0(1,438)
$\chi^2(df)$	93.1(5)***						
취업 여부							
취업	18.2	47.4	21.6	7.5	3.6	1.7	100.0(2,170)
미취업	14.3	41.3	28.6	8.7	5.2	1.9	100.0(830)
$\chi^2(df)$	27.5(5)***						
맞벌이 유무							
맞벌이	14.2	49.9	21.3	9.3	3.6	1.6	100.0(1,040)
외벌이	12.4	42.8	26.6	10.4	5.4	2.3	100.0(902)
$\chi^2(df)$	17.7(5)**						
가구소득							
60% 미만	22.0	43.4	23.0	6.7	3.3	1.5	100.0(608)
60 - 80% 미만	19.2	42.7	24.6	5.5	4.6	3.4	100.0(525)
80 - 100% 미만	20.5	46.5	21.2	7.8	2.0	2.0	100.0(449)
100 - 120% 미만	13.4	50.2	23.6	8.0	3.4	1.3	100.0(522)
120 - 140% 미만	17.8	49.2	21.0	6.0	5.7	.3	100.0(315)
140 - 160% 미만	11.1	43.9	26.8	11.1	6.1	1.0	100.0(198)
160% 이상	10.4	44.4	26.1	12.0	5.2	1.8	100.0(383)
$\chi^2(df)$	83.3(30)***						

주: 1) 가구소득은 2017년 2/4분기 통계청 가계동향조사의 월평균 가구소득(4,346,500원)을 100%로 한 것임.

2) 독립변수에 따라 사례수 합이 일치하지 않을 수 있음.

\*\*  $p < .01$ , \*\*\*  $p < .001$ .

〈표 III-1-4〉는 자녀 1인당 교육을 포함하여 양육비용이 가장 많이 드는 시기를 조사한 결과이다. 전체적으로는 고등학생시기라는 응답이 71.3%로 가장 많고, 다음으로 유아기 8.9%, 초등 고학년(4-6학년) 6.5%, 중학생 6.4%, 초등 저학년(1-3학년) 4.2%, 영아기 2.7%로 나타났다. 또한 연령대, 지역규모별, 자녀유무, 영유아 자녀유무, 맞벌이 여부 등에 따라 응답비율에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표 III-1-4〉 양육비용이 가장 많이 드는 시기에 대한 인식

단위: %(명)

구분	영아 (0~2세)	유아 (3~5세)	초등 저 (1~3학년)	초등 고 (4~6학년)	중학생	고등학생	계
전체	2.7	8.9	4.2	6.5	6.4	71.3	100.0(3,000)
성별							
남자	2.8	10.2	4.5	5.8	6.9	69.8	100.0(1,522)
여자	2.7	7.5	4.0	7.1	5.8	72.9	100.0(1,478)
$\chi^2(df)$			10.9(5)				
연령							
15~19세	1.6	4.8	3.2	1.6	12.9	75.8	100.0( 62)
20대	3.9	10.3	4.8	5.7	7.9	67.4	100.0(619)
30대	2.0	6.3	4.3	8.4	9.6	69.4	100.0(510)
40대	2.2	4.5	4.2	7.8	7.5	73.8	100.0(600)
50대	1.9	8.2	3.5	4.7	4.2	77.5	100.0(623)
60대 이상	3.8	15.4	4.4	6.7	2.4	67.4	100.0(586)
$\chi^2(df)$			110.9(25)***				
지역규모							
서울특별시	2.6	6.0	3.8	5.5	4.7	77.4	100.0(580)
광역시/특별자치시	2.9	10.7	5.2	5.3	7.6	68.3	100.0(805)
중소도시	2.8	9.1	3.8	7.5	6.6	70.1	100.0(1,484)
군(읍면지역)	1.5	8.4	4.6	5.3	3.8	76.3	100.0(131)
$\chi^2(df)$			28.0(15)*				
자녀 유무							
유	2.1	8.6	3.7	6.6	5.9	73.0	100.0(1,962)
무	3.9	9.5	5.2	6.2	7.2	68.0	100.0(1,038)
$\chi^2(df)$			16.0(5)**				
영유아 자녀유무							
유	1.1	6.3	4.8	10.3	9.5	67.9	100.0(524)
무	2.5	9.4	3.3	5.3	4.6	74.9	100.0(1,438)
$\chi^2(df)$			42.8(5)***				
맞벌이 유무							
맞벌이	2.4	7.7	3.4	5.9	7.2	73.5	100.0(1,040)
외벌이	2.3	9.6	4.1	7.2	4.3	72.4	100.0(902)
$\chi^2(df)$			11.1(5)*				

주: 독립변수에 따라 사례수 합이 일치하지 않을 수 있음.

\*  $p < .05$ , \*\*  $p < .01$ , \*\*\*  $p < .001$ .

〈표 III-1-5〉는 가정 내에서 부모의 성역할 관련 질문에 대한 조사결과이다. ‘어머니로서 여성의 가장 중요한 역할은 가정에서 자녀를 잘 키우는 것이다’라는 조사 문항의 경우 동의정도는 2.74점으로 나타났다. 여성보다는 남성이, 60대 이상의 높은 연령층에서, 그리고 미혼인 경우보다는 기혼, 자녀가 있는 경우에 동의정도가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났다.

‘직장에 다니는 여성은 어머니로서 자녀에게 해줄 수 있는 역할에 한계가 있다’는 문항은 2.92점으로 일정부분 한계를 인식하고 있었다. 구체적으로는 남성이 여

성보다, 연령대가 높아질수록, 기혼인 경우에, 자녀가 있는 경우에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났다.

‘아버지로서 남자가 할 일은 가정에 돈을 벌어드는 것이다’라는 질문에 대해서는 동의하는 수준이 2.46점(4점 만점) 수준으로 전통적인 아버지의 역할이 여전히 남아 있음을 알 수 있다. 남성 응답자 집단 스스로가 평균보다 높은 2.61점을 보였고, 연령대가 올라갈수록 동의 점수 수준도 올라가는 경향을 보였다. 또한 혼인한 경우, 자녀가 있는 경우에 동의수준이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더 높았다.

〈표 III-1-5〉 가정 내 부모의 역할에 대한 동의 정도(4점 만점)

단위: 점, (명)

구분	어머니로서 여성의 가장 중요한 역할은 가정에서 자녀를 잘 키우는 것이다	직장에 다니는 여성은 어머니로서 자녀에게 해줄 수 있는 역할에 한계가 있다	아버지로서 남자가 할 일은 가정에 돈을 벌어드는 것이다	계
전체	2.74	2.92	2.46	100.0(3,000)
성별				
남자	2.84	2.94	2.61	100.0(1,522)
여자	2.65	2.89	2.30	100.0(1,478)
$\chi^2(df)$	6.84***	2.19*	11.09***	
연령				
15~19세	2.29	2.68	2.02	100.0( 62)
20대	2.36	2.74	2.17	100.0(619)
30대	2.58	2.96	2.35	100.0(510)
40대	2.75	2.96	2.49	100.0(600)
50대	2.95	2.95	2.62	100.0(623)
60대 이상	3.11	3.01	2.69	100.0(586)
$\chi^2(df)$	83.14***	13.12***	40.39***	
혼인 여부				
미혼	2.40	2.79	2.22	100.0(910)
배우자 있음	2.89	2.97	2.56	100.0(1,942)
배우자 없음	2.95	3.01	2.58	100.0(148)
$\chi^2(df)$	143.61***	23.67***	63.17***	
자녀 유무				
유	2.92	2.98	2.58	100.0(1,962)
무	2.41	2.80	2.23	100.0(1,038)
$\chi^2(df)$	16.94***	6.68***	11.80***	
영유아 자녀유무				
유	2.77	2.98	2.50	100.0(524)
무	2.97	2.98	2.61	100.0(1,438)
$\chi^2(df)$	-5.54***	0.10	-2.67**	

주: ‘전혀 동의하지 않음(1점)~전적으로 동의함(4점)’으로 산출한 결과임.

독립변수에 따라 사례수 합이 일치하지 않을 수 있음.

\*  $p < .05$ , \*\*  $p < .01$ , \*\*\*  $p < .001$ .

## 나. 부모역할의 실제

〈표 III-1-6〉은 부모가 자녀 양육과 가사를 어떻게 분담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생각하는지에 대한 조사결과를 나타낸 것이다. 그 결과 ‘자녀 양육’의 경우 어머니 5.60 : 아버지 4.40이 적절하다고 응답하였고, ‘가사’의 경우 어머니 5.67 : 아버지 4.33의 비율이 적절하다고 응답하였다. 남성의 경우 어머니가 자녀 양육에 더 많이 참여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응답하는 경향이 나타났다. 연령대가 젊을수록, 미혼인 경우에 분담비율이 5:5에 가까워 지는 경향을 보였다.

〈표 III-1-6〉 이상적 자녀 양육 및 가사 분담 비

단위: 비, (명)

구분	자녀 양육 분담 비		가사 분담 비		계
	어머니	아버지	어머니	아버지	
전체	5.60	4.40	5.67	4.33	(3,000)
성별					
남자	5.70	4.30	5.72	4.28	(1,522)
여자	5.50	4.50	5.61	4.39	(1,478)
연령					
15~19세	5.34	4.66	5.35	4.65	(62)
20대	5.27	4.73	5.25	4.75	(619)
30대	5.57	4.43	5.51	4.49	(510)
40대	5.69	4.32	5.80	4.20	(600)
50대	5.74	4.26	5.93	4.07	(623)
60대 이상	5.78	4.22	5.87	4.13	(586)
지역규모					
서울특별시	5.55	4.45	5.55	4.45	(580)
광역시/특별자치시	5.65	4.35	5.69	4.31	(805)
중소도시	5.59	4.41	5.70	4.30	(1,484)
군(읍면지역)	5.71	4.29	5.72	4.28	(131)
혼인 여부					
미혼	5.31	4.69	5.32	4.68	(910)
배우자 있음	5.75	4.25	5.82	4.18	(1,942)
배우자 없음	5.52	4.48	5.76	4.24	(148)
자녀 유무					
유	5.75	4.25	5.84	4.16	(1,962)
무	5.32	4.68	5.34	4.66	(1,038)
영유아 자녀유무					
유	5.72	4.28	5.67	4.33	(524)
무	5.76	4.24	5.91	4.09	(1,438)
취업 여부					
취업	5.63	4.37	5.66	4.34	(2,170)
미취업	5.54	4.46	5.70	4.30	(830)

구분	자녀 양육 부담 비		가사 부담 비		계
	어머니	아버지	어머니	아버지	
맞벌이 유무					
맞벌이	5.67	4.33	5.68	4.32	(1,040)
외벌이	5.83	4.17	5.99	4.01	(902)
가구소득					
60% 미만	5.53	4.47	5.57	4.43	(608)
60 - 80% 미만	5.64	4.36	5.70	4.30	(525)
80 - 100% 미만	5.60	4.40	5.67	4.33	(449)
100 - 120% 미만	5.57	4.43	5.71	4.29	(522)
120 - 140% 미만	5.68	4.32	5.75	4.25	(315)
140 - 160% 미만	5.53	4.47	5.64	4.36	(198)
160% 이상	5.68	4.32	5.67	4.33	(383)

주: 1) 가구소득은 2017년 2/4분기 통계청 가계동향조사의 월평균 가구소득(4,346,500원)을 100%로 한 것임.  
 2) 독립변수에 따라 사례수 합이 일치하지 않을 수 있음.

한편 영유아 자녀가 있는 부모에게 실제 자녀 양육과 가사 부담 비율에 대해 질문한 결과, <표 III-1-7>에서 보는 바와 같이 자녀 양육의 경우 아버지 3.35 : 어머니 6.65, 가사의 경우 아버지 3.40 : 어머니 6.60의 비율로 부담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여전히 자녀양육과 가사에 있어 어머니의 역할과 비중이 컸고, 성별로는 남성들이 여성보다 실제로 가사에 좀더 기여하고 있다고 인식하고 있었다. 또한 연령대가 낮을수록 아버지 역할에 대한 부담비율이 다소 커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표 III-1-7> (영유아 자녀 부모) 실제 자녀양육 및 가사 부담 비

단위: 비, (명)

구분	자녀 양육 부담 비		가사 부담 비		계
	어머니	아버지	어머니	아버지	
전체	6.65	3.35	6.60	3.40	(510)
성별					
남자	6.51	3.49	6.31	3.69	(317)
여자	6.90	3.10	7.08	2.92	(193)
연령					
20대	6.42	3.58	6.16	3.84	(57)
30대	6.68	3.32	6.49	3.51	(269)
40대	6.70	3.30	6.90	3.10	(184)
지역규모					
서울특별시	6.29	3.71	6.23	3.77	(100)
광역시/특별자치시	6.52	3.48	6.35	3.65	(143)
중소도시	6.87	3.13	6.86	3.14	(254)
군(읍면지역)	6.69	3.31	7.15	2.85	(13)
취업 여부					
취업	6.61	3.39	6.52	3.48	(52)
미취업	7.08	2.92	7.29	2.71	(314)

구분	자녀 양육 부담 비		가사 부담 비		계
	어머니	아버지	어머니	아버지	
맞벌이 유무					
맞벌이	6.37	3.63	6.29	3.71	(314)
외벌이	7.12	2.88	7.10	2.90	(196)
가구소득					
60% 미만	7.32	2.68	7.12	2.88	(41)
60 - 80% 미만	7.01	2.99	7.07	2.93	(110)
80 - 100% 미만	6.66	3.34	6.71	3.29	(95)
100 - 120% 미만	6.37	3.63	6.25	3.75	(101)
120 - 140% 미만	6.45	3.55	6.27	3.73	(74)
140 - 160% 미만	6.24	3.76	6.61	3.39	(38)
160% 이상	6.53	3.47	6.16	3.84	(51)

주: 1) 가구소득은 2017년 2/4분기 통계청 가계동향조사의 월평균 가구소득(4,346,500원)을 100%로 한 것임.  
 2) 독립변수에 따라 사례수 합이 일치하지 않을 수 있음.

자녀 양육 유형별 부모가 담당하는 비중을 살펴보면, 모든 경우에 어머니가 한다는 응답이 높긴 하지만, 상대적으로 아버지는 자녀와 놀아주기, 책 읽어주기를 한다는 응답이 43.3%로 높았다. 다음으로 자녀의 기관(유치원, 어린이집, 학원 등) 등·하원 도와주기가 22.0%였으며, 자녀 물품 알아보고 구매하기 등이 21.2%였다.

〈표 III-1-8〉 (영유아 자녀 부모) 가사 및 양육 활동별 주 담당자

단위: %(명)

구분	아버지	어머니	기타	계
집안일(식사준비, 빨래 등)	12.0	84.5	3.5	100.0(510)
자녀 밥먹고, 옷입는 것 도와주기	14.5	82.2	3.3	100.0(510)
자녀와 놀아주기, 책 읽어주기	43.3	51.2	5.5	100.0(510)
자녀의 기관(유치원, 어린이집, 학원 등) 등·하원 도와주기	22.0	68.0	10.0	100.0(510)
자녀 물품 알아보고 구매하기 등	21.2	76.1	2.7	100.0(510)

좀 더 구체적으로 자녀 양육 중 집안 일(식사 준비, 빨래 등)을 하는 사람은 누구냐는 질문에 어머니가 한다는 응답이 84.5%, 아버지가 한다는 응답이 12.0%였다. 그런데 응답자 특성별로 어머니 응답자 중에서는 어머니가 한다는 응답이 89.6%로 압도적으로 높은 반면, 아버지 응답자의 경우에 아버지가 한다는 응답이 14.5%로 상대적으로 높은 비중을 보였다. 맞벌이 여부에 따라서는 맞벌이 가구의 경우 아버지가 한다는 응답이 15.6%로 외벌이 가구에 비해 높은 비중을 보였다.



〈표 III-1-9〉 (영유아 자녀 부모) 가사 및 양육 활동별 주 담당자-집안 일(식사 준비, 빨래 등)

단위: %(명)

구 분	아버지	어머니	기타	계
전체	12.0	84.5	3.5	100.0(510)
성별				
남자	14.5	81.4	4.1	100.0(317)
여자	7.8	89.6	2.6	100.0(193)
$\chi^2(df)$		6.3(2)*		
연령				
20대	12.3	87.7	0.0	100.0(57)
30대	15.6	79.2	5.2	100.0(269)
40대	6.5	91.3	2.2	100.0(184)
$\chi^2(df)$		14.6(4)***		
취업 여부				
취업	12.9	83.2	3.9	100.0(458)
미취업	3.8	96.2	0.0	100.0(52)
$\chi^2(df)$		6.2(2)*		
맞벌이 여부				
맞벌이	15.6	79.9	4.5	100.0(314)
비맞벌이	6.1	91.8	2.0	100.0(196)
$\chi^2(df)$		13.1(2)**		

\*  $p < .05$ , \*\*  $p < .01$ , \*\*\*  $p < .001$ .

영유아 자녀 밥 먹이고 옷 입는 것을 도와주는 것도 어머니가 한다는 응답이 82.2%로 높았고, 응답자가 아버지인 경우, 취업자인 경우에 아버지가 한다는 응답이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가 나는 수준의 높은 특징을 보였다. 맞벌이 가구 여부에 따라서는 맞벌이 가구에서 아버지가 한다는 응답이 17.5%로 외벌이 가구의 9.7%에 비해 높았다.

〈표 III-1-10〉 (영유아 자녀 부모) 가사 및 양육 활동별 주 담당자-자녀 밥 먹고, 옷 입는 것 도와주기

단위: %(명)

구 분	아버지	어머니	기타	계
전체	14.5	82.2	3.3	100.0(510)
성별				
남자	17.4	79.5	3.2	100.0(317)
여자	9.8	86.5	3.6	100.0(193)
$\chi^2(df)$		5.5(2)		

구 분	아버지	어머니	기타	계
연령				
20대	26.3	71.9	1.8	100.0(57)
30대	13.0	81.8	5.2	100.0(269)
40대	13.0	85.9	1.1	100.0(184)
$\chi^2(df)$		13.2(4)*		
취업 여부				
취업	15.3	81.0	3.7	100.0(458)
미취업	7.7	92.3	0.0	100.0(52)
$\chi^2(df)$		4.5(2)		
맞벌이 여부				
맞벌이	17.5	79.0	3.5	100.0(314)
비맞벌이	9.7	87.2	3.1	100.0(196)
$\chi^2(df)$		6.2(2)*		

\*  $p < .05$ .

영유아 자녀와 놀아주기, 책읽어주기를 아버지가 한다는 응답은 전체 응답자 기준 43.3%로 앞서 집안일이나 자녀 밥 먹기와 옷 입기 도와주기에 비해서는 높은 비중을 보였다. 특히 이 응답 비중은 응답자가 아버지인 경우 48.6%로 거의 절반 수준이었다. 맞벌이 가정이 경우 아버지가 자녀와 놀아주거나 책을 읽어준다는 비율이 47.1%로 맞벌이가 아닌 가정의 37.2%보다 높게 나타났다.

〈표 III-1-11〉 (영유아 자녀 부모) 가사 및 양육 활동별 주 담당자-자녀와 놀아주기, 책 읽어주기

단위: %(명)

구 분	아버지	어머니	기타	계
전체	43.3	51.2	5.5	100.0(510)
성별				
남자	48.6	45.4	6.0	100.0(317)
여자	34.7	60.6	4.7	100.0(193)
$\chi^2(df)$		11.1(2)**		
취업 여부				
취업	44.5	49.6	5.9	100.0(458)
미취업	32.7	65.4	1.9	100.0(52)
$\chi^2(df)$		5.1(2)		
맞벌이 여부				
맞벌이	47.1	46.5	6.4	100.0(314)
비맞벌이	37.2	58.7	4.1	100.0(196)
$\chi^2(df)$		7.4(2)*		

\*  $p < .05$ , \*\*  $p < .01$ .

영유아 자녀의 기관 등·하원을 도와주는 일은 어머니 68.0%, 아버지 22.0%로 수준으로 나타났다. 맞벌이인 경우에 아버지 역할 비율이 27.4%로 비맞벌이 13.3%보다 많았고, 가구소득이 평균 미만인 집단에서는 아버지의 역할 비율이 낮게 나타났다.

〈표 III-1-12〉 (영유아 자녀 부모) 가사 및 양육 활동별 주 담당자-자녀의 기관 등·하원 도와주기

단위: %(명)

구 분	아버지	어머니	기타	계
전체	22.0	68.0	10.0	100.0(510)
성별				
남자	23.0	69.4	7.6	100.0(317)
여자	20.2	65.8	14.0	100.0(193)
$\chi^2(df)$		5.6(2)		
지역규모				
서울특별시	24.0	58.0	18.0	100.0(100)
광역시	26.6	66.4	7.0	100.0(143)
중소도시	18.5	72.8	8.7	100.0(254)
군(읍면지역)	23.1	69.2	7.7	100.0(13)
$\chi^2(df)$		13.6(6)*		
맞벌이 여부				
맞벌이	27.4	58.6	14.0	100.0(314)
비맞벌이	13.3	83.2	3.6	100.0(196)
$\chi^2(df)$		34.8(2)***		
가구소득				
60% 미만	17.1	82.9	0.0	100.0(41)
60 - 80% 미만	13.6	78.2	8.2	100.0(110)
80 - 100% 미만	15.8	81.1	3.2	100.0(95)
100 - 120% 미만	23.8	64.4	11.9	100.0(101)
120 - 140% 미만	32.4	59.5	8.1	100.0(74)
140 - 160% 미만	31.6	55.3	13.2	100.0(38)
160% 이상	29.4	39.2	31.4	100.0(51)
$\chi^2(df)$		59.0(12)***		

\*  $p < .05$ , \*\*\*  $p < .001$ .

영유아 자녀의 물품을 알아보고 구매하는 일을 아버지가 한다는 응답은 21.2%로, 응답자가 아버지인 경우에 28.4%가 아버지가 한다고 응답하였다. 한편, 자녀 물품 알아보고 구매하기를 아버지가 한다는 응답은 응답자의 연령에 따라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를 보이는데, 40대의 경우에 아버지가 한다는 응답이 24.5%로 높게 나타났다.

〈표 III-1-13〉 (영유아 자녀 부모) 가사 및 양육 활동별 주 담당자 - 자녀 물품 알아보고 구매하기 등

단위: %(명)

구분	아버지	어머니	기타	계
전체	21.2	76.1	2.7	100.0(510)
성별				
남자	28.4	69.4	2.2	100.0(317)
여자	9.3	87.0	3.6	100.0(193)
$\chi^2(df)$		26.4(2)***		
응답자 연령				
20대	19.3	70.2	10.5	100.0(57)
30대	19.3	78.1	2.6	100.0(269)
40대 이상	24.5	75.0	.5	100.0(184)
$\chi^2(df)$		17.37(4)**		

\*\*  $p < .01$ , \*\*\*  $p < .001$ .

〈표 III-1-14〉는 조부모가 정기적으로 영유아 손자녀를 돌봐주는 것에 대해 대한 인식을 조사한 결과이다. 조사결과 ‘필요하다’는 응답이 55.8%, ‘조부모를 위해 하지 않는 편이 좋다’가 25.7%, ‘잘 모르겠다’가 18.5%로 나타났다.

〈표 III-1-14〉 조부모의 정기적 손자녀 돌봄에 대한 인식

단위: %(명)

구분	필요하다			조부모를 위해 하지 않는 편이 좋다	잘 모르겠다	계
	손자녀를 위해	자녀를 위해	조부모를 위해			
전체	20.1	29.9	5.8	25.7	18.5	100.0(3,000)
성별						
남자	21.5	29.8	7.0	23.3	18.4	100.0(1,522)
여자	18.7	30.1	4.5	28.1	18.5	100.0(1,478)
$\chi^2(df)$			17.5(4)**			
연령						
15~19세	9.7	24.2	8.1	16.1	41.9	100.0( 62)
20대	13.4	26.2	5.0	22.5	33.0	100.0(619)
30대	19.2	30.6	6.1	24.1	20.0	100.0(510)
40대	18.5	26.3	6.3	33.0	15.8	100.0(600)
50대	20.4	31.0	7.4	27.9	13.3	100.0(623)
60대 이상	30.5	36.5	3.9	21.5	7.5	100.0(586)
$\chi^2(df)$			234.4(20)***			
혼인 여부						
미혼	15.3	24.6	6.2	23.6	30.3	100.0(910)
배우자 있음	22.0	32.7	5.8	26.4	13.0	100.0(1,942)
배우자 없음	25.0	26.4	3.4	28.4	16.9	100.0(148)
$\chi^2(df)$			134.8(8)***			

구분	필요하다			조부모를 위해 하지 않는 편이 좋다	잘 모르겠다	계
	손자녀를 위해	자녀를 위해	조부모를 위해			
자녀 유무						
유	22.3	33.0	5.7	26.3	12.8	100.0(1,962)
무	16.1	24.2	6.1	24.5	29.2	100.0(1,038)
$\chi^2(df)$	130.4(4)***					
취업 여부						
취업	20.5	29.9	6.0	27.1	16.5	100.0(2,170)
미취업	19.3	30.1	5.3	21.8	23.5	100.0(830)
$\chi^2(df)$	23.3(4)***					
가구소득						
60% 미만	20.6	26.0	6.6	22.5	24.3	100.0(608)
60 - 80% 미만	21.5	30.5	5.1	23.6	19.2	100.0(525)
80 - 100% 미만	19.8	26.3	6.2	28.3	19.4	100.0(449)
100 - 120% 미만	19.9	28.4	6.7	27.2	17.8	100.0(522)
120 - 140% 미만	19.4	31.1	7.0	28.3	14.3	100.0(315)
140 - 160% 미만	15.7	36.4	3.0	27.3	17.7	100.0(198)
160% 이상	21.1	37.6	4.2	25.3	11.7	100.0(383)
$\chi^2(df)$	56.1(24)***					

주: 1) 가구소득은 2017년 2/4분기 통계청 가계동향조사의 월평균 가구소득(4,346,500원)을 100%로 한 것임.  
2) 독립변수에 따라 사례수 합이 일치하지 않을 수 있음.

\*\*  $p < .01$ , \*\*\*  $p < .001$ .

<표 III-1-15>는 자녀 양육시기별(영유아 자녀, 초등학생 자녀, 중·고등학생 자녀)로 가장 바람직한 부모의 경제활동 상태에 대한 조사 결과이다. 먼저 영유아기 일 때는 응답자의 70.1%가 ‘부모 둘 중 한명은 경제활동을 하고, 한명은 집에서 양육함’이 가장 바람직한 부모 경제활동 상태라고 응답하였다. ‘부모 모두 경제활동을 하되 어머니는 시간제로 근무함’은 17.8%, ‘부모 모두 경제활동을 함’은 10.7%로 나타났다.

자녀가 초등학생인 경우 응답의 경향성이 달라지는데, 부모 모두 경제활동을 하고 어머니는 시간제로 근무하는 것이 적절하다는 응답이 44.7%였고, 부모 둘 중 한명만 경제활동을 하고 한명은 집에서 자녀를 양육하는 것이 적절하다는 응답은 26.8%로 나타났다. 부모모두 경제활동을 한다는 응답은 26.7%로 영유아기 보다는 상승하였다.

자녀가 중학생 이상인 경우 부모 모두 경제활동을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비율이 62.7%로 자녀가 영유아기일 때와는 정 반대의 양상을 보였다. 부모 모두 경제



활동을 하고, 어머니는 시간제로 근무함이 25.9%, 부모 둘 중 한 명은 경제활동을 하고 한명은 집에서 자녀를 양육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응답한 비율은 10.1%로 나타났다.

〈표 III-1-15〉 자녀 양육시기별 가장 바람직한 부모의 경제활동 상태

단위: %(명)

구분	부모 둘 중 한명은 경제활동을 하고, 한명은 집에서 양육함	부모 모두 경제활동을 하고, 어머니는 시간제로 근무함	부모 모두 경제활동을 하고, 아버지는 시간제로 근무함	부모 모두 경제활동을 함	계
영유아기	70.1	17.8	1.4	10.7	100.0(3,000)
초등학생 시기	26.8	44.7	1.8	26.7	100.0(3,000)
중고등학생 시기	10.1	25.9	1.3	62.7	100.0(3,000)

〈표 III-1-16〉 자녀 양육시기별 가장 바람직한 부모의 경제활동 상태 - 영유아기

구분	부모 둘 중 한명은 경제활동을 하고, 한명은 집에서 양육함	부모 모두 경제활동을 하고, 어머니는 시간제로 근무함	부모 모두 경제활동을 하고, 아버지는 시간제로 근무함	부모 모두 경제활동을 함	계
전체	70.1	17.8	1.4	10.7	100.0(3,000)
성별					
남자	71.7	14.7	1.7	11.8	100.0(1,522)
여자	68.5	20.9	1.2	9.5	100.0(1,478)
$\chi^2(df)$		22.8(3)***			
연령					
15~19세	74.2	9.7	1.6	14.5	100.0( 62)
20대	65.9	16.0	4.2	13.9	100.0(619)
30대	65.1	20.0	1.2	13.7	100.0(510)
40대	72.8	19.7	0.3	7.2	100.0(600)
50대	72.9	16.2	1.1	9.8	100.0(623)
60대 이상	72.9	18.3	0.2	8.7	100.0(586)
$\chi^2(df)$		78.6(15)***			
혼인 여부					
미혼	70.2	14.6	2.3	12.9	100.0(910)
배우자 있음	69.5	19.5	1.1	9.8	100.0(1,942)
배우자 없음	77.7	14.2	0.0	8.1	100.0(148)
$\chi^2(df)$		25.3(6)***			
자녀 유무					
유	70.0	19.4	1.0	9.6	100.0(1,962)
무	70.4	14.7	2.2	12.6	100.0(1,038)
$\chi^2(df)$		20.6(3)***			

구분	부모 둘 중 한명은 경제활동을 하고, 한명은 집에서 양육함	부모 모두 경제활동을 하고, 어머니는 시간제로 근무함	부모 모두 경제활동을 하고, 아버지는 시간제로 근무함	부모 모두 경제활동을 함	계
영유아 자녀유무					
유	60.5	25.2	2.5	11.8	100.0(524)
무	73.4	17.2	0.5	8.8	100.0(1,438)
$\chi^2(df)$		40.3(3)*			
맞벌이 유무					
맞벌이	65.0	20.7	1.4	12.9	100.0(1,040)
외벌이	74.7	18.2	0.8	6.3	100.0(902)
$\chi^2(df)$		31.2(3)***			
가구소득					
60% 미만	71.2	14.5	1.8	12.5	100.0(608)
60 - 80% 미만	69.5	21.3	0.8	8.4	100.0(525)
80 - 100% 미만	69.3	20.0	2.4	8.2	100.0(449)
100 - 120% 미만	73.8	15.7	1.1	9.4	100.0(522)
120 - 140% 미만	70.5	19.4	0.6	9.5	100.0(315)
140 - 160% 미만	64.1	19.2	2.5	14.1	100.0(198)
160% 이상	68.1	16.2	1.0	14.6	100.0(383)
$\chi^2(df)$		38.9(18)**			

주: 1) 가구소득은 2017년 2/4분기 통계청 가계동향조사의 월평균 가구소득(4,346,500원)을 100%로 한 것임.  
 2) 독립변수에 따라 사례수 합이 일치하지 않을 수 있음.

\*  $p < .05$ , \*\*  $p < .01$ , \*\*\*  $p < .001$ .

〈표 III-1-17〉 자녀 양육시기별 가장 바람직한 부모의 경제활동 상태 - 초등학생시기

구분	부모 둘 중 한명은 경제활동을 하고, 한명은 집에서 양육함	부모 모두 경제활동을 하고, 어머니는 시간제로 근무함	부모 모두 경제활동을 하고, 아버지는 시간제로 근무함	부모 모두 경제활동을 함	계
전체	26.8	44.7	1.8	26.7	100.0(3,000)
성별					
남자	32.3	39.6	1.6	26.5	100.0(1,522)
여자	21.1	49.9	2.0	26.9	100.0(1,478)
$\chi^2(df)$		54.0(3)***			
연령					
15~19세	32.3	27.4	4.8	35.5	100.0( 62)
20대	22.9	32.0	5.2	39.9	100.0(619)
30대	21.6	49.6	1.2	27.6	100.0(510)
40대	30.8	46.8	1.0	21.3	100.0(600)
50대	29.2	47.7	0.6	22.5	100.0(623)
60대 이상	28.2	50.3	0.5	21.0	100.0(586)
$\chi^2(df)$		165.7(15)***			

구분	부모 둘 중 한명은 경제활동을 하고, 한명은 집에서 양육함	부모 모두 경제활동을 하고, 어머니는 시간제로 근무함	부모 모두 경제활동을 하고, 아버지는 시간제로 근무함	부모 모두 경제활동을 함	계
혼인 여부					
미혼	24.7	34.9	3.6	36.7	100.0(910)
배우자 있음	27.2	48.9	1.0	22.8	100.0(1,942)
배우자 없음	33.8	49.3	0.7	16.2	100.0(148)
$\chi^2(df)$		107.6(6)***			
자녀 유무					
유	28.1	49.2	0.9	21.8	100.0(1,962)
무	24.3	36.1	3.6	36.0	100.0(1,038)
$\chi^2(df)$		109.1(3)***			
영유아 자녀유무					
유	23.9	52.9	1.3	21.9	100.0(524)
무	29.7	47.9	0.7	21.7	100.0(1,438)
$\chi^2(df)$		8.4(3)*			
맞벌이 유무					
맞벌이	22.7	47.8	1.3	28.2	100.0(1,040)
외벌이	32.5	50.2	0.7	16.6	100.0(902)
$\chi^2(df)$		48.0(3)***			
가구소득					
60% 미만	28.6	41.6	1.6	28.1	100.0(608)
60 - 80% 미만	25.1	51.2	1.3	22.3	100.0(525)
80 - 100% 미만	25.8	48.8	3.3	22.0	100.0(449)
100 - 120% 미만	30.7	43.5	1.0	24.9	100.0(522)
120 - 140% 미만	24.8	45.7	1.3	28.3	100.0(315)
140 - 160% 미만	25.8	35.9	4.0	34.3	100.0(198)
160% 이상	24.3	41.3	1.3	33.2	100.0(383)
$\chi^2(df)$		52.9(18)***			

주: 1) 가구소득은 2017년 2/4분기 통계청 가계동향조사의 월평균 가구소득(4,346,500원)을 100%로 한 것임.

2) 독립변수에 따라 사례수 합이 일치하지 않을 수 있음.

\*  $p < .05$ , \*\*\*  $p < .001$ .

〈표 Ⅲ-1-18〉 자녀 양육시기별 가장 바람직한 부모의 경제활동 상태 - 중고등학교시기

구분	부모 둘 중 한명은 경제활동을 하고, 한명은 집에서 양육함	부모 모두 경제활동을 하고, 어머니는 시간제로 근무함	부모 모두 경제활동을 하고, 아버지는 시간제로 근무함	부모 모두 경제활동을 함	계
전체	10.1	25.9	1.3	62.7	100.0(3,000)
성별					
남자	13.1	27.4	1.6	57.9	100.0(1,522)
여자	7.0	24.4	1.0	67.7	100.0(1,478)
$\chi^2(df)$		44.1(3)***			



구분	부모 둘 중 한명은 경제활동을 하고, 한명은 집에서 양육함	부모 모두 경제활동을 하고, 어머니는 시간제로 근무함	부모 모두 경제활동을 하고, 아버지는 시간제로 근무함	부모 모두 경제활동을 함	계
연령					
15~19세	16.1	9.7	6.5	67.7	100.0( 62)
20대	8.1	12.6	2.3	77.1	100.0(619)
30대	8.6	25.7	1.4	64.3	100.0(510)
40대	12.2	32.3	1.0	54.5	100.0(600)
50대	10.4	29.4	1.1	59.1	100.0(623)
60대 이상	10.2	31.6	0.3	57.8	100.0(586)
$\chi^2(df)$		128.8(15)***			
혼인 여부					
미혼	8.7	15.7	2.5	73.1	100.0(910)
배우자 있음	10.8	30.2	0.7	58.3	100.0(1,942)
배우자 없음	9.5	31.8	2.7	56.1	100.0(148)
$\chi^2(df)$		95.9(6)***			
자녀 유무					
유	11.0	31.2	0.8	57.0	100.0(1,962)
무	8.4	15.8	2.4	73.4	100.0(1,038)
$\chi^2(df)$		109.8(3)***			
맞벌이 유무					
맞벌이	8.0	26.4	0.8	64.8	100.0(1,040)
외벌이	14.0	34.6	0.6	50.9	100.0(902)
$\chi^2(df)$		43.1(3)***			
가구소득					
60% 미만	9.2	23.7	1.8	65.3	100.0(608)
60 - 80% 미만	10.1	28.0	1.3	60.6	100.0(525)
80 - 100% 미만	10.5	31.2	2.0	56.3	100.0(449)
100 - 120% 미만	11.7	26.4	0.4	61.5	100.0(522)
120 - 140% 미만	7.0	23.5	1.6	67.9	100.0(315)
140 - 160% 미만	11.1	23.2	2.0	63.6	100.0(198)
160% 이상	10.7	23.0	0.5	65.8	100.0(383)
$\chi^2(df)$		29.5(18)*			

주: 1) 가구소득은 2017년 2/4분기 통계청 가계동향조사의 월평균 가구소득(4,346,500원)을 100%로 한 것임.

2) 독립변수에 따라 사례수 합이 일치하지 않을 수 있음.

\*  $p < .05$ , \*\*\*  $p < .001$ .

### 다. 좋은 부모 가능성 인식

〈표 III-1-19〉는 자녀가 있는 응답자에게 부모로서 본인이 좋은 부모라고 생각하는지 조사한 결과이다. 그 결과 38.0%가 그렇다고 응답하였고, 그렇지 않다고 응답

한 경우도 15.5%로 나타났다. 5점 평균으로는 3.25점으로, 본 조사의 응답자들은 보통수준보다 조금 높은 정도로 본인이 좋은 부모라고 인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표 III-1-19〉 (자녀가 있는 경우) 현재 좋은 부모 정도: 자기 평가

단위: %(명), 점

구분	매우 그렇지 않음	그렇지 않은 편임	보통	그런 편임	매우 그렇다	계	평균
전체	1.6	13.9	46.5	33.7	4.3	100.0(1962)	3.25
성별 구분							
남자	1.6	13.9	47.0	32.4	5.1	100.0(1016)	3.26
여자	1.6	13.8	46.0	35.1	3.5	100.0(946)	3.25
$\chi^2(df)/t$			4.2(4)				0.15
연령							
20대	0.0	30.3	31.8	31.8	6.1	100.0(66)	3.14
30대	1.0	10.2	42.2	40.9	5.6	100.0(303)	3.40
40대	1.2	14.7	47.2	32.3	4.6	100.0(483)	3.24
50대	2.0	12.8	49.3	32.0	4.0	100.0(556)	3.23
60대 이상	2.0	14.3	47.3	32.9	3.6	100.0(554)	3.22
$\chi^2(df)/F$			33.2(16)**				3.24*
혼인 여부							
미혼	0.0	11.1	22.2	55.6	11.1	100.0(9)	3.67
배우자 있음	1.0	13.4	47.0	34.2	4.4	100.0(1825)	3.28
배우자 없음	10.2	20.3	42.2	24.2	3.1	100.0(128)	2.90
$\chi^2(df)/t$			75.9(8)***				14.55***
영유아 자녀유무							
유	0.8	14.3	40.6	38.2	6.1	100.0(524)	3.35
무	1.9	13.7	48.7	32.1	3.7	100.0(1438)	3.22
$\chi^2(df)/F$			17.9(4)**				3.01**
가구소득							
60% 미만	2.9	23.5	44.4	24.9	4.3	100.0(277)	3.04
60 - 80% 미만	1.4	14.3	47.4	31.7	5.1	100.0(350)	3.25
80 - 100% 미만	1.6	15.4	46.0	33.8	3.2	100.0(311)	3.22
100 - 120% 미만	.5	12.2	47.5	35.6	4.2	100.0(385)	3.31
120 - 140% 미만	1.7	8.8	50.8	32.8	5.9	100.0(238)	3.32
140 - 160% 미만	1.5	14.0	45.6	34.6	4.4	100.0(136)	3.26
160% 이상	1.9	8.3	43.4	43.0	3.4	100.0(265)	3.38
$\chi^2(df)/F$			55.4(24)***				4.95***

주: 1) 가구소득은 2017년 2/4분기 통계청 가계동향조사의 월평균 가구소득(4,346,500원)을 100%로 한 것임.

2) 평균은 '매우 그렇지 않다(1점)-매우 그렇다(5점)'으로 산출한 결과임.

\*\*  $p < .01$ , \*\*\*  $p < .001$ .

〈표 III-1-20〉은 자녀가 없는 조사 대상자들에 본인이 향후 좋은 부모가 될 수 있을지 질문한 결과이다. 그렇다는 응답은 32.5%, 그렇지 않다는 응답은 31.6%로 긍정과 부정의 비율이 비슷하게 나타났다. 5점 중 3.00점으로 보통수준을 약간 웃도는 것으로 나타났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남성이 여성보다 본인이 향후에 좋은 부모가 될 수 있을 것이라고 평가하는 것으로 나타났고, 연령별로는 10~20대의 젊은 연령대와 60대 이상의 고령 연령대에서 긍정적으로 본인을 평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표 III-1-20〉 (자녀가 없는 경우) 미래에 좋은 부모가 될 가능성: 자기 평가

단위: %(명), 점

구분	매우 그렇지 않음	그렇지 않은 편임	보통	그런 편임	매우 그렇다	계	평균
전체	8.8	22.8	35.9	24.9	7.6	100.0(1,038)	3.00
성별 구분							
남자	8.7	17.4	33.8	28.1	12.1	100.0(506)	3.17
여자	8.8	28.0	38.0	21.8	3.4	100.0(532)	2.83
$\chi^2(df)/t$			43.8(4)***				5.27***
연령							
15~19세	14.5	9.7	33.9	27.4	14.5	100.0(62)	3.18
20대	9.8	21.2	33.3	26.8	9.0	100.0(553)	3.04
30대	7.2	28.0	37.2	21.3	6.3	100.0(207)	2.91
40대	7.7	29.9	39.3	17.9	5.1	100.0(117)	2.83
50대	3.0	28.4	46.3	20.9	1.5	100.0(67)	2.90
60대 이상	6.3	6.3	43.8	43.8	0.0	100.0(32)	3.25
$\chi^2(df)/F$			47.6(20)***				1.88
혼인 여부							
미혼	9.5	23.6	35.7	23.0	8.1	100.0(901)	2.96
배우자 있음	4.3	16.2	38.5	36.8	4.3	100.0(117)	3.21
배우자 없음	0.0	25.0	30.0	40.0	5.0	100.0(20)	3.25
$\chi^2(df)/F$			20.0(8)*				3.24*
취업여부							
취업	6.5	25.1	37.2	24.4	6.8	100.0(696)	3.00
미취업	13.5	18.1	33.3	25.7	9.4	100.0(342)	2.99
$\chi^2(df)/t$			20.8(4)***				0.06
가구소득							
60% 미만	11.5	25.4	36.0	21.5	5.7	100.0(331)	2.85
60 - 80% 미만	9.7	20.6	37.1	24.0	8.6	100.0(175)	3.01
80 - 100% 미만	8.0	21.7	39.9	20.3	10.1	100.0(138)	3.03
100 - 120% 미만	5.1	26.3	35.0	25.5	8.0	100.0(137)	3.05
120 - 140% 미만	6.5	19.5	33.8	35.1	5.2	100.0(77)	3.13
140 - 160% 미만	9.7	24.2	30.6	27.4	8.1	100.0(62)	3.00

구분	매우 그렇지 않음	그렇지 않은 편임	보통	그런 편임	매우 그렇다	계	평균
160% 이상	5.9	17.8	34.7	32.2	9.3	100.0(118)	3.21
$\chi^2(df)/F$			24.6(24)				2.21*

주: 1) 가구소득은 2017년 2/4분기 통계청 가계동향조사의 월평균 가구소득(4,346,500원)을 100%로 한 것임.

2) 평균은 '매우 그렇지 않다(1점)~매우 그렇다(5점)'으로 산출한 결과임.

\*  $p < .05$ , \*\*\*  $p < .001$ .

〈표 III-1-21〉은 좋은 부모의 역할을 하기 위해서 중요한 점이 무엇인지 질문한 결과이다. 그 결과 자녀에 대한 정서적 지원이 51.6%로 가장 높게 나타났고, 생활 태도 및 습관 지도가 24.2%로 그 다음으로 높게 나타났다. 경제적 지원의 경우 15.6%, 양육 지식의 경우 7.8%로 나타났다. 대상자 특성별로는 성별, 연령대별, 영유아 자녀유무, 가구소득에 따라 응답비율에 차이가 있었다.

〈표 III-1-21〉 좋은 부모 역할 수행을 위해 중요한 요소

단위: %, (명)

구분	양육지식	정서적 지원	생활태도 및 습관 지도	학업지도	경제적 지원	기타	계
전체(1순위)	7.8	51.6	24.2	0.6	15.6	0.2	(3,000)
성별 구분							
남자	9.6	44.5	25.3	0.9	19.3	0.3	(1,522)
여자	5.9	58.9	23.0	0.3	11.8	0.1	(1,478)
$\chi^2(df)$			78.8(5)***				
연령							
15~19세	17.7	37.1	32.3	0.0	12.9	0.0	(62)
20대	10.2	54.6	18.6	0.6	15.7	0.3	(619)
30대	7.6	60.8	18.0	0.2	12.7	0.6	(510)
40대	8.3	55.5	19.8	0.5	15.8	0.0	(600)
50대	4.8	51.0	28.1	0.8	15.2	0.0	(623)
60대 이상	6.8	38.7	34.8	0.9	18.4	0.3	(586)
$\chi^2(df)$			121.9(25)***				
영유아 자녀유무							
유	10.1	58.4	19.3	0.4	11.5	0.4	(524)
무	5.8	49.7	27.6	0.6	16.2	0.1	(1,438)
$\chi^2(df)$			33.9(5)***				
가구소득							
60% 미만	9.4	44.6	26.2	0.7	18.9	0.3	(608)
60 - 80% 미만	8.2	49.9	24.6	0.4	16.8	0.2	(525)
80 - 100% 미만	6.7	55.0	24.3	0.4	13.4	0.2	(449)
100 - 120% 미만	9.0	50.6	25.1	0.2	15.1	0.0	(522)

구분	양육지식	정서적 지원	생활태도 및 습관 지도	학업지도	경제적 지원	기타	계
120 - 140% 미만	7.6	55.6	19.7	1.3	15.9	0.0	(315)
140 - 160% 미만	3.5	58.1	20.7	1.0	16.7	0.0	(198)
160% 이상	6.5	56.1	24.5	0.8	11.2	0.8	(383)
$\chi^2(df)$			49.3(30)***				
전체(1+2순위)	15.4	76.4	58.8	3.3	45.8	0.3	(3,000)

주: 가구소득은 2017년 2/4분기 통계청 가계동향조사의 월평균 가구소득(4,346,500원)을 100%로 한 것임.

\*\*\*  $p < .001$ .

〈표 III-1-22〉는 부모가 필요시 자녀에게 체벌(몸에 직접 고통을 주어 벌함)을 가해도 되는지에 대해 조사한 결과이다. 응답자의 53.0%가 체벌을 할 수 있다고 하였고, 38.7%는 체벌을 해서는 안된다고 하였다. 20대 이상에서는 체벌을 할 수 있다는 응답이 체벌을 해서는 안된다는 응답비율보다 더 높게 나타났으나, 10대에서는 체벌을 해서는 안된다는 응답이 48.4%로 체벌을 할 수 있다는 비율인 32.3%보다 더 높게 나타났다.

〈표 III-1-22〉 부모의 자녀 체벌에 대한 인식

단위: %(명)

구분	체벌 할 수 있다	체벌은 하면 안된다	모르겠다	계
전체	53.0	38.7	8.3	100.0(3,000)
성별				
남자	54.3	37.1	8.5	100.0(1,522)
여자	51.7	40.3	8.1	100.0(1,478)
$\chi^2(df)$		3.1(2)		
연령				
15~19세	32.3	48.4	19.4	100.0(62)
20대	52.3	34.4	13.2	100.0(619)
30대	55.3	33.1	11.6	100.0(510)
40대	52.2	43.3	4.5	100.0(600)
50대	52.5	40.6	6.9	100.0(623)
60대 이상	55.5	40.1	4.4	100.0(586)
$\chi^2(df)$		75.5(10)***		
지역규모				
서울특별시	53.6	38.6	7.8	100.0(580)
광역시/특별자치시	49.8	39.4	10.8	100.0(805)
중소도시	53.8	39.1	7.1	100.0(1,484)
군(읍면지역)	61.8	29.8	8.4	100.0(131)
$\chi^2(df)$		15.2(6)*		
혼인 여부				
미혼	51.1	35.7	13.2	100.0(910)

행복한 육아문화 조성을 위한 KICCE 육아정책 여론조사(III)

구분	체벌 할 수 있다	체벌은 하면 안된다	모르겠다	계
배우자 있음	54.0	40.1	6.0	100.0(1,942)
배우자 없음	52.7	38.5	8.8	100.0(148)
$\chi^2(df)$		42.9(4)***		
자녀 유무				
유	53.4	41.1	5.5	100.0(1,962)
무	52.3	34.1	13.6	100.0(1,038)
$\chi^2(df)$		62.1(2)***		
취업 여부				
취업	54.7	37.7	7.6	100.0(2,170)
미취업	48.8	41.1	10.1	100.0(830)
$\chi^2(df)$		10.2(2)**		

주: 가구소득은 2017년 2/4분기 통계청 가계동향조사의 월평균 가구소득(4,346,500원)을 100%로 한 것임.  
\*  $p < .05$ , \*\*  $p < .01$ , \*\*\*  $p < .001$ .

〈표 III-1-23〉은 일을 하면서 자녀양육과 돌봄을 동시에 수행하는 것이 어떻다고 생각하는지를 조사한 결과이다. 응답자의 94.5%가 일·가정양립이 어렵다고 하였고, 5점 평균으로 4.35점이었다.

〈표 III-1-23〉 일·가정 양립의 어려움에 대한 인식

단위: %(명), 점

구분	매우 쉬움	쉬운 편임	보통	어려운 편임	매우 어려움	계	평균
전체	0.0	0.2	5.2	53.9	40.6	100.0(3,000)	4.35
성별 구분							
남자	0.1	0.4	6.4	56.3	36.8	100.0(1,522)	4.29
여자	0.0	0.1	4.0	51.5	44.5	100.0(1,478)	4.40
$\chi^2(df)$			27.1(4)***				-5.10***
연령							
15~19세	0.0	1.6	9.7	61.3	27.4	100.0(62)	4.15
20대	0.2	0.3	6.8	49.1	43.6	100.0(619)	4.36
30대	0.0	0.2	5.1	47.8	46.9	100.0(510)	4.41
40대	0.0	0.3	3.5	55.0	41.2	100.0(600)	4.37
50대	0.0	0.2	4.8	61.6	33.4	100.0(623)	4.28
60대 이상	0.0	0.0	5.5	54.3	40.3	100.0(586)	4.35
$\chi^2(df)$			50.7(20)***				4.47***
자녀 유무							
유	0.1	0.2	5.2	55.7	38.8	100.0(1,962)	4.33
무	0.0	0.3	5.2	50.7	43.8	100.0(1,038)	4.38
$\chi^2(df)$			8.0(4)				-2.20*

주: 평균은 '매우 쉬움(1점)~매우 어려움(5점)'으로 산출한 결과임.  
\*  $p < .05$ , \*\*\*  $p < .001$ .

<표 III-1-24>~<표 III-1-26>은 영유아 자녀가 있는 응답자를 대상으로 평소 자녀 양육시 스마트폰 빈도를 조사한 결과이다. 먼저 자녀와 함께 놀이할 때 스마트폰 사용 정도를 살펴보면, 전체적으로는 5점 평균에 2.81점으로 보통수준으로 나타났다. 다소 많이 사용한다는 비율은 27.1%였고, 20-30대가 다소 스마트폰 사용 빈도가 많았다.

<표 III-1-24> 영유아 부모의 자녀 양육 시 스마트폰 사용 정도\_자녀와 함께 놀이할 때(5점 척도)

단위: %(명), 점

구분	전혀 안한다		⇔		매우 많이 사용한다	계	평균
	①	②	③	④	⑤		
전체	10.7	29.8	31.5	23.9	4.2	100.0(524)	2.81
성별 구분							
남자	10.8	29.4	30.7	24.5	4.6	100.0(323)	2.83
여자	10.4	30.3	32.8	22.9	3.5	100.0(201)	2.79
$\chi^2(df)$				0.8(4)			0.43
연령							
20대	10.0	20.0	43.3	20.0	6.7	100.0(60)	2.93
30대	8.7	29.0	29.3	28.6	4.3	100.0(276)	2.91
40대	13.8	34.0	30.9	18.1	3.2	100.0(188)	2.63
$\chi^2(df)$				16.0(8)*			4.57*
지역규모							
서울특별시	20.4	33.0	23.3	19.4	3.9	100.0(103)	2.53
광역시/특별자치시	8.9	24.0	33.6	28.1	5.5	100.0(146)	2.97
중소도시	8.4	31.3	34.4	22.9	3.1	100.0(262)	2.81
군(읍면지역)	0.0	38.5	15.4	30.8	15.4	100.0(13)	3.23
$\chi^2(df)$				26.5(12)**			4.33**

주: 평균은 '전혀 안한다(1점)~매우 많이 사용한다(5점)'으로 산출한 결과임.

\*  $p < .05$ , \*\*  $p < .01$ .

<표 III-1-25>는 자녀와 함께 식사할 때 전화나 문자 사용, 동영상 시청, 게임, 검색 등을 위해 스마트폰을 얼마나 자주 사용하는지를 조사한 결과이다. 전체적으로는 5점 평균에 2.35점으로 나타났다. 다만, 17.4%는 자녀와 식사할 때 스마트폰을 자주 사용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표 III-1-25〉 영유아 부모의 자녀 양육 시 스마트폰 사용 정도\_자녀와 함께 식사할 때

단위: %(명), 점

구분	전혀 안한다		⇔		매우 많이 사용한다	계	평균
	①	②	③	④	⑤		
전체	29.4	27.1	26.1	14.3	3.1	100.0(524)	2.35
성별 구분							
남자	23.2	27.9	28.2	17.0	3.7	100.0(323)	2.50
여자	39.3	25.9	22.9	10.0	2.0	100.0(201)	2.09
$\chi^2(df)$	18.0(4)**						4.05***
연령							
20대	26.7	31.7	23.3	13.3	5.0	100.0(60)	2.38
30대	25.7	26.4	28.3	16.3	3.3	100.0(276)	2.45
40대	35.6	26.6	23.9	11.7	2.1	100.0(188)	2.18
$\chi^2(df)$	8.5(8)						3.20*

주: 평균은 '전혀 안한다(1점)~매우 많이 사용한다(5점)'으로 산출한 결과임.

\*  $p < .05$ , \*\*  $p < .01$ , \*\*\*  $p < .001$ .

〈표 III-1-26〉는 영유아 자녀를 재울 때 스마트폰을 얼마나 자주 사용하는지를 조사한 결과이다. 전체적으로는 5점 평균에 2.26점으로 나타났다. 다만, 17.2%는 자녀를 재울 때에도 스마트폰을 자주 사용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표 III-1-26〉 영유아 부모의 자녀 양육 시 스마트폰 사용 정도\_자녀를 재울 때

단위: %(명), 점

구분	전혀 안한다		⇔		매우 많이 사용한다	계	평균
	①	②	③	④	⑤		
전체	34.2	26.9	21.8	12.8	4.4	100.0(524)	2.26
성별 구분							
남자	33.1	24.5	22.3	15.8	4.3	100.0(323)	2.34
여자	35.8	30.8	20.9	8.0	4.5	100.0(201)	2.14
$\chi^2(df)$	8.2(4)						1.85
연령							
20대	25.0	28.3	30.0	8.3	8.3	100.0(60)	2.47
30대	35.9	25.4	19.2	14.1	5.4	100.0(276)	2.28
40대	34.6	28.7	22.9	12.2	1.6	100.0(188)	2.18
$\chi^2(df)$	12.6(8)						1.43

주: 평균은 '전혀 안한다(1점)~매우 많이 사용한다(5점)'으로 산출한 결과임.



〈표 III-1-27〉은 영유아 부모를 대상으로 하루동안의 시간 사용에 대한 만족도를 조사한 결과이다. 전체적으로 근무시간은 8.80시간, 집에 머무는 시간은 5.14시간, 자녀와 함께 보내는 시간은 2.74시간으로 나타났다. 근무시간에 대해서는 적절하다와 길다는 의견이 거의 동일하게 나왔고, 집에 머무는 시간과 자녀와 함께 보내는 시간이 부족하다는 응답이 각각 60.7%, 71.9%로 나타났다.

〈표 III-1-27〉 영유아 부모의 시간사용에 대한 만족도

단위: 시간, %(명)

구분	사용시간 평균	시간사용 만족도			계
		너무 길다	적절하다	부족하다	
근무시간	8.80	48.7	48.1	3.2	100.0(462)
집에 머무는 시간	5.14	4.8	34.5	60.7	100.0(524)
자녀와 함께 보내는 시간	2.74	3.2	24.8	71.9	100.0(524)

〈표 III-1-28〉은 영유아 부모를 대상으로 하루 평균 근무시간과 이에 대한 만족도를 조사한 결과이다. 전체적으로 하루평균 8.80시간을 근무하는 것으로 조사되었고, 근무시간이 너무 길다와 적절하다가 거의 비슷한 비율을 보였다. 남자의 경우 평균 9.14시간, 여자는 평균 8.10시간으로 남자의 근무시간이 1시간 가량 더 많았다. 연령대로는 20대가 평균적으로 가장 적은 근무시간을 보임에도 불구하고 근무시간은 만족도는 20대에서 너무 길다라는 인식이 가장 높게 나타났다. 맞벌이 유무별로는 외벌이인 경우에 근무시간이 맞벌이보다 1시간가량 더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표 III-1-28〉 영유아 부모의 시간사용에 대한 만족도 - 근무시간

단위: 시간, %(명)

구분	근무시간 평균	근무시간 만족도			계
		너무 길다	적절하다	부족하다	
전체	8.80	48.7	48.1	3.2	100.0(462)
성별 구분					
남자	9.14	48.6	48.6	2.9	100.0(311)
여자	8.10	49.0	47.0	4.0	100.0(151)
$\chi^2(df)/t$	6.68***		53.6(3)***		

구분	근무시간 평균	근무시간 만족도			계
		너무 길다	적절하다	부족하다	
연령					
20대	8.73	52.3	45.5	2.3	100.0(44)
30대	8.85	49.2	48.0	2.8	100.0(248)
40대	8.74	47.1	48.8	4.1	100.0(170)
$\chi^2(df)/F$	0.26		15.3(6)*		
맞벌이 유무					
맞벌이	8.53	46.3	49.8	3.9	100.0(309)
외벌이	9.40	53.6	44.4	2.0	100.0(143)
$\chi^2(df)/t$	-		79.7(3)***		

\*  $p < .05$ , \*\*\*  $p < .001$ .

〈표 III-1-29〉는 영유아 부모를 대상으로 하루 평균 집에 머무는 시간(취침시간 제외)과 이에 대한 만족도를 조사한 결과이다. 전체적으로 하루평균 5.14시간을 집에 머무는 것으로 조사되었고, 집에 머무는 시간이 부족하다는 응답은 60.7%, 적절하다는 응답은 34.5%, 너무 길다는 응답은 4.8%로 나타났다. 남자가 여자보다, 취업자가 미취업자보다 집에 머무는 시간이 더 길었다.

〈표 III-1-29〉 영유아 부모의 시간사용에 대한 만족도 - 집에 머무는 시간

단위: 시간, %(명)

구분	집에 머무는 시간 평균	집에 머무는 시간 사용 만족도			계
		너무 길다	적절하다	부족하다	
전체	5.14	4.8	34.5	60.7	100.0(524)
성별 구분					
남자	4.49	2.5	34.4	63.2	100.0(323)
여자	6.20	8.5	34.8	56.7	100.0(201)
$\chi^2(df)/t$	2.27*			10.1(2)**	
연령					
20대	5.57	10.0	43.3	46.7	100.0(60)
30대	4.99	3.6	31.9	64.5	100.0(276)
40대	5.24	4.8	35.6	59.6	100.0(188)
$\chi^2(df)/F$	1.25			8.8(4)	
취업 여부					
취업	4.80	2.4	32.5	65.2	100.0(468)
미취업	8.00	25.0	51.8	23.2	100.0(56)
$\chi^2(df)/t$	8.30***			73.7(2)***	

\*  $p < .05$ , \*\*  $p < .01$ , \*\*\*  $p < .001$ .

〈표 III-1-30〉은 영유아 부모를 대상으로 하루 평균 자녀와 함께 보내는 시간을 조사한 결과이다. 함께 놀거나 식사하거나 외출하는데 보내는 시간은 하루평균 2.74시간으로 나타났다. 남자보다는 여자가 영유아 자녀와 함께 하는 시간은 각각 2.20시간, 3.61시간으로 여자가 더 많았고, 응답자가 미취업한 경우에 자녀와 노는 시간이 더 많았다.

자녀와 함께하는 시간사용에 대한 만족도는 전체적으로 부족하다는 응답비율이 71.9%로 대부분이었고, 취업자와 미취업자 간 응답비율에 차이를 보였다.

〈표 III-1-30〉 영유아 부모의 시간사용에 대한 만족도 - 자녀와 함께 보내는 시간

단위: 시간, %(명)

구분	자녀와 함께 보내는 시간 평균	자녀와 함께 보내는 시간 사용 만족도			계
		너무길다	적절하다	부족하다	
전체	2.74	3.2	24.8	71.9	100.0(524)
성별 구분					
남자	2.20	2.8	24.1	73.1	100.0(323)
여자	3.61	4.0	25.9	70.1	100.0(201)
$\chi^2(df)/t$	5.42**			0.8(2)	
연령					
20대	3.46	10.0	26.7	63.3	100.0(60)
30대	2.75	2.2	23.9	73.9	100.0(276)
40대	2.49	2.7	25.5	71.8	100.0(188)
$\chi^2(df)/F$	3.01			10.6	
취업 여부					
취업	2.49	2.1	21.6	76.3	100.0(468)
미취업	4.79	12.5	51.8	35.7	100.0(56)
$\chi^2(df)/t$	5.59***			46.4***	

\*\*  $p < .01$ , \*\*\*  $p < .001$ .

## 2. 결혼 및 자녀 양육관에 대한 여론

### 가. 결혼 가치관

〈표 III-2-1〉은 결혼을 해야 하는지에 대해서 질문한 결과이다. 전체적으로 반드시 해야한다고 12.4%, 하는 편이 좋다가 40.6%, 해도 좋고 하지 않아도 좋다가 42.7%, 하지 않는게 낫다는 응답이 4.2%였다. 결혼이 필요하다고 응답한 비율(반드시 해야 한다+하는 편이 좋다)이 53.0%로 나타났다.

특성별로 살펴보면 남자는 결혼이 필요하다는 비율이 64.7%였고, 여자는 41.1%로 성별로 응답비율에 차이를 보였다. 연령대별로는 50대와 60대 이상에서 결혼이 필요하다는 응답이 각각 60.1%, 72.6%인데 반해, 10대, 20대, 30대, 40대는 각각 40.3%, 40.1%, 43.5%, 49.5%로 나타나 연령대별로 응답비율에 차이를 보였다.

〈표 III-2-1〉 결혼의 필요성

단위: %(명)

구분	반드시 해야 한다	하는 편이 좋다	해도 좋고 하지 않아도 좋다	하지 않는게 낫다	계
전체	12.4	40.6	42.7	4.2	100.0(3,000)
성별 구분					
남자	17.3	47.4	32.9	2.4	100.0(1,522)
여자	7.4	33.7	52.9	6.0	100.0(1,478)
$\chi^2(df)$		188.1(3)***			
연령					
15~19세	3.2	37.1	45.2	14.5	100.0(62)
20대	6.8	33.3	49.8	10.2	100.0(619)
30대	9.2	34.3	51.2	5.3	100.0(510)
40대	11.0	38.5	47.7	2.8	100.0(600)
50대	13.6	46.5	38.5	1.3	100.0(623)
60대 이상	22.4	50.2	27.1	.3	100.0(586)
$\chi^2(df)$		266.1(15)***			
혼인 여부					
미혼	4.5	29.8	56.5	9.2	100.0(910)
배우자 있음	16.4	45.8	36.0	1.8	100.0(1,942)
배우자 없음	9.5	39.2	45.9	5.4	100.0(148)
$\chi^2(df)$		254.7(6)***			

구분	만드시 해야 한다	하는 편이 좋다	해도 좋고 하지 않아도 좋다	하지 않는게 낫다	계
자녀 유무					
유	16.4	45.8	35.9	1.9	100.0(1,962)
무	4.9	30.8	55.7	8.6	100.0(1,038)
$\chi^2(df)$		244.3(3)***			
취업 여부					
취업	13.2	40.6	42.8	3.4	100.0(2,170)
미취업	10.4	40.7	42.5	6.4	100.0(830)
$\chi^2(df)$		17.0(3)**			

주: 독립변수에 따라 사례수 합이 일치하지 않을 수 있음.

\*\*  $p < .01$ , \*\*\*  $p < .001$ .

### 나. 결혼과 출산의 관계

〈표 III-2-2〉는 결혼을 하지 않고 자녀를 가질 수 있는지에 대해서 질문한 결과이다. 전체적으로 전혀 동의하지 않는다는 비율이 25.5%, 별로 동의하지 않는다는 44.5% 대체로 동의한다 26.8%, 전적으로 동의한다가 3.2%였다. 동의 정도에 대한 점수는 평균 2.08점으로 나타나 결혼을 하지 않고 자녀를 가질 수 있다는 의견에 대해 동의하지 않는다는 의견이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응답자 특성별로 차이를 살펴보면, 성별에 따른 차이는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연령이 증가할수록 결혼을 하지 않고 자녀를 가질 수 있다는 데 동의하는 정도가 낮아졌으며, 미혼인 경우가 결혼을 경험했던 사람들보다 결혼을 하지 않고 자녀를 가질 수 있다는 데 동의하는 정도가 높았다. 또한 영유아자녀가 있는 경우가 없는 경우보다 결혼을 하지 않고 자녀를 가질 수 있다는 데 동의하는 정도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표 III-2-2〉 결혼과 자녀에 대한 생각에 대한 동의정도 - 결혼을 하지 않고 자녀를 가질 수 있다

단위: %(명), 점

구분	전혀 동의하지 않음	별로 동의하지 않음	대체로 동의함	전적으로 동의함	계	평균
전체	25.5	44.5	26.8	3.2	100.0(3,000)	2.08
성별 구분						
남자	25.4	44.7	26.8	3.2	100.0(1,522)	2.08
여자	25.6	44.3	26.8	3.2	100.0(1,478)	2.08
$\chi^2(df)/t$		0.7(3)				0.04

구분	전혀 동의하지 않음	별로 동의하지 않음	대체로 동의함	전적으로 동의함	계	평균
연령						
15~19세	21.0	46.8	25.8	6.5	100.0(62)	2.18
20대	22.0	36.8	35.5	5.7	100.0(619)	2.25
30대	24.3	41.6	30.8	3.3	100.0(510)	2.13
40대	21.5	48.7	27.0	2.8	100.0(600)	2.11
50대	26.6	48.5	22.3	2.6	100.0(623)	2.01
60대 이상	33.6	46.4	18.8	1.2	100.0(586)	1.88
$\chi^2(df)/F$		98.9(15)***				15.20***
혼인 여부						
미혼	19.5	40.2	35.9	4.4	100.0(910)	2.25
배우자 있음	28.2	46.5	22.6	2.7	100.0(1,942)	2.00
배우자 없음	27.0	44.6	25.7	2.7	100.0(148)	2.04
$\chi^2(df)/F$		71.3(6)***				32.11***
영유아자녀유무						
유	28.1	41.0	26.1	4.8	100.0(524)	2.08
무	28.8	49.1	20.3	1.8	100.0(1,438)	1.95
$\chi^2(df)/t$		24.4(3)***				2.96**
맞벌이 유무						
맞벌이	28.3	44.3	23.5	3.9	100.0(1,040)	2.03
외벌이	28.2	49.0	21.6	1.2	100.0(902)	1.96
$\chi^2(df)/t$		24.4(3)***				

주: 1) 독립변수에 따라 사례수 합이 일치하지 않을 수 있음.

2) 평균은 '전혀 동의하지 않음(1점)~전적으로 동의함(4점)'으로 산출한 결과임.

\*\*\*  $p < .001$ .

<표 III-2-3>은 자녀를 낳아 기르려면 결혼을 해야한다고 질문한 결과를 보여준다. 전체적으로 전혀 동의하지 않는다가 4.2%, 별로 동의하지 않는다가 19.2%, 대체로 동의한다가 49.2%, 전적으로 동의한다가 27.3%로 나타났고, 동의정도에 대한 점수는 3.00점으로 나타나 동의한다는 수준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응답자 특성별로 살펴보면 남자가 여자에 비해, 연령이 높을수록 자녀를 낳아 기르려면 결혼해야한다는 것에 동의하는 정도가 높은 나타났다. 또한 현재 기혼인 경우가 미혼인 경우에 비해, 자녀가 있는 경우가 없는 경우에 비해, 맞벌이가 아닌 경우가 맞벌이인 경우보다 자녀를 낳아 기르려면 결혼해야 한다는 것에 동의하는 정도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표 III-2-3〉 결혼과 자녀에 대한 생각에 대한 동의정도 - 자녀를 낳아 기르려면 결혼을 해야 한다

단위: %(명), 점

구분	전혀 동의하지 않음	별로 동의하지 않음	대체로 동의함	전적으로 동의함	계	평균
전체	4.2	19.2	49.2	27.3	100.0(3,000)	3.00
성별 구분						
남자	2.8	17.1	50.7	29.4	100.0(1,522)	3.07
여자	5.7	21.4	47.8	25.1	100.0(1,478)	2.92
$\chi^2(df)/t$		28.3(3)***				4.97***
연령						
15~19세	8.1	24.2	48.4	19.4	100.0(62)	2.79
20대	9.5	25.2	43.3	22.0	100.0(619)	2.78
30대	3.9	23.5	46.7	25.9	100.0(510)	2.95
40대	3.3	20.5	54.7	21.5	100.0(600)	2.94
50대	2.6	16.9	51.8	28.7	100.0(623)	3.07
60대 이상	1.2	9.9	49.5	39.4	100.0(586)	3.27
$\chi^2(df)/F$		164.6(15)***				27.25***
혼인 여부						
미혼	7.4	27.4	45.8	19.5	100.0(910)	2.77
배우자 있음	2.8	15.6	51.3	30.3	100.0(1,942)	3.09
배우자 없음	3.4	17.6	42.6	36.5	100.0(148)	3.12
$\chi^2(df)/F$		126.0(3)***				52.73***
자녀 유무						
유	2.4	15.2	51.1	31.2	100.0(1,962)	3.11
무	7.6	26.8	45.8	19.8	100.0(1,038)	2.78
$\chi^2(df)/t$		126.0(3)*				10.65***
영유아 자녀유무						
유	3.2	18.9	50.2	27.7	100.0(524)	3.02
무	2.2	13.9	51.4	32.5	100.0(1,438)	3.14
$\chi^2(df)/t$		11.2(3)*				-3.19**
맞벌이 여부						
맞벌이	3.5	17.2	50.4	28.9	100.0(1,040)	3.05
비맞벌이	2.1	13.6	52.4	31.8	100.0(902)	3.14
$\chi^2(df)/t$		8.8(3)				

주: 1) 독립변수에 따라 사례수 합이 일치하지 않을 수 있음.

2) 평균은 '전혀 동의하지 않음(1점)~전적으로 동의함(4점)'으로 산출한 결과임.

\* p < .05, \*\* p < .01, \*\*\* p < .001.

〈표 III-2-4〉는 결혼을 하면 자녀가 있어야 한가에 동의하는지에 조사한 결과이다. 전체적으로 전혀 동의하지 않는다고 응답한 비율이 14.5%였으며, 별로 동의하지 않는다 35.0%, 대체로 동의한다 38.2%, 전적으로 동의한다가 12.2%였다. 동

의 정도의 평균은 4점 평균으로 2.48점이었으며 대체로 동의한다와 전적으로 동의한다라고 응답한 결과의 합이 50.4%로 나와 동의한다라고 응답한 비율이 전체적으로 다소 높았다.

응답자 특성별로 살펴보면 남자가 여자에 비해, 연령대가 올라갈수록 결혼을 하면 자녀가 있어야 한다에 동의하는 정도가 높았다. 또한 기혼이 미혼에 비해, 자녀가 있는 경우가 없는 경우에 비해 결혼을 하면 자녀가 있어야 한다에 동의하는 정도가 높았다.

〈표 III-2-4〉 결혼과 자녀에 대한 생각에 대한 동의정도 - 결혼을 하면 자녀가 있어야 한다

단위: %(명), 점

구분	전혀 동의하지 않음	별로 동의하지 않음	대체로 동의함	전적으로 동의함	계	평균
전체	14.5	35.0	38.2	12.2	100.0(3,000)	2.48
성별 구분						
남자	9.9	31.2	44.2	14.7	100.0(1,522)	2.64
여자	19.4	39.0	32.1	9.6	100.0(1,478)	2.32
$\chi^2(df)/t$		104.4(3)***				10.00***
연령						
15~19세	37.1	38.7	22.6	1.6	100.0(62)	1.89
20대	32.8	40.2	21.6	5.3	100.0(619)	2.00
30대	19.2	42.2	31.4	7.3	100.0(510)	2.27
40대	10.8	41.0	37.3	10.8	100.0(600)	2.48
50대	5.6	31.3	48.3	14.8	100.0(623)	2.72
60대 이상	2.0	20.8	53.6	23.5	100.0(586)	2.99
$\chi^2(df)/F$		542.4(15)***				114.37***
혼인 여부						
미혼	28.4	42.7	22.4	6.5	100.0(910)	2.07
배우자 있음	8.3	31.6	45.4	14.7	100.0(1,942)	2.66
배우자 없음	11.5	32.4	41.2	14.9	100.0(148)	2.59
$\chi^2(df)/F$		315.9(6)***				155.32***
자녀 유무						
유	7.2	30.9	46.4	15.5	100.0(1,962)	2.70
무	28.3	42.9	22.8	6.0	100.0(1,038)	2.06
$\chi^2(df)/t$		384.4(3)***				19.93***
영유아 자녀유무						
유	14.1	34.2	41.2	10.5	100.0(524)	2.48
무	4.7	29.7	48.3	17.3	100.0(1,438)	2.78
$\chi^2(df)/t$		64.9(3)***				-7.00***



구분	전혀 동의하지 않음	별로 동의하지 않음	대체로 동의함	전적으로 동의함	계	평균
취업 여부						
취업	13.9	35.1	38.7	12.4	100.0(2,170)	2.50
미취업	16.3	34.9	37.0	11.8	100.0(830)	2.44
$\chi^2(df)/t$		3.0				1.44

주: 1) 독립변수에 따라 사례수 합이 일치하지 않을 수 있음.  
 2) 평균은 '전혀 동의하지 않음(1점)~전적으로 동의함(4점)'으로 산출한 결과임.  
 \*\*\*  $p < .001$ .

결혼과 자녀에 대한 생각을 연령대별로 종합하면 다음의 <표 III-2-5>와 같다.

<표 III-2-5> 결혼과 자녀에 대한 생각에 대한 동의정도

단위: 점

구분	전체	15~19세	20대	30대	40대	50대	60대 이상	F
결혼을 하지 않고 자녀를 가질 수 있다	2.08	2.18	2.25	2.13	2.11	2.01	1.88	15.20***
자녀를 낳아 기르려면 결혼을 해야 한다	3.00	2.79	2.78	2.95	2.94	3.07	3.27	27.25***
결혼을 하면 자녀가 있어야 한다	2.48	1.89	2.00	2.27	2.48	2.72	2.99	114.37***
사례수	(3,000)	(62)	(619)	(510)	(600)	(623)	(586)	

주: 점수는 '전혀 동의하지 않음(1점)~전적으로 동의함(4점)'으로 산출한 결과임.  
 \*\*\*  $p < .001$ .

## 라. 자녀에 대한 필요성

<표 III-2-6>은 자녀 존재의 필요성 여부에 대해서 질문한 결과를 나타낸다. 전체적으로 꼭 있어야 한다고 응답한 비율이 31.9%, 있는 것이 없는 것보다 나올 것이다가 42.7%, 없어도 무방하다는 응답이 22.2%, 모르겠다고 응답한 비율은 3.2%였다.

성별 구분으로 살펴보면, 남자의 경우가 꼭 있어야 한다는 비율이 37.5%, 여성은 26.2%로, 있는 것이 낫다는 비율도 각각 43.6%, 41.7%로 남자가 여자보다 자녀에 대한 필요성을 크게 인식하고 있었다. 연령대별로는 10대에서는 꼭 있어야 한다고 응답한 비율이 14.5%에 반해 60대 이상에서는 43.9%로 나타나 자녀의 필요성 여부에 대한 지각이 세대차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미혼인 경우는 꼭 있어야

한다는 비율은 12.1%로, 배우자가 있는 경우 41.0%에 비해 낮았고, 자녀유무에 따라서는 자녀가 있는 경우에 꼭 있어야 한다는 비율이 42.4%, 없는 경우는 12.1%로 나타났다. 취업여부에 따라서는 미취업인 경우가 취업한 경우보다 꼭 있어야한다고 응답한 비율이 상대적으로 낮았고, 가구소득에 따라서는 월평균가구소득 대비 60% 미만인 가구에서 자녀의 필요성이 다소 낮게 나타났다.

〈표 III-2-6〉 자녀존재의 필요성 여부

단위: %(명)

구분	꼭 있어야 한다	있는 것이 없는 것보다 나올 것이다	없어도 무방함	모르겠음	계
전체	31.9	42.7	22.2	3.2	100.0(3,000)
성별 구분					
남자	37.5	43.6	16.6	2.4	100.0(1,522)
여자	26.2	41.7	28.1	4.1	100.0(1,478)
$\chi^2(df)$		82.0(3)***			
연령					
15~19세	14.5	37.1	41.9	6.5	100.0(62)
20대	14.1	37.8	41.8	6.3	100.0(619)
30대	30.4	40.4	25.3	3.9	100.0(510)
40대	36.0	41.2	20.3	2.5	100.0(600)
50대	37.4	47.4	13.0	2.2	100.0(623)
60대 이상	43.9	46.9	8.5	.7	100.0(586)
$\chi^2(df)$		344.0(15)***			
혼인 여부					
미혼	12.1	36.4	45.7	5.8	100.0(910)
배우자 있음	41.0	45.7	11.3	1.9	100.0(1,942)
배우자 없음	33.8	41.2	20.9	4.1	100.0(148)
$\chi^2(df)$		535.5(6)***			
자녀 유무					
유	42.4	45.4	10.5	1.8	100.0(1,962)
무	12.1	37.6	44.4	5.9	100.0(1,038)
$\chi^2(df)$		590.6(3)***			
취업 여부					
취업	33.6	41.8	21.9	2.7	100.0(2,170)
미취업	27.5	44.9	23.0	4.6	100.0(830)
$\chi^2(df)$		15.6(3)***			
가구소득					
60% 미만	24.2	41.9	29.8	4.1	100.0(608)

구분	꼭 있어야 한다	있는 것이 없는 것보다 나은 것이다		없어도 무방함	모르겠음	계
		있는 것이 없는 것보다 나은 것이다	없어도 무방함			
60 - 80% 미만	34.5	40.8	21.1	3.6	100.0(525)	
80 - 100% 미만	29.4	46.1	20.3	4.2	100.0(449)	
100 - 120% 미만	34.7	41.4	21.6	2.3	100.0(522)	
120 - 140% 미만	34.6	46.0	17.8	1.6	100.0(315)	
140 - 160% 미만	37.9	36.9	21.7	3.5	100.0(198)	
160% 이상	34.5	44.4	18.8	2.3	100.0(383)	
$\chi^2(df)$		52.7(18)***				

주: 1) 가구소득은 2018년 2/4분기 통계청 가계동향조사의 월평균 가구소득(453만원)을 100%로 함.  
 2) 독립변수에 따라 사례수 합이 일치하지 않을 수 있음.  
 \*\*\*  $p < .001$ .

〈표 III-2-7〉은 꼭 자녀가 있어야 하는 주된 이유에 대해서 질문한 결과를 보여 준다. 전체적으로 자녀를 키우면서 느끼는 보람 등 심리적인 만족 때문이라고 응답한 비율이 47.1%로 가장 높았다. 다음으로 가정의 행복과 조화를 위해서 45.4%, 가문(대)을 잇기 위해서가 2.9%순으로 나타났다. 성별로는 남자는 가정의 행복과 조화를 위해서 응답이 가장 높았던 반면 여자는 자녀를 키우면서 느끼는 보람 등 심리적인 만족이라고 응답한 비율이 가장 높았다. 또한 연령대별, 혼인여부, 자녀/영유아자녀 유무에 따라서도 응답비율에 차이가 있었다.

〈표 III-2-7〉 자녀가 있어야 하는 주된 이유

단위: %(명)

구분	배우자(또는 양가 부모)가 원하니까	노후생활을 위해서	가문(대)을 잇기 위해서	경제적으로 도움을 받을 수 있으므로	자녀를 키우면서 느끼는 보람 등 심리적인 만족	가정의 행복과 조화를 위해서	기타	계
전체	1.1	1.6	2.9	0.5	47.1	45.4	1.4	100.0(2,237)
성별 구분								
남자	1.2	1.4	4.6	0.9	41.3	49.4	1.2	100.0(1,234)
여자	0.9	1.9	0.7	0.1	54.1	40.6	1.7	100.0(1,003)
$\chi^2(df)$					67.2(6)***			
연령								
15~19세	0.0	3.1	6.3	3.1	40.6	43.8	3.1	100.0(32)
20대	1.9	1.9	5.6	0.9	45.5	42.1	2.2	100.0(321)
30대	1.1	2.5	1.4	0.6	45.7	47.1	1.7	100.0(361)

행복한 육아문화 조성을 위한 KICCE 육아정책 여론조사(III)

구분	배우자(또는 양가 부모)가 원하니까	노후생활을 위해서	가문(대)을 잇기 위해서	경제적으로 도움을 받을 수 있으므로	자녀를 키우면서 느끼는 보람 등 심리적인 만족	가정의 행복과 조화를 위해서	기타	계
40대	1.9	0.6	1.3	0.4	48.8	45.1	1.7	100.0(463)
50대	0.6	1.5	2.5	0.6	47.9	45.6	1.3	100.0(528)
60대 이상	0.4	1.7	3.8	0.2	47.0	46.4	0.6	100.0(532)
$\chi^2(df)$				46.1(30)*				
혼인 여부								
미혼	1.6	2.3	5.0	0.9	45.8	42.4	2.0	100.0(441)
배우자 있음	1.0	1.4	2.3	0.4	47.4	46.4	1.3	100.0(1685)
배우자 없음	0.0	2.7	3.6	1.8	47.7	43.2	0.9	100.0(111)
$\chi^2(df)$				22.9(12)*				
자녀 유무								
유	1.0	1.2	2.4	0.4	47.2	46.5	1.3	100.0(1721)
무	1.4	2.9	4.5	1.0	46.7	41.7	1.9	100.0(516)
$\chi^2(df)$				19.1(6)**				
영유아 자녀유무								
유	2.0	1.6	1.3	0.9	46.8	46.3	1.1	100.0(447)
무	0.6	1.1	2.7	0.2	47.3	46.6	1.3	100.0(1274)
$\chi^2(df)$				13.5(6)*				

주: 독립변수에 따라 사례수 합이 일치하지 않을 수 있음.

\*  $p < .05$ , \*\*  $p < .01$ , \*\*\*  $p < .001$ .

<표 III-2-8> 자녀가 있어야 하는 주된 이유(연령별 비교)

단위: %(명)

구분	전체	15~19세	20대	30대	40대	50대	60대 이상
배우자(또는 양가 부모)가 원하니까	1.1	0.0	1.9	1.1	1.9	0.6	0.4
노후생활을 위해서	1.6	3.1	1.9	2.5	0.6	1.5	1.7
가문(대)을 잇기 위해서	2.9	6.3	5.6	1.4	1.3	2.5	3.8
경제적으로 도움을 받을 수 있으므로	.5	3.1	0.9	0.6	0.4	0.6	0.2
자녀를 키우면서 느끼는 보람 등 심리적인 만족	47.1	40.6	45.5	45.7	48.8	47.9	47
가정의 행복과 조화를 위해서	45.4	43.8	42.1	47.1	45.1	45.6	46.4
기타	1.4	3.1	2.2	1.7	1.7	1.3	0.6
계	100.0 (3,000)	100.0 (32)	100.0 (321)	100.0 (361)	100.0 (463)	100.0 (528)	100.0 (532)
$\chi^2(df)$					46.1(30)*		

\*  $p < .05$ .

〈표 III-2-9〉는 자녀가 없어도 되는 주된 이유에 대해서 조사한 결과이다. 전체적으로 좋은 부모가 될 자신이 없어서가 29.2%로 가장 응답 비율이 높았다. 다음으로, 경제적으로 여유롭게 생활하기 위해서 23.2%, 자녀가 있으면 자유롭지 못할 것이기 때문에 14.1%, 자녀 양육비용 부담이 많이 되어서 12.1%, 부부만의 생활을 즐기고 싶어서 8.8% 순이었다.

남자의 경우에는 경제적으로 여유롭게 생활하기 위해서가 30.2%로 가장 응답한 비율이 높은 반면 여자의 경우에는 좋은 부모가 될 자신이 없어서가 33.0%로 가장 높았다. 5, 60대 이상의 경우에는 좋은 부모가 될 자신이 없어서가 상대적으로 가장 높게 나타났는데 비해 10대와 20대에서는 경제적으로 여유롭게 생활하기 위해서는 비율이 가장 높게 나타났다.

〈표 III-2-9〉 자녀가 없어도 되는 주된 이유

단위: %(명)

구분	①	②	③	④	⑤	⑥	⑦	⑧	⑨	⑩	⑪	계
전체	23.2	2.4	8.8	14.1	3.0	0.1	0.4	12.1	1.3	29.2	5.1	(667)
성별 구분												
남자	30.2	0.8	13.5	12.3	2.0	0.0	0.8	11.9	1.6	23.0	4.0	(252)
여자	19.0	3.4	6.0	15.2	3.6	0.2	0.2	12.3	1.2	33.0	5.8	(415)
$\chi^2(df)$	33.1(10)***											
연령												
15~19세	34.6	7.7	7.7	7.7	7.7	0.0	3.8	7.7	0.0	19.2	3.8	(26)
20대	26.6	3.1	11.2	15.4	4.2	0.0	0.0	10.4	0.0	23.9	5.0	(259)
30대	25.6	2.3	7.0	16.3	2.3	0.8	0.0	13.2	0.0	29.5	3.1	(129)
40대	17.2	.8	6.6	18.0	2.5	0.0	0.8	13.1	3.3	31.1	6.6	(122)
50대	18.5	1.2	6.2	8.6	0.0	0.0	1.2	17.3	2.5	38.3	6.2	(81)
60대 이상	16.0	2.0	12.0	4.0	2.0	0.0	0.0	10.0	6.0	42.0	6.0	(50)
$\chi^2(df)$	76.3(50)*											
맞벌이 유무												
맞벌이	25.4	2.3	13.1	13.8	0.8	0.8	0.0	11.5	2.3	21.5	8.5	(130)
외벌이	24.4	1.1	3.3	11.1	2.2	0.0	0.0	21.1	4.4	31.1	1.1	(90)
$\chi^2(df)$	18.9(9)*											

주: ①경제적으로 여유롭게 생활하기 위해서, ②직장생활을 계속하고 싶어서, ③부부만의 생활을 즐기고 싶어서, ④자녀가 있으면 자유롭지 못할 것이기 때문에, ⑤본인이 아이를 싫어해서, ⑥배우자가 아이를 싫어해서, ⑦유전병 등 질환 때문에, ⑧자녀 양육비용 부담이 많이 되어서, ⑨아이를 가지고 싶지만 불임 등으로 자녀를 가질 수 없어서, ⑩좋은 부모가 될 자신이 없어서, ⑪기타

\*  $p < .05$ , \*\*\*  $p < .001$ .

〈표 III-2-10〉 자녀가 없어도 되는 주된 이유(연령별 비교)

단위: %(명)

구분	전체	15~19세	20대	30대	40대	50대	60대 이상
경제적으로 여유롭게 생활하기 위해서	23.2	34.6	26.6	25.6	17.2	18.5	16
직장생활을 계속하고 싶어서	2.4	7.7	3.1	2.3	0.8	1.2	2
부부만의 생활을 즐기고 싶어서	8.8	7.7	11.2	7	6.6	6.2	12
자녀가 있으면 자유롭지 못할 것이기 때문에	14.1	7.7	15.4	16.3	18	8.6	4
본인이 아이를 싫어해서	3	7.7	4.2	2.3	2.5	0.0	2
배우자가 아이를 싫어해서	0.1	0.0	0.0	0.8	0.00	0.0	0
유전병 등 질환 때문에	0.4	3.8	0.0	0.0	0.8	1.2	0
자녀 양육비용 부담이 많이 되어서	12.1	7.7	10.4	13.2	13.1	17.3	10
아이를 가지고 싶지만 불임 등으로 자녀를 가질 수 없어서	1.3	0.0	0.0	0.0	3.3	2.5	6
좋은 부모가 될 자신이 없어서	29.2	19.2	23.9	29.5	31.1	38.3	42
기타	5.1	3.8	5	3.1	6.6	6.2	6
계	(667)	(26)	(259)	(129)	(122)	(81)	(50)
$\chi^2(df)$		76.3(50)*					

\*  $p < .05$ .

## 마. 양육 태도

〈표 III-2-11〉은 부모가 지나치게 허용적이면 자녀의 버릇이 나빠지는지 여부에 대해서 조사한 결과이다. 전체적으로 전혀 동의하지 않는다 1.1%, 별로 동의하지 않는다 15.9%, 대체로 동의한다 64.5%, 전적으로 동의한다가 18.5%인 것으로 나타났다, 4점 평균으로 환산하면 3.00수준으로 동의수준이 높았다. 대부분의 사람들이 부모가 지나치게 허용적이면 자녀의 버릇이 나빠진다고 생각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응답자 특성별로 살펴보면 연령대가 낮아질수록 동의한다고 응답한 비율이 높아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혼인 여부에 따르면 미혼인 경우가 동의한다고 응답한 비율이 가장 높았고, 자녀가 없는 경우가 있는 경우보다, 영유아가 자녀가 있는 경우가 없는 경우보다 동의한다고 응답한 비율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표 III-2-11〉 자녀양육 태도에 대한 동의정도 - 부모가 지나치게 허용적이면 자녀의 버릇이 나빠진다

단위: %(명), 점

구분	전혀 동의하지 않음	별로 동의하지 않음	대체로 동의함	전적으로 동의함	계	평균
전체	1.1	15.9	64.5	18.5	100.0(3,000)	3.00
성별 구분						
남자	1.2	15.6	66.0	17.1	100.0(1,522)	2.99
여자	0.9	16.2	62.9	20.0	100.0(1,478)	3.02
$\chi^2(df)/t$		5.2(3)				-1.21
연령						
15~19세	1.6	9.7	64.5	24.2	100.0( 62)	3.11
20대	2.4	12.9	56.7	27.9	100.0(619)	3.10
30대	0.6	13.7	62.4	23.3	100.0(510)	3.08
40대	1.2	15.8	70.3	12.7	100.0(600)	2.95
50대	0.6	22.0	64.2	13.2	100.0(623)	2.90
60대 이상	0.5	15.2	68.8	15.5	100.0(586)	2.99
$\chi^2(df)/F$		107.2(15)***				9.92***
혼인 여부						
미혼	2.0	14.4	57.9	25.7	100.0(910)	3.07
배우자 있음	0.8	16.4	67.7	15.1	100.0(1,942)	2.97
배우자 없음	0.0	18.2	62.2	19.6	100.0(148)	3.01
$\chi^2(df)/F$		59.3(6)***				8.43***
자녀 유무						
유	0.8	17.0	67.5	14.7	100.0(1,962)	2.96
무	1.7	13.8	58.7	25.8	100.0(1,038)	3.09
$\chi^2(df)/t$		64.0(3)***				-5.01***
영유아 자녀유무						
유	1.0	13.0	68.1	17.9	100.0(524)	3.03
무	0.7	18.5	67.3	13.5	100.0(1,438)	2.94
$\chi^2(df)/t$		12.4(3)***				3.15**

주: 1) 독립변수에 따라 사례수 합이 일치하지 않을 수 있음.

2) 평균은 '전혀 동의하지 않음(1점)~전적으로 동의함(4점)'으로 산출한 결과임.

\*\*  $p < .01$ , \*\*\*  $p < .001$ .

〈표 III-2-12〉는 부모는 자녀가 어릴 때 엄격하게 대해야 바르게 키울 수 있는지에 대해서 동의하는지 여부를 질문한 결과이다. 전체적으로 전혀 동의하지 않는다 5.0%, 별로 동의하지 않는다 47.3%, 대체로 동의한다가 41.4%, 전적으로 동의한다가 6.3%로 나타났다. 4점 평균으로 환산하면 2.49 수준이었다. 응답자 특성별로

살펴보면 남자의 동의정도는 2.58점, 여자는 2.40점으로 남자의 평균 동의점수가 더 높았다. 또한 응답자 중 취업자는 2.51점, 미취업자는 2.45점으로 취업자의 평균점수가 통계적으로 더 높았다.

〈표 III-2-12〉 자녀양육 태도에 대한 동의정도 - 부모는 자녀가 어릴 때 엄격하게 대해야 바르게 키울 수 있다

단위: %(명), 점

구분	전혀 동의하지 않음	별로 동의하지 않음	대체로 동의함	전적으로 동의함	계	평균
전체	5.0	47.3	41.4	6.3	100.0(3,000)	2.49
성별 구분						
남자	4.5	41.3	46.3	7.9	100.0(1,522)	2.58
여자	5.5	53.5	36.4	4.7	100.0(1,478)	2.40
$\chi^2(df)/t$		55.0(3)***				6.96***
연령						
15~19세	6.5	43.5	43.5	6.5	100.0( 62)	2.50
20대	6.9	43.8	42.5	6.8	100.0(619)	2.49
30대	5.5	47.1	41.8	5.7	100.0(510)	2.48
40대	5.3	51.3	37.5	5.8	100.0(600)	2.44
50대	3.7	48.8	41.4	6.1	100.0(623)	2.50
60대 이상	3.2	45.9	43.9	7.0	100.0(586)	2.55
$\chi^2(df)/F$		20.1(15)				1.51
취업여부						
취업	4.5	47.3	41.3	6.9	100.0(2,170)	2.51
미취업	6.1	47.3	41.8	4.7	100.0(830)	2.45
$\chi^2(df)/t$		7.9(3)*				1.97*

주: 1) 독립변수에 따라 사례수 합이 일치하지 않을 수 있음.

2) 평균은 '전혀 동의하지 않음(1점)~전적으로 동의함(4점)'으로 산출한 결과임.

\*  $p < .05$ , \*\*\*  $p < .001$ .

〈표 III-2-13〉은 자녀가 잘못할 때는 매를 들 수도 있는지에 대해서 조사한 결과이다. 전체적으로 전혀 동의하지 않는다 7.8%, 별로 동의하지 않는다 26.9%, 대체로 동의한다 56.3%, 전적으로 동의한다가 8.9%로 나타나 자녀가 잘못할 때는 매를 들 수 있다는 응답비율이 높았다. 4점 평균으로 환산하면 2.66수준이었다. 응답자 특성별로 살펴보면 남자는 2.73점, 여자는 2.60점으로 남자가 더 높았고, 연령대별로는 10대의 동의수준이 다소 떨어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표 III-2-13〉 자녀양육 태도에 대한 동의정도 - 자녀가 잘못할 때는 매를 들 수도 있다

단위: %(명), 점

구분	전혀 동의하지 않음	별로 동의하지 않음	대체로 동의함	전적으로 동의함	계	평균
전체	7.8	26.9	56.3	8.9	100.0(3,000)	2.66
성별 구분						
남자	6.0	25.8	57.7	10.4	100.0(1,522)	2.73
여자	9.7	28.1	54.9	7.4	100.0(1,478)	2.60
$\chi^2(df)/t$		23.0(3)***				4.62***
연령						
15~19세	16.1	33.9	35.5	14.5	100.0( 62)	2.48
20대	9.7	24.9	53.8	11.6	100.0(619)	2.67
30대	7.3	23.1	58.6	11.0	100.0(510)	2.73
40대	9.0	29.2	54.0	7.8	100.0(600)	2.61
50대	6.7	28.7	57.5	7.1	100.0(623)	2.65
60대 이상	5.5	27.5	60.2	6.8	100.0(586)	2.68
$\chi^2(df)/F$		45.4(15)***				2.47*
혼인 여부						
미혼	9.5	26.8	53.0	10.8	100.0(910)	2.65
배우자 있음	7.2	26.7	58.0	8.1	100.0(1,942)	2.67
배우자 없음	6.1	30.4	54.7	8.8	100.0(148)	2.66
$\chi^2(df)/F$		13.1(6)*				0.20
취업여부						
취업	7.3	25.9	57.4	9.4	100.0(2,170)	2.69
미취업	9.2	29.8	53.4	7.7	100.0(830)	2.60
$\chi^2(df)/t$		9.6(3)*				3.00**

주: 1) 독립변수에 따라 사례수 합이 일치하지 않을 수 있음.

2) 평균은 '전혀 동의하지 않음(1점)~전적으로 동의함(4점)'으로 산출한 결과임.

\*  $p < .05$ , \*\*  $p < .01$ , \*\*\*  $p < .001$ .

〈표 III-2-14〉는 자녀가 할 수 있다면 안쓰럽지만 힘든 일도 혼자서 해야는지에 대해서 질문한 결과이다. 전체적으로 전혀 동의하지 않는다가 0.5%, 별로 동의하지 않는다가 8.7%, 대체로 동의한다가 72.5%, 전적으로 동의한다가 18.3%로 나타났다, 4점 평균으로 환산하면 3.09수준으로 동의수준이 높았다.

〈표 III-2-14〉 자녀양육 태도에 대한 동의정도 - 자녀가 할 수 있다면 안스럽지만 힘든 일도 혼자서 해야 한다

단위: %(명), 점

구분	전혀 동의하지 않음	별로 동의하지 않음	대체로 동의함	전적으로 동의함	계	평균
전체	0.5	8.7	72.5	18.3	100.0(3,000)	3.09
성별 구분						
남자	0.5	8.7	72.3	18.5	100.0(1,522)	3.09
여자	0.5	8.8	72.6	18.1	100.0(1,478)	3.08
$\chi^2(df)/t$		0.1(3)				0.18
연령						
15~19세	3.2	14.5	64.5	17.7	100.0( 62)	2.97
20대	1.1	11.8	67.0	20.0	100.0(619)	3.06
30대	0.0	8.8	74.1	17.1	100.0(510)	3.08
40대	0.5	9.7	73.7	16.2	100.0(600)	3.06
50대	0.5	6.6	74.0	18.9	100.0(623)	3.11
60대 이상	0.0	6.1	74.7	19.1	100.0(586)	3.13
$\chi^2(df)/F$		44.3(15)***				2.47*
영유아 자녀유무						
유	0.6	10.5	73.1	15.8	100.0(524)	3.04
무	0.3	7.0	74.8	17.8	100.0(1,438)	3.10
$\chi^2(df)/t$		7.3(3)*				-2.26*
가구소득						
60% 미만	0.3	9.4	70.7	19.6	100.0(608)	3.10
60 - 80% 미만	0.8	9.1	69.3	20.8	100.0(525)	3.10
80 - 100% 미만	1.6	9.6	74.4	14.5	100.0(449)	3.02
100 - 120% 미만	0.0	9.0	74.7	16.3	100.0(522)	3.07
120 - 140% 미만	0.3	7.0	71.7	21.0	100.0(315)	3.13
140 - 160% 미만	0.0	11.6	73.2	15.2	100.0(198)	3.04
160% 이상	0.3	5.7	74.4	19.6	100.0(383)	3.13
$\chi^2(df)/F$		34.5(18)*				2.61*

주: 1) 독립변수에 따라 사례수 합이 일치하지 않을 수 있음.

2) 평균은 '전혀 동의하지 않음(1점)~전적으로 동의함(4점)'으로 산출한 결과임.

\*  $p < .05$ , \*\*\*  $p < .001$ .

〈표 III-2-15〉는 자녀들은 부모의 말에 순종해야한다고 생각하는지에 대해서 조사한 결과이다. 전체적으로 전혀 동의하지 않는다 5.5%, 별로 동의하지 않는다 40.3%, 대체로 동의한다 50.5%, 전적으로 동의한다가 3.8%로 나타났다. 4점 평균으로 보면 2.53점 수준이었다.

응답자 특성별로 살펴보면 남자가 여자에 비해 동의한다고 응답한 비율이 높았으며 연령이 높을수록 동의한다고 응답한 비율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기혼

인 경우가 미혼인 경우보다, 자녀가 있는 경우가 없는 경우보다, 영유아 자녀가 없는 경우가 있는 경우보다, 취업한 경우가 미취업인 경우보다 동의한다고 응답한 비율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표 III-2-15〉 자녀양육 태도에 대한 동의정도 - 자녀들은 부모의 말에 순종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단위: %(명), 점

구분	전혀 동의하지 않음	별로 동의하지 않음	대체로 동의함	전적으로 동의함	계	평균
전체	5.5	40.3	50.5	3.8	100.0(3,000)	2.53
성별 구분						
남자	3.7	36.7	54.7	4.9	100.0(1,522)	2.61
여자	7.3	43.9	46.2	2.6	100.0(1,478)	2.44
$\chi^2(df)/t$		49.3(3)***				7.03***
연령						
15~19세	12.9	53.2	27.4	6.5	100.0( 62)	2.27
20대	14.5	52.2	31.0	2.3	100.0(619)	2.21
30대	5.1	52.4	39.8	2.7	100.0(510)	2.40
40대	4.0	42.2	50.0	3.8	100.0(600)	2.54
50대	1.4	29.2	64.5	4.8	100.0(623)	2.73
60대 이상	1.2	25.6	68.4	4.8	100.0(586)	2.77
$\chi^2(df)/F$		369.6(15)***				68.21***
혼인 여부						
미혼	11.1	53.1	33.5	2.3	100.0(910)	2.27
배우자 있음	3.0	34.9	57.9	4.3	100.0(1,942)	2.63
배우자 없음	3.4	32.4	58.1	6.1	100.0(148)	2.67
$\chi^2(df)/F$		212.5(6)***				105.09***
자녀 유무						
유	3.2	33.8	58.6	4.4	100.0(1,962)	2.64
무	9.8	52.4	35.3	2.5	100.0(1,038)	2.30
$\chi^2(df)/t$		193.0(3)***				13.41***
영유아 자녀유무						
유	6.7	44.3	45.2	3.8	100.0(524)	2.46
무	1.9	30.0	63.4	4.7	100.0(1,438)	2.71
$\chi^2(df)/t$		73.3(3)***				-7.40***
취업 여부						
취업	4.6	40.6	50.6	4.2	100.0(2,170)	2.54
미취업	7.7	39.4	50.2	2.7	100.0(830)	2.48
$\chi^2(df)/t$		14.6(3)**				2.44*

주: 1) 독립변수에 따라 사례수 합이 일치하지 않을 수 있음.

2) 평균은 '전혀 동의하지 않음(1점)~전적으로 동의함(4점)'으로 산출한 결과임.

\*  $p < .05$ , \*\*  $p < .01$ , \*\*\*  $p < .001$ .

〈표 III-2-16〉은 자녀를 훌륭하게 키우기 위해서는 사교육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지에 대해서 조사한 결과이다. 전체적으로 전혀 동의하지 않는다 7.6%, 별로 동의하지 않는다 44.9%, 대체로 동의한다 42.9%, 전적으로 동의한다 4.7%로 나타났다. 4점 평균으로 보면 2.45점 수준이었다.

응답자 특성별로 살펴보면, 여자가 남자에 비해 동의한다고 응답한 비율이 높았으며 연령별로는 다른 연령대 보다 20~40대가 동의한다고 응답한 비율이 높았다. 지역별로는 서울특별시와 광역시 등에서 평균이 높게 나타났고, 가구소득이 높을수록 동의에 대한 평균점수가 높게 나타났다.

〈표 III-2-16〉 자녀양육 태도에 대한 동의정도 - 자녀를 훌륭하게 키우기 위해서는 사교육이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단위: %(명), 점

구분	전혀 동의하지 않음	별로 동의하지 않음	대체로 동의함	전적으로 동의함	계	평균
전체	7.6	44.9	42.9	4.7	100.0(3,000)	2.45
성별 구분						
남자	9.1	48.0	37.8	5.1	100.0(1,522)	2.39
여자	6.1	41.6	48.0	4.3	100.0(1,478)	2.50
$\chi^2(df)/t$		34.8(3)***				-4.53***
연령						
15~19세	11.3	45.2	35.5	8.1	100.0( 62)	2.40
20대	8.9	38.8	47.3	5.0	100.0(619)	2.48
30대	6.5	41.4	47.3	4.9	100.0(510)	2.51
40대	6.5	44.7	43.3	5.5	100.0(600)	2.48
50대	7.4	48.6	39.6	4.3	100.0(623)	2.41
60대 이상	8.2	50.5	38.1	3.2	100.0(586)	2.36
$\chi^2(df)/F$		33.2(15)**				3.91*
지역규모						
서울특별시	6.2	39.5	49.3	5.0	100.0(580)	2.53
광역시/특별자치시	7.2	44.8	42.7	5.2	100.0(805)	2.46
중소도시	8.2	46.3	41.4	4.0	100.0(1,484)	2.41
군(읍면지역)	9.2	52.7	31.3	6.9	100.0(131)	2.36
$\chi^2(df)/t$		22.7(9)**				4.72**
취업여부						
취업	7.0	44.7	43.2	5.1	100.0(2,170)	2.46
미취업	9.2	45.2	42.0	3.6	100.0(830)	2.40
$\chi^2(df)/t$		6.6(3)				2.16*

구분	전혀 동의하지 않음	별로 동의하지 않음	대체로 동의함	전적으로 동의함	계	평균
가구소득						
60% 미만	10.4	45.6	39.8	4.3	100.0(608)	2.38
60 - 80% 미만	8.0	49.1	38.9	4.0	100.0(525)	2.39
80 - 100% 미만	8.0	47.4	39.6	4.9	100.0(449)	2.41
100 - 120% 미만	7.9	46.4	40.8	5.0	100.0(522)	2.43
120 - 140% 미만	5.1	41.6	49.2	4.1	100.0(315)	2.52
140 - 160% 미만	6.1	39.9	50.0	4.0	100.0(198)	2.52
160% 이상	4.7	38.1	50.9	6.3	100.0(383)	2.59
$\chi^2(df)/F$		42.0(18)**				5.34***

주: 1) 독립변수에 따라 사례수 합이 일치하지 않을 수 있음.

2) 평균은 '전혀 동의하지 않음(1점)~전적으로 동의함(4점)'으로 산출한 결과임.

\*  $p < .05$ , \*\*  $p < .01$ , \*\*\*  $p < .001$ .

<표 III-2-17> 자녀양육 태도에 대한 동의정도

단위: 점, 명

구분	전체	15~19세	20대	30대	40대	50대	60대 이상	F
부모가 지나치게 허용적이면 자녀의 버릇이 나빠진다	3.00	3.11	3.10	3.08	2.95	2.90	2.99	9.92***
부모는 자녀가 어릴 때 엄격하게 대해야 바르게 키울 수 있다	2.49	2.50	2.49	2.48	2.44	2.50	2.55	1.51
자녀가 잘못할 때는 매를 들 수도 있다	2.66	2.48	2.67	2.73	2.61	2.65	2.68	2.47*
자녀가 할 수 있다면 안쓰럽지만 힘든 일도 혼자서 해야 한다	3.09	2.97	3.06	3.08	3.06	3.11	3.13	2.47*
자녀들은 부모의 말에 순종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2.53	2.27	2.21	2.40	2.54	2.73	2.77	68.21***
자녀를 훌륭하게 키우기 위해서는 사교육이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2.45	2.40	2.48	2.51	2.48	2.41	2.36	3.91*
사례수	3,000	62	619	510	600	623	586	

주: 점수는 '전혀 동의하지 않음(1점)~전적으로 동의함(4점)'으로 산출한 결과임.

\*  $p < .05$ , \*\*\*  $p < .001$ .

## 바. 자녀양육의 어려움

〈표 III-2-18〉은 자녀를 양육함에 있어 가장 큰 어려움 1순위를 나타낸 것이다. 전체적으로 자녀 양육과 일의 병행이 37.8%로 나타났으며 다음으로 양육 비용에 대한 부담 28.7%, 자녀의 심리적 안정 12.1%, 자녀를 친근하고 따뜻하게 대하는 것 6.7% 순으로 나타났다.

남자의 경우는 자녀양육과 일의 병행이 34.5%, 양육비용에 대한 부담이 33.2%로 비슷하였으나, 여자는 자녀양육과 일의 병행의 응답비율이 41.1%로 상당히 높아 남자와 여자와의 양육 어려움에 있어서 시각차가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연령대별로는 결혼, 출산, 육아와 직장생활이 동시에 이루어지는 연령대인 20대와 30대에서 양육비용에 대한 부담에 대해서 응답한 비율이 높았다. 영유아 자녀가 있는 경우, 맞벌이인 경우, 가구소득이 높은 경우에 자녀양육과 일의 병행의 비율이 다소 높게 나타나는 경향이 있었다.

〈표 III-2-18〉 자녀 양육의 어려움(1순위)

단위: %, (명)

구분	자녀 양육과 일의 병행	양육 비용에 대한 부담	자녀를 친근하고 따뜻하게 대하는 것	자녀의 학업/직업적 성취	자녀의 심리적 안정	자녀의 신체적 건강	나의 개인 시간을 가질 수 없는 것	배우자의 무관심, 부재	기타	수
전체	37.8	28.7	6.7	4.9	12.1	2.2	5.1	2.3	0.3	(3,000)
성별 구분										
남자	34.5	33.2	8.5	6.3	10.3	2.6	3.4	1.0	0.3	(1,522)
여자	41.1	24.1	4.9	3.4	14.0	1.8	6.8	3.6	0.3	(1,478)
$\chi^2(df)$	108.8(8)***									
연령										
15~19세	17.7	32.3	6.5	6.5	21.0	1.6	14.5	0.0	0.0	(62)
20대	37.3	29.4	6.3	1.8	15.0	1.1	5.8	3.2	0.0	(619)
30대	45.7	25.5	5.3	2.0	10.4	1.6	7.5	1.6	0.6	(510)
40대	37.5	30.5	4.8	4.7	13.5	1.8	5.8	1.2	0.2	(600)
50대	31.9	31.0	7.9	8.5	12.4	2.9	2.9	2.4	0.2	(623)
60대 이상	39.9	26.1	9.2	6.8	8.0	3.6	2.7	3.1	0.5	(586)
$\chi^2(df)$	156.7(40)***									

구분	자녀 양육과 일의 병행	양육 비용에 대한 부담	자녀를 친근하고 따뜻하게 대하는 것	자녀의 학업/직업적 성취	자녀의 심리적 안정	자녀의 신체적 건강	나의 개인 시간을 가질 수 없는 것	배우자의 무관심, 부재	기타	수
영유아 자녀유무										
유	43.1	27.1	8.2	2.5	8.6	1.9	7.6	0.6	0.4	(524)
무	34.7	29.6	7.5	7.6	11.5	3.0	3.4	2.4	0.3	(1,438)
$\chi^2(df)$	51.3(8)***									
맞벌이 여부										
맞벌이	42.7	26.6	6.6	5.0	10.5	2.1	5.0	1.4	0.0	(1,040)
비맞벌이	32.6	31.8	8.1	7.2	11.1	2.9	3.8	2.1	0.4	(902)
$\chi^2(df)$	31.5(8)***									
가구소득										
60% 미만	36.2	31.4	6.9	3.6	11.2	2.3	4.4	3.6	0.3	(608)
60 - 80% 미만	33.9	34.1	6.9	4.0	10.1	2.1	6.5	2.1	0.4	(525)
80 - 100% 미만	36.5	31.2	6.2	3.1	12.9	2.0	4.2	3.3	0.4	(449)
100 - 120% 미만	36.4	29.7	7.1	5.6	11.7	2.7	5.6	1.1	0.2	(522)
120 - 140% 미만	44.4	27.3	4.4	6.3	11.7	1.6	3.5	0.6	0.0	(315)
140 - 160% 미만	41.4	20.7	7.6	6.1	11.6	3.0	7.6	2.0	0.0	(198)
160% 이상	41.5	18.0	7.8	7.3	16.7	1.8	4.4	2.1	0.3	(383)
$\chi^2(df)$	88.4(48)***									
전체(1+2순위)	57.6	56.8	14.3	15.6	26.5	6.0	16.7	6.0	.5	(3,000)

주: 1) 가구소득은 2017년 2/4분기 통계청 가계동향조사의 월평균 가구소득(4,346,500원)을 100%로 한 것임.

2) 독립변수에 따라 사례수 합이 일치하지 않을 수 있음.

\*\*\*  $p < .001$ .

### 사. 자녀 교육관

〈표 III-2-19〉는 우리 사회에서 자녀교육에 성공했다는 것의 의미에 대해서 조사한 결과이다. 전체적으로 자녀가 하고 싶은 일, 좋아하는 일을 하게 되었음이라고 응답한 비율이 32.8%로 가장 높게 나타났다. 다음으로 자녀가 인격을 갖춘 사람으로 성장 25.2%, 자녀가 경제적으로 잘 삶 15.8%, 자녀가 좋은 직장에 취직 12.1%, 자녀가 명문대학에 진학 7.0%, 자녀가 아프지 않고 건강하게 성장 4.9%의 순으로 나타났다.

〈표 III-2-19〉 우리 사회에서 자녀교육 성공의 의미

단위: %(명)

구분	자녀가 명문대 학에 진학	자녀가 인격을 갖춘 사람으로 성장	자녀가 좋은 직장에 취직	자녀가 좋은 배우자를 만남	자녀가 경제적으로 잘 삶	자녀가 하고 싶은 일, 좋아하는 일을 하게 되었음	자녀가 아프지 않고 건강하게 성장	기타	수
전체	7.0	25.2	12.1	1.7	15.8	32.8	4.9	0.5	(3,000)
성별 구분									
남자	5.8	25.7	10.0	2.1	16.5	34.2	5.1	0.6	(1,522)
여자	8.3	24.6	14.3	1.3	15.1	31.4	4.6	0.5	(1,478)
$\chi^2(df)$	24.2(7)**								
연령									
15~19세	3.2	27.4	14.5	3.2	12.9	27.4	9.7	1.6	(62)
20대	3.9	31.2	9.7	2.3	14.7	32.0	5.2	1.1	(619)
30대	7.5	27.6	9.8	1.2	16.1	32.0	4.7	1.2	(510)
40대	9.2	21.7	12.7	1.2	16.2	34.3	4.5	0.3	(600)
50대	8.8	20.9	12.8	.8	16.9	34.8	5.0	0.0	(623)
60대 이상	6.3	24.6	15.0	2.9	15.5	31.2	4.4	0.0	(586)
$\chi^2(df)$	80.6(35)***								
혼인 여부									
미혼	5.4	29.9	11.0	2.0	14.3	31.6	4.9	0.9	(910)
배우자 있음	7.9	22.7	12.8	1.5	16.4	33.4	4.9	0.4	(1,942)
배우자 없음	5.4	29.1	9.5	2.0	17.6	32.4	3.4	0.7	(148)
$\chi^2(df)$	30.0(14)**								
영유아 자녀유무									
유	6.7	27.1	10.9	2.5	15.3	31.1	5.7	0.8	(524)
무	7.9	21.2	13.4	1.6	16.6	34.6	4.6	0.1	(1,438)
$\chi^2(df)$	17.9(7)*								

주: 독립변수에 따라 사례수 합이 일치하지 않을 수 있음.

\*  $p < .05$ , \*\*  $p < .01$ , \*\*\*  $p < .001$ .

〈표 III-2-20〉은 자녀가 경제적으로 안정적인 것과 열정에 따라 사는 것 중 어느 것을 선호하는지에 대해서 조사한 결과이다. 전체적으로 자녀의 경제적인 안정을 선호한다고 응답한 비율이 40.4%, 열정에 따라 사는 것을 선호한다고 응답한 비율은 35.2%, 경제 안정과 열정에 따라 사는 것의 중간 정도 수준이라고 응답한 비율이 24.4%였다. 5점 중 2.89점으로 경제적 안정을 좀 더 중시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응답자 특성별로 살펴보면 남자보다 여자가 자녀의 미래에 경제적 안정을 더 추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연령대가 낮을수록 자녀를 열정에 따라 살도록 기르고 싶어하는 경향이 상대적으로 큰 것으로 나타났다. 또 미혼인 경우, 현재 자녀가 없는 경우, 영유아 자녀가 있는 경우에 자녀를 경제적인 안정보다는 열정에 따라 사는 것을 선호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표 III-2-20〉 자녀의 미래에 대한 선호도-경제적 안정 vs 열정에 따른 삶

단위: %(명), 점

구분	경제적 안정		↔		열정에 따른 삶		계	평균
	1	2	3	4	5			
전체	13.9	26.5	24.4	26.7	8.5	100.0(3,000)	2.89	
성별 구분								
남자	12.7	24.9	22.6	31.0	8.8	100.0(1,522)	2.98	
여자	15.2	28.2	26.3	22.2	8.1	100.0(1,478)	2.80	
$\chi^2(df)/t$			32.9(4)***				4.26**	
연령								
15~19세	4.8	16.1	33.9	33.9	11.3	100.0( 62)	3.31	
20대	8.9	28.1	28.8	27.5	6.8	100.0(619)	2.95	
30대	12.0	27.8	27.6	26.5	6.1	100.0(510)	2.87	
40대	13.3	24.3	24.8	26.5	11.0	100.0(600)	2.98	
50대	16.4	28.1	18.3	28.4	8.8	100.0(623)	2.85	
60대 이상	19.8	25.4	22.2	23.5	9.0	100.0(586)	2.77	
$\chi^2(df)/F$			74.3(20)***				3.91**	
혼인 여부								
미혼	7.9	25.8	30.5	28.2	7.5	100.0(910)	3.02	
배우자 있음	16.2	27.3	21.6	26.0	8.9	100.0(1,942)	2.84	
배우자 없음	20.9	20.3	23.6	26.4	8.8	100.0(148)	2.82	
$\chi^2(df)/F$			61.7(8)***				7.00**	
자녀 유무								
유	16.9	26.4	21.7	26.2	8.9	100.0(1,962)	2.84	
무	8.2	26.9	29.7	27.6	7.7	100.0(1,038)	3.00	
$\chi^2(df)/t$			56.7(4)***				-3.65***	
영유아 자녀유무								
유	12.2	26.0	24.2	28.4	9.2	100.0(524)	2.96	
무	18.6	26.5	20.7	25.4	8.8	100.0(1,438)	2.79	
$\chi^2(df)/t$			13.0(4)*				2.81**	

주: 1) 독립변수에 따라 사례수 합이 일치하지 않을 수 있음.

2) 평균은 경제적 안정에 동의할 경우(1점)~열정에 따른 삶에 동의할 경우(5점)으로 산출한 결과로 점수가 낮을수록 열정에 따른 삶보다는 경제적으로 안정적인 삶을 선호함.

\*  $p < .05$ , \*\*  $p < .01$ , \*\*\*  $p < .001$ .

〈표 III-2-21〉은 자녀에게 친구가 되어주는 것과 부모로서 자녀에게 권위를 보여주는 것 중 어느 것을 선호하는지에 대해서 조사한 결과이다. 전체적으로 친구가 되어주는 것을 선호한다고 응답한 비율은 76.4%, 중간이라고 응답한 비율이 18.8%, 권위를 보여주는 것이라고 응답한 비율인 4.8%(4+5)였다. 대부분이 자녀에게 친구가 되어주는 것을 선호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상대적으로 여자에 비해 남자가 연령이 높을수록, 자녀가 있는 경우 자녀에게 권위를 보여주는 것이라고 응답한 비율이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났다.

〈표 III-2-21〉 부모역할 선호도-친구같은 부모 vs 권위 있는 부모

단위: %(명), 점

구분	친구		↔	권위		계	평균
	1	2	3	4	5		
전체	35.1	41.3	18.8	3.7	1.1	100.0(3,000)	1.94
성별 구분							
남자	28.1	43.4	22.2	4.9	1.4	100.0(1,522)	2.08
여자	42.4	39.1	15.2	2.5	0.8	100.0(1,478)	1.80
$\chi^2(df)/t$			80.5(4)***				8.73***
연령							
15~19세	35.5	38.7	17.7	8.1	0.0	100.0( 62)	1.98
20대	39.3	40.7	17.1	2.3	0.6	100.0(619)	1.84
30대	38.2	39.4	17.8	3.9	0.6	100.0(510)	1.89
40대	34.7	40.7	17.8	4.7	2.2	100.0(600)	1.99
50대	32.6	44.8	17.0	3.9	1.8	100.0(623)	1.97
60대 이상	31.1	40.8	24.2	3.4	0.5	100.0(586)	2.02
$\chi^2(df)/F$			44.3(20)**				3.21**
자녀 유무							
유	34.3	41.3	19.0	4.0	1.4	100.0(1,962)	1.97
무	36.6	41.2	18.3	3.2	0.7	100.0(1,038)	1.90
$\chi^2(df)/t$			5.3(4)				1.97*

주: 1) 독립변수에 따라 사례수 합이 일치하지 않을 수 있음.

2) 평균은 친구같은 부모에 동의할 경우(1점)~권위 있는 부모에 동의할 경우(5점)으로 산출한 결과로 점수가 낮을수록 권위 있는 부모보다는 친구같은 부모를 선호함.

\*  $p < .05$ , \*\*  $p < .01$ , \*\*\*  $p < .001$ .

〈표 III-2-22〉는 희망하는 자녀의 최종학력에 대해 조사한 결과이다. 전체적으로 희망하는 최종학력은 4년제 대졸이 55.1%로 가장 많았고, 다음으로 석사 8.0%, 박사 5.0%, 고졸 3.7%, 전문대졸 3.6% 순이었다. 특히 자녀의 최종학력이 무엇이 되든 상관없다는 응답도 24.6%로 나타났다. 특히 연령대가 낮아질수록 4년제 대졸학력 이상에 대한 희망비율은 낮아지고, 자녀학력이 상관없다는 응답이 크게 증가하였다.

〈표 III-2-22〉 자녀의 최종학력에 대한 희망

단위: %(명)

구분	고졸	전문대졸	4년제 대졸	석사학위 취득	박사학위 취득	상관없다	계
전체	3.7	3.6	55.1	8.0	5.0	24.6	(3,000)
성별 구분							
남자	3.0	3.2	54.7	8.1	4.5	26.5	(1,522)
여자	4.5	4.0	55.6	7.8	5.5	22.7	(1,478)
$\chi^2(df)$			11.7(5)*				
연령							
15~19세	9.7	1.6	30.6	1.6	1.6	54.8	(62)
20대	5.7	4.4	43.9	4.7	2.1	39.3	(619)
30대	3.9	2.9	54.9	7.5	2.9	27.8	(510)
40대	2.5	5.3	57.2	8.0	5.5	21.5	(600)
50대	3.2	3.2	62.1	10.1	6.1	15.2	(623)
60대 이상	2.7	2.2	60.2	10.2	8.4	16.2	(586)
$\chi^2(df)$			227.8(25)***				
혼인 여부							
미혼	5.2	4.0	47.0	5.1	1.6	37.1	(910)
배우자 있음	2.8	3.5	59.4	9.4	6.3	18.6	(1,942)
배우자 없음	7.4	3.4	49.3	6.8	7.4	25.7	(148)
$\chi^2(df)$			164.4(10)***				
자녀 유무							
유	3.2	3.4	58.7	9.5	6.6	18.6	(1,962)
무	4.8	3.9	48.4	5.1	1.8	35.9	(1,038)
$\chi^2(df)$			149.3(5)***				
영유아 자녀유무							
유	3.2	3.1	54.0	9.0	4.4	26.3	(524)
무	3.1	3.5	60.4	9.7	7.4	15.8	(1,438)
$\chi^2(df)$			31.6(5)***				
취업여부							
취업	2.9	3.6	57.6	8.7	4.7	22.5	(2,170)
미취업	5.9	3.5	48.7	6.0	5.8	30.1	(830)
$\chi^2(df)$			44.4(5)***				
가구소득							
60% 미만	6.4	5.4	50.0	5.4	3.3	29.4	(608)
60 - 80% 미만	5.3	5.7	52.2	6.5	4.4	25.9	(525)
80 - 100% 미만	2.0	4.2	58.1	6.9	4.7	24.1	(449)
100 - 120% 미만	2.5	2.1	57.1	9.0	5.4	23.9	(522)
120 - 140% 미만	2.9	2.2	54.0	10.5	4.4	26.0	(315)
140 - 160% 미만	3.5	2.0	59.6	9.1	6.6	19.2	(198)
160% 이상	1.8	1.0	59.8	11.2	7.8	18.3	(383)
$\chi^2(df)$			100.8(39)***				

\*  $p < .05$ , \*\*\*  $p < .001$ .

### 3. 육아행복감에 대한 여론

#### 가. 육아행복감 및 가치

먼저 <표 III-3-1>은 자녀 양육에서의 가장 큰 즐거움에 대해서 질문한 결과를 보여준다. 전체적으로 자녀양육의 즐거움으로 자녀 발달과 성장을 지켜보는 부모로서의 성취감이라고 응답한 비율이 38.0%로 가장 높게 나타났다. 다음으로 부모-자녀관계에서 애정과 지지 30.1%, 자녀와 함께 시간보내기, 여가활동 공유하기 29.7%, 자녀 돌봄과 지도 2.1% 순으로 나타났다.

성별로는 남자는 부모로서의 성취감이 42.1%로 가장 많았고, 여자는 부모-자녀 관계에서의 애정과 지지가 36.3%로 가장 많아 응답비율에서 차이를 보였다. 연령 대별로는 연령대가 높아질수록 부모로서의 성취감이 즐거움이라고 응답한 비율이 높아지는 등 응답비율에서 차이를 보였다.

<표 III-3-1> 자녀 양육의 가장 큰 즐거움

단위: %(명)

구분	자녀의 발달과 성장을 지켜보는 부모로서의 성취감	자녀와 함께 시간보내기, 여가활동 공유하기	자녀 돌봄과 지도	부모-자녀관계에서의 애정과 지지	기타	계
전체	38.0	29.7	2.1	30.1	0.1	(3,000)
성별 구분						
남자	42.1	30.6	3.2	24.1	0.1	(1,522)
여자	33.7	28.8	1.1	36.3	0.1	(1,478)
$\chi^2(df)$		67.4(4)***				
연령						
15~19세	29.0	33.9	8.1	29.0	0.0	(62)
20대	30.2	38.0	4.4	27.3	0.2	(619)
30대	32.4	37.5	1.8	28.4	0.0	(510)
40대	35.3	33.2	1.7	29.5	0.3	(600)
50대	40.8	25.2	1.4	32.6	0.0	(623)
60대 이상	51.7	14.8	0.7	32.8	0.0	(586)
$\chi^2(df)$		164.9(20)***				
혼인 여부						
미혼	30.9	34.8	3.5	30.7	0.1	(910)
배우자 있음	40.7	28.1	1.6	29.6	0.1	(1,942)
배우자 없음	45.9	18.9	.7	34.5	0.0	(148)
$\chi^2(df)$		47.6(8)***				

구분	자녀의 발달과 성장을 지켜보는 부모로서의 성취감	자녀와 함께 시간보내기, 여가활동 공유하기	자녀 돌봄과 지도	부모-자녀관계에서의 애정과 지지	기타	계
영유아 자녀유무						
유	35.9	37.4	2.5	24.0	0.2	(524)
무	42.9	23.7	1.3	32.0	0.1	(1,438)
$\chi^2(df)$		42.8(4)***				
맞벌이 유무						
맞벌이	37.3	33.6	1.7	27.3	0.1	(1,040)
외벌이	44.6	21.7	1.4	32.2	0.1	(902)
$\chi^2(df)$		34.4(4)***				

주: 독립변수에 따라 사례수 합이 일치하지 않을 수 있음.

\*\*\*  $p < .001$ .

〈표 III-3-2〉는 자녀 양육에 대한 견해 중 나는 아이를 키우는 것이 행복한 일이라고 생각하는지에 대해서 조사한 결과이다. 전체적으로 전혀 동의하지 않는다에 응답한 비율은 1.2%, 별로 동의하지 않는다 8.4%, 대체로 동의한다 66.0%, 전적으로 동의한다가 24.4%였다. 대체로 동의한다와 전적으로 동의한다고 응답한 비율의 합이 90.4%로 거의 대부분의 응답자가 아이를 키우는 것이 행복한 일이라고 동의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응답자 특성별로 살펴보면 남자가 여자에 비해 동의하는 비율이 높았으며, 연령대가 높을수록 동의하는 비율이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미혼보다는 기혼인 경우와 자녀가 없을 때 보다 있는 경우에 동의하는 비율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표 III-3-2〉 자녀 양육에 대한 인식 - 나는 아이를 키우는 것은 행복한 일이라고 생각한다

단위: %(명), 점

구분	전혀 동의하지 않음	별로 동의하지 않음	대체로 동의함	전적으로 동의함	계	평균 (4점 척도)
전체	1.2	8.4	66.0	24.4	(3,000)	3.14
성별 구분						
남자	1.0	6.2	67.3	25.5	(1,522)	3.17
여자	1.4	10.6	64.7	23.3	(1,478)	3.10
$\chi^2(df)/t$		20.8(3)***				3.37***
연령						
15~19세	4.8	21.0	56.5	17.7	(62)	2.87
20대	3.7	17.9	62.8	15.5	(619)	2.90
30대	1.2	9.8	63.7	25.3	(510)	3.13

구분	전혀 동의하지 않음	별로 동의하지 않음	대체로 동의함	전적으로 동의함	계	평균 (4점 척도)
40대	0.3	7.0	68.2	24.5	(600)	3.17
50대	0.2	3.5	71.4	24.9	(623)	3.21
60대 이상	0.0	2.2	64.5	33.3	(586)	3.31
$\chi^2(df)/F$		229.3(15)***				35.88***
혼인 여부						
미혼	3.3	18.2	65.4	13.1	(910)	2.88
배우자 있음	0.3	3.9	66.5	29.4	(1,942)	3.25
배우자 없음	0.0	6.8	64.2	29.1	(148)	3.22
$\chi^2(df)/F$		273.6(6)***				129.62
자녀 유무						
유	0.2	3.2	66.6	30.0	(1,962)	3.26
무	3.0	18.1	65.0	13.9	(1,038)	2.90
$\chi^2(df)/t$		297.9***				16.72***
가구소득						
60% 미만	1.3	11.5	66.8	20.4	(608)	3.06
60 - 80% 미만	1.5	9.1	60.8	28.6	(525)	3.16
80 - 100% 미만	1.6	6.5	71.3	20.7	(449)	3.11
100 - 120% 미만	0.8	6.7	65.5	27.0	(522)	3.19
120 - 140% 미만	1.3	8.3	64.1	26.3	(315)	3.16
140 - 160% 미만	1.0	8.6	67.2	23.2	(198)	3.13
160% 이상	0.5	6.8	67.6	25.1	(383)	3.17
$\chi^2(df)/F$		32.7*				2.82**

주: 1) 독립변수에 따라 사례수 합이 일치하지 않을 수 있음.

2) 평균은 '전혀 동의하지 않음(1점)~전적으로 동의함(4점)'으로 산출한 결과임.

\*  $p < .05$ , \*\*  $p < .01$ , \*\*\*  $p < .001$ .

〈표 III-3-3〉은 자녀 양육에 대한 견해 중 나는 아이를 키우는 것은 육체적으로 힘들다고 생각하는지에 대해서 조사한 결과, 전혀 동의하지 않는다에 응답한 비율이 1.5%였으며, 별로 동의하지 않는다 16.9%, 대체로 동의한다 58.6%, 전적으로 동의한다가 23.0%였다. 4점 평균으로 보면 3.03점으로 아이를 키우는 것이 육체적으로 힘들다고 인식하는 경향이 있었다.

응답자 특성별로 살펴보면 여자가 남자보다, 연령대로는 40대 미만에서 자녀를 키는데 있어 육체적으로 힘들다고 생각하는 비율이 높게 나타났다. 또한 거주지가 서울특별시인 경우 평균이 다소 높고, 미혼이 기혼인 경우보다, 자녀가 없는 경우가 있는 경우보다, 영유아 자녀가 있는 경우가 없는 경우보다 자녀를 키우는 것이 육체적으로 힘들다고 응답한 비율이 높게 나타났다.

〈표 III-3-3〉 자녀 양육에 대한 인식 - 나는 아이를 키우는 것은 육체적으로 힘들다고 생각한다

단위: %(명), 점

구분	전혀 동의하지 않음	별로 동의하지 않음	대체로 동의함	전적으로 동의함	계	평균 (4점 척도)
전체	1.5	16.9	58.6	23.0	(3,000)	3.03
성별 구분						
남자	1.8	22.5	59.6	16.1	(1,522)	2.90
여자	1.2	11.1	57.6	30.1	(1,478)	3.17
$\chi^2(df)/t$		124.58(3)***				-11.03***
연령						
15~19세	0.0	6.5	54.8	38.7	(62)	3.32
20대	0.3	7.8	50.9	41.0	(619)	3.33
30대	1.2	8.0	56.9	33.9	(510)	3.24
40대	1.3	15.2	65.5	18.0	(600)	3.00
50대	1.6	24.4	61.8	12.2	(623)	2.85
60대 이상	3.1	29.2	58.4	9.4	(586)	2.74
$\chi^2(df)/F$		368.2(15)***				74.63***
지역규모						
서울특별시	0.9	13.6	57.1	28.4	(580)	3.13
광역시/특별자치시	2.2	17.1	59.0	21.6	(805)	3.00
중소도시	1.2	17.6	59.4	21.8	(1,484)	3.02
군(읍면지역)	2.3	22.1	55.0	20.6	(131)	2.94
$\chi^2(df)/F$		22.3(9)**				5.81**
혼인 여부						
미혼	0.7	8.0	52.3	39.0	(910)	3.30
배우자 있음	1.7	20.6	61.6	16.1	(1,942)	2.92
배우자 없음	3.4	23.0	58.8	14.9	(148)	2.85
$\chi^2(df)/F$		224.6(6)***				108.41***
자녀 유무						
유	1.9	21.7	60.9	15.5	(1,962)	2.90
무	0.7	7.9	54.3	37.1	(1,038)	3.28
$\chi^2(df)/t$		224.9(3)***				-15.30***
영유아 자녀유무						
유	1.7	11.6	61.5	25.2	(524)	3.10
무	1.9	25.3	60.7	12.0	(1,438)	2.83
$\chi^2(df)/t$		76.1(3)***				8.22***

주: 1) 가구소득은 2017년 2/4분기 통계청 가계동향조사의 월평균 가구소득(4,346,500원)을 100%로 한 것임.

2) 독립변수에 따라 사례수 합이 일치하지 않을 수 있음.

3) 평균은 '전혀 동의하지 않음(1점)~전적으로 동의함(4점)'으로 산출한 결과임.

\*\*  $p < .01$ , \*\*\*  $p < .001$ .

〈표 III-3-4〉는 자녀 양육에 대한 견해 중 나는 아이를 키우는 것은 심리적으로 부담된다고 생각하는지에 대해서 질문한 결과이다. 전체적으로 전혀 동의하지 않는다고 응답한 비율이 4.1%였으며, 별로 동의하지 않는다 27.4%, 대체로 동의한다 53.6%, 전적으로 동의한다가 15.0%였다. 4점 평균으로 보면 2.79점 수준으로 나타났다.

응답자 특성별로는, 여자가 남자보다, 연령대가 낮을수록, 미혼이 기혼보다, 자녀가 없는 경우가 있는 경우보다, 영유아 자녀가 있는 경우가 없는 경우보다 자녀를 키우는 것이 심리적으로 부담된다고 응답한 비율이 높게 나타났다.

〈표 III-3-4〉 자녀 양육에 대한 인식 - 나는 아이를 키우는 것은 심리적으로 부담된다고 생각한다

단위: %(명), 점

구분	전혀 동의하지 않음	별로 동의하지 않음	대체로 동의함	전적으로 동의함	계	평균 (4점 척도)
전체	4.1	27.4	53.6	15.0	(3,000)	2.79
성별 구분						
남자	4.7	32.8	51.0	11.6	(1,522)	2.69
여자	3.5	21.8	56.2	18.5	(1,478)	2.90
$\chi^2(df)/t$		63.3(3)***				-7.56***
연령						
15~19세	0.0	21.0	53.2	25.8	(62)	3.05
20대	1.1	12.9	55.9	30.0	(619)	3.15
30대	3.5	18.0	57.1	21.4	(510)	2.96
40대	3.8	25.8	59.8	10.5	(600)	2.77
50대	4.3	37.9	50.2	7.5	(623)	2.61
60대 이상	8.2	41.8	45.2	4.8	(586)	2.47
$\chi^2(df)/F$		374.6(15)***				74.52***
지역규모						
서울특별시	2.8	27.4	51.7	18.1	(580)	2.85
광역시/특별자치시	5.5	26.6	54.8	13.2	(805)	2.76
중소도시	3.8	27.0	53.8	15.4	(1,484)	2.81
군(읍면지역)	4.6	36.6	51.9	6.9	(131)	2.61
$\chi^2(df)/F$		23.1(9)**				4.76**
혼인 여부						
미혼	0.9	15.9	55.2	28.0	(910)	3.10
배우자 있음	5.5	32.5	52.5	9.5	(1,942)	2.66
배우자 없음	6.1	30.4	57.4	6.1	(148)	2.64
$\chi^2(df)/F$		246.9(6)***				124.13***



구분	전혀 동의하지 않음	별로 동의하지 않음	대체로 동의함	전적으로 동의함	계	평균 (4점 척도)
자녀 유무						
유	5.7	33.6	51.9	8.8	(1,962)	2.64
무	1.1	15.6	56.7	26.6	(1,038)	3.09
$\chi^2(df)/t$		262.2(3)***				-16.95***
영유아 자녀유무						
유	4.2	22.5	59.9	13.4	(524)	2.82
무	6.3	37.6	49.0	7.2	(1,438)	2.57
$\chi^2(df)/t$		54.6(3)***				7.04***

주: 1) 가구소득은 2017년 2/4분기 통계청 가계동향조사의 월평균 가구소득(4,346,500원)을 100%로 한 것임.  
 2) 독립변수에 따라 사례수 합이 일치하지 않을 수 있음.  
 3) 평균은 '전혀 동의하지 않음(1점)~전적으로 동의함(4점)'으로 산출한 결과임.  
 \*\*  $p < .01$ , \*\*\*  $p < .001$ .

〈표 III-3-5〉는 나는 아이를 키우는 것은 경제적으로 부담된다고 생각하는지에 대해서 조사한 결과이다. 전체적으로 전혀 동의하지 않는다고 응답한 비율이 1.3%였으며, 별로 동의하지 않는다 14.4%, 대체로 동의한다 58.7%, 전적으로 동의한다가 25.7%였다. 4점 평균으로 보면 3.09점으로 대부분 아이를 키우는 것이 경제적으로 부담된다고 인식하고 있었다.

응답자 특성별로는, 여자가 남자보다, 연령대가 낮을수록, 미혼이 기혼보다, 자녀가 없는 경우가 있는 경우보다, 영유아 자녀가 있는 경우가 없는 경우보다, 취업보다는 미취업한 경우에 자녀를 키우는 것이 경제적으로 부담된다고 생각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표 III-3-5〉 자녀 양육에 대한 인식 - 나는 아이를 키우는 것은 경제적으로 부담된다고 생각한다

단위: %(명), 점

구분	전혀 동의하지 않음	별로 동의하지 않음	대체로 동의함	전적으로 동의함	계	평균 (4점 척도)
전체	1.3	14.4	58.7	25.7	(3,000)	3.09
성별 구분						
남자	1.5	17.4	60.2	20.9	(1,522)	3.00
여자	1.0	11.2	57.1	30.6	(1,478)	3.17
$\chi^2(df)/t$		50.4(3)***				-7.02***

행복한 육아문화 조성을 위한 KICCE 육아정책 여론조사(III)

구분	전혀 동의하지 않음	별로 동의하지 않음	대체로 동의함	전적으로 동의함	계	평균 (4점 척도)
<b>연령</b>						
15~19세	0.0	8.1	46.8	45.2	(62)	3.37
20대	0.0	7.3	50.4	42.3	(619)	3.35
30대	1.8	9.4	55.3	33.5	(510)	3.21
40대	1.2	13.0	64.7	21.2	(600)	3.06
50대	1.3	19.1	63.4	16.2	(623)	2.95
60대 이상	2.4	23.2	60.4	14.0	(586)	2.86
$\chi^2(df)/F$		251.8(15)***				47.79***
<b>혼인 여부</b>						
미혼	0.2	6.9	51.4	41.4	(910)	3.34
배우자 있음	1.6	17.8	62.0	18.6	(1,942)	2.98
배우자 없음	3.4	15.5	59.5	21.6	(148)	2.99
$\chi^2(df)/F$		203.6(6)***				100.22***
<b>자녀 유무</b>						
유	1.8	18.3	61.7	18.2	(1,962)	2.96
무	0.3	6.8	53.0	39.9	(1,038)	3.32
$\chi^2(df)/t$		207.5(3)***				-15.00***
<b>영유아 자녀유무</b>						
유	1.9	13.7	59.5	24.8	(524)	3.07
무	1.7	20.0	62.4	15.8	(1,438)	2.92
$\chi^2(df)/t$		26.0(3)***				4.47***
<b>취업여부</b>						
취업	1.3	14.7	59.4	24.6	(2,170)	3.07
미취업	1.1	13.4	56.9	28.7	(830)	3.13
$\chi^2(df)/t$		5.7(3)				-2.20*
<b>가구소득</b>						
60% 미만	1.2	11.2	56.7	30.9	(608)	3.17
60 - 80% 미만	1.7	17.3	53.3	27.6	(525)	3.07
80 - 100% 미만	1.1	14.0	58.8	26.1	(449)	3.10
100 - 120% 미만	0.8	12.8	65.7	20.7	(522)	3.06
120 - 140% 미만	1.3	14.3	58.4	26.0	(315)	3.09
140 - 160% 미만	0.0	15.7	55.6	28.8	(198)	3.13
160% 이상	2.3	17.2	61.1	19.3	(383)	2.97
$\chi^2(df)/F$		46.1(18)***				3.95**

주: 1) 가구소득은 2017년 2/4분기 통계청 가계동향조사의 월평균 가구소득(4,346,500원)을 100%로 한 것임.

2) 독립변수에 따라 사례수 합이 일치하지 않을 수 있음.

3) 평균은 '전혀 동의하지 않음(1점)~전적으로 동의함(4점)'으로 산출한 결과임.

\*  $p < .05$ , \*\*  $p < .01$ , \*\*\*  $p < .001$ .

### 나. 양육의 경제적 가치

〈표 III-3-6〉은 영유아 자녀 양육의 경제적 가치에 대해서 조사한 결과이다. 전체적으로 월 평균 200~300만원 미만이라고 응답한 비율이 34.1%로 가장 높았다. 다음으로 100~200만원 미만이 27.6%, 300~400만원 미만이 23.7% 순이었다. 응답자 전체의 영유아 자녀양육의 경제적 가치 월평균은 234.15만원이었다.

영유아 자녀양육의 월 평균 경제적 가치를 응답자 특성별로 차이를 살펴보면 남자는 229.64만원, 여자는 238.80만원으로 응답하여 성별로 인식한 평균에 차이가 있었다. 연령대별로는 30대와 20대가 각각 261.37만원, 248.92만원으로 타 연령대에 비해 가치를 높게 인식하는 경향이 있었고, 연령대가 높아질수록 영유아 자녀양육의 경제적 가치를 낮게 인식하는 경향을 보였다. 영유아 자녀가 있는 경우의 응답 평균은 263.69만원, 없는 경우는 218.90만원으로 인식하는 평균에 차이가 있었다.

〈표 III-3-6〉 영유아 자녀 양육의 경제적 가치(월 평균)

단위: %(명), 만원

구분	100만원 미만	100~200만원 미만	200~300만원 미만	300~400만원 미만	400~500만원 미만	500만원 이상	수	평균
전체	5.7	27.6	34.1	23.7	3.4	5.6	(3,000)	234.15
성별 구분								
남자	6.3	31.3	30.9	22.3	3.6	5.6	(1,522)	229.64
여자	5.0	23.7	37.3	25.1	3.2	5.6	(1,478)	238.80
$\chi^2(df)/t$								-1.90
연령								
15~19세	6.5	30.6	24.2	22.6	9.7	6.5	(62)	242.42
20대	6.0	24.4	31.7	26.8	3.7	7.4	(619)	248.92
30대	3.3	19.4	36.5	29.2	3.3	8.2	(510)	261.37
40대	4.7	24.8	39.2	21.8	4.0	5.5	(600)	236.97
50대	5.3	32.9	31.8	22.6	3.2	4.2	(623)	221.67
60대 이상	8.7	34.8	32.8	18.6	2.2	2.9	(586)	204.38
$\chi^2(df)/F$								13.31***
혼인 여부								
미혼	5.8	26.6	32.3	25.4	3.8	6.0	(910)	240.74
배우자 있음	5.4	28.0	34.7	23.3	3.3	5.5	(1,942)	233.03
배우자 없음	8.8	28.4	37.2	18.2	2.7	4.7	(148)	208.45
$\chi^2(df)/F$								4.01*

구분	100만원 미만	100~200만원 미만	200~300만원 미만	300~400만원 미만	400~500만원 미만	500만원 이상	수	평균
영유아자녀유무								
유	4.4	18.1	37.0	26.9	4.6	9.0	(524)	263.69
무	5.9	31.7	34.0	21.8	2.8	3.8	(1,438)	218.90
$\chi^2(df)/t$								6.37***

주: 1) 독립변수에 따라 사례수 합이 일치하지 않을 수 있음.  
 2) 제시기준: 2017년도 임금근로자 월평균 소득 287만원, 중위소득 210만원  
 \*  $p < .05$ , \*\*\*  $p < .001$ .

### 다. 양육의 책임

〈표 III-3-7〉은 영유아 자녀 양육에 대한 책임 소재에 대해서 조사한 결과이다. 전체적으로 부모가 우선 책임지고 국가가 지원해야한다는 응답이 77.0%로 가장 많고, 다음으로 국가가 우선 책임지고 나머지는 부모가 부담한다 13.0%, 부모가 전적으로 책임진다가 8.0%, 국가가 전적으로 책임진다가 1.6% 순이었다.

연령대별로 보면 연령대가 낮을수록 부모가 우선 책임지고 국가 지원해야 한다는 응답이 줄어드는 경향이 있고, 반대로 국가가 우선 책임지고 나머지를 부모가 부담한다는 응답이 높아지는 경향을 보여 응답비율에 차이를 보였다.

〈표 III-3-7〉 영유아 자녀 양육에 대한 책임 분담에 대한 인식

단위: %(명)

구분	부모가 전적으로 책임	부모가 우선 책임지고 국가가 지원	국가가 우선 책임지고 나머지가 부모가 부담	국가가 전적으로 책임	기타	계
전체	8.0	77.0	13.0	1.6	0.3	(3,000)
성별 구분						
남자	8.4	76.9	12.8	1.8	0.1	(1,522)
여자	7.6	77.1	13.3	1.5	.5	(1,478)
$\chi^2(df)$			4.9(4)			
연령						
15~19세	4.8	67.7	27.4	0.0	0.0	(62)
20대	7.3	73.2	16.3	2.7	0.5	(619)
30대	4.9	77.3	15.1	2.2	0.6	(510)
40대	8.3	77.5	12.3	1.3	0.5	(600)
50대	9.1	77.7	11.9	1.1	0.2	(623)
60대 이상	10.2	80.5	8.2	1.0	0.0	(586)
$\chi^2(df)$			56.9(20)***			

구분	부모가 전적으로 책임	부모가 우선 책임지고 국가가 지원	국가가 우선 책임지고 나머지 부모가 부담	국가가 전적으로 책임	기타	계
혼인 여부						
미혼	6.7	74.5	16.5	1.9	0.4	(910)
배우자 있음	8.4	78.0	11.9	1.4	0.3	(1,942)
배우자 없음	10.1	79.7	6.8	3.4	0.0	(148)
$\chi^2(df)$						23.7(8)**
자녀 유무						
유	8.8	78.1	11.4	1.4	0.3	(1,962)
무	6.6	74.9	16.1	2.1	0.4	(1,038)
$\chi^2(df)$						18.9(4)**
영유아 자녀유무						
유	6.9	76.0	14.7	1.9	0.6	(524)
무	9.5	78.9	10.2	1.2	0.2	(1,438)
$\chi^2(df)$						13.2(4)*

주: 독립변수에 따라 사례수 합이 일치하지 않을 수 있음.

\*  $p < .05$ , \*\*  $p < .01$ , \*\*\*  $p < .001$ .

〈표 III-3-8〉은 자녀 양육이 가장 힘든 시기에 대한 인식을 조사한 결과이다. 전체적으로 영아기가 28.9%, 유아기 26.9%, 고등학생 12.6%, 중학생 11.3%, 순으로 자녀양육이 힘들다고 하였다. 10대와, 40대 이후 연령대에서는 중고등학생인 자녀양육에 대한 고충이 타 연령대에 비해 크게 나타났고, 2, 30대에서는 영아 비율이 크게 나타났다. 3-5세인 유아기에는 대부분의 연령대에서 25~30%를 보이고 있다. 이외에도 혼인여부, 자녀유무, 영유아 자녀유무, 취업여부, 맞벌이 유무, 가구소득에 따라서도 응답비율에 차이를 보였다.

〈표 III-3-8〉 자녀 양육이 가장 힘든 시기에 대한 인식

단위: %(명)

구분	임신기	영아 (0~2세)	유아 (3~5세)	초등 저학년 (1~3학년)	초등 고학년 (4~6학년)	중학생	고등학생	모르겠음	계
전체	1.2	28.9	26.9	6.8	4.0	11.3	12.6	8.3	(3,000)
성별 구분									
남자	1.2	27.8	28.9	6.4	3.7	9.3	15.2	7.3	(1,522)
여자	1.1	30.0	24.8	7.2	4.3	13.4	9.8	9.3	(1,478)
$\chi^2(df)$	39.7(7)***								

행복한 육아문화 조성을 위한 KICCE 육아정책 여론조사(III)

구분	임신기	영아 (0~2세)	유아 (3~5세)	초등 저학년 (1~3학년)	초등 고학년 (4~6학년)	중학생	고등학생	모르겠음	계
연령									
15~19세	1.6	21.0	14.5	4.8	3.2	25.8	14.5	14.5	(62)
20대	1.6	32.1	27.9	4.8	4.0	10.2	6.5	12.8	(619)
30대	1.0	42.7	27.8	5.1	2.5	7.3	2.9	10.6	(510)
40대	0.8	27.8	25.0	9.0	4.2	11.2	14.5	7.5	(600)
50대	1.3	19.7	25.5	8.8	3.7	14.6	19.9	6.4	(623)
60대 이상	1.0	25.1	29.7	6.3	5.5	11.3	17.4	3.8	(586)
$\chi^2(df)$				247.7(35)***					
혼인 여부									
미혼	1.6	32.0	26.5	4.6	4.0	11.5	6.5	13.3	(910)
배우자 있음	1.0	27.5	26.9	8.0	4.0	11.1	15.5	6.0	(1,942)
배우자 없음	0.7	27.7	29.7	5.4	4.7	12.8	11.5	7.4	(148)
$\chi^2(df)$				98.7(14)***					
자녀 유무									
유	0.9	26.6	27.5	8.2	4.1	11.4	15.7	5.6	(1,962)
무	1.7	33.2	25.8	4.2	3.8	11.2	6.6	13.4	(1,038)
$\chi^2(df)$				125.1(7)***					
영유아 자녀유무									
유	0.8	38.0	30.9	8.8	2.7	6.1	4.8	8.0	(524)
무	0.9	22.5	26.2	8.0	4.7	13.4	19.7	4.7	(1,438)
$\chi^2(df)$				121.3(7)***					
취업여부									
취업	1.0	29.4	27.5	7.4	4.0	10.3	12.7	7.7	(2,170)
미취업	1.6	27.6	25.4	5.3	4.1	14.0	12.2	9.9	(830)
$\chi^2(df)$				17.8(7)*					
맞벌이 유무									
맞벌이	1.0	29.5	25.6	9.4	4.0	10.7	14.9	4.9	(1,040)
외벌이	1.0	25.3	28.4	6.3	3.9	11.6	16.2	7.3	(902)
$\chi^2(df)$				16.0(7)*					
가구소득									
60% 미만	2.0	30.3	27.8	3.3	3.9	11.3	10.0	11.3	(608)
60 - 80% 미만	0.8	29.0	25.9	8.0	4.4	11.4	13.7	6.9	(525)
80 - 100% 미만	0.7	26.1	27.2	7.6	4.2	12.5	10.9	10.9	(449)
100 - 120% 미만	0.8	26.8	28.0	8.0	3.4	11.9	12.8	8.2	(522)
120 - 140% 미만	0.6	28.3	27.3	7.3	4.1	12.4	14.3	5.7	(315)
140 - 160% 미만	1.5	30.3	23.7	6.6	4.5	11.6	15.2	6.6	(198)
160% 이상	1.8	32.6	26.4	8.1	3.7	8.1	13.8	5.5	(383)
$\chi^2(df)$				59.9(42)*					

주: 독립변수에 따라 사례수 합이 일치하지 않을 수 있음.

\*  $p < .05$ , \*\*\*  $p < .001$ .

〈표 III-3-9〉는 영유아 및 어린이의 입장을 금지하는 장소/업소인 노키즈존에 대한 인식을 조사한 결과이다. 전체적으로 노키즈존에 찬성하는 비율은 55.8%, 반대하는 비율은 21.9%, 모르겠음은 22.3%로 나타났다. 연령대별로는 주된 영유아 및 어린이를 양육하는 주된 시기인 30대의 경우 50.8%로 타 연령대에 비해 낮게 나타났다. 또한 미혼인 경우가 기혼보다, 자녀가 없는 경우가 있는 경우보다, 영유아 자녀가 없는 경우가 있는 경우보다 노키즈존에 대한 찬성비율이 더 크게 나타나 응답비율에 차이를 보였다.

〈표 III-3-9〉 노키즈존에 대한 인식

단위: %(명)				
구분	찬성	반대	모르겠음	계
전체	55.8	21.9	22.3	100.0(3,000)
성별 구분				
남자	55.9	23.5	20.6	100.0(1,522)
여자	55.6	20.2	24.2	100.0(1,478)
$\chi^2(df)$		8.0(2)*		
연령				
15~19세	64.5	11.3	24.2	100.0( 62)
20대	59.9	13.2	26.8	100.0(619)
30대	50.8	24.7	24.5	100.0(510)
40대	52.2	27.0	20.8	100.0(600)
50대	56.3	21.0	22.6	100.0(623)
60대 이상	57.8	25.4	16.7	100.0(586)
$\chi^2(df)$		59.4(10)***		
혼인 여부				
미혼	62.9	12.5	24.6	100.0(910)
배우자 있음	52.6	26.2	21.2	100.0(1,942)
배우자 없음	53.4	23.0	23.6	100.0(148)
$\chi^2(df)$		68.3(4)***		
자녀 유무				
유	51.6	27.0	21.4	100.0(1,962)
무	63.6	12.2	24.2	100.0(1,038)
$\chi^2(df)$		87.5(2)***		
영유아 자녀유무				
유	41.6	33.8	24.6	100.0(524)
무	55.3	24.5	20.2	100.0(1,438)
$\chi^2(df)$		29.6(2)***		

주: 독립변수에 따라 사례수 합이 일치하지 않을 수 있음.

\*  $p < .05$ , \*\*\*  $p < .001$ .

## 4. 육아정책 인식 및 방향에 대한 의견

### 가. 보육·유아교육에 대한 정부의 역할

〈표 III-4-1〉은 국가 차원에서 육아정책 설계의 우선순위를 조사한 결과이다. 조사결과, 부모의 일·가정 양립과 부모의 양육부담 경감과 지원이라고 응답한 비율이 모두 36.4%로 가장 많았고, 다음으로 아이의 건강한 성장 발달이 22.1%로 나타났다. 성별, 연령, 지역규모, 혼인 여부, 영유아 자녀 유무, 취업 여부, 맞벌이 유무, 가구소득에 따라 응답 경향이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표 III-4-1〉 국가 차원 육아정책 설계 시 우선 순위

단위: %(명)

구분	부모의 일·가정 양립	아이의 건강한 성장·발달	부모의 양육부담 경감과 지원	아이의 행복	기타	계
전체	36.4	22.1	36.4	5.0	0.1	(3,000)
성별						
남자	34.6	22.4	37.8	5.1	0.2	(1,522)
여자	38.4	21.7	34.9	4.9	0.1	(1,478)
$\chi^2(df)$			5.8(4)			
연령						
10대 이하	29.0	32.3	25.8	12.9	0.0	(62)
20대	45.6	13.9	36.0	4.4	0.2	(619)
30대	43.7	15.7	37.6	2.7	0.2	(510)
40대	32.7	24.3	36.7	6.0	0.3	(600)
50대	30.3	27.8	36.3	5.6	0.0	(623)
60대 이상	31.6	26.8	36.5	5.1	0.0	(586)
$\chi^2(df)$			103.6(20)***			
혼인 여부						
미혼	42.4	16.5	36.6	4.4	0.1	(910)
배우자 있음	34.1	24.5	36.0	5.2	0.2	(1,942)
배우자 없음	30.4	24.3	39.2	6.1	0.0	(148)
$\chi^2(df)$			33.7(8)***			
영유아자녀유무						
유	41.2	21.8	33.8	3.1	0.2	(524)
무	30.7	26.5	36.6	6.2	0.1	(1,438)
$\chi^2(df)$			24.6(4)***			



구분	부모의 일·가정 양립	아이의 건강한 성장·발달	부모의 양육부담 경감과 지원	아이의 행복	기타	계
취업 여부						
취업	37.6	21.7	36.4	4.2	0.2	(2,170)
미취업	33.5	23.1	36.3	7.1	0.0	(830)
$\chi^2(df)$			15.0(4)**			
맞벌이 여부						
맞벌이	37.6	23.0	35.3	3.9	0.2	(1,040)
비맞벌이	30.0	26.3	36.9	6.7	0.1	(902)
$\chi^2(df)$			17.6(4)**			

주: 1) 가구소득은 2018년 2/4분기 통계청 가계동향조사의 월평균 가구소득(453만원)을 100%로 함.

2) 무응답은 분석에서 제외되었으며, 승수적용으로 합이 일치하지 않을 수 있음.

\*\*  $p < .01$ , \*\*\*  $p < .001$ .

〈표 III-4-2〉는 정부가 육아지원을 위한 재정지원 설계에서 우선순위를 어디에 두어야 하는지를 조사한 결과이다. 조사결과, 국가 재정 효율성을 고려한 차별적 지원이라고 응답한 비율은 50.1%, 0-5세 무상보육·유아교육 이행 40.0%, 모르겠음 8.1%, 기타 1.8%로 나타났다. 성별, 연령, 지역규모, 혼인 여부, 영유아 자녀 유무, 취업 여부에 따라 응답 경향이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연령대별로는 연령대가 높을수록 차별적 지원 비율이 높고, 기혼이 미혼보다, 영유아자녀가 없는 경우가 있는 경우보다 차별적 지원에 응답한 비율이 높아 응답비율에 차이를 보였다.

〈표 III-4-2〉 정부의 육아를 위한 재정지원 설계 시 우선 순위

단위: %(명)

구분	국가 재정 효율성을 고려한 차별적 지원	0-5세 무상 보육·유아교육 이행	모르겠음	기타	수
전체	50.1	40.0	8.1	1.8	(3,000)
성별 구분					
남자	47.2	44.6	6.2	1.9	(1,522)
여자	53.0	35.3	9.9	1.8	(1,478)
$\chi^2(df)$		34.3(3)***			
연령					
10대 이하	41.9	35.5	21.0	1.6	(62)
20대	43.3	41.4	13.9	1.5	(619)
30대	37.8	51.4	7.6	3.1	(510)

구분	국가 재정 효율성을 고려한 차별적 지원	0-5세 무상 보육·유아교육 이행	모르겠음	기타	수
40대	52.7	39.8	5.5	2.0	(600)
50대	60.0	31.1	7.5	1.3	(623)
60대 이상	55.6	38.7	4.1	1.5	(586)
$\chi^2(df)$		130.2(15)***			
지역규모					
서울특별시	56.4	35.7	7.1	.9	(580)
광역시/특별자치시	47.1	42.7	8.1	2.1	(805)
중소도시	49.6	40.2	8.2	2.0	(1,484)
군(읍면지역)	46.6	39.7	10.7	3.1	(131)
$\chi^2(df)$		17.0(9)*			
혼인 여부					
미혼	45.2	40.7	12.5	1.6	(910)
배우자 있음	51.5	40.7	5.8	2.0	(1,942)
배우자 없음	62.2	26.4	10.1	1.4	(148)
$\chi^2(df)$		52.6(6)***			
영유아자녀유무					
유	34.5	58.4	5.2	1.9	(524)
무	59.3	32.8	6.0	1.9	(1,438)
$\chi^2(df)$		108.5(3)***			
취업 여부					
취업	50.1	41.3	6.9	1.7	(2,170)
미취업	50.0	36.6	11.1	2.3	(830)
$\chi^2(df)$		17.5(3)**			

주: 무응답은 분석에서 제외되었으며, 승수적용으로 합이 일치하지 않을 수 있음.

\*  $p < .05$ , \*\*  $p < .01$ , \*\*\*  $p < .001$ .

## 나. 아동학대 관련 의견

〈표 III-4-3〉은 아동학대와 관련하여 정부가 우선 비중을 두어야 하는 정책이 무엇인지에 대한 조사결과이다. 전체적으로 아동학대에 대한 처벌 강화(28.2%), 부모 및 교직원 대상 교육 실시(18.9%), 교사의 근로환경 개선(14.2%), 아동학대 위험아동 조기발견 노력(13.5%) 순으로 나타났다. 연령대가 높아질수록 아동학대에 대한 처벌 강화보다는 부모 및 교직원 대상 교육실시에 대한 요구비율이 많아지는 경향을 보였으며, 미혼인 경우에 처벌 강화에 요구가 더 많고, 영유아 자녀가 있는 경우가 그렇지 않은 경우보다 처벌 강화에 대한 요구가 높게 나타났다.

〈표 III-4-3〉 아동학대 관련 정부가 비중을 두어야 할 사항

단위: %(명)

구분	부모 및 교직원 대상 교육 실시	영유아 학대 위험아 동 조기 발견 노력	아동학 대 신고의 무자 확대	영유아 학대 시 처벌 강화	아동 인권 존중에 대한 홍보 강화	유치원과 어린이집 교사의 근로환경 개선	지속적인 교사, 부모 상담 지원	유치원과 어린이집 교사양성 과정 강화	기타	수
전체	18.9	13.5	4.7	28.2	7.8	14.2	4.4	7.5	0.8	(3,000)
성별										
남자	17.5	14.3	5.1	26.7	8.3	14.8	5.2	7.4	0.7	(1,522)
여자	20.4	12.7	4.2	29.8	7.4	13.5	3.6	7.5	0.9	(1,478)
$\chi^2(df)$					15.8(8)*					
연령										
15~19세	9.7	25.8	3.2	35.5	3.2	12.9	6.5	1.6	1.6	(62)
20대	11.5	13.4	6.5	35.1	4.7	15.8	5.0	6.8	1.3	(619)
30대	10.6	13.7	4.7	35.3	4.3	18.4	4.1	7.5	1.4	(510)
40대	19.3	13.3	4.2	28.5	6.7	16.0	3.7	7.5	0.8	(600)
50대	23.9	14.3	4.5	24.6	10.8	8.8	4.8	7.9	0.5	(623)
60대 이상	29.2	11.4	3.6	17.7	12.8	12.8	4.1	8.4	0.0	(586)
$\chi^2(df)$					225.0(40)***					
혼인 여부										
미혼	13.3	14.6	5.7	34.3	4.7	14.6	4.8	6.4	1.5	(910)
배우자 있음	20.9	13.2	4.1	26.0	9.1	14.3	4.2	7.8	0.5	(1,942)
배우자 없음	27.7	10.1	6.1	20.9	10.1	10.8	4.1	9.5	0.7	(148)
$\chi^2(df)$					79.5(16)***					
영유아자녀유무										
유	10.9	13.9	5.7	30.2	6.3	21.2	3.6	7.6	0.6	(524)
무	25.6	12.4	3.7	23.1	10.9	11.5	4.5	7.9	0.4	(1,438)
$\chi^2(df)$					85.6(8)***					
가구소득										
60% 미만	20.4	10.5	5.6	30.8	7.7	11.3	5.9	6.7	1.0	(608)
60-80% 미만	23.0	14.3	4.8	24.0	7.6	13.1	4.2	7.8	1.1	(525)
80-100% 미만	18.9	13.4	4.5	28.3	8.9	16.0	4.5	4.9	0.7	(449)
100-120% 미만	17.8	13.8	5.7	27.2	8.8	13.6	4.6	7.9	0.6	(522)
120-140% 미만	15.6	13.3	2.2	27.9	7.6	21.0	3.8	7.9	0.6	(315)
140-160% 미만	14.6	17.7	3.5	34.8	6.1	12.1	2.5	8.1	0.5	(198)
160% 이상	17.2	14.9	4.4	28.2	6.8	14.4	3.4	9.9	0.8	(383)
$\chi^2(df)$					66.8(48)*					

주: 독립변수에 따라 사례수 합이 일치하지 않을 수 있음.

\*  $p < .05$ , \*\*\*  $p < .001$ .

### 다. 영유아 사교육 관련 의견

〈표 Ⅲ-4-4〉는 영유아 자녀가 있는 부모들이 사교육을 시키는 이유를 조사한 결과이다. 전반적으로(1+2순위) ‘다른 아이들이 하니까 뒤쳐질까봐’가 40.1%로 가장 많고, ‘자녀의 발달과 학습에 도움이 된다고 생각해서’가 30.9%, ‘하원 후에 돌봐줄 사람이 없어서’ 10.1%, ‘자녀에게 어떤 재능이 있는지 알아보기 위해’가 9.4%의 순으로 나타났다. 성별, 연령대별, 영유아 자녀유무에 따라 응답비율에 차이가 있었다.

〈표 Ⅲ-4-4〉 영유아 사교육 이유에 대한 인식(1순위)

단위: %(명)

구분	자녀가 원해서	자녀에게 어떤 재능이 있는지 알아보기 위해	자녀의 발달과 학습에 도움이 된다고 생각해서	다른 아이들이 하니까 뒤쳐질까 봐	다른 친구들과 어울리게 하기 위해서	어린이집·유치원 특별활동/특성화 프로그램만으로는 부족해서	하원 후에 돌봐줄 사람이 없어서	기타	수
전체	2.1	9.4	30.9	40.1	3.4	3.1	10.1	0.9	(3,000)
성별									
남자	2.6	8.9	28.6	44.5	3.7	3.0	7.3	1.4	(1,522)
여자	1.6	9.9	33.2	35.5	3.2	3.2	13.0	0.3	(1,478)
$\chi^2(df)$				59.2(7)***					
연령									
15~19세	6.5	9.7	22.6	50.0	4.8	0.0	3.2	3.2	(62)
20대	2.9	8.6	29.1	42.0	3.4	2.4	10.5	1.1	(619)
30대	2.9	10.4	27.5	36.7	3.7	4.1	14.1	0.6	(510)
40대	2.2	10.8	34.7	36.5	3.5	1.7	9.2	1.5	(600)
50대	1.4	9.6	32.7	40.8	3.4	3.2	8.7	0.2	(623)
60대 이상	0.5	7.8	30.9	43.0	3.1	4.6	9.4	0.7	(586)
$\chi^2(df)$				74.2(35)***					
영유아 자녀유무									
유	3.1	12.4	32.8	32.4	3.8	4.0	10.7	0.8	(524)
무	1.3	9.0	33.2	39.5	3.7	3.5	9.1	0.7	(1,438)
$\chi^2(df)$				18.0(7)*					

주: 1) 가구소득은 2017년 2/4분기 통계청 가계동향조사의 월평균 가구소득(4,346,500원)을 100%로 한 것임.

2) 독립변수에 따라 사례수 합이 일치하지 않을 수 있음.

\*  $p < .05$ , \*\*\*  $p < .001$ .

〈표 III-4-5〉 영유아 사교육 이유에 대한 인식(1+2순위)

단위: %(명)

구분	자녀가 원해서	자녀에게 어떤 재능이 있는지 알아보기 위해	자녀의 발달과 학습에 도움이 된다고 생각해서	다른 아이들이 하나까 뒤쳐질까 봐	다른 친구들과 어울리게 하기 위해서	어린이집·유치원 특별활동/특성화 프로그램 만으로는 부족해서	하원 후에 돌보줄 사람이 없어서	기타	수
전체	4.1	20.3	56.3	60.0	16.2	12.5	29.1	1.4	(3,000)
성별									
남자	4.4	19.1	56.0	63.3	18.2	12.6	24.2	2.2	(1,522)
여자	3.9	21.7	56.6	56.6	14.2	12.3	34.1	0.7	(1,478)
연령									
15~19세	8.1	22.6	59.7	56.5	17.7	12.9	19.4	3.2	(62)
20대	4.4	17.1	56.2	62.5	16.0	10.3	31.3	2.1	(619)
30대	5.7	21.0	49.4	57.1	17.1	13.3	35.5	1.0	(510)
40대	5.5	24.8	58.3	52.8	18.7	11.3	26.3	2.2	(600)
50대	3.0	21.5	57.5	62.8	16.2	12.0	26.3	0.6	(623)
60대 이상	1.9	17.1	58.9	64.5	13.1	15.5	28.0	1.0	(586)
영유아 자녀유무									
유	7.4	24.6	52.9	53.6	16.2	14.3	30.0	1.0	(524)
무	2.9	21.0	59.5	59.9	15.7	13.1	27.0	1.0	(1,438)

우리나라에서 영유아 대상 사교육 과열현상이 지속될지를 조사한 결과(〈표 III-4-6〉), 응답자의 86.1%는 지속될 것이라고 응답하였다. 또한 연령별, 혼인여부, 자녀유무, 취업여부에 따라서 응답비율에 차이가 있었다.

〈표 III-4-6〉 사교육 과열 현상의 지속여부에 대한 의견

단위: %(명)

구분	그렇다	아니다	잘 모르겠다	계
전체	86.1	3.9	10.1	100.0(3,000)
성별				
남자	85.2	4.2	10.6	100.0(1,522)
여자	87.0	3.5	9.5	100.0(1,478)
		2.2(2)		
연령				
15~19세	77.4	8.1	14.5	100.0( 62)
20대	84.0	3.4	12.6	100.0(619)
30대	88.0	2.4	9.6	100.0(510)
40대	87.8	3.5	8.7	100.0(600)

구분	그렇다	아니다	잘 모르겠다	계
50대	85.4	4.0	10.6	100.0(623)
60대 이상	86.3	5.5	8.2	100.0(586)
$\chi^2(df)$		20.3(10)*		
혼인 여부				
미혼	83.6	3.6	12.7	100.0(910)
배우자 있음	87.6	3.9	8.5	100.0(1,942)
배우자 없음	80.4	5.4	14.2	100.0(148)
$\chi^2(df)$		16.5(4)**		
자녀 유무				
유	87.2	4.1	8.7	100.0(1,962)
무	84.0	3.4	12.6	100.0(1,038)
$\chi^2(df)$		12.1(2)**		
취업 여부				
취업	87.1	3.5	9.5	100.0(2,170)
미취업	83.5	4.9	11.6	100.0(830)
$\chi^2(df)$		6.9(2)*		

\*  $p < .05$ , \*\*  $p < .01$ .

## 라. 세금 추가 부담 의사

〈표 III-4-7〉은 영유아에 대한 국가의 책임 강화를 위해 세금을 추가로 부담할지에 대해 조사한 결과이다. 조사결과 세금에 대한 추가부담 의향이 없다고 응답한 비율이 44.2%, 추가부담 의향이 있다고 응답한 비율은 32.6%, 잘 모르겠다는 응답은 23.2%로 나타났다. 연령대가 높을수록 세금에 대한 추가부담 의향이 없다는 비율이 높아지고는 경향을 보였다. 또한 미혼보다 기혼이, 자녀가 있는 경우가 없는 경우보다, 영유아 자녀가 없는 경우가 있는 경우에 ‘없다’고 응답한 비율이 높은 경향을 보인다. 성별, 연령, 혼인여부, 자녀유무, 영유아 자녀 유무, 취업 여부, 가구소득에 따라 응답비율이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있었다.

〈표 III-4-7〉 영유아에 대한 국가 책임 강화를 위한 세금 추가 부담 의향

구분	있다	없다	잘 모르겠다	계
전체	32.6	44.2	23.2	100.0(3,000)
성별				
남자	39.6	40.3	20.2	100.0(1,522)
여자	25.4	48.3	26.3	100.0(1,478)
$\chi^2(df)$		69.5(2)***		

단위: %(명)

구분	있다	없다	잘 모르겠다	계
연령				
15~19세	33.9	27.4	38.7	100.0(62)
20대	30.9	35.5	33.6	100.0(619)
30대	38.4	40.2	21.4	100.0(510)
40대	30.3	46.8	22.8	100.0(600)
50대	31.0	51.0	18.0	100.0(623)
60대 이상	33.1	48.8	18.1	100.0(586)
$\chi^2(df)$		84.1(10)***		
혼인 여부				
미혼	30.1	37.4	32.5	100.0(910)
배우자 있음	34.6	47.1	18.4	100.0(1,942)
배우자 없음	21.6	49.3	29.1	100.0(148)
$\chi^2(df)$		79.3(4)***		
자녀 유무				
유	33.8	47.3	18.9	100.0(1,962)
무	30.2	38.4	31.4	100.0(1,038)
$\chi^2(df)$		70.0(2)***		
영유아 자녀유무				
유	44.8	36.3	18.9	100.0(524)
무	29.8	51.3	18.8	100.0(1,438)
$\chi^2(df)$		44.0(2)***		
취업 여부				
취업	35.0	43.6	21.3	100.0(2,170)
미취업	26.1	45.8	28.1	100.0(830)
$\chi^2(df)$		26.9(2)***		
가구소득				
60% 미만	28.3	44.7	27.0	100.0(608)
60 - 80% 미만	35.4	41.3	23.2	100.0(525)
80 - 100% 미만	29.8	44.8	25.4	100.0(449)
100 - 120% 미만	34.1	43.1	22.8	100.0(522)
120 - 140% 미만	36.5	46.3	17.1	100.0(315)
140 - 160% 미만	28.3	48.0	23.7	100.0(198)
160% 이상	35.5	44.6	19.8	100.0(383)
$\chi^2(df)$		23.5(12)*		

주: 1) 가구소득은 2018년 2/4분기 통계청 가계동향조사의 월평균 가구소득(453만원)을 100%로 함.

2) 무응답은 분석에서 제외되었으며, 승수적용으로 합이 일치하지 않을 수 있음.

\*  $p < .05$ , \*\*\*  $p < .001$ .

세금 추가 부담 의사가 없는 이유에 대해 질문한 결과, 먼저 정부 지출에 대한 구조조정 등이 선행되어야 할 것 같기 때문이라고 응답한 비율은 37.3%로 가장 높았고, 세금이 적절한 곳에 쓰이지 않을 것 같아서가 25.6%, 부담하는 세금 자체가 지금도 너무 많기 때문인가 17.1%, 관련 정책의 수혜자가 아니므로 내고 싶지

않아서가 12.4%, 다른 증세 방안을 모색해야 할 것 같아서가 3.5% 순으로 나타났다. 또한 성별, 연령별, 혼인여부, 자녀유무, 영유아 자녀유무, 맞벌이 여부에 따라서도 응답비율에 차이를 보였다.

〈표 III-4-8〉 세금 추가 부담의사가 없는 이유

단위: %(명)

구분	세금이 적절한 곳에 쓰이지 않을 것 같아서	관련 정책의 수혜자가 아니므로 내고 싶지 않아서	먼저 정부 지출에 대한 구조조정 등이 선행되어야 할 것 같아서	부담하는 세금 자체가 지금도 너무 많기 때문에	다른 증세 방안을 모색해야 할 것 같아서	기타	계
전체	25.6	12.4	37.3	17.1	3.5	4.1	(1,327)
성별							
남자	28.9	10.9	38.3	15.2	3.4	3.3	(613)
여자	22.8	13.6	36.4	18.8	3.6	4.8	(714)
$\chi^2(df)$			11.3(5)*				
연령							
15~19세	35.3	11.8	35.3	17.6	0.0	0.0	(17)
20대	30.5	16.8	21.4	20.9	3.6	6.8	(220)
30대	35.1	12.2	31.2	14.6	2.9	3.9	(205)
40대	29.9	12.8	33.1	14.2	5.0	5.0	(281)
50대	21.4	13.2	41.2	18.6	2.5	3.1	(318)
60대 이상	15.0	7.7	53.8	17.1	3.8	2.4	(286)
$\chi^2(df)$			91.8(25)***				
혼인 여부							
미혼	26.2	20.3	26.5	17.6	3.8	5.6	(340)
배우자 있음	25.5	9.1	40.8	17.6	3.4	3.6	(914)
배우자 없음	24.7	16.4	43.8	8.2	4.1	2.7	(73)
$\chi^2(df)$			47.4(10)***				
자녀 유무							
유	25.2	9.4	41.8	16.9	3.1	3.6	(928)
무	26.6	19.3	26.8	17.5	4.5	5.3	(399)
$\chi^2(df)$			42.8(5)***				
영유아 자녀유무							
유	37.4	5.8	34.7	15.3	3.2	3.7	(190)
무	22.1	10.3	43.6	17.3	3.1	3.5	(738)
$\chi^2(df)$			20.5(5)**				
맞벌이 유무							
맞벌이	29.1	10.3	37.9	15.8	4.4	2.5	(475)
외벌이	21.6	7.7	44.0	19.6	2.3	4.8	(439)
$\chi^2(df)$			16.8(5)**				

주: 독립변수에 따라 사례수 합이 일치하지 않을 수 있음.

\*  $p < .05$ , \*\*  $p < .01$ , \*\*\*  $p < .001$ .



마. 육아지원 정책 희망에 대한 의견

〈표 III-4-9〉는 정부가 자녀의 자녀 출산 및 양육을 어느정도 지원해야 하는지를 조사한 결과이다. 조사결과, 어느 정도 지원해야 한다고 응답한 비율은 65.7%로 가장 높았고, 전적으로 지원해야 한다고 25.4%, 별로 지원할 필요없음 5.6%, 전혀 지원할 필요가 있음이 1.2%로 나타났다. 성별, 연령, 혼인 여부, 자녀 유무, 영유아 자녀 유무, 취업 여부, 가구소득에 따라 응답비율에 차이를 보였다.

〈표 III-4-9〉 정부의 자녀 출산 및 양육 지원 수준에 대한 인식

단위: %(명)

구분	전적으로 지원해야 함	어느 정도 지원해야 함	별로 지원할 필요 없음	전혀 지원할 필요 없음	모르 겠음	계
전체	25.4	65.7	5.6	1.2	2.1	(3,000)
성별						
남자	29.4	61.9	5.3	1.4	2.0	(1,522)
여자	21.2	69.6	5.9	1.0	2.3	(1,478)
$\chi^2(df)$			29.0(4)***			
연령						
15~19세	30.6	54.8	6.5	0.0	8.1	(62)
20대	26.0	64.3	5.3	0.8	3.6	(619)
30대	35.9	59.0	3.9	0.2	1.0	(510)
40대	24.8	67.7	5.0	1.5	1.0	(600)
50대	19.7	69.5	7.1	1.9	1.8	(623)
60대 이상	21.5	68.1	6.1	1.7	2.6	(586)
$\chi^2(df)$			80.8(20)***			
혼인 여부						
미혼	24.5	67.0	4.6	0.7	3.2	(910)
배우자 있음	26.4	64.9	5.9	1.3	1.5	(1,942)
배우자 없음	17.6	68.2	7.4	3.4	3.4	(148)
$\chi^2(df)$			25.0(8)**			
자녀 유무						
유	25.5	65.1	6.1	1.6	1.6	(1,962)
무	25.0	66.8	4.5	0.6	3.1	(1,038)
$\chi^2(df)$			15.6(4)**			
영유아 자녀유무						
유	40.8	53.1	4.4	1.0	0.8	(524)
무	20.0	69.5	6.7	1.8	1.9	(1,438)
$\chi^2(df)$			90.2(4)***			
취업 여부						
취업	26.8	65.5	5.4	1.2	1.2	(2,170)
미취업	21.6	66.3	6.0	1.4	4.7	(830)
$\chi^2(df)$			42.8(4)***			

구분	전적으로 지원해야 함	어느 정도 지원해야 함	별로 지원할 필요 없음	전혀 지원할 필요 없음	모르 겠음	계
가구소득						
60% 미만	28.0	61.0	6.1	1.6	3.3	(608)
60-80% 미만	27.2	65.5	4.2	0.8	2.3	(525)
80-100% 미만	26.1	66.4	4.9	0.7	2.0	(449)
100-120% 미만	23.0	69.0	4.4	1.7	1.9	(522)
120-140% 미만	28.9	63.5	7.0	0.3	0.3	(315)
140-160% 미만	22.7	62.6	9.6	2.0	3.0	(198)
160% 이상	19.6	71.5	5.7	1.6	1.6	(383)
$\chi^2(df)$						44.4(24)**

주: 1) 가구소득은 2018년 2/4분기 통계청 가계동향조사의 월평균 가구소득(453만원)을 100%로 함.

2) 무응답은 분석에서 제외되었으며, 승수적으로 합이 일치하지 않을 수 있음.

\*\*  $p < .01$ , \*\*\*  $p < .001$ .

〈표 III-4-10〉은 출산·육아 지원을 위해 정부가 우선적으로 제공해 주기를 바라는 정책우선순위(1순위)를 조사한 결과이다. 조사결과, ①출산휴가 및 육아휴직 기간 확대라고 응답한 비율이 38.5%로 가장 높았고, ④비용 지원(유아원비, 양육수당 등) 22.2%, ③공립유치원 및 어린이집 확충 19.1% 순으로 나타났다. 또한 성별, 연령, 혼인 여부, 자녀유무, 영유아 자녀유무, 취업 여부, 맞벌이 여부, 가구소득에 따라 응답비율에 차이를 보였다.

〈표 III-4-10〉 정부의 출산·육아지원 정책에 대한 우선순위(1순위)

구분	①	②	③	④	⑤	⑥	⑦	⑧	⑨	계
전체	38.5	4.6	19.1	22.2	5.0	4.1	5.0	0.7	0.8	(2,732)
성별										
남자	32.6	4.1	21.8	26.4	4.6	4.2	5.0	0.6	0.7	(1,390)
여자	44.6	5.2	16.2	17.9	5.4	4.0	5.1	0.7	0.8	(1,342)
$\chi^2(df)$	62.4(8)***									
연령										
15~19세	43.4	1.9	11.3	30.2	0.0	0.0	13.2	0.0	0.0	(53)
20대	43.1	3.9	11.3	26.8	4.8	4.7	4.1	0.2	1.1	(559)
30대	35.1	4.8	15.7	30.2	6.2	2.3	3.5	0.8	1.4	(484)
40대	32.3	4.7	22.9	21.8	6.5	4.9	5.0	1.1	0.9	(555)
50대	36.7	5.4	24.5	16.5	4.1	4.5	6.8	0.9	0.5	(556)
60대 이상	44.6	4.8	21.5	15.6	4.0	4.6	4.6	0.4	0.0	(525)
$\chi^2(df)$	137.7(40)***									
혼인 여부										
미혼	43.8	4.0	14.8	23.9	4.0	3.7	4.9	0.1	0.8	(833)
배우자 있음	35.9	4.8	20.9	21.6	5.6	4.2	5.2	0.8	0.8	(1,772)
배우자 없음	38.6	7.1	21.3	19.7	3.1	5.5	3.1	1.6	0.0	(127)
$\chi^2(df)$	38.4(16)**									

구분	①	②	③	④	⑤	⑥	⑦	⑧	⑨	계
자녀 유무										
유	36.0	5.1	21.0	21.3	5.5	4.3	5.2	0.9	0.7	(1,779)
무	43.0	3.8	15.5	23.9	4.2	3.8	4.7	0.2	0.8	(953)
$\chi^2(df)$	29.0(8)***									
영유아 자녀유무										
유	28.7	4.5	19.1	33.3	6.3	1.8	4.1	0.6	1.6	(492)
무	38.9	5.4	21.7	16.7	5.1	5.3	5.6	1.0	0.4	(1,287)
$\chi^2(df)$	78.5(8)***									
취업 여부										
취업	37.5	4.6	20.1	22.6	5.4	3.7	4.3	0.9	0.9	(2,003)
미취업	41.2	4.8	16.3	21.3	3.8	5.2	7.0	0.0	0.4	(729)
$\chi^2(df)$	27.8(8)**									
맞벌이 유무										
맞벌이	38.4	4.5	19.9	19.9	6.7	3.7	4.8	1.3	0.8	(952)
외벌이	33.0	5.1	22.2	23.7	4.4	4.9	5.6	0.4	0.7	(820)
$\chi^2(df)$	18.5(8)*									
가구소득										
60% 미만	40.7	4.1	15.5	25.9	4.8	4.1	4.1	0.2	0.7	(541)
60 - 80% 미만	35.7	5.3	21.6	23.0	5.1	2.9	5.5	0.2	0.6	(487)
80 - 100% 미만	37.1	4.3	16.9	26.0	4.1	4.8	4.8	1.2	0.7	(415)
100 - 120% 미만	37.1	4.8	19.0	24.0	5.0	3.3	5.6	0.8	0.4	(480)
120 - 140% 미만	36.8	4.1	18.9	22.3	5.2	5.5	4.1	1.4	1.7	(291)
140 - 160% 미만	38.5	3.6	24.3	13.0	7.7	5.3	5.3	0.6	1.8	(169)
160% 이상	43.8	5.7	21.5	12.9	4.9	4.6	5.7	0.6	0.3	(349)
$\chi^2(df)$	70.2(48)*									
전체(1+2순위)	52.6	12.7	37.4	45.6	18.5	12.4	15.2	4.1	1.5	100.0(2,732)

① 출산휴가 및 육아휴직 기간 확대, ② 베이비시터 인력 관리, ③ 공립유치원 및 어린이집 확충, ④ 비용 지원(유아원비, 양육수당 등), ⑤ 유치원, 어린이집의 운영시간 연장, ⑥ 자녀 건강 관련 지원(건강검진, 예방접종 등) 확대, ⑦ 안전한 생활환경 조성(공기질 개선, 교통안전 등), ⑧ 영유아 문화 및 놀이시설 확대, ⑨ 기타

주: 1) 가구소득은 2018년 2/4분기 통계청 가계동향조사의 월평균 가구소득(453만원)을 100%로 함.

2) 무응답은 분석에서 제외되었으며, 승수적용으로 합이 일치하지 않을 수 있음.

\*  $p < .05$ , \*\*  $p < .01$ , \*\*\*  $p < .001$ .

## 바. 비용지원 정책

〈표 III-4-11〉은 보육료·유아학비 전계층 지원에 대해 질문한 결과, 바람직하다고 응답한 비율은 42.1%였고, 바람직하지 않다는 비율은 28.7%로 나타났다. 5점 만점으로는 3.18점이었다. 응답자 연령, 지역규모 혼인여부, 영유아 자녀유무, 가구소득에 따라 응답비율에 차이를 보였다.

〈표 III-4-11〉 보육료·유아학비 전계층 지원에 대한 인식

단위: %(명), 점

구분	전혀 바람직하 지 않음	별로 바람직하 지 않음	보통	약간 바람직	매우 바람직	계	평균
전체	7.6	21.1	29.2	30.1	12.0	(3,000)	3.18
성별							
남자	6.4	17.7	27.8	32.7	15.4	(1,522)	3.33
여자	8.8	24.6	30.6	27.5	8.5	(1,478)	3.02
$\chi^2(df)/t$			60.3(4)***				7.49***
연령							
15~19세	1.6	12.9	33.9	38.7	12.9	(62)	3.48
20대	5.5	16.5	33.4	29.2	15.3	(619)	3.32
30대	6.1	16.5	30.4	32.9	14.1	(510)	3.33
40대	8.0	20.3	28.3	29.8	13.5	(600)	3.21
50대	10.8	25.5	29.7	25.7	8.3	(623)	2.95
60대 이상	8.0	27.1	23.4	32.6	8.9	(586)	3.07
$\chi^2(df)/F$			86.3(20)***				11.04***
지역규모							
서울특별시	9.0	26.6	26.9	28.3	9.3	(580)	3.02
광역시/특별자치시	6.1	17.4	32.0	30.7	13.8	(805)	3.29
중소도시	7.9	21.4	28.4	30.3	12.1	(1,484)	3.17
군(읍면지역)	7.6	17.6	29.8	32.8	12.2	(131)	3.24
$\chi^2(df)/F$			28.6(12)**				6.33***
혼인 여부							
미혼	6.2	17.8	32.9	31.0	12.2	(910)	3.25
배우자 있음	7.9	22.5	27.4	30.2	12.0	(1,942)	3.16
배우자 없음	12.8	24.3	29.7	23.0	10.1	(148)	2.93
$\chi^2(df)/F$			24.7(8)**				5.77**
영유아 자녀유무							
유	4.0	13.5	27.1	35.3	20.0	(524)	3.54
무	9.6	25.9	27.6	27.8	9.0	(1,438)	3.01
$\chi^2(df)/t$			86.9(4)***				9.29***
가구소득							
60% 미만	8.7	20.2	29.8	29.3	12.0	(608)	3.16
60 - 80% 미만	6.1	18.7	29.1	31.4	14.7	(525)	3.30
80 - 100% 미만	5.8	20.3	30.7	30.7	12.5	(449)	3.24
100 - 120% 미만	6.9	21.6	29.5	31.0	10.9	(522)	3.17
120 - 140% 미만	6.7	21.6	25.7	34.6	11.4	(315)	3.23
140 - 160% 미만	8.1	26.8	29.3	23.7	12.1	(198)	3.05
160% 이상	11.5	23.0	28.7	27.2	9.7	(383)	3.01
$\chi^2(df)/F$			32.3(24)				3.31**

주: 1) 가구소득은 2018년 2/4분기 통계청 가계동향조사의 월평균 가구소득(453만원)을 100%로 함.

2) 무응답은 분석에서 제외되었으며, 승수적용으로 함이 일치하지 않을 수 있음.

3) 평균은 '전혀 바람직하지 않음(1점)~매우 바람직(5점)'으로 산출한 결과임.

\*  $p < .05$ , \*\*  $p < .01$ , \*\*\*  $p < .001$ .

보육료·유아학비 전계층 지원이 바람직하지 않은 이유에 대해 질문한 결과, 소득에 따른 비용지원 정책에 차별화가 필요하기 때문이라고 응답한 비율은 76.3%로 가장 많았고, 세금 부담 가중 우려가 12.8%, 비용지원에도 부모 부담 여전히 5.8%, 재정 지원 불안정이 2.7% 순으로 나타났다. 응답자의 성별과 연령대, 영유아 자녀 유무에 따라서도 응답비율에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를 보였다.

〈표 III-4-12〉 보육료·유아학비 전계층 지원이 바람직하지 않은 이유

단위: %(명)

구분	소득에 따른 비용지원 정책에 차별화가 필요함	세금 부담 가중 우려	비용 지원에도 부모 부담 여전	재정 지원 불안정	기타	계
전체	76.3	12.8	5.8	2.7	2.4	100.0(862)
성별						
남자	72.6	13.0	8.4	3.8	2.2	100.0(368)
여자	79.1	12.6	3.8	1.8	2.6	100.0(494)
$\chi^2(df)$			12.1(4)*			
연령						
15~19세	66.7	33.3	0.0	0.0	0.0	100.0(9)
20대	74.3	11.8	7.4	4.4	2.2	100.0(136)
30대	69.6	19.1	7.8	0.0	3.5	100.0(115)
40대	74.7	15.3	4.7	2.9	2.4	100.0(170)
50대	75.7	13.3	6.6	2.7	1.8	100.0(226)
60대 이상	84.0	6.3	3.9	2.9	2.9	100.0(206)
$\chi^2(df)$			27.0(20)			
영유아 자녀유무						
유	56.5	22.8	13.0	5.4	2.2	100.0(92)
무	78.5	11.4	4.9	2.7	2.5	100.0(511)
$\chi^2(df)$			23.1(4)***			

주: 1) 가구소득은 2018년 2/4분기 통계청 가계동향조사의 월평균 가구소득(453만원)을 100%로 함.

2) 무응답은 분석에서 제외되었으며, 승수적용으로 합이 일치하지 않을 수 있음.

\*  $p < .05$ , \*\*\*  $p < .001$ .

양육수당 전계층 지원에 대해 질문한 결과, 바람직하다고 응답한 비율은 39.8%, 바람직하지 않다는 비율은 31.3%, 보통이 28.8%로 나타났다. 5점 만점 중 3.12점 수준으로 나타났으며, 성별, 연령별, 지역규모별, 혼인 여부, 영유아 자녀유무, 가구소득에 따라서도 통계적인 유의미한 차이를 보였다.

〈표 III-4-13〉 양육수당 전계층 지원에 대한 인식(2019)

단위: %(명), 점

구분	전혀 바람직하지 않음	별로 바람직하지 않음	보통	약간 바람직	매우 바람직	계	평균
전체	8.8	22.5	28.8	28.0	11.8	(3,000)	3.12
성별							
남자	7.3	19.1	28.2	30.2	15.2	(1,522)	3.27
여자	10.4	26.0	29.4	25.8	8.4	(1,478)	2.96
$\chi^2(df)/t$			58.9(4)***				7.48***
연령							
15~19세	1.6	17.7	27.4	38.7	14.5	(62)	3.47
20대	6.6	15.5	34.1	29.4	14.4	(619)	3.29
30대	6.7	17.6	31.8	28.8	15.1	(510)	3.28
40대	9.3	24.2	26.3	26.5	13.7	(600)	3.11
50대	12.4	26.2	29.2	24.9	7.4	(623)	2.89
60대 이상	9.4	29.2	22.9	29.7	8.9	(586)	2.99
$\chi^2(df)/F$			101.7(20)***				12.71***
지역규모							
서울특별시	10.3	27.2	28.6	23.3	10.5	(580)	2.96
광역시/특별자치시	7.3	19.5	30.8	29.6	12.8	(805)	3.21
중소도시	9.0	22.9	27.8	28.6	11.7	(1,484)	3.11
군(읍면지역)	9.2	16.0	28.2	32.8	13.7	(131)	3.26
$\chi^2(df)/F$			25.3(12)*				5.91**
혼인 여부							
미혼	7.7	17.8	33.5	30.0	11.0	(910)	3.19
배우자 있음	8.9	24.4	26.9	27.3	12.6	(1,942)	3.10
배우자 없음	14.9	27.7	24.3	25.7	7.4	(148)	2.83
$\chi^2(df)/F$			37.3(8)***				6.48**
영유아 자녀유무							
유	5.0	15.5	25.8	31.7	22.1	(524)	3.51
무	10.7	28.0	27.1	25.7	8.6	(1,438)	2.94
$\chi^2(df)/t$			100.8(4)***				9.78***
가구소득							
60% 미만	9.9	20.9	28.9	28.6	11.7	(608)	3.11
60 - 80% 미만	6.7	20.6	29.3	29.7	13.7	(525)	3.23
80 - 100% 미만	6.9	24.9	29.0	26.9	12.2	(449)	3.13
100 - 120% 미만	7.9	22.0	30.1	29.3	10.7	(522)	3.13
120 - 140% 미만	9.2	22.5	25.7	31.1	11.4	(315)	3.13
140 - 160% 미만	11.1	26.3	27.8	22.2	12.6	(198)	2.99
160% 이상	12.0	23.8	29.0	24.8	10.4	(383)	2.98
$\chi^2(df)/F$			26.3(24)				2.24*

주: 1) 가구소득은 2018년 2/4분기 통계청 가계동향조사의 월평균 가구소득(453만원)을 100%로 함.

2) 무응답은 분석에서 제외되었으며, 승수적용으로 합이 일치하지 않을 수 있음.

3) 평균은 '전혀 바람직하지 않음(1점)~매우 바람직(5점)'으로 산출한 결과임.

\*  $p < .05$ , \*\*  $p < .01$ , \*\*\*  $p < .001$ .

양육수당 전계층 지원이 바람직하지 않은 이유에 대해 질문한 결과, 소득에 따른 비용지원 정책에 차별화가 필요하기 때문이라고 응답한 비율은 76.5%로 가장 많았고, 세금 부담 가중 우려가 14.1%, 비용지원에도 부모 부담 여전이 4.5%, 재정 지원 불안정이 3.1% 순으로 나타났다. 응답자의 성별과 연령대, 영유아 자녀 유무에 따라서도 응답비율에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를 보였다.

〈표 III-4-14〉 양육수당 전계층 지원이 바람직하지 않은 이유

단위: %(명)

구분	소득에 따른 비용지원 정책에 차별화가 필요함	세금 부담 가중 우려	비용 지원에도 부모 부담 여전	재정 지원 불안정	기타	계
전체	76.5	14.1	4.5	3.1	1.8	100.0(940)
성별						
남자	73.4	14.7	5.7	4.2	2.0	100.0(402)
여자	78.8	13.8	3.5	2.2	1.7	100.0(538)
$\chi^2(df)$			6.6(4)			
연령						
15~19세	83.3	16.7	0.0	0.0	0.0	100.0(12)
20대	76.6	13.9	4.4	3.6	1.5	100.0(137)
30대	73.4	16.1	6.5	1.6	2.4	100.0(124)
40대	72.1	16.9	5.0	4.0	2.0	100.0(201)
50대	75.0	15.8	4.6	2.9	1.7	100.0(240)
60대 이상	83.2	8.8	3.1	3.1	1.8	100.0(226)
$\chi^2(df)$			13.8(20)			
영유아 자녀유무						
유	58.9	23.4	9.3	8.4	0.0	100.0(107)
무	77.2	13.7	4.3	2.9	2.0	100.0(556)
$\chi^2(df)$			23.4(4)***			

주: 1) 가구소득은 2018년 2/4분기 통계청 가계동향조사의 월평균 가구소득(453만원)을 100%로 함.

2) 무응답은 분석에서 제외되었으며, 승수적용으로 합이 일치하지 않을 수 있음.

\*\*\*  $p < .001$ .

### 사. 저출산 정책에 대한 의견

정부의 출산·육아 비용지원 정책의 출산에 대한 영향력에 대해 질문한 결과, 영향을 미친다는 응답비율은 41.2%,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는 응답이 36.1%로 영향을 미친다는 응답비율이 약간 더 많았다. 또한 연령별로는 10대와 20대에 비해 40대와 50대 연령대에서 긍정적 응답비율이 높고, 영유아가 자녀가 있는 경우가 없는 경우보다 저출산 정책의 영향력을 더 긍정적으로 보았다.

〈표 III-4-15〉 정부의 출산·육아 비용지원 정책의 출산에 대한 영향력

단위: %(명), 점

구분	전혀 영향을 미치지 않음	별로 영향을 미치지 않음	보통	어느정도 영향을 미침	매우 많은 영향을 미침	계	평균
전체	7.2	28.9	22.8	32.0	9.2	(3,000)	3.07
성별							
남자	8.1	30.3	21.9	29.5	10.2	(1,522)	3.03
여자	6.2	27.5	23.7	34.6	8.1	(1,478)	3.11
$\chi^2(df)/t$			16.8(4)**				-1.89
연령							
15~19세	14.5	22.6	27.4	24.2	11.3	(62)	2.95
20대	9.4	32.0	22.0	26.2	10.5	(619)	2.96
30대	10.6	27.6	19.4	32.7	9.6	(510)	3.03
40대	5.5	26.2	25.0	33.3	10.0	(600)	3.16
50대	3.5	29.2	25.0	34.5	7.7	(623)	3.14
60대 이상	6.7	29.9	21.3	34.3	7.8	(586)	3.07
$\chi^2(df)/F$			57.7(20)***				2.60*
영유아 자녀유무							
유	11.8	29.8	21.4	26.9	10.1	(524)	2.94
무	5.0	28.3	22.7	35.2	8.8	(1,438)	3.14
$\chi^2(df)/t$			35.6(4)***				-3.47**
가구소득							
60% 미만	7.2	26.0	26.3	30.9	9.5	(608)	3.10
60 - 80% 미만	7.4	32.4	21.3	30.1	8.8	(525)	3.00
80 - 100% 미만	7.3	29.4	24.9	31.0	7.3	(449)	3.02
100 - 120% 미만	9.4	30.8	19.9	32.4	7.5	(522)	2.98
120 - 140% 미만	6.3	28.9	21.0	34.6	9.2	(315)	3.11
140 - 160% 미만	6.1	21.2	23.7	37.4	11.6	(198)	3.27
160% 이상	4.7	29.5	21.4	32.1	12.3	(383)	3.18
$\chi^2(df)/F$			36.0(24)				2.89**

주: 1) 가구소득은 2018년 2/4분기 통계청 가계동향조사의 월평균 가구소득(453만원)을 100%로 함.

2) 무응답은 분석에서 제외되었으며, 승수적용으로 합이 일치하지 않을 수 있음.

3) 평균은 '전혀 영향을 미치지 않음(1점)~매우 많은 영향을 미침(5점)'으로 산출한 결과임.

\*  $p < .05$ , \*\*  $p < .01$ , \*\*\*  $p < .001$ .



### 아. 안전한 사회

육아를 위한 우리 사회의 안전성에 대해 질문한 결과, 보통이라고 응답한 비율이 39.7%로 가장 많았고, 안전하지 않다고 응답한 비율이 35.9%, 안전하다고 응답한 비율이 24.4%로 나타났다. 성별, 연령, 혼인 여부, 자녀 유무, 영유아 자녀 유무에 따라 응답비율 및 평균에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가 있었다.

〈표 III-4-16〉 영유아 자녀 양육을 위한 우리 사회의 안전성

단위: %(명), 점

구분	매우 그렇지 않다	그렇지 않다	보통	그렇다	매우 그렇다	계	평균
전체	7.0	28.9	39.7	21.9	2.5	(3,000)	2.84
성별							
남자	4.7	24.2	39.3	28.3	3.6	(1,522)	3.02
여자	9.3	33.7	40.2	15.4	1.4	(1,478)	2.66
$\chi^2(df)/t$			118.3(4)***				10.86***
연령							
15~19세	6.5	37.1	35.5	19.4	1.6	(62)	2.73
20대	12.0	32.6	33.4	19.5	2.4	(619)	2.68
30대	12.7	30.4	36.9	17.3	2.7	(510)	2.67
40대	4.3	28.0	45.0	20.5	2.2	(600)	2.88
50대	3.7	23.9	42.1	27.1	3.2	(623)	3.02
60대 이상	2.9	28.8	41.5	24.6	2.2	(586)	2.94
$\chi^2(df)/F$			118.4(20)***				14.21***
혼인 여부							
미혼	10.9	31.9	37.7	17.7	1.9	(910)	2.68
배우자 있음	5.2	27.2	40.6	24.1	2.8	(1,942)	2.92
배우자 없음	6.1	31.8	40.5	18.9	2.7	(148)	2.80
$\chi^2(df)/F$			49.8(8)***				21.66***
자녀 유무							
유	5.1	27.6	40.9	23.6	2.8	(1,962)	2.91
무	10.4	31.3	37.6	18.6	2.1	(1,038)	2.71
$\chi^2(df)/t$			41.1(4)***				5.741***
영유아 자녀유무							
유	8.4	29.8	37.4	21.0	3.4	(524)	2.81
무	4.0	26.8	42.1	24.6	2.5	(1,438)	2.95
$\chi^2(df)/t$			21.4(4)***				-2.81**

주: 1) 가구소득은 2018년 2/4분기 통계청 가계동향조사의 월평균 가구소득(453만원)을 100%로 함.

2) 무응답은 분석에서 제외되었으며, 승수적용으로 함이 일치하지 않을 수 있음.

3) 평균은 '매우 그렇지 않다(1점)~매우 그렇다(5점)'으로 산출한 결과임.

\*\*  $p < .01$ , \*\*\*  $p < .001$ .

우리 사회의 가장 큰 불안 중 1순위에 대해 질문한 결과, 범죄 발생이라고 응답한 비율은 33.8%로 가장 많았고, 경제적 위험 18.9%, 계층간 갈등 15.2%, 도덕성 부족 12.7%, 환경오염 7.8%, 국가안보 5.3%, 인재 4.5%, 신종질병 0.6%, 자연재해 0.3%, 자원 0.2%의 순으로 나타났다. 또한 성별, 연령, 지역규모, 혼인여부, 자녀유무, 영유아 자녀유무, 맞벌이 여부에 따라서 응답비율에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를 보였다.

〈표 III-4-17〉 (안전하지 않다고 응답한 경우)가장 큰 불안 요인(1순위)

단위: %(명)

구분	국가안보	자연재해	환경오염	인재	경제적 위험	자원	도덕성 부족	신종질병	범죄 발생	계층간 갈등	기타	계
전체	5.3	0.3	7.8	4.5	18.9	0.2	12.7	0.6	33.8	15.2	0.8	(1075)
성별												
남자	7.3	0.5	7.1	6.4	24.6	0.5	15.3	0.5	20.5	16.4	1.1	(439)
여자	3.9	0.2	8.3	3.1	14.9	0.0	11.0	0.6	42.9	14.3	0.6	(636)
$\chi^2(df)$	72.8(10)***											
연령												
15~19세	0.0	3.7	14.8	0.0	18.5	0.0	25.9	0.0	25.9	11.1	0.0	(27)
20대	2.9	0.4	5.8	3.6	19.9	0.0	12.0	0.7	40.9	12.7	1.1	(276)
30대	3.2	0.0	11.8	5.0	15.0	0.0	7.7	0.0	43.6	12.7	0.9	(220)
40대	3.6	0.0	8.2	6.2	14.9	0.5	14.4	0.5	34.0	16.5	1.0	(194)
50대	7.0	0.6	5.2	6.4	18.6	0.6	14.0	0.6	24.4	21.5	1.2	(172)
60대 이상	12.4	0.0	7.0	2.2	26.3	0.0	15.1	1.1	21.0	15.1	0.0	(186)
$\chi^2(df)$	114.3(50)***											
지역규모												
서울특별시	5.1	0.0	7.8	5.1	20.3	0.0	14.7	0.9	30.4	15.2	0.5	(217)
광역시/특별자치시	6.6	0.3	6.6	2.8	22.4	0.0	12.1	0.0	35.2	12.4	1.7	(290)
중소도시	5.2	0.4	8.4	4.8	17.5	0.2	12.1	0.4	34.0	16.5	0.6	(521)
군(읍면지역)	0.0	0.0	8.5	8.5	6.4	2.1	14.9	4.3	38.3	17.0	0.0	(47)
$\chi^2(df)$	48.6(30)*											
혼인 여부												
미혼	2.6	0.5	6.7	1.5	20.1	0.3	14.1	0.0	37.5	15.4	1.3	(389)
배우자 있음	7.1	0.2	8.3	6.7	18.3	0.2	11.4	1.0	31.6	14.9	0.5	(630)
배우자 없음	3.6	0.0	10.7	0.0	17.9	0.0	17.9	0.0	32.1	16.1	1.8	(56)
$\chi^2(df)$	41.9(20)**											
자녀 유무												
유	7.2	0.2	8.4	6.4	18.5	0.2	11.4	0.9	30.8	15.4	0.6	(642)
무	2.5	0.5	6.9	1.6	19.4	0.2	14.8	0.0	38.1	14.8	1.2	(433)
$\chi^2(df)$	36.8(10)***											
영유아 자녀유무												
유	4.5	0.0	11.5	8.5	12.0	0.5	8.5	0.5	42.5	11.0	0.5	(200)
무	8.4	0.2	7.0	5.4	21.5	0.0	12.7	1.1	25.6	17.4	0.7	(442)
$\chi^2(df)$	36.8(10)***											

구분	국가 안보	자연 재해	환경 오염	인재 인재	경제 적 위험	자원	도덕 성 부족	신종 질병	범죄 발생	계층 간 갈등	기타	계
맞벌이 유무												
맞벌이	5.4	0.3	7.1	5.4	15.9	0.0	11.4	1.1	35.2	17.6	0.6	(352)
외벌이	9.4	0.0	9.7	8.3	21.2	0.4	11.5	0.7	27.0	11.5	0.4	(278)
$\chi^2(df)$	18.7(10)*											

주: 1) 가구소득은 2018년 2/4분기 통계청 가계동향조사의 월평균 가구소득(453만원)을 100%로 함.

2) 무응답은 분석에서 제외되었으며, 승수적용으로 합이 일치하지 않을 수 있음.

\*  $p < .05$ , \*\*  $p < .01$ , \*\*\*  $p < .001$ .

### 자. 전반적 만족도

〈표 III-4-18〉은 영유아 육아지원 정책 추진에 대한 전반적 의견을 조사한 결과이다. 전체적으로 5점 중 3.01점으로 정부정책에 대한 만족수준이 보통수준이었다. 연령대가 낮을수록 정부의 육아지원정책에 대한 만족도가 낮아지는 경향을 보였고, 미혼이 기혼보다, 자녀가 없는 경우가 있는 경우에 만족수준이 더 낮았다.

〈표 III-4-18〉 정부의 영유아 육아지원정책에 대한 전반적 평가

단위: %(명), 점

구분	매우 잘못하고 있음	약간 잘못하고 있음	보통임	약간 잘하고 있음	매우 잘하고 있음	계	평균
전체	6.7	16.5	49.5	23.7	3.6	(3,000)	3.01
성별							
남자	8.0	17.2	47.0	24.4	3.4	(1,522)	2.98
여자	5.3	15.8	52.1	22.9	3.9	(1,478)	3.04
$\chi^2(df)/t$							-1.88
연령							
15~19세	6.5	16.1	67.7	8.1	1.6	(62)	2.82
20대	7.9	19.2	53.8	16.5	2.6	(619)	2.87
30대	7.8	17.3	51.8	20.2	2.9	(510)	2.93
40대	5.5	15.8	51.0	26.2	1.5	(600)	3.02
50대	6.6	15.7	49.1	25.4	3.2	(623)	3.03
60대 이상	5.6	14.5	40.1	31.7	8.0	(586)	3.22
$\chi^2(df)/F$							11.11***
혼인 여부							
미혼	6.7	17.7	57.6	15.8	2.2	(910)	2.89
배우자 있음	6.5	15.9	46.3	27.1	4.1	(1,942)	3.06
배우자 없음	8.1	16.9	42.6	27.0	5.4	(148)	3.05
$\chi^2(df)/F$							11.57***

구분	매우 잘못하고 있음	약간 잘못하고 있음	보통임	약간 잘하고 있음	매우 잘하고 있음	계	평균
자녀 유무							
유	6.7	15.8	45.8	27.5	4.2	(1,962)	3.07
무	6.6	17.8	56.6	16.5	2.5	(1,038)	2.91
$\chi^2(df)/t$			58.2(4)***				7.30***
가구소득							
60% 미만	6.6	18.6	46.7	24.2	3.9	(608)	3.00
60 - 80% 미만	6.9	14.1	50.7	24.4	4.0	(525)	3.05
80 - 100% 미만	6.2	15.8	51.4	23.4	3.1	(449)	3.01
100 - 120% 미만	4.8	14.8	51.7	24.7	4.0	(522)	3.08
120 - 140% 미만	7.9	14.3	48.9	24.8	4.1	(315)	3.03
140 - 160% 미만	4.5	21.2	46.0	26.3	2.0	(198)	3.00
160% 이상	9.7	19.1	49.6	18.8	2.9	(383)	2.86
$\chi^2(df)/F$			30.5(24)				2.50*

주: 1) 독립변수에 따라 사례수 합이 일치하지 않을 수 있음.

2) 평균은 '매우 잘못하고 있음(1점)-매우 잘하고 있음(5점)'으로 산출한 결과임.

\*  $p < .05$ , \*\*  $p < .01$ , \*\*\*  $p < .001$ .

## 5. 소결

### 가. 부모됨

#### 1) 부모됨의 인식 및 가치

본 연구의 조사 대상자들은 비교적 부모가 된다는 것은 행복하고 기대되는 일이라고 응답하였다(4점 중 3.22점). 그러나 50~60대 이상의 중·노년층에 비해 10~20대의 젊은 응답자의 경우 부모됨에 대한 기대감이 상대적으로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60대: 3.43점, 50대: 3.35점 vs 20대: 2.89점, 10대: 2.92점).

한편 '부모가 되기 위해서는 경제적으로 준비가 되어 있어야 한다'는 문항에 대해서는 4점 평균에 3.47점으로 높은 동의 정도를 보였다. 특히 10대의 경우 3.65점, 20대의 경우 3.66점으로, 부모로서 경제적 준비에 있어 중·노년층보다 높은 동의 정도를 나타냈다. 또한 결혼하지 않는 경우에 부모됨에 있어 경제적 준비의 필요성을 많이 느끼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3.61점).

이와 같은 결과를 종합해볼 때 특히 젊은 연령층은 부모됨에 대한 기대감이 낮으며, 동시에 일반 국민들은 부모됨의 가치에 있어 경제적인 준비가 많이 필요하다

고 인식하고 있다. 이는 젊은 연령층의 가족 형성 및 자녀양육에 대한 이미지가 다소 부정적인 것으로 해석되며, 이러한 젊은 층의 인식이 최근 저출산의 원인 중 하나로 볼 수 있다. 심화되는 저출산을 개선하기 위해서는 청년층을 대상으로 부모됨의 긍정적 가치를 전달할 필요성이 있다. 또한 자녀를 낳기 전에 부모가 되기 위한 교육이 필요하다는 것에 많은 응답자들이 공감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4점 평균에 3.53점).

부모의 경제적 지원 기간에 대해 응답자들은 대학졸업 때까지라는 응답이 전체 응답의 45.7%로 절반 가량을 차지하였고, 취업할 때까지 해야 경제적으로 지원해야한다는 응답이 23.5%로 나타났다. 높은 대학 등록금과 청년실업이라는 현실속에서 부모들의 자녀에 대한 경제적 지원에 대한 부담이 자녀가 성인이 된 이후에도 속되고 결국 부모들의 삶의 질도 저하될 우려가 있음을 짐작할 수 있다. 또한 양육 비용이 가장 많이 드는 시기로는 고등학생 시기가 71.3%로 가장 많았는데, 이는 대학입시와 연관되어 사교육 지출이 특히 집중적으로 들어가는 시기로 인식하는 것으로 보인다.

## 2) 부부간 육아 및 가사 분담의 공평성

이상적인 자녀 양육 분담 비율은 어머니 5.60 : 아버지 4.40, 가사 분담 비율은 어머니 5.67 : 아버지 4.33으로 어머니 분담비율이 약간 더 높게 나타났다. 그러나 영유아 자녀가 있는 응답 대상자에게 실제 자녀양육 및 가사분담 비율을 질문한 결과 자녀양육의 경우 어머니 6.65 : 아버지 3.35, 가사의 경우 어머니 6.60 : 아버지 3.40으로 분담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상적인 분담비율에서 응답한 결과와 다소 괴리가 있고, 실제로는 여전히 자녀양육과 가사에 있어 어머니의 역할과 비중이 컸다. 다만, 남자들이 여자보다 실제로 가사에 좀더 기여하고 있다고 인식하고 있고, 연령대가 낮을수록 아버지 역할에 대한 분담비율이 다소 커지는 것으로 나타나 자녀양육과 가사 분담에 있어 부부간 동등한 역할 분담 문화가 확산되고 있다고 보인다.

## 3) 부모의 경제적 지원 시기

자녀 양육시기별로 바람직한 부모의 경제활동에 차이를 보였다. 먼저 영유아기

일 때는 응답자의 70.1%가 ‘부모 둘 중 한명은 경제활동을 하고, 한명은 집에서 양육함’, 자녀가 초등학생인 경우에는 ‘부모 모두 경제활동을 하고 어머니는 시간제로 근무함’이 44.7%였고, 자녀가 중학생 이상인 경우 ‘부모 모두 경제활동을 함’이 62.7%로 어린 시기에 가정에서의 부모돌봄이 더 중요하다고 보고 있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 나. 결혼 및 자녀 양육관

우선 결혼에 대한 생각을 살펴보면 남자의 경우에는 해야한다는 비율이 64.7%였으나, 여자는 41.1%로 성별로 결혼의 필요성에 대한 인식차를 보였다. 또한 연령대가 장노층에 비해 상대적으로 젊은 연령층에서 결혼을 해야한다는 응답 비율이 낮아 향후에도 비혼성향이 더 증가할 것이라고 추측해 볼 수 있다.

결혼과 자녀에 대한 생각에 대한 조사 결과에서는 아직까지 자녀를 낳기 위해서는 결혼을 해야 한다고 생각하는 경향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결혼을 하지 않고 자녀를 가질 수 있다고 응답한 비율이 약 30.0% 수준에 머물렀다. 하지만 미혼인 경우나 연령이 어릴수록 결혼을 하지 않고 자녀를 가질 수 있다고 동의한 비율이 높기 때문에 자녀출산을 위해 결혼이 전제되어야 한다는 인식이 차츰 변화하고 있는 추세라고 볼 수 있다.

응답자의 74.6%는 자녀가 있는 것이 좋다고 응답하였으나 미혼인 경우는 없어도 무방하다는 의견이 45.7%이상을 차지하고 있었고, 연령이 낮을수록 없어도 무방하다는 응답이 많아 향후 출산율을 향상시키는 것이 어려울 것이라고 예측할 수 있다. 자녀가 없어도 되는 주된 이유로는 좋은 부모가 될 자신이 없어서가 29.2%, 경제적으로 여유롭게 생활하기 위해서 23.2%, 자녀가 있으면 자유롭지 못할 것이기 때문에 14.1%, 자녀 양육비용 부담이 많이 되어서 12.1% 순으로 나타났다.

자녀 양육에 대한 일반적인 생각을 조사한 결과, 양육의 관점이 세대차가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부모는 자녀가 어릴 때 엄격하게 대해야 바르게 키울 수 있다, 자녀가 잘못할 때는 매를 들 수 있다, 자녀가 할 수 있다면 안쓰럽지만 힘든 일을 혼자서 해야한다와 같이 자녀 양육의 엄격성에 대해서 조사한 결과 연령이 낮을수록 동의하는 수준이 떨어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자녀를 훌륭하게 키우

기 위해서는 사교육이 필요하다에 대해서는 20~40대 연령대와 거주지가 서울특별시나 광역시인 경우, 가구소득이 높을수록 동의하는 비율이 높게 나타났다.

자녀 양육의 어려움으로는 자녀 양육과 일의 병행이 37.8%, 양육비용에 부담이 28.7%로 상당부분을 차지하였다. 남자에 비해 여자가 자녀양육과 일의 병행이 어렵다는 응답비율이 더 높고, 10대에서는 상대적으로 자녀의 심리적 안정을 중요시하였고, 20~30대는 자녀양육비용에 대한 부담비율이, 60대 이상에서는 자녀의 학업/직업적 성취를 상대적으로 중요하게 여기는 등 세대간에 인식의 차이를 보였다.

자녀의 성장 선호도는 남자와 여자에 따라 다소 다른 경향을 보였다. 남자가 여자에 비해 열정보다는 경제적 안정성을 중요시하고 친구같은 부모보다 권위적인 부모를 선호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미혼인 경우는 기혼인 경우보다 자녀가 열정적인 삶을 살길 원하고 친구같은 부모가 되는 것을 선호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응답자의 연령대가 낮을수록 자녀를 열정에 따라 살도록 기르고 싶다는 경향이 더 크게 나타났다.

희망하는 자녀의 최종학력과 관련하여서는 여전히 대졸이 절반가량 차지하여 학력에 대한 욕구를 알 수 있었으나, 연령대가 낮아질수록 대졸학력 이상에 대한 희망 비율은 낮아지고, 학력은 상관없다라는 응답이 크게 증가하는 경향을 보이고 있다.

## 다. 육아행복감

육아행복감에서는 자녀양육의 즐거움, 가치, 경제적 가치 등에 대해서 조사하였다. 자녀양육의 가장 큰 즐거움으로는 자녀의 발달과 성장을 지켜보는 부모로서의 성취감이라고 응답한 비율이 높았다. 성별로는 남자는 부모로서의 성취감이 42.1%로 가장 많았고, 여자는 부모-자녀관계에서의 애정과 지지가 36.3%로 가장 많아 응답비율에서 차이를 보였다. 연령대별로는 연령대가 높아질수록 부모로서의 성취감이 즐거움이라고 응답한 비율이 높아지는 등 응답비율에서 차이를 보였다.

응답자의 거의 대부분인 90.4%가 자녀를 양육하는 것이 행복한 일이라고 응답하였다. 다만 자녀를 양육하는 것이 육체적으로 힘들고 심리적, 경제적으로 부담된다고 응답한 비율도 높았으며 여자가 남자보다, 연령대로는 40대 미만에서 자녀를 키는데 있어 육체적으로 힘들다고 생각하는 비율이 높게 나타났다. 또한 거주지가 서울특별시인 경우 평균이 다소 높고, 미혼이 기혼인 경우보다, 자녀가 없는 경우

가 있는 경우보다, 영유아 자녀가 있는 경우가 없는 경우보다 자녀를 키우는 것이 육체적으로 힘들다고 응답한 비율이 높게 나타났다.

자녀 양육의 경제적 가치에 대해 조사한 결과 월 평균 200~300만원 미만이라고 응답한 비율이 34.1%로 가장 높았고, 월 평균 가치로 환산하면 약 234만원이었다. 연령이 높을수록 자녀 양육의 경제적 가치를 낮게 인식하는 경향이 나타났다.

영유아 자녀의 양육에 대한 책임소재는 우선적으로 부모의 책임이고 국가가 지원해야 한다는 응답이 높았다. 연령대가 낮을수록 부모가 우선 책임지고 국가 지원해야 한다는 응답이 줄어드는 경향이 있고, 반대로 국가가 우선 책임지고 나머지를 부모가 부담한다는 응답이 높아지는 경향을 보여 응답비율에 차이를 보였다. 향후 자녀 양육에 대한 국가책임의 요구도가 더 높아질 것이라고 예측해 볼 수 있다.

자녀 양육이 가장 힘든 시기에 대해서는 전체적으로 영아기, 유아기 26.9%, 고등학생 12.6%, 중학생 11.3%, 순으로 자녀양육이 힘들다고 하였다. 10대와, 40대 이후 연령대에서는 중고등학생인 자녀양육에 대한 고충이 타 연령대에 비해 크게 나타났고, 2,30대에서는 영아 비율이 크게 나타났다.

영유아 및 어린이의 입장을 금지하는 장소/업소인 노키즈존에 대해서는 55.8%가 찬성하는 입장, 21.9%가 반대, 22.3%가 잘모르겠다고 하여 노키즈존의 필요성에 일정부분 공감대가 있었다. 그러나 주된 영유아 및 어린이를 양육하는 주된 시기인 30대의 경우 상대적으로 노키즈존 필요성에 대한 응답비율이 낮았고, 미혼이거나, 자녀가 없는 경우에 그렇지 않은 경우보다 노키즈존에 대한 찬성비율이 더 큰 것으로 나타났다.

## 라. 육아정책 인식 및 방향

### 1) 보육·유아교육에 대한 정부 역할

국가차원에서 육아정책 설계에 있어 중점을 두어야 하는 것으로 남자는 ‘부모의 양육부담 경감과 지원’을, 여자는 ‘부모의 일가정 양립’에 중점을 두어야 한다는 의견이 많았다. 아직까지 실제 자녀양육에 있어 모의 역할이 크다는 점에서, 향후 일·가정 양립 제도의 실질적 이용이 가능하도록 독려할 필요가 있다.

정부의 육아지원 재정지원 우선순위에서는 차별적 지원(50.1%)이 전체층 무상 지원(40.0%)보다 다소 높게 나타났다. 연령대별로는 연령대가 높을수록 차별적 지



원 비율이 높고, 기혼이 미혼보다, 영유아자녀가 없는 경우가 있는 경우보다 차별적 지원에 응답한 비율이 높아 다른 양상을 보였다. 이를 고려하였을 때, 정책의 핵심수요층인 영유아 가정은 여전히 보편적 무상지원에 대한 정책우선순위가 더 높은 것으로 보이나, 영유아 가정 이외의 다른 국민들의 차별적 지원에 대한 수요를 고려한다면 국가차원에서 한정된 재원에 대한 합리적이고 효율적 배분 전략이 수립되어야 할 것이다.

## 2) 정부 영유아 보육·교육비용 지원 정책 인지정도

아동학대와 관련하여서는 전체적으로 처벌 강화와 교육, 교사의 근로환경 개선 등의 요구가 많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낮은 연령대에서는 처벌 강화 비율이 높고, 높은 연령대에서는 교육실시 비율이 상대적으로 높아지는 경향을 보여 세대간 정책우선순위에 차이를 보였다.

영유아 자녀가 있는 부모들이 사교육을 시키는 이유로는 ‘다른 아이들이 하니까 뒤쳐질까봐’가 40.1%, ‘자녀의 발달과 학습에 도움이 된다고 생각해서’가 30.9%, ‘하원 후에 돌봐줄 사람이 없어서’ 10.1%, ‘자녀에게 어떤 재능이 있는지 알아보기 위해’가 9.4%의 순으로 나타났다. 또한 86.1%는 우리나라에서 향후에도 영유아 대상 사교육 과열현상 지속될 것이라고 하였다.

영유아 보육·교육을 위한 추가 세금 부담과 관련해서는 연령대가 높을수록 세금에 대한 추가부담 의향이 없다는 비율이 높아지고는 경향을 보였다. 또한 미혼보다 기혼이, 자녀가 있는 경우가 없는 경우보다, 영유아 자녀가 없는 경우가 있는 경우에 ‘없다’고 응답한 비율이 높은 경향을 보인다. 추가 세금 부담의사가 없다는 응답한 이유로는 재정지출의 효율성 전제와 세금 용처에 대한 불신 비율이 높게 나타났다.

또한 우리사회는 영유아 자녀를 키우기에 안전하다는 비율이 24.4%, 안전하지 않다가 35.9%로 안전에 대한 우려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범죄발생, 경제적 위험, 계층간 갈등, 도덕성 부족 등이 중요 사회불안 요인이라고 보았다.

마지막으로 정부의 영유아 육아지원정책에 대해서는 5점 중 3.01점으로 전반적으로 보통 수준이었다. 연령대가 낮을수록 정부의 육아지원정책에 대한 만족도가 낮아지는 경향을 보였고, 미혼이 기혼보다, 자녀가 없는 경우가 있는 경우에 만족수준이 더 낮았다.



# IV

## 1~3차년도 KICCE 여론조사 추이분석

- 01 부모됨에 대한 여론
- 02 결혼 및 자녀 양육관에 대한 여론
- 03 육아행복감에 대한 여론
- 04 육아정책 인식 및 방향에 대한 의견



## IV. 1~3차년도 KICCE 여론조사 추이분석

IV장에서는 1~3차년도(2017~2019년) 동일 조사내용에 대한 여론 추이를 분석한 결과이다.

### 1. 부모됨에 대한 여론

#### 가. 부모됨의 인식 및 가치

〈표 IV-1-1〉은 부모됨에 대한 7개 문항(4점 척도)에 대한 여론 추이를 분석한 결과로, 전반적으로 부모됨에 대한 인식은 크게 변하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먼저 ‘부모가 된다는 것은 행복하고 기대되는 일이다’에 대한 동의 정도의 경우 1차년도 3.27점에서 3차년도 3.22점으로 약간 하락하였고, 남자보다 여자의 하락폭이 다소 컸다. ‘자녀를 낳기 전에 부모가 되기 위한 교육이 꼭 필요하다’에 대한 동의 정도의 경우는 1차와 3차년도 모두 3.53점이었고, 남자와 여자의 동의수준까지 동일하게 나타났다. ‘부모가 되기 위해서는 경제적으로 준비가 되어 있어야 한다’의 경우 1차년도에 3.45점에서 3차년도 3.47점으로 다소 높아졌다. ‘자녀가 영유아일 때에는 부모가 자녀를 직접 돌보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문항은 1차년도 3.35점에서 3차년도 3.30으로 감소하였고, 남자에 비해 여자의 하락폭(3.34점→3.28점)이 크게 나타났다. ‘자녀양육을 믿고 맡길 수 있는 사람이 있다면 부모가 꼭 양육을 전담할 필요는 없다’는 문항은 1차년도 2.64점에서 3차년도 2.68점으로 다소 증가하였고, ‘부모는 자신의 행복을 희생해서라도 자녀를 위해 최선을 다하는 것이 도리이다’라는 문항은 1차년도 2.92점에서 3차년도 2.89점으로 낮아졌다. 마지막으로 ‘부모가 되는 것은 내 인생 최대의 도전이다’의 경우 평균 3.0점으로 1차년도와 3차년도가 동일하게 나타났으나, 남자와 여자의 동의정도가 1차년도와 3차년도 역전되는 현상을 보였다.

〈표 IV-1-1〉 부모됨 관련 동의 정도 추이(2017, 2019)

단위: 점

구분	2017	2019	남자		여자	
			2017	2019	2017	2019
부모가 된다는 것은 행복하고 기대되는 일이다	3.27	3.22	3.32	3.29	3.23	3.15
자녀를 낳기 전에 부모가 되기 위한 교육이 꼭 필요하다	3.53	3.53	3.43	3.42	3.64	3.64
부모가 되기 위해서는 경제적으로 준비가 되어 있어야 한다	3.45	3.47	3.40	3.42	3.50	3.53
자녀가 영유아일 때에는 부모가 자녀를 직접 돌보는 것이 바람직하다	3.35	3.30	3.35	3.32	3.34	3.28
자녀양육을 받고 맡길 수 있는 사람이 있다면 부모가 꼭 양육을 전달할 필요는 없다	2.64	2.68	2.57	2.62	2.70	2.74
부모는 자신의 행복을 희생해서라도 자녀를 위해 최선을 다하는 것이 도리이다	2.92	2.89	3.01	3.00	2.82	2.77
부모가 되는 것은 내 인생 최대의 도전이다	3.00	3.00	2.98	3.03	3.02	2.97
사례수	3,000	3,000	1,522	1,522	1,478	1,478

주: '전혀 동의하지 않음(1점)~전적으로 동의함(4점)'으로 산출한 결과임.

〈표 IV-1-2〉는 부모와 자녀의 역할에 대한 인식 추이를 나타낸다. 부모의 역할을 1차년도와 3차년도 모두 '자녀가 성공할 수 있도록 앞에서 이끌어주는 사람'이라고 생각하기 보다는 '자녀의 뒤에서 묵묵히 도와주는 사람'이라는 인식이 강했고, 자녀의 부모에 대한 도리에 대해서도 1차년도와 3차년도 모두 '부모가 키워주고 지원해준 것에 대해 자녀가 나중에 보답해야 한다' 보다는 '자녀를 키워주고 지원해 주는 것은 부모로서의 의무이므로 자녀가 부담가질 필요가 없다'는 인식이 컸고, 1차년도에 63.7%에서 3차년도 71.1%로 부모의 의무로 부담을 가질 필요가 없다는 의견이 더 커진 경향을 보였다.

〈표 IV-1-2〉 부모와 자녀의 역할에 대한 인식 추이(2017, 2019)

단위: %(명)

구분	2017	2019
부모의 역할		
부모는 자녀를 뒤에서 묵묵히 도와주는 사람이다	68.8	69.4
부모는 자녀가 성공할 수 있도록 앞에서 이끌어주는 사람이다	31.2	30.6
계	100.0(3,000)	100.0(3,000)
자녀의 역할		
부모가 키워주고 지원해준 것에 대해 자녀는 나중에 보답해야 한다	36.3	28.9
자녀를 키워주고 지원해 주는 것은 부모로서의 의무이므로 자녀가 이에 대해 부담가질 필요가 없다	63.7	71.1
계	100.0(3,000)	100.0(3,000)

〈표 IV-1-3〉은 부모의 경제적 지원 기간에 대한 추이를 분석한 결과이다. ‘대학 졸업할 때까지’가 1차년도 45.1%, 3차년도는 45.7%로 여전히 절반 가량의 응답자가 선택했고, 다음으로는 자녀가 취업할 때까지 경제적으로 지원해줘야 한다는 응답이 20%를 약간 웃돌았고, 무엇보다 1차년도에 20.9%에 해당하던 비율이 3차년도에서 23.5%로 좀더 비율이 더 높아져, 심화되는 청년실업 현상 속에서 자녀가 경제적 자립이 가능한 시기까지 부모의 경제적 지원이 필요하다는 인식도 일정부분 반영되었다고 보인다.

〈표 IV-1-3〉 부모의 경제적 지원 기간에 대한 인식 추이(2017, 2019)

단위: %(명)

구분	2017	2019	남자		여자	
			2017	2019	2017	2019
고등학교 졸업할 때까지	19.8	17.2	19.2	15.2	20.4	19.1
대학 졸업할 때까지	45.1	45.7	42.4	45.0	47.9	46.4
취업할 때까지	20.9	23.5	21.6	23.7	20.2	23.4
결혼할 때까지	8.3	7.8	9.7	9.1	7.0	6.5
결혼 후 기반이 마련되고 안정될 때까지	4.5	4.0	5.3	4.7	3.7	3.4
평생 동안	1.4	1.8	1.9	2.4	0.9	1.2
계	100.0 (3,000)	100.0 (3,000)	100.0 (1,522)	100.0 (1,522)	100.0 (1,478)	100.0 (1,478)

〈표 IV-1-4〉는 가정 내에서 부모의 성역할에 대한 여론조사 추이를 분석한 결과이다. ‘어머니로서 여성의 가장 중요한 역할은 가정에서 자녀를 잘 키우는 것이다’라는 조사문항의 경우 동의정도는 1차년도 2.87점에서 3차년도 2.74점으로 약간 감소하였고, ‘직장에 다니는 여성은 어머니로서 자녀에게 해줄 수 있는 역할에 한계가 있다’는 문항은 큰 변화는 없었으나 4점 중 2.9점 수준으로 취업모의 경우 자녀양육에 어려움이 있음에 대체로 동의하였다. ‘아버지로서 남자가 할 일은 가정에 돈을 벌어드는 것이다’라는 문항에 1차년도 2.48점, 3차년도 2.46점으로 큰 차이를 보이지 않았다.

〈표 IV-1-4〉 가정 내 부모의 역할에 대한 동의 정도 추이(2017, 2019)

단위: 점, 명

구분	2017	2019	남자		여자	
			2017	2019	2017	2019
어머니로서 여성의 가장 중요한 역할은 가정에서 자녀를 잘 키우는 것이다	2.87	2.74	2.93	2.84	2.81	2.65
직장에 다니는 여성은 어머니로서 자녀에게 해줄 수 있는 역할에 한계가 있다	2.94	2.92	2.93	2.94	2.94	2.89
아버지로서 남자가 할 일은 가정에 돈을 벌어드는 것이다	2.48	2.46	2.61	2.61	2.35	2.30
사례수	3,000	3,000	1,522	1,522	1,478	1,478

주: '전혀 동의하지 않음(1점)~전적으로 동의함(4점)'으로 산출한 결과임.

## 나. 부모역할의 실제

〈표 IV-1-5〉는 자녀 양육시 이상적인 양육분담과 가사분담 비의 추이를 나타낸다. '자녀 양육 분담'의 경우 아버지의 분담비가 다소 증가하였고(1차년도 4.26 → 4.40), '가사 분담'의 경우에도 동일하게 1차년도에 비해 적정한 가사분담비가 증가(1차년도 4.16 → 4.33)하였다. 무엇보다 응답자가 남자인 경우도 아버지의 이상적인 분담 비중이 자녀양육분담비는 1차년도 4.17에서 3차년도 4.30, 가사분담비는 1차년도 4.13에서 3차년도 4.28로 증가하는 경향을 보였다.

〈표 IV-1-5〉 이상적 자녀 양육 및 가사 분담 비 추이(2017, 2019)

단위: 비, (명)

구분	자녀 양육 분담비		가사 분담비		계
	어머니	아버지	어머니	아버지	
2017	5.74	4.26	5.85	4.16	(3,000)
2019	5.60	4.40	5.67	4.33	(3,000)
성별					
남자					
2017	5.83	4.17	5.87	4.13	(1,522)
2019	5.70	4.30	5.72	4.28	(1,522)
여자					
2017	5.65	4.35	5.82	4.18	(1,478)
2019	5.50	4.50	5.61	4.39	(1,478)



〈표 IV-1-6〉은 영유아 자녀가 있는 부모를 대상으로 실제 자녀 양육과 가사 분담 비 추이를 분석한 결과이다. 실제 자녀 양육 분담비는 1차년도에 아버지 3.14, 어머니 6.86, 3차년도는 아버지 3.35, 어머니 6.65로 나타났다 실제 가사분담의 경우에는 1차년도 3.19, 어머니 6.81, 3차년도는 아버지 3.40 : 어머니 6.60으로 실제로 아버지의 양육과 가사분담이 다소 증가하고 있다고 인식됨을 알 수 있다. 여전히 이상적인 아버지의 양육 및 가사 분담비에 비해 실제 분담비가 다소 낮음을 알 수 있고, 특히 남자 응답자의 경우 실제 분담비 조사결과에 별 차이가 없었으나, 여자 응답자의 경우에 아버지의 분담비가 커지고 있다고 인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표 IV-1-6〉 (영유아 자녀 부모) 실제 자녀양육 및 가사 분담 비 추이(2017, 2019)

단위: 비, (명)

구분	자녀 양육 분담비		가사 분담비		계
	어머니	아버지	어머니	아버지	
2017	6.86	3.14	6.81	3.19	(501)
2019	6.65	3.35	6.60	3.40	(510)
성별					
남자					
2017	6.51	3.49	6.30	3.70	(261)
2019	6.51	3.49	6.31	3.69	(317)
여자					
2017	7.25	2.75	7.36	2.64	(240)
2019	6.90	3.10	7.08	2.92	(193)

〈표 IV-1-7〉은 자녀 생애주기별로 바랍직한 부모의 경제활동 상태의 추이를 나타낸다. 1차년도와 3차년도 모두 영유아기에 부모 모두 경제활동을 해야한다는 비율이 낮고, 초등학생과 중고등학생 시기로 갈수록 부모 모두 경제활동을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의견이 많아졌다. 특히 영유아기에 ‘부모 둘 중 한명은 경제활동을 하고, 한명은 집에서 양육함’에 대한 비율이 1차년도 74.7%에서 3차년도 70.1%로 감소하고, ‘부모 모두 경제활동을 함’이 1차년도 8.5%에서 3차년도 10.7%로 증가하였다. 지속적인 자녀양육과 보육·유아교육에 대한 국가의 책임 강화, 국공립 유치원 및 어린이집 이용률 확대, 일·가정 양립 지원 강화 등과 연계해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

〈표 IV-1-7〉 자녀 양육시기별 가장 바람직한 부모의 경제활동 상태 추이(2017, 2019)

단위: %(명)

구분	영유아기		초등학생 시기		중·고등학생 시기	
	2017	2019	2017	2019	2017	2019
부들 중 한명은 경제활동을 하고, 한명은 집에서 양육함	74.7	70.1	27.6	26.8	11.1	10.1
부모 모두 경제활동을 하고, 어머니는 시간제로 근무함	15.9	17.8	47.5	44.7	29.5	25.9
부모 모두 경제활동을 하고, 아버지는 시간제로 근무함	0.9	1.4	1.2	1.8	1.4	1.3
부모 모두 경제활동을 함	8.5	10.7	23.6	26.7	57.9	62.7
계	100.0 (3,000)	100.0 (3,000)	100.0 (3,000)	100.0 (3,000)	100.0 (3,000)	100.0 (3,000)

〈표 IV-1-8〉은 좋은 부모로서 역할 수행에 중요한 요소가 무엇인지에 대한 추이를 나타낸 표이다. 연도별로 중요도 순위에는 변함이 있으나, 정서적 지원이 중요한 요소라도 응답한 비율이 1차년도 40.7%에서 3차년도 51.6%로 10%p 이상 크게 증가하였고, 경제적 지원은 1차년도 12.8%에서 3차년도 15.6%로 다소 증가하였다. 이에 반해 생활태도 및 습관지도는 1차년도 35.8%에서 3차년도 24.2%로 10%p 이상 감소하고, 양육지식도 다소 낮아졌다. 성별로는 남자는 경제적 지원의 상승폭이 여성보다 더 컸고, 생활태도 및 습관지도는 여성 응답자에 비해 더 크게 감소하였다.

〈표 IV-1-8〉 좋은 부모 역할 수행을 위해 중요한 요소에 대한 인식 추이(2017, 2019)

단위: %(명)

구분	양육지식	정서적 지원	생활태도 및 습관 지도	학업지도	경제적 지원	기타	계
2017	10.0	40.7	35.8	0.5	12.8	0.2	100.0(3,000)
2019	7.8	51.6	24.2	0.6	15.6	0.2	100.0(3,000)
성별							
남자							
2017	10.4	33.4	40.3	0.8	14.8	0.3	100.0(1,522)
2019	9.6	44.5	25.3	0.9	19.3	0.3	100.0(1,522)
여자							
2017	9.6	48.2	31.2	0.2	10.7	0.1	100.0(1,478)
2019	5.9	58.9	23.0	0.3	11.8	0.1	100.0(1,478)

## 2. 결혼 및 자녀 양육관에 대한 여론

### 가. 결혼 가치관

〈표 IV-2-1〉은 결혼 필요성에 대한 인식 추이를 나타낸다. 결혼이 필요하다고 응답한 비율(반드시 해야 한다+하는 편이 좋다)은 1차년도 56.6%에서 3차년도 53.0%로 다소 감소하여 결혼 필요성에 대한 동의정도가 낮아졌다. 특히 남자에 비해 여자 응답자는 결혼은 하지 않는게 낫다라는 부정적 인식이 더 커졌음을 알 수 있다. 남자는 결혼에 대한 1차년도 2.6%, 3차년도 2.4%로 미미하게 감소한 반면, 여자는 1차년 3.9%에서 3차년도 6.0%로 반대로 다소 크게 증가하였다.

〈표 IV-2-1〉 결혼의 필요성에 대한 인식 추이(2017, 2019)

단위: %(명)

구분	반드시 해야 한다	하는 편이 좋다	해도 좋고 하지 않아도 좋다	하지 않는게 낫다	계
2017	13.6	43.0	40.1	3.2	100.0(3,000)
2019	12.4	40.6	42.7	4.2	100.0(3,000)
성별					
남자					
2017	19.8	48.0	29.6	2.6	100.0(1,522)
2019	17.3	47.4	32.9	2.4	100.0(1,522)
여자					
2017	7.2	37.9	50.9	3.9	100.0(1,478)
2019	7.4	33.7	52.9	6.0	100.0(1,478)

### 나. 결혼과 출산의 관계

〈표 IV-2-2〉는 결혼시 출산과의 관계에 대한 추이를 분석한 결과이다. 먼저 ‘결혼을 하지 않고 자녀를 가질 수 있다’라는 질문에 대한 동의 정도는 1차년도 2.00점에서 3차년도 2.08점으로 1점 정도 증가, ‘자녀를 낳아 기르려면 결혼을 해야 한다’는 질문에 대한 동의정도는 1차년도 3.07점에서 3차년도 3.00점으로 감소, ‘결혼을 하면 자녀가 있어야 한다’라는 질문의 동의 정도는 1차년도 2.59점에서 3차년도 2.48점으로 감소하였다. 여전히 결혼과 출산의 관계를 밀접하게 연관지어 생각하고 있으나 이러한 인식의 변화가 일어날 수도 있음을 알 수 있다.

〈표 IV-2-2〉 결혼과 자녀에 대한 생각에 대한 동의정도 추이(2017, 2019)

단위: 점, (명)

구분	2017	2019	남자		여자	
			2017	2019	2017	2019
결혼을 하지 않고 자녀를 가질 수 있다	2.00	2.08	2.00	2.08	1.99	2.08
자녀를 낳아 기르려면 결혼을 해야 한다	3.07	3.00	3.14	3.07	3.00	2.92
결혼을 하면 자녀가 있어야 한다	2.59	2.48	2.71	2.64	2.46	2.32
사례수	(3,000)	(3,000)	(1,522)	(1,522)	(1,478)	(1,478)

주: 평균은 '전혀 동의하지 않음(1점)~전적으로 동의함(4점)'으로 산출한 결과임.

### 다. 자녀에 대한 필요성

〈표 IV-2-3〉은 자녀 존재의 필요성 여부 추이를 나타내며, 자녀가 필요하다라는 인식이 1차년도 78.3%에서 3차년도 74.6%로 감소하였다. 자녀가 없어도 무방하다는 인식은 1차년도 19.2%에서 3차년도 22.2%로 증가하였다. 특히 성별로 자녀 필요성에 대한 인식에 차이를 보였다. 남자의 경우 자녀가 있는게 낫다라는 인식이 1차년도와 3차년도 모두 80% 이상이었으나 여자 응답자들은 1차년도는 74.1%에서 3차년 67.9%로 크게 낮아졌다. 또한 남자의 경우 자녀가 없어도 무방하다는 응답비율이 15.7%에서 16.6%로 약간 상승하는데 그쳤으나, 여자는 22.8%에서 28.1%로 다소 크게 증가하였다.

〈표 IV-2-3〉 자녀존재의 필요성 여부에 대한 인식 추이(2017, 2019)

단위: %(명)

구분	꼭 있어야 한다	있는 것이 없는 것보다 나은 것이다	없어도 무방함	모르겠음	계
2017	32.7	45.6	19.2	2.5	100.0(3,000)
2019	31.9	42.7	22.2	3.2	100.0(3,000)
성별					
남자					
2017	36.9	45.5	15.7	1.9	100.0(1,522)
2019	37.5	43.6	16.6	2.4	100.0(1,522)
여자					
2017	28.3	45.8	22.8	3.0	100.0(1,478)
2019	26.2	41.7	28.1	4.1	100.0(1,478)

〈표 IV-2-4〉는 자녀가 없어도 되는 주된 이유를 연도별로 비교한 것이다. ‘경제적으로 여유롭게 생활하기 위해서’가 1차년도 20.7%에서 3차년도 23.2%로 증가하였고, ‘좋은 부모가 될 자신이 없어서’도 1차년도 26.4%에서 3차년도 29.2%로 증가하였다. 이외에 ‘자녀가 있으면 자유롭지 못할 것이기 때문에’와 ‘부부만의 생활을 즐기고 싶어서는 다소 크게 감소하였다. 남자의 경우에는 경제적으로 여유롭게 생활하기 위해서가 1차년도 25.5%에서 3차년도 30.2%로 증가하였고, 여성의 경우에는 좋은 부모가 될 자신이 없어서가 1차년도 30.0%에서 3차년도 33.0%로 응답비율이 증가하였고, 응답비율도 여전히 가장 높았다.

〈표 IV-2-4〉 자녀가 없어도 되는 주된 이유 추이(2017, 2019)

단위: %(명)

구분	2017	2019	남자		여자	
			2017	2019	2017	2019
경제적으로 여유롭게 생활하기 위해서	20.7	23.2	25.5	30.2	17.2	19.0
직장생활을 계속하고 싶어서	1.0	2.4	-	0.8	1.8	3.4
부부만의 생활을 즐기고 싶어서	13.4	8.8	18.0	13.5	10.1	6.0
자녀가 있으면 자유롭지 못할 것이기 때문에	17.0	14.1	13.4	12.3	19.6	15.2
본인이 아이를 싫어해서	1.7	3.0	1.3	2.0	2.1	3.6
배우자가 아이를 싫어해서	0.2	0.1	-	0.0	0.3	0.2
유전병 등 질환 때문에	1.0	0.4	1.3	0.8	0.9	0.2
자녀 양육비용 부담이 많이 되어서	12.3	12.1	14.2	11.9	11.0	12.3
아이를 가지고 싶지만 불임 등으로 자녀를 가질 수 없어서	0.9	1.3	-	1.6	1.5	1.2
좋은 부모가 될 자신이 없어서	26.4	29.2	21.3	23.0	30.0	33.0
기타	5.4	5.1	5.0	4.0	5.6	5.8
계	100.0 (576)	100.0 (667)	100.0 (239)	100.0 (252)	100.0 (337)	100.0 (415)

## 라. 양육 태도

〈표 IV-2-5〉는 자녀양육에 대한 부모태도에 대한 동의정도를 추이분석한 것이다. 먼저 ‘부모가 지나치게 허용적이면 자녀의 버릇이 나빠진다’의 동의정도는 1차년도 3.06점, 3차년도 3.00점, ‘부모는 자녀가 어릴 때 엄격하게 대해야 바르게 키울 수 있다’의 동의정도는 1차년도 2.56점, 3차년도 2.49점, ‘자녀가 잘못할 때

는 매를 들 수 있다'의 동의정도는 1차년도 2.82점, 3차년도 2.66점으로 나타나 아이중심의 수용적, 온정적 양육태도에 대한 동의가 다소 증가한 것으로 보인다.

〈표 IV-2-5〉 자녀양육 태도에 대한 동의정도 추이(2017, 2019)

단위: 점, 명

구분	2017	2019	남자		여자	
			2017	2019	2017	2019
부모가 지나치게 허용적이면 자녀의 버릇이 나빠진다	3.06	3.00	3.05	2.99	3.07	3.02
부모는 자녀가 어릴 때 엄격하게 대해야 바르게 키울 수 있다	2.56	2.49	2.64	2.58	2.48	2.40
자녀가 잘못할 때는 매를 들 수도 있다	2.82	2.66	2.85	2.73	2.78	2.60
자녀가 할 수 있다면 안쓰럽지만 힘든 일도 혼자서 해야 한다	3.15	3.09	3.16	3.09	3.14	3.08
자녀들은 부모의 말에 순종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2.54	2.53	2.61	2.61	2.47	2.44
자녀를 훌륭하게 키우기 위해서는 사교육이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2.37	2.45	2.32	2.39	2.42	2.50
사례수	3,000	3,000	1,522	1,522	1,478	1,478

주: 점수는 '전혀 동의하지 않음(1점)~전적으로 동의함(4점)'으로 산출한 결과임.

## 마. 자녀양육의 어려움

〈표 IV-2-6〉은 자녀 양육의 어려움에 대한 인식 추이를 보여준다. 자녀 양육과 일의 병행과 양육비용에 대한 부담에 대한 어려움이 상당하였다. 특히 일·가정 양립에 대한 어려움이 1차년도 32.5%에서 3차년도 37.8%로 증가하였고, 양육비 부담은 1차년도 31.9%에서 3차년도 28.7%로 감소하였다. 특히 남자에 비해 여자의 일·가정 양립에 대한 어려움이 더 커지는 경향을 보이고 있다.

〈표 IV-2-6〉 자녀 양육의 어려움에 대한 인식(1순위) 추이(2017, 2019)

단위: %(명)

구분	2017	2019	남자		여자	
			2017	2019	2017	2019
자녀 양육과 일의 병행	32.5	37.8	30.2	34.5	34.8	41.1
양육 비용에 대한 부담	31.9	28.7	36.2	33.2	27.5	24.1
자녀를 친근하고 따뜻하게 대하는 것	7.3	6.7	8.5	8.5	6.2	4.9
자녀의 학업/직업적 성취	6.1	4.9	6.8	6.3	5.3	3.4

구분	2017	2019	남자		여자	
			2017	2019	2017	2019
자녀의 심리적 안정	10.3	12.1	9.3	10.3	11.4	14.0
자녀의 신체적 건강	3.1	2.2	3.6	2.6	2.6	1.8
나의 개인 시간을 가질 수 없는 것	5.5	5.1	3.8	3.4	7.2	6.8
배우자의 무관심, 부재	3.0	2.3	1.3	1.0	4.7	3.6
기타	0.2	0.3	0.3	0.3	0.2	0.3
계	100.0 (3,000)	100.0 (3,000)	100.0 (1,522)	100.0 (1,522)	100.0 (1,478)	100.0 (1,478)

## 바. 자녀 교육관

〈표 IV-2-7〉은 우리 사회에서 자녀교육 성공의 의미에 대한 인식 추이를 나타낸다. 1차년도와 3차년도 성공 의미의 인식은 유사하고, 자녀가 하고 싶은 일, 좋아하는 일을 될 때, 인격을 갖춘 사람으로의 성장이 여전히 60% 정도로 높은 비율을 보이고 있으며, 상대적으로 경제적으로 잘 살거나, 명문대학에 진학을 성공의 의미로 부여하는 비율이 약간 늘어났다

〈표 IV-2-7〉 우리 사회에서 자녀교육 성공의 의미에 대한 인식 추이(2017, 2019)

구분	단위: %(명)	
	2017	2019
자녀가 명문대학에 진학	6.1	7.0
자녀가 인격을 갖춘 사람으로 성장	26.8	25.2
자녀가 좋은 직장에 취직	12.7	12.1
자녀가 좋은 배우자를 만남	2.1	1.7
자녀가 경제적으로 잘 살	14.9	15.8
자녀가 하고 싶은 일, 좋아하는 일을 하게 되었음	32.6	32.8
자녀가 아프지 않고 건강하게 성장	4.5	4.9
기타	0.3	0.5
계	100.0(3,000)	100.0(3,000)

〈표 IV-2-8〉은 자녀를 경제적으로 안정적으로는 가르는 것과 열정에 따라 살도록 기르는 것 중 어느 것을 선호하는지에 대한 추이를 나타낸 것이다. 경제적으로 안정적인 자녀로 기르는 것을 더 선호한다고 응답한 비율(1+2)이 1차년도 32.4%, 3차년도는 40.4%, 열정에 따라 사는 자녀로 기르는 것을 선호한다고 응답한 비율(4+5)은 1차년도 34.1%, 3차년도 35.2%로 나타났다, 전반적으로 응답자들은 1차년도 5점 중 3.00점으로 중간이었던 인식이 3차년도에는 2.89점으로 감소하여 자녀가 미래에 경제적으로 안정된 삶을 살 수 있도록 양육하는 것을 선호하는 방향성을 보였다.

〈표 IV-2-8〉 자녀의 미래에 대한 선호도 추이(2017, 2019)-경제적 안정 vs 열정에 따른 삶

단위: %(명), 점

구분	경제적 안정		⇔		열정에 따른 삶		계	평균
	1	2	3	4	5			
2017	10.4	22.0	33.6	25.3	8.8	100.0(3,000)	3.00	
2019	13.9	26.5	24.4	26.7	8.5	100.0(3,000)	2.89	
성별								
남자								
2017	9.8	21.0	31.2	27.9	10.1	100.0(1,522)	3.07	
2019	12.7	24.9	22.6	31.0	8.8	100.0(1,522)	2.98	
여자								
2017	11.0	23.0	36.1	22.6	7.4	100.0(1,478)	2.92	
2019	15.2	28.2	26.3	22.2	8.1	100.0(1,478)	2.80	

주: 평균은 경제적 안정에 동의할 경우(1점)~열정에 따른 삶에 동의할 경우(5점)으로 산출한 결과로 점수가 낮을수록 열정에 따른 삶보다는 경제적으로 안정적인 삶을 선호함.

〈표 IV-2-9〉는 자녀에게 친구가 되어주는 부모와 자녀에게 권위를 보여주는 부모 중 어느 쪽을 선호하는지에 대한 추이를 나타낸 것이다. 자녀에게 친구가 되어주는 것을 더 선호한다고 응답한 비율(1+2)은 1차년도 69.4%, 3차년도는 76.4%, 자녀에게 권위를 보여주는 부모를 선호한다고 응답한 비율(4+5)은 1차년도 5.3%, 3차년도 4.8%로 나타나, 친구같은 부모로서의 역할 기대가 다소 높아졌다.



〈표 IV-2-9〉 부모역할 선호도 추이(2017, 2019)-친구같은 부모 vs 권위 있는 부모

단위: %(명), 점

구분	친구		↔		권위		계	평균
	1	2	3	4	5			
2017	28.1	41.3	25.3	4.2	1.1	100.0(3,000)	2.09	
2019	35.1	41.3	18.8	3.7	1.1	100.0(3,000)	1.94	
성별								
남자								
2017	23.8	40.5	29.6	4.9	1.2	100.0(1,522)	2.19	
2019	28.1	43.4	22.2	4.9	1.4	100.0(1,522)	2.08	
여자								
2017	32.5	42.1	20.9	3.5	1.0	100.0(1,478)	1.99	
2019	42.4	39.1	15.2	2.5	.8	100.0(1,478)	1.80	

주: 평균은 친구같은 부모에 동의할 경우(1점)~권위 있는 부모에 동의할 경우(5점)으로 산출한 결과로 점수가 낮을수록 권위 있는 부모보다는 친구같은 부모를 선호함.

### 3. 육아행복감에 대한 여론

#### 가. 육아행복감 및 가치

〈표 IV-3-1〉은 부모로서 자녀 양육 즐거움이 무엇인지에 대한 추이를 분석한 결과이다. 여전히 ‘자녀 발달과 성장을 지켜보는 부모로서의 성취감’이라고 응답한 비율이 1차년도 40.1%, 3차년도 38.0%로 가장 높았다. ‘자녀와 함께 시간보내기 나 여가활동 공유하기’는 1차년도와 3차년도 모두 30% 수준을 보였고, 특히 ‘부모-자녀관계에서의 애정과 지지’는 1차년도 27.6%에서 30.1%로 상승하여 1차년도 응답 내용과 다소 다른 양상을 보였다. 성별로는 ‘자녀의 발달과 성장을 지켜보는 부모로서의 성취감’은 남자가 여자에 비해 응답비율이 높고, 남자는 1차년도 41.5%에서 3차년도 42.1%로 증가한 반면, 여자는 1차년도 38.6%에서 3차년도 33.7%로 오히려 감소하였다. 또한 ‘부모-자녀관계에서의 애정과 지지’는 남녀 모두에게서 1차년도에 비해 3차년도 응답비율이 상승하였다.

〈표 IV-3-1〉 자녀 양육의 가장 큰 즐거움에 대한 추이(2017, 2019)

단위: %(명)

구분	2017	2019	남자		여자	
			2017	2019	2017	2019
자녀의 발달과 성장을 지켜보는 부모로서의 성취감	40.1	38.0	41.5	42.1	38.6	33.7
자녀와 함께 시간보내기, 여가활동 공유하기	30.3	29.7	32.7	30.6	27.9	28.8
자녀 돌봄과 지도	1.9	2.1	3	3.2	0.9	1.1
부모-자녀관계에서의 애정과 지지	27.6	30.1	22.7	24.1	32.6	36.3
기타	0.1	0.1	0.1	0.1	0.1	0.1
계	100.0 (3,000)	100.0 (3,000)	100.0 (1,522)	100.0 (1,522)	100.0 (1,478)	100.0 (1,478)

〈표 IV-3-2〉는 자녀 양육에 대한 4가지 문항에 대한 조사결과 추이를 나타낸다. 전반적으로 아이를 키우는 것은 육체적으로 힘들고, 경제적, 심리적으로 부담되는 일임에도 아이를 키우는 일은 행복하다고 인식하는 경향을 지속적으로 보이고 있다. 1차년도에 비해 육체적, 심리적, 경제적 부담은 미약하게나마 증가, 행복감은 미미하게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표 IV-3-2〉 자녀 양육에 대한 인식 추이(2017, 2019)

단위: 점, (명)

구분	2017	2019	남자		여자	
			2017	2019	2017	2019
나는 아이를 키우는 것은 행복한 일이라고 생각한다	3.16	3.14	3.20	3.17	3.12	3.10
나는 아이를 키우는 것은 육체적으로 힘들다고 생각한다	2.97	3.03	2.83	2.90	3.12	3.17
나는 아이를 키우는 것은 심리적으로 부담된다고 생각한다	2.75	2.79	2.63	2.69	2.88	2.90
나는 아이를 키우는 것은 경제적으로 부담된다고 생각한다	3.07	3.09	2.98	3.00	3.16	3.17
사례수	(3,000)	(3,000)	(1,522)	(1,522)	(1,478)	(1,478)

주: 평균은 '전혀 동의하지 않음(1점)~전적으로 동의함(4점)'으로 산출한 결과임.

## 나. 양육의 책임

〈표 IV-3-3〉은 영유아 자녀 양육에 대한 책임 분담에 대한 인식의 변화를 나타낸 것이다. 영유아 자녀에 대해 부모가 우선 책임지고 국가가 지원해야 한다는 인식이 여전히 높고(1차년도 76.1%, 3차년도 77.0%), 다음으로 국가가 우선 책임지고 나머지는 부모가 부담한다는 의견(1차년도 14.6%, 3차년도 13.0%)이 차지하였다. 부모가 전적으로 책임진다가 8.0%, 국가가 전적으로 책임진다가 1.6% 순이었다.

〈표 IV-3-3〉 영유아 자녀 양육에 대한 책임 분담에 대한 인식 추이(2017, 2019)

단위: %(명)

구분	2017	2019
부모가 전적으로 책임	7.6	8.0
부모가 우선 책임지고 국가가 지원	76.1	77.0
국가가 우선 책임지고 나머지 부모가 부담	14.6	13.0
국가가 전적으로 책임	1.5	1.6
기타	0.2	0.3
계	100.0(3,000)	100.0(3,000)

## 4. 육아정책 인식 및 방향에 대한 의견

### 가. 보육·유아교육에 대한 정부의 역할

〈표 IV-4-1〉은 국가 차원에서 육아정책 설계의 우선순위에 대해 연도별 추이를 나타낸 표이다. 2차년도에는 ‘아이의 건강한 성장·발달이 가장 많았으나, 전반적으로는 ‘부모의 양육부담 경감과 지원’과 ‘부모의 일·가정 양립’이 많다고 볼 수 있다. ‘아이의 행복’이라는 응답은 상대적으로 낮게 나타났다. 특히 육아정책 설계의 우선순위로 ‘부모의 일·가정 양립’이 1차년도에 비해 일정부분 비율이 증가하였음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

〈표 IV-4-1〉 국가 차원 육아정책 설계 시 우선 순위에 대한 인식 추이(2017~2019)

단위: %(명)

구분	2017	2018	2019
부모의 일·가정 양립	31.2	26.5	36.4
아이의 건강한 성장·발달	23.2	34.2	22.1
부모의 양육부담 경감과 지원	39.7	27.4	36.4
아이의 행복	5.8	11.4	5.0
기타	0.1	0.5	0.1
계	100.0(3,000)	100.0(3,000)	100.0(3,000)

〈표 IV-4-2〉는 정부의 육아를 위한 재정지원 설계 시 우선순위에 대한 연도별 추이를 나타낸다. ‘국가 재정 효율성을 고려한 차별적 지원’이라고 응답한 비율이 1~3차년도 동안 48.8%, 51.0%, 50.1%로 절반 가량을 지속적으로 차지하고 있고, ‘0-5세 무상보육·유아교육 이행’은 연도별로 42.1%, 39.1%, 40.0%의 비율을 보이고 있다. 차별적지원은 1차년도에 비해 소폭 상승, 영유아 무상 보육·교육은 소폭 감소하는 추이를 보였다.

〈표 IV-4-2〉 정부의 육아를 위한 재정지원 설계 시 우선 순위에 대한 인식 추이(2017~2019)

단위: %(명)

구분	2017	2018	2019
국가 재정 효율성을 고려한 차별적 지원	48.8	51.0	50.1
0-5세 무상 보육·유아교육 이행	42.1	39.1	40.0
모르겠음	7.8	8.5	8.1
기타	1.4	1.4	1.8
계	100.0(3,000)	100.0(3,000)	100.0(3,000)

## 나. 아동학대 관련 의견

〈표 IV-4-3〉은 아동학대와 관련하여 정부가 비중을 두어야 하는 정책에 대한 추이분석결과이다. 1차년도에 비해 ‘아동학대에 대한 처벌 강화’는 증가하였고(1차년도 25.8%, 3차년도 28.2%), ‘영유아 학대 위험아동 조기 발견 노력’도 1차년도 12.1%에서 3차년도 13.5%로 증가하였다. 상대적으로 ‘부모 및 교직원 대상 교육 실시’는 1차년도 19.4%에서 3차년도 18.9%로 소폭 감소하였고, ‘교사의 근로 환경 개선’ 또한 1차년도 17.5%에서 3차년도 14.2%로 감소하였다.

〈표 IV-4-3〉 아동학대 관련 정부가 비중을 두어야 할 사항에 대한 인식 추이(2017, 2019)

단위: %(명)

구분	2017	2019
부모 및 교직원 대상 교육 실시	19.4	18.9
영유아 학대 위험아동 조기 발견 노력	12.1	13.5
아동학대 신고의무자 확대	4.8	4.7
영유아 학대 시 처벌 강화	25.8	28.2
아동인권 존중에 대한 홍보 강화	7.1	7.8
유치원과 어린이집 교사의 근로환경 개선	17.5	14.2
지속적인 교사, 부모 상담 지원	3.8	4.4
유치원과 어린이집 교사양성과정 강화	9.3	7.5
기타	0.2	0.8
계	100.0(3,000)	100.0(3,000)

#### 다. 영유아 사교육 관련 의견

〈표 IV-4-4〉는 영유아에게 사교육을 시키는 이유에 대한 추이를 나타낸다. 1차년도와 3차년도 응답비율에 별다른 차이를 보이지 않고 있고, ‘자녀의 발달과 학습에 도움이 된다고 생각해서’와 ‘다른 아이들이 하니깐 뒤쳐질까봐’에 대한 응답비율이 높게 나타났다.

〈표 IV-4-4〉 영유아 사교육 이유에 대한 인식 추이(2017, 2019)

단위: %(명)

구분	2017	2019
자녀가 원해서	1.6	2.1
자녀에게 어떤 재능이 있는지 알아보기 위해	11.0	9.4
자녀의 발달과 학습에 도움이 된다고 생각해서	32.0	30.9
다른 아이들이 하니깐 뒤쳐질까봐	39.4	40.1
다른 친구들과 어울리게 하기 위해서	3.2	3.4
어린이집·유치원 특별활동/특성화 프로그램만으로는 부족해서	3.5	3.1
하원 후에 돌봐줄 사람이 없어서	9.0	10.1
기타	0.3	0.9
계	100.0(3,000)	100.0(3,000)

〈표 IV-4-5〉는 영유아 대상 사교육 과열 현상이 지속될지에 대한 추이를 나타낸 것으로, 사교육 과열 현상이 지속될 것이라는 응답비율이 1차년도 79.2%에서 3차년도 86.1%로 상승폭이 커 영유아 사교육 심화를 예견하였다.

〈표 IV-4-5〉 사교육 과열 현상의 지속여부에 대한 의견 추이(2017, 2019)

단위: %(명)

구분	그렇다	아니다	잘 모르겠다	계
2017	79.2	7.1	13.7	100.0(3,000)
2019	86.1	3.9	10.1	100.0(3,000)

## 라. 세금 추가 부담 의사

〈표 IV-4-6〉은 영유아에 대한 국가의 책임 강화를 위해 세금을 추가로 부담할 의향이 있는지에 대한 추이분석 결과이다. 세금에 대한 추가부담 의향이 있다고 응답한 비율은 1차년도 32.3%, 2차년도 29.7%, 3차년도 32.6%로 비슷하였고, 세금에 대한 추가부담 의향이 없다고 응답한 비율은 1차년도 39.3%, 2차년도 46.2%, 3차년도 44.2%로 상승하였다.

〈표 IV-4-6〉 영유아에 대한 국가 책임 강화를 위한 세금 추가 부담 의향 추이(2017~2019)

단위: %(명)

구분	있다	없다	잘 모르겠다	계
2017	32.3	39.3	28.4	100.0(3,000)
2018	29.7	46.2	24.1	100.0(3,000)
2019	32.6	44.2	23.2	100.0(3,000)

영유아에 대한 국가 책임 강화를 위한 세금 추가 부담 의사가 없는 이유에 대한 추이분석 결과(표 IV-4-7), ‘부담하는 세금 자체가 지금도 너무 많기 때문에’가 1차년도 15.1%에서 3차년도 17.1%로 증가하였고, ‘관련 정책의 수혜자가 아니므로 내고 싶지 않아서’도 1차년도 11.8%에서 3차년도 12.4%로 증가하였다. 이에 반해 ‘세금이 적절한 곳에 쓰이지 않을 거 같아서’는 1차년도 26.9%에서 3차년도 25.6%, ‘다른 증세 방안을 모색해야 할 것 같아서’도 1차년도 6.0%에서 3차년도 3.5%로 감소하였다.

〈표 IV-4-7〉 세금 추가 부담의사가 없는 이유 추이(2017-2019)

구분	단위: %(명)		
	2017	2018	2019
세금이 적절한 곳에 쓰이지 않을 것 같아서	26.9	28.5	25.6
관련 정책의 수혜자가 아니므로 내고 싶지 않아서	11.8	10.0	12.4
먼저 정부 지출에 대한 구조조정 등이 선행되어야 할 것 같아서	38.1	35.3	37.3
부담하는 세금 자체가 지금도 너무 많기 때문에	15.1	18.3	17.1
다른 증세 방안을 모색해야 할 것 같아서	6.0	5.4	3.5
기타	2.1	2.5	4.1
계	100.0(1,179)	100.0(1,386)	100.0(1,327)

#### 마. 육아지원 정책 희망에 대한 의견

〈표 IV-4-8〉은 정부가 출산·육아 지원을 위해 우선적으로 제공해 주기를 바라는 정책추이를 나타낸 것이다. ‘출산휴가 및 육아휴직 기간 확대’, ‘비용지원(유아원비, 양육수당 등)’, ‘공립유치원 및 어린이집 확충’이라고 응답한 비율이 상대적으로 많았다. 특히 ‘출산휴가 및 육아휴직 기간 확대’는 2차년도 33.6%에서 3차년도 38.5%로 정책우선순위 비율이 높아졌고, ‘비용지원(유아원비, 양육수당 등)’도 2차년도 18.2%에서 3차년도 22.2%로 상승하였다. 이에 반해 ‘공립유치원 및 어린이집 확충’은 여전히 20% 정도 차지하였으나, 2차년도 25.4%에서 3차년도 19.1%로 하락하였다.

〈표 IV-4-8〉 정부의 출산·육아지원 정책에 대한 우선순위에 대한 인식 추이(1순위)(2018-2019)

구분	단위: %(명)					
	2018	2019	남자		여자	
			2018	2019	2018	2019
출산휴가 및 육아휴직 기간 확대	33.6	38.5	29.4	32.6	38.0	44.6
베이비시터 인력 관리	3.5	4.6	3.3	4.1	3.7	5.2
공립유치원 및 어린이집 확충	25.4	19.1	28.8	21.8	21.8	16.2
비용 지원(유아원비, 양육수당 등)	18.2	22.2	21.7	26.4	14.5	17.9
유치원, 어린이집의 운영시간 연장	3.7	5.0	2.8	4.6	4.5	5.4
자녀 건강 관련 지원(건강검진, 예방접종 등) 확대	5.6	4.1	4.8	4.2	6.4	4.0
안전한 생활환경 조성(공기질 개선, 교통안전 등)	7.8	5.0	7.1	5.0	8.4	5.1
영유아 문화 및 놀이시설 확대	0.9	0.7	0.7	0.6	1.1	0.7
기타	1.2	0.8	1.0	0.7	1.4	0.8
5계	100.0 (2,765)	100.0 (2,732)	100.0 (1,414)	100.0 (1,390)	100.0 (1,351)	100.0 (1,342)

## 바. 비용지원 정책

〈표 IV-4-9〉는 보육료·유아학비에 대한 전계층 지원에 대한 인식 변화를 나타낸 것이다. 바람직하다고 응답한 비율은 1차년도 49.9%에서 3차년도 42.1%로 감소하였고, 바람직하지 않다는 비율은 1차년도 24.3%에서 3차년도 28.7%로 증가하였다. 5점 만점으로는 1차년도 3.36점에서 3차년도 3.18점으로 하락하였다. 여론조사 추이를 보면 아직까지는 전 계층 지원에 대한 동의정도가 더 많은 것으로 보이나, 소득에 관계없이 전 계층에 대한 보육료·유아학비 지원 정책에 대한 다소 부정적 인식은 다소 늘어났음을 알 수 있다.

〈표 IV-4-9〉 보육료·유아학비 전계층 지원에 대한 인식 추이(2017~2019)

단위: %(명), 점

구분	전혀 바람직하지 않음	별로 바람직하지 않음	보통	약간 바람직	매우 바람직	계	평균
2017	7.0	17.3	25.8	32.6	17.3	100.0(3,000)	3.36
2018	6.5	18.3	24.7	34.5	15.9	100.0(3,000)	3.35
2019	7.6	21.1	29.2	30.1	12.0	100.0(3,000)	3.18

주: 평균은 '전혀 바람직하지 않음(1점)~매우 바람직(5점)'으로 산출한 결과임.

양육수당 전계층 지원에 대한 인식 변화를 보면(표 IV-4-10), 바람직하다고 응답한 비율은 1차년도 47.4%에서 3차년도 39.8%로 감소하였고, 바람직하지 않다는 비율은 1차년도 25.6%에서 3차년도 31.3%로 증가하였고, 5점 만점으로는 1차년도 3.31점에서 3차년도 3.12점으로 하락하였다. 보육료·유아학비 지원 정책과 마찬가지로 양육수당 전계층에 대한 부정적 인식이 다소 증가하였다.

〈표 IV-4-10〉 양육수당 전계층 지원에 대한 인식 추이(2017~2019)

단위: %(명), 점

구분	전혀 바람직하지 않음	별로 바람직하지 않음	보통	약간 바람직	매우 바람직	계	평균
2017	8.1	17.5	26.9	30.1	17.3	100.0(3,000)	3.31
2018	8.3	19.8	24.6	31.1	16.1	100.0(3,000)	3.27
2019	8.8	22.5	28.8	28.0	11.8	100.0(3,000)	3.12

주: 평균은 '전혀 바람직하지 않음(1점)~매우 바람직(5점)'으로 산출한 결과임.



## 사. 저출산 정책에 대한 의견

〈표 IV-4-11〉은 정부의 출산·육아 비용지원 정책의 출산에 대한 영향력에 대한 인식추이를 분석한 결과이다. 영향을 미친다는 응답은 1차년도 38.8%에서 3차년도 41.2%,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는 응답도 1차년도 35.0%에서 3차년도 36.1%로 두 의견 모두 상승하였으나, 상승폭은 정부의 비용정책의 출산에 대한 영향에 대한 긍정적 인식이 좀더 컸다.

〈표 IV-4-11〉 정부의 출산·육아 비용지원 정책의 출산에 대한 영향력에 대한 인식 추이(2017, 2019)  
단위: %(명), 점

구분	전혀 영향을 미치지 않음	별로 영향을 미치지 않음	보통	어느정도 영향을 미침	매우 많은 영향을 미침	계	평균
2017	6.7	28.3	26.2	33.3	5.5	100.0(3,000)	3.03
2019	7.2	28.9	22.8	32.0	9.2	100.0(3,000)	3.07

주: 평균은 '전혀 영향을 미치지 않음(1점)~매우 많은 영향을 미침(5점)'으로 산출한 결과임.

## 아. 안전한 사회

〈표 IV-4-12〉는 우리 사회가 영유아 자녀를 키우기에 안전한 사회인지에 대한 인식추이 분석 결과를 보여주는 것으로, 안전하다는 인식이 1차년도 2.75점(5점 만점)에서 3차년도 2.84점으로 상승하여 유아 자녀양육에 대한 안전의식이 다소 높아졌으나, 전반적으로는 여전히 안전성에 대한 인식이 다소 낮다고 볼 수 있다.

〈표 IV-4-12〉 영유아 자녀 양육을 위한 우리 사회의 안전성에 대한 인식 추이(2017~2019)

단위: %(명), 점

구분	매우 그렇지 않다	그렇지 않다	보통	그렇다	매우 그렇다	계	평균
2017	7.1	32.7	39.7	18.6	1.8	100.0(3,000)	2.75
2018	11.0	36.0	37.5	14.1	1.4	100.0(3,000)	2.59
2019	7.0	28.9	39.7	21.9	2.5	100.0(3,000)	2.84

주: 평균은 '매우 그렇지 않다(1점)~매우 그렇다(5점)'으로 산출한 결과임.

## 자. 전반적 만족도

〈표 IV-4-13〉은 영유아 육아지원 정책 추진에 대한 전반적 평가에 대한 추이분석 결과이다. 응답비율로 보면 잘하고 있다는 인식이 1차년도 17.2%에서 3차년도 27.3%로 10%p 정도 상승하여 긍정적 인식 비율이 높아졌고, 잘못하고 있다는 인식은 1차년도 27.1%에서 3차년도 23.2%로 감소하였다. 매우 잘못하고 있다라는 인식도 2.6%에서 6.7%로 다소 크게 상승하여 전체적으로 1차년도에 5점 중 3.08점에서 3차년도 3.01점으로 비슷한 수준이나 약간 하락하였다.

〈표 IV-4-13〉 정부의 영유아 육아지원정책에 대한 전반적 평가 추이(2017, 2019)

단위: %(명), 점

구분	매우 잘못하고 있음	약간 잘못하고 있음	보통임	약간 잘하고 있음	매우 잘하고 있음	계	평균
2017	2.6	24.5	55.2	13.5	4.2	100.0(3,000)	3.08
2019	6.7	16.5	49.5	23.7	3.6	100.0(3,000)	3.01

주: 평균은 '매우 잘못하고 있음(1점)~매우 잘하고 있음(5점)'으로 산출한 결과임.





V

정책제언



## V. 정책제언

### 1. 자녀양육 및 가사에서 성평등한 역할 분담 필요

어머니와 아버지가 자녀 양육에 있어 이상적인 분담은 5.60 대 4.40 수준으로 나타났으나 실제 영유아 부모가 분담하는 비율은 6.65대 3.35 수준으로 나타나, 생각하고 있는 것보다 실제 생활에서 어머니의 역할이 더 많은 것으로 보인다. 이는 가사 분담에서도 동일하게 작동하고 있었다. 여성의 경제활동 증가와 함께 부부 간 역할이 동등한 수준으로 변화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전통적인 남녀간의 역할분화가 지속되고 있다. 다행히도 이상적인 분담비율에 있어 연령대가 젊을 수록, 미혼인 경우에 분담비율이 5:5에 가까워지는 경향을 보이고 있고, 실제로도 남성들이 가사에 좀더 기여하는 것으로 인식이 변화하고 있다.

최근 일·가정 양립을 위해서 근로 문화 개선과 출산휴가·육아휴직 활성화를 위한 정책이 늘어나며 가정 내 남성의 가사 및 자녀양육 참여 향상을 유도하고 있지만, 근본적으로는 가사와 자녀양육은 가족 내에서 가족 구성원이 함께 한다는 의식을 가질 필요성이 있다(김동훈 외, 2017).

### 2. 다양한 가족에 대한 인정 문화 확산

결혼과 자녀에 대한 생각에 대한 조사 결과에서는 아직까지 자녀를 낳기 위해서는 결혼을 해야 한다고 생각하는 비율은 76.5%로 높고, 결혼을 하지 않고 자녀를 가질 수 있다고 응답한 비율은 30.0% 수준이다. 1차년도 조사결과에서(김동훈 외, 2017) 자녀를 낳아 기르려면 결혼을 해야한다는 응답이 80.9%, 결혼을 하지 않고 자녀를 가질 수 있다는 비율이 26.2%였다는 감안하면 다소 인식의 변화도 있어 보인다. 이는 우리나라에서 결혼과 출산의 관계를 당연시하는 문화와 가족에 대한 구성을 결혼과 결부시키는 현상이 여전히 지속되고는 있으나, 결혼이라는 틀이 아

니더라도 자녀를 가질 수 있다는 인식도 30% 수준이고, 특히 미혼인 경우는 1차년도 38.6%, 3차년도 40.3%, 20~30대는 평균보다 더 높은 비율로 결혼을 하지 않고 자녀를 가질 수 있다고 동의하고 있어 전통적인 결혼인식과 출산에 대한 인식이 서서히 변하고 있다고 볼 수 있다.

### 3. 부모책임 및 역할에 대한 교육 강화

부모로서의 책임과 역할에 대한 교육을 통해 부모됨과 자녀 양육의 가치를 포함할 필요성이 있다. 본 조사에서 자녀를 낳기 전에 부모가 되기 위한 교육이 필요하다는 것에 많은 응답자들이 공감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며(5점 평균에 3.53점), 특히 10~20대의 젊은 연령층에서 출산 전 부모교육의 필요성을 높게 인식하고 있었다. 또한 부모들이 경제활동 등으로 부모교육을 수강할 시간이나 여건이 어려울 수도 있기 때문에, 맞벌이 가정이나 취약계층 등 상대적으로 부모교육의 적극적, 능동적 참여 여건이 어려운 사각지대의 부모들을 대상으로 부모교육의 접근성을 높일 수 있도록 찾아가는 부모교육 서비스 등의 정책방안 마련이 요구된다(김동훈 외, 2017:168).

### 4. 국가의 영유아가구 양육 지원의 책무성 강화

자녀 양육의 경제적 가치가 월 평균 235만원 정도로 조사되어 상당한 가치를 부여하고 있고, 조사 결과에서도 영유아 자녀의 양육에 대한 책임소재는 우선적으로 부모의 책임이고 국가가 지원해야 한다는 응답이 높게 나타나는 점 등을 보았을 때, 무상보육과 교육, 양육비용 지원, 일·가정 양립 지원 등 다양한 제도가 시행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더 많이 수요자 입장에서의 정책대안 마련이 시급함을 보여준다. 국가차원에서 육아정책 설계의 우선순위로 남자는 '부모의 양육부담 경감과 지원' 비율이 높고, 여자는 '부모의 일·가정 양립' 비율이 높게 나타났고, 1차년도에 비해 부모의 일·가정 양립에 대한 우선 순위 비율이 다소 높아졌다. 일·가정 양립을 위한 제도적 기반 구축 하에서 이제는 제도의 실효성을 높이는 것이



중요할 것이다. 특히 자녀양육과 가사분담에서 여전히 어머니의 분담비율이 큰 현실에서 자녀양육과 일을 병행할 수 있는 일·가정 양립 제도 실질적 이용 가능성을 높여주는 노력이 요구된다.

## 5. 육아지원에 대한 재정지원 설계의 차별적 지원 검토 필요

정부의 육아지원 재정지원 우선순위로 차별적 지원이 50.1%로 전체층 무상지원 40.0%보다 다소 높게 나타났다. 연령대별로는 연령대가 높을수록 차별적 지원에 대한 우선순위 비율이 높고, 기혼이 미혼보다, 영유아자녀가 없는 경우가 있는 경우보다 차별적 지원에 응답한 비율이 높게 나타났다. 정책의 핵심수요층인 영유아가정은 여전히 보편적 무상지원에 대한 정책우선순위가 더 높은 것으로 보이고 있다. 현실이나 미래에서 결혼이나 출산 가능성이 상대적으로 높은 10~30대 육아정책의 주된 수요 및 수혜계층에서 보편적 무상지원에 대한 우선순위 비율이 더 높게 나타났다. 그러나 국가차원에서는 40대 이상의 비수혜 가능성이 높은 연령대의 재정의 차별적 지원 수요도 함께 고려해야 하며, 한정된 재원에 대한 합리적이고 효율적 배분 전략이 수립되어야 할 것이다(김동훈 외, 2017).

## 6. 아동학대에 대한 교사 교육 실시 및 처벌 강화

끊이지 않고 언론을 통해 접하는 아동학대와 관련하여 정부의 정책비중에 대한 여론조사 결과, 아동학대에 대한 처벌 강화, 부모 및 교직원 대상 교육 실시, 교사의 근로환경을 개선해야 한다는 비율이 높게 나타났다. 연령대가 낮을수록 아동학대에 대한 처벌 강화에 대한 요구 비율이 높고, 연령대가 높을수록 부모 및 교직원을 대상으로 한 교육실시에 정부가 좀더 비중을 두어야 한다는 비율이 높아 연령대별로 정부의 아동학대 정책비중에 차이를 보였다.

## 7. 저출산 대응 정책의 실효성 제고

저출산 대응 정책들이 현실을 반영하여 실효성 있게 설계되어야 할 것이다. 조사 결과에서 정부의 영유아 육아지원정책에 대한 전반적인 만족도는 5점 중 3점으로 보통수준에 머물렀다. 특히 연령대가 낮을수록 정부의 육아지원정책에 대한 만족도가 낮아지는 경향을 보였고, 결혼을 하지 않았거나, 자녀가 없는 경우가 그렇지 않은 경우보다 만족수준이 더 낮았다. 이는 정부의 다양한 노력에도 불구하고 국민들의 현실적 체감도를 높이기 위한 노력이 필요함을 의미하며, 연령대가 낮은 세대가 향후 정부 육아지원 정책의 수요자가 된다는 점에서 정부의 실수요자 입장에서의 정책집행이 필요하다.



## 참고문헌

- 교육부(2018). 2019 교육부 업무보고-모두를 포용하는 사회, 미래를 열어가는 교육. <https://www.moe.go.kr/boardCnts/view.do?boardID=294&boardSeq=76150&lev=0&searchType=S&statusYN=C&page=1&s=moe&m=020402&opType=N> (2019. 3. 20. 인출)
- 교육부 보도자료(2018. 12. 11). 2019년 교육부 업무보고-모두를 포용하는 사회, 미래를 열어가는 교육. <https://www.moe.go.kr/boardCnts/view.do?boardID=294&boardSeq=76150&lev=0&searchType=S&statusYN=C&page=1&s=moe&m=020402&opType=N> (2019. 3. 20. 인출)
- 김동훈·이재희·이혜민(2017). 행복한 육아문화 정착을 위한 KICCE 육아정책 여론조사(I). 육아정책연구소.
- 대한민국정부(2017). 100대 국정과제.(국무조정실 국무총리비서실 홈페이지 <http://www.opm.go.kr/opm/info/government01.do>에서 2019. 3. 6. 인출)
- 보건복지부 보도자료(2019. 2. 19). 포용국가의 주춧돌인 아동에 대한 국가 책임을 더욱 확대한다. [http://www.mohw.go.kr/react/al/sal0301vw.jsp?PAR\\_MENU\\_ID=04&MENU\\_ID=0403&page=1&CONT\\_SEQ=347826](http://www.mohw.go.kr/react/al/sal0301vw.jsp?PAR_MENU_ID=04&MENU_ID=0403&page=1&CONT_SEQ=347826) (2019. 3. 20. 인출)
- 보건복지부(2019). 포용국가 아동정책 추진 방향. [http://www.mohw.go.kr/react/al/sal0301vw.jsp?PAR\\_MENU\\_ID=04&MENU\\_ID=0403&page=1&CONT\\_SEQ=347826](http://www.mohw.go.kr/react/al/sal0301vw.jsp?PAR_MENU_ID=04&MENU_ID=0403&page=1&CONT_SEQ=347826) (2019. 3. 20. 인출)
- 여성가족부(2018). 2019 여성가족부 업무보고. [http://www.mogef.go.kr/as/asl/as\\_asl\\_s001.do](http://www.mogef.go.kr/as/asl/as_asl_s001.do) (2019. 3. 20. 인출)
-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보도자료(2018. 12. 6). 아동, 2040 세대, 은퇴세대의 더 나은 삶 보장에 역량 집중. <https://www.betterfuture.go.kr/PageLink.do> (2019. 3. 20 인출)
- 최은영·최효미·이혜민(2018). 행복한 육아문화 정착을 위한 KICCE 육아정책 여론조사(II). 육아정책연구소.

**【참고 사이트】**

인구보건복지협회 홈페이지 <http://www.ppfk.or.kr/main.asp> (2019. 3. 7. 인출)

인구보건복지협회 홈페이지 자료실-보도자료 [http://www.ppfk.or.kr/sub/data/report\\_material.asp](http://www.ppfk.or.kr/sub/data/report_material.asp) (2019. 3. 7. 인출)



# KICCE Poll for Establishing the Culture of Happy Child Care (III)

Dong Hoon Kim, Moonjeong Kim

This study is the third year of the KICCE Poll for Establishing the Culture of Happy Child Care, which has been conducted for five years since 2017.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continuously conduct the survey on childcare policy and the public awareness survey, to identify trends in childcare policy and parenting related opinions and perceptions, and to monitor related policy demands.

The research contents are as follows.

First, we analyzed recent policies and issues related to childcare policy and childcare culture.

Second, we constructed the questionnaire for the third year by reviewing, revising, and supplementing the previous survey questionnaire.

Third, KICCE Poll was conducted to analyze public perceptions of childcare culture and childcare policy.

Fourth, policy directions were suggested based on the survey results.

The survey was conducted on 3,000 people between 15~74 in their ages. In the case of surveys, the items were composed mainly of becoming a parent, child-rearing, marriage, parenting happiness, early childhood education and childcare policy, policy satisfaction, and low birth rate policy, etc.

The policy suggestions through the study are as follows.

First, despite the fact that women's economic activity has increased and the role of couples has been changing to the same level, the traditional role division between men and women continues. Therefore, it is necessary to spread awareness about gender equal role sharing in child rearing and household chores.

Second, despite various systems such as free childcare and education, support for childcare costs, and support for work and family reconciliation, more policy alternatives are still required from the consumer's point of view.

Third, it is necessary to inform parents about the value of parenting and raising children through education about their responsibilities and roles as parents. In addition, customized education for the vulnerable is required.

Fourth, infants and toddlers families, the core demand group of the policy, still have a high policy priority for universal free assistance, but considering financing, it is necessary to consider discriminatory support in the design of financial support for childcare support.

Fifth, it is necessary to reinforce prevention education and punishment for child abuse and to improve the working environment of teachers.

Lastly, the overall satisfaction level of the childcare policy is normal. In the future, it is necessary for the government to establish and implement the policy from the actual consumer's point of view, as the generation with the low age group becomes the consumer of future childcare policy.

Keyword: Poll, child care and education policy, parenting culture



## I. 기초 사항

1. 귀하의 성별은 무엇입니까?

- ① 남자  ② 여자

2. 귀하의 거주지는 어디입니까?

- ① 서울특별시  ② 광역시 및 특별자치시  
 ③ 중소도시  ④ 군(읍·면 지역)  
 (특별·광역시·특별자치시 이외 시 소재)

3. 귀하의 출생년도는 언제입니까?

\_\_\_\_\_ 년

4. 귀하의 혼인여부에 대하여 응답해주시시오

- ① 미혼(☞ 5로)  ② 배우자 있음(기혼, 사실혼)(☞ 5로)  
 ③ 배우자 없음(이혼, 별거, 사망)(☞ 5로)

5. 귀하는 자녀가 있습니까?

- ① 있음(☞ 5-1로)  ② 없음(☞ 11로)

5-1. (자녀가 있는 경우) 가장 어린 자녀부터 해당 내용을 작성해주시기 바랍니다.

총 자녀수 (        )명			
구분	연령	성별	이용기관 및 소속
자녀 1	만 (    )세	<input type="checkbox"/> ① 남자 <input type="checkbox"/> ② 여자	<input type="checkbox"/> ① 영유아 기관* 이용 안함(가정양육 등) <input type="checkbox"/> ② 영유아 기관* <input type="checkbox"/> ③ 초등학교 <input type="checkbox"/> ④ 중학교 <input type="checkbox"/> ⑤ 고등학교 <input type="checkbox"/> ⑥ 대학/ 대학원 <input type="checkbox"/> ⑦ 직장 <input type="checkbox"/> ⑧ 출가 및 미취업 <input type="checkbox"/> ⑨ 기타(        )
자녀 2	만 (    )세	<input type="checkbox"/> ① 남자 <input type="checkbox"/> ② 여자	<input type="checkbox"/> ① 영유아 기관* 이용 안함(가정양육 등) <input type="checkbox"/> ② 영유아 기관* <input type="checkbox"/> ③ 초등학교 <input type="checkbox"/> ④ 중학교 <input type="checkbox"/> ⑤ 고등학교 <input type="checkbox"/> ⑥ 대학/ 대학원 <input type="checkbox"/> ⑦ 직장 <input type="checkbox"/> ⑧ 출가 및 미취업 <input type="checkbox"/> ⑨ 기타(        )
자녀 3	만 (    )세	<input type="checkbox"/> ① 남자 <input type="checkbox"/> ② 여자	<input type="checkbox"/> ① 영유아 기관* 이용 안함(가정양육 등) <input type="checkbox"/> ② 영유아 기관* <input type="checkbox"/> ③ 초등학교 <input type="checkbox"/> ④ 중학교 <input type="checkbox"/> ⑤ 고등학교 <input type="checkbox"/> ⑥ 대학/ 대학원 <input type="checkbox"/> ⑦ 직장 <input type="checkbox"/> ⑧ 출가 및 미취업 <input type="checkbox"/> ⑨ 기타(        )
자녀 4	만 (    )세	<input type="checkbox"/> ① 남자 <input type="checkbox"/> ② 여자	<input type="checkbox"/> ① 영유아 기관* 이용 안함(가정양육 등) <input type="checkbox"/> ② 영유아 기관* <input type="checkbox"/> ③ 초등학교 <input type="checkbox"/> ④ 중학교 <input type="checkbox"/> ⑤ 고등학교 <input type="checkbox"/> ⑥ 대학/ 대학원 <input type="checkbox"/> ⑦ 직장 <input type="checkbox"/> ⑧ 출가 및 미취업 <input type="checkbox"/> ⑨ 기타(        )



총 자녀수 ( )명			
구분	연령	성별	이용기관 및 소속
자녀 5	만 ( )세	<input type="checkbox"/> ① 남자 <input type="checkbox"/> ② 여자	<input type="checkbox"/> ① 영유아 기관* 이용 안함(가정양육 등) <input type="checkbox"/> ② 영유아 기관* <input type="checkbox"/> ③ 초등학교 <input type="checkbox"/> ④ 중학교 <input type="checkbox"/> ⑤ 고등학교 <input type="checkbox"/> ⑥ 대학/ 대학원 <input type="checkbox"/> ⑦ 직장 <input type="checkbox"/> ⑧ 출가 및 미취업 <input type="checkbox"/> ⑨ 기타( )

\* 미취학 자녀가 이용하는 모든 기관을 말함(어린이집, 유치원, 반일제 기관(미취학 아동이 평일 매일 아침부터 점심 전후 시간까지 머물면서 교육과 보호 등 다양한 서비스를 받는 학원, 즉 유치원이나 어린이집과 유사하게 운영되는 형태로 영어학원, 놀이학교 등이 이러한 학원의 일종임) 등)

5-2. (미취학 연령의 자녀가 영유아 기관을 이용하는 경우) 현재 귀하의 자녀가 이용하는 기관은 어디입니까? 가장 어린 자녀부터 작성해주시기 바랍니다.

구분	연령	이용기관
〈보 기〉		
자녀 1	만 ( )세	<input type="checkbox"/> ① 국공립어린이집 <input type="checkbox"/> ② 사회복지법인 어린이집 <input type="checkbox"/> ③ 법인·단체 등 어린이집 <input type="checkbox"/> ④ 민간어린이집 <input type="checkbox"/> ⑤ 가정어린이집 (놀이방) <input type="checkbox"/> ⑥ 직장어린이집 <input type="checkbox"/> ⑦ 협동어린이집 <input type="checkbox"/> ⑧ 국공립유치원 <input type="checkbox"/> ⑨ 사립유치원 <input type="checkbox"/> ⑩ 반일제 이상 학원 <input type="checkbox"/> ⑪ 기타( )
자녀 2	만 ( )세	
자녀 3	만 ( )세	

## II. 부모됨

1. 부모됨 관련 문항입니다. 다음의 각 문장을 읽고 귀하의 생각과 일치하는 정도에 응답해주시시오.

구분	① 전혀 동의하지 않음	② 별로 동의하지 않음	③ 대체로 동의함	④ 전적으로 동의함
1) 부모가 된다는 것은 행복하고 기대되는 일이다.				
2) 자녀를 낳기 전에 부모가 되기 위한 교육이 꼭 필요하다.				
3) 부모가 되기 위해서는 경제적으로 준비가 되어있어야 한다.				
4) 자녀가 영유아(초등 이전)일 때에는 부모가 자녀를 직접 돌보는 것이 바람직하다.				
5) 자녀양육을 믿고 맡길 수 있는 사람이 있다면 부모가 꼭 양육을 전담할 필요는 없다.				
6) 부모는 자신의 행복을 희생해서라도 자녀를 위해 최선을 다하는 것이 도리이다.				
7) 부모가 되는 것은 내 인생 최대의 도전이다.				

2. 주어진 두 개의 문장 중 귀하의 솔직한 생각에 보다 더 가까운 것을 선택하여 주십시오.

2-1. 부모는	<input type="checkbox"/> 1) 부모는 자녀를 뒤에서 묵묵히 도와주는 사람이다. <input type="checkbox"/> 2) 부모는 자녀가 성공할 수 있도록 앞에서 이끌어주는 사람이다.
2-2. 자녀는	<input type="checkbox"/> 1) 부모가 키워주고 지원해준 것에 대해 자녀는 나중에 보답해야 한다. <input type="checkbox"/> 2) 자녀를 키워주고 지원해 주는 것은 부모로서의 의무이므로 자녀가 이에 대해 부담가질 필요 없다.

3. 부모는 언제까지 자녀에게 경제적인 지원을 해주어야 한다고 생각하십니까?

- ① 고등학교 졸업할 때까지                       ② 대학 졸업할 때까지  
 ③ 취업할 때까지                                       ④ 결혼할 때까지  
 ⑤ 결혼 후 기반이 마련되고 안정될 때까지    ⑥ 평생동안

3-1. 자녀 1인당 양육비용(교육 포함)이 어느 시기에 가장 많이 든다고 생각하십니까?

- ① 영아(0-2세)                       ② 유아(3-5세)                       ③ 초등학교 저학년(1-3학년)  
 ④ 초등 고학년(4-6학년)        ⑤ 중학생                               ⑥ 고등학생

4. 다음의 각 문장을 읽고 귀하의 생각과 일치하는 정도에 응답해 주십시오.

구분	① 전혀 동의하지 않음	② 별로 동의하지 않음	③ 대체로 동의함	④ 전적으로 동의함
1) 어머니로서 여성의 가장 중요한 역할은 가정에서 자녀를 잘 키우는 것이다.				
2) 직장에 다니는 여성은 어머니로서 자녀에게 해줄 수 있는 역할에 한계가 있다.				
3) 아버지로서 남자가 할 일은 가정에 돈을 벌어드는 것이다.				

5. 귀하가 생각하시기에 부모라면 자녀 양육과 가사(집안 일 등)를 어떻게 분담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생각하십니까? 합이 10이 되도록 말씀해 주십시오.

(예: 어머니 8: 아버지 2, 어머니 5: 아버지 5, 어머니 2: 아버지 8)

자녀 양육	가사
어머니 vs 아버지 (        :        )	어머니 vs 아버지 (        :        )

6. (현재 영유아 자녀가 있는 경우 중 배우자가 있는 경우만) 실제로 자녀양육과 가사를 어떻게 분담하고 계십니까? 합이 10이 되도록 말씀해 주십시오.(예: 어머니 8: 아버지 2, 어머니 5: 아버지 5, 어머니 2: 아버지 8)

자녀 양육	가사
어머니 vs 아버지 (        :        )	어머니 vs 아버지 (        :        )

7. (현재 영유아 자녀가 있는 경우 중 배우자가 있는 경우만) **자녀 양육 중 다음의 역할을 주로 하는 사람은 누구입니까?**

구분	번호
1) 집안 일(식사 준비, 빨래 등)	① 아버지 ② 어머니 ③ 기타( )
2) 자녀 밥 먹고, 옷 입는 것 도와주기	① 아버지 ② 어머니 ③ 기타( )
3) 자녀와 놀아주기, 책 읽어주기	① 아버지 ② 어머니 ③ 기타( )
4) 자녀의 기관(유치원, 어린이집, 학원 등) 등·하원 도와주기	① 아버지 ② 어머니 ③ 기타( )
5) 자녀 물품 알아보고 구매하기 등	① 아버지 ② 어머니 ③ 기타( )

8. 귀하는 조부모가 정기적으로 영유아 손자녀를 돌봐주는 것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① 손자녀를 위해 필요하다                       ② 자녀를 위해 필요하다  
 ③ 조부모를 위해 필요하다                       ④ 조부모를 위해 하지 않는 편이 좋다  
 ⑤ 모르겠다

9. 귀하는 자녀 양육시기별로 가장 바람직한 부모의 경제활동 상태는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자녀의 양육시기별로 아래에서 해당하는 번호를 기입해 주십시오.

영유아 자녀	초등학생 자녀	중·고등학생 자녀

- ① 부모 둘 중 한명은 경제활동을 하고, 한명은 집에서 양육함  
 ② 부모 모두 경제활동을 하고, 어머니는 시간제로 근무함  
 ③ 부모 모두 경제활동을 하고, 아버지는 시간제로 근무함  
 ④ 부모 모두 경제활동을 함

10. (자녀가 있는 경우) 귀하는 좋은 부모라고 생각하십니까?

- ① 매우 그렇다                       ② 그런 편임                       ③ 보통  
 ④ 그렇지 않은 편임                       ⑤ 매우 그렇지 않음

11. (자녀가 없는 경우) 귀하는 좋은 부모가 될 수 있을 것이라 생각하십니까?

- ① 매우 그렇다                       ② 그런 편임                       ③ 보통  
 ④ 그렇지 않은 편임                       ⑤ 매우 그렇지 않음

12. 좋은 부모의 역할을 하기 위해서는 무엇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하십니까? 우선순위로 2가지를 선택하여 주십시오.

1순위 ( )번, 2순위 ( )번

- ① 양육지식                       ② 정서적 지원                       ③ 생활태도 및 습관 지도  
 ④ 학업지도                       ⑤ 경제적 지원                       ⑥ 기타( )

13. 귀하는 '부모는 필요시 자녀에게 체벌(몸에 직접 고통을 주어 벌함)을 가할 수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 ① 체벌 할 수 있다  ② 체벌은 하면 안된다  
 ③ 모르겠다

14. 일을 하면서 자녀양육과 돌봄을 동시에 수행하는 것이 어떻다고 생각하십니까?

- ① 매우 어려움  ② 어려운 편임  ③ 보통  
 ④ 쉬운 편임  ⑤ 매우 쉬움

15. (영유아 부모 대상)귀하는 평소 자녀와 다음의 활동을 할 때 개인용무(전화, 문자, 동영상 시청, 게임, 검색 등)를 위해 스마트폰을 얼마나 사용하십니까?

구분	전혀 안한다 ← ← → → 매우 많이 사용한다				
	①	②	③	④	⑤
1) 자녀와 함께 놀이할 때					
2) 자녀와 함께 식사할 때					
3) 자녀를 재울 때					

16. (영유아 부모 대상)하루동안 다음의 활동에 대한 귀하의 시간 사용은 어떠하며 이에 대한 만족도는 어떠하십니까?

구분	사용시간 (단위: 시간)	① 너무 길다	② 적절하다	③ 부족하다	④ 해당 없음
1) 근무시간					
2) 집에 머무는 시간(잠자는 시간 제외)					
3) 자녀와 함께 보내는 시간(예: 놀이, 식사, 외출 등)					

### III. 결혼 및 자녀 양육관

1. 결혼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① 반드시 해야 한다  ② 하는 편이 좋다  
 ③ 해도 좋고 하지 않아도 좋다  ④ 하지 않는 게 낫다

2. 다음의 견해에 대하여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구분	① 전혀 동의하지 않음	② 별로 동의하지 않음	③ 대체로 동의함	④ 전적으로 동의함
1) 결혼을 하지 않고 자녀를 가질 수 있다.				
2) 자녀를 낳아 기르려면 결혼을 해야 한다.				
3) 결혼을 하면 자녀가 있어야 한다.				

3. 귀하가 생각하시는 이상적인 자녀수는 몇 명입니까?

- ① 총 \_\_\_명(성별 상관없음\_\_\_, 아들 \_\_\_명, 딸 \_\_\_명)
- ② 없는 편이 좋다
- ③ 잘 모르겠다

4. 귀하는 본인의 자녀가 있어야 한다고 생각하십니까?

- ① 꼭 있어야 한다(☞ 4-1로)
- ② 있는 것이 없는 것보다 나은 것이다(☞ 4-1로)
- ③ 없어도 무방함(☞ 4-2로)
- ④ 모르겠음

4-1. (자녀가 있어야 한다고 응답한 경우) 가장 주된 이유는 무엇입니까?

- ① 배우자(또는 양가 부모)가 원하니까
- ② 노후생활을 위해서
- ③ 가문(대)을 잇기 위해서
- ④ 경제적으로 도움을 받을 수 있으므로
- ⑤ 자녀를 키우면서 느끼는 보람 등 심리적인 만족
- ⑥ 가정의 행복과 조화를 위해서
- ⑦ 기타( )

4-2. (자녀가 없어도 된다고 응답한 경우) 가장 주된 이유는 무엇입니까?

- ① 경제적으로 여유롭게 생활하기 위해서
- ② 직장생활을 계속하고 싶어서
- ③ 부부만의 생활을 즐기고 싶어서
- ④ 자녀가 있으면 자유롭지 못할 것이기 때문에
- ⑤ 본인이 아이를 싫어해서
- ⑥ 배우자가 아이를 싫어해서
- ⑦ 유전병 등 질환 때문에
- ⑧ 자녀 양육비용 부담이 많이 되어서
- ⑨ 아이를 가지고 싶지만 불임 등으로 자녀를 가질 수 없어서
- ⑩ 좋은 부모가 될 자신이 없어서
- ⑪ 기타( )

5. 자녀를 키우는 것에 대한 일반적인 생각을 묻는 질문입니다. 귀하의 의견이나 태도와 일치하는 정도에 응답해 주십시오.

구분	① 전혀 동의하지 않음	② 별로 동의하지 않음	③ 대체로 동의함	④ 전적으로 동의함
1) 부모가 지나치게 허용적이면 자녀의 버릇이 나빠진다.				
2) 부모는 자녀가 어릴 때 엄격하게 대해야 바르게 키울 수 있다.				
3) 자녀가 잘못할 때는 매를 들 수도 있다.				
4) 자녀가 할 수 있다면 안쓰럽지만 힘든 일도 혼자서 해야 한다.				
5) 자녀들은 부모의 말에 순종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6) 자녀를 훌륭하게 키우기 위해서는 사교육이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6. 자녀를 양육함에 있어 가장 큰 어려움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우선순위로 2가지를 선택하여 주십시오.

1순위 ( )번, 2순위 ( )번

- |  |   |
|--|---|
| <input type="checkbox"/> ① 자녀 양육과 일의 병행<br><input type="checkbox"/> ③ 자녀를 친근하고 따뜻하게 대하는 것<br><input type="checkbox"/> ⑤ 자녀의 심리적 안정<br><input type="checkbox"/> ⑦ 나의 개인 시간을 가질 수 없는 것<br><input type="checkbox"/> ⑨ 기타( ) | <input type="checkbox"/> ② 양육 비용에 대한 부담<br><input type="checkbox"/> ④ 자녀의 학업/직업적 성취<br><input type="checkbox"/> ⑥ 자녀의 신체적 건강<br><input type="checkbox"/> ⑧ 배우자의 무관심, 부재 |
|--|---|

7. 우리 사회에서 자녀교육에 성공했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한다고 생각하십니까?

- ① 자녀가 명문대학에 들어갔다.
- ② 자녀가 인격을 갖춘 사람으로 컸다.
- ③ 자녀가 좋은 직장에 취직했다.
- ④ 자녀가 좋은 배우자를 만났다.
- ⑤ 자녀가 경제적으로 잘 산다.
- ⑥ 자녀가 하고 싶은 일, 좋아하는 일을 하게 되었다.
- ⑦ 자녀가 아프지 않고 건강하게 자랐다.
- ⑧ 기타( )

8. 귀하는 어느 쪽을 더 선호하십니까?

※예: '경제적으로 안정적인 자녀로 기르는 것'을 선호하면 ①또는② 중 선호 정도에 해당하는 응답을 선택하고, '열정에 따라 사는 자녀로 기르는 것'을 선호하면 ④또는⑤ 중 선호 정도에 해당하는 응답을 선택하시면 됩니다.

경제적으로 안정적인 자녀로 기르는 것		열정에 따라 사는 자녀로 기르는 것
자녀에게 친구가 되어주는 것		부모로서 자녀에게 권위를 보여주는 것

9. 귀하가 바라는 자녀의 최종학력은 무엇입니까?

- |                                      |                                    |
|--------------------------------------|------------------------------------|
| <input type="checkbox"/> ① 고등학교 졸업   | <input type="checkbox"/> ② 전문대 졸업  |
| <input type="checkbox"/> ③ 4년제 대학 졸업 | <input type="checkbox"/> ④ 석사학위 취득 |
| <input type="checkbox"/> ⑤ 박사학위 취득   | <input type="checkbox"/> ⑥ 상관없다    |

#### IV. 육아 행복감

1. 다음 중 부모로서/부모가 자녀를 양육함에 있어 가장 큰 즐거움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 |   |                                      |
|---|--------------------------------------|
| <input type="checkbox"/> ① 자녀의 발달과 성장을 지켜보는 부모로서의 성취감 | <input type="checkbox"/> ③ 자녀 돌봄과 지도 |
| <input type="checkbox"/> ② 자녀와 함께 시간보내기, 여가활동 공유하기    | <input type="checkbox"/> ⑤ 기타( )     |
| <input type="checkbox"/> ④ 부모-자녀관계에서의 애정과 지지          |                                      |

2. 귀하는 다음의 견해에 대하여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구분	①	②	③	④
	전혀 동의하지 않음	별로 동의하지 않음	대체로 동의함	전적으로 동의함
1) 나는 아이를 키우는 것은 행복한 일이라고 생각한다.				
2) 나는 아이를 키우는 것은 육체적으로 힘들다고 생각한다.				
3) 나는 아이를 키우는 것은 심리적으로 부담된다고 생각한다.				
4) 나는 아이를 키우는 것은 경제적으로 부담된다고 생각한다.				

3. 2019년 통계청 자료에 의하면, 2017년도 임금근로자의 월평균 소득은 287만원, 중위소득은 210만원이었습니다. 귀하는 영유아 자녀 양육을 경제적 가치로 측정한다면 월평균 얼마 정도라고 생각하십니까?

\_\_\_\_\_ 만원





4. 귀하는 영유아 자녀가 있는 부모들이 왜 사교육을 시킨다고 생각하십니까? (우선순위 2개 선택)  
(※ 사교육은 학습과 예체능을 포함하며 유치원·어린이집 이외에서 이루어지는 시간제 학원, 문화센터, 학습지, 개인교습 등을 모두 포함)
- ① 자녀가 원해서  ② 자녀에게 어떤 재능이 있는지 알아보기 위해  
 ③ 자녀의 발달과 학습에 도움이 된다고 생각해서  
 ④ 다른 아이들이 하니깐 뒤쳐질까봐  ⑤ 다른 친구들과 어울리게 하기 위해서  
 ⑥ 어린이집·유치원에서 하는 특별활동/특성화 프로그램만으로는 부족해서  
 ⑦ 어린이집·유치원 등 하원 후에 돌보줄 사람이 없어서  
 ⑧ 기타( )
5. 귀하는 우리나라에서 영유아 대상 사교육 과열 현상이 지속될 것이라고 생각하십니까?
- ① 그렇다  ② 아니다  ③ 잘 모르겠다
6. 현재 정부는 0-5세에 소득과 상관없이 보육료·유아학비·양육수당 등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자녀양육과 관련한 국가 책임에 대한 요구가 커지고 있는 상황에서, 귀하는 영유아(0-5세)에 대한 국가의 책임을 강화하기 위해서라면 세금을 추가로 더 부담할 생각이 있습니까?
- ① 있다 (☞7로)  ② 없다(☞ 6-1로)  ③ 잘 모르겠다 (☞7로)
- 6-1. 세금 추가 부담 의사가 없다고 응답하신 가장 큰 이유는 무엇입니까?
- ① 세금이 적절한 곳에 쓰이지 않을 것 같아서  
 ② 관련 정책의 수혜자가 아니므로 내고 싶지 않아서  
 ③ 세금을 늘리기 전에 정부 지출에 대한 구조조정 등이 선행되어야 할 것 같아서  
 ④ 부담하는 세금 자체가 지금도 너무 많기 때문에  
 ⑤ 다른 증세 방안(기업 법인세 증액 등)을 모색해야 할 것 같아서  
 ⑥ 기타( )
7. 귀하는 정부가 자녀의 출산 및 양육을 어느 정도 지원해야 한다고 생각하십니까?
- ① 전적으로 지원해야 한다 (☞ 문항 7-1로)  ② 어느 정도 지원하여야 한다 (☞ 문항 7-1)  
 ③ 별로 지원할 필요가 없다 (☞8로)  ④ 전혀 지원할 필요가 없다(☞8로)  
 ⑤ 모르겠다 (☞8로)

7-1. 정부가 출산·육아지원을 위해 우선적으로 제공해 주기를 바라는 정책은 무엇입니까?  
가장 필요한 항목 2가지만 선택해주세요.

1순위 : \_\_\_\_\_ 2순위 : \_\_\_\_\_

- ① 출산휴가 및 육아휴직 기간 확대
- ② 베이비시터 인력 관리
- ③ 공립유치원 및 어린이집 확충
- ④ 비용 지원(유아원비, 양육수당 등)
- ⑤ 유치원, 어린이집의 운영시간 연장
- ⑥ 자녀 건강 관련 지원(건강검진, 예방접종 등) 확대
- ⑦ 안전한 생활환경 조성(공기질 개선, 교통안전 등)
- ⑧ 영유아 문화 및 놀이시설 확대
- ⑨ 기타( )

8. 정부는 2012년 0-2세 무상보육과 만5세 누리과정, 2013년 3-4세 누리과정 확대로 0-5세 연령별로 가구소득에 관계없이 보육료·유아학비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또한 유치원과 어린이집을 이용하지 않는 영유아 가정에는 양육수당을 별도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귀하는 이러한 정책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질문	① 매우 바람직	② 바람직	③ 보통	④ 바람직하지 않음	⑤ 전혀 바람직하지 않음
1) 보육료·유아학비 전 계층 지원				(☞8-1로)	(☞8-1로)
2) 양육수당 전 계층 지원				(☞8-2로)	(☞8-2로)

8-1. 전 계층 보육료·유아학비 지원 정책이 바람직하지 않다고 생각하는 가장 큰 이유는 무엇입니까?

- ① 소득(고소득층과 저소득층 등)에 따른 비용지원 정책에 차별화가 필요함
- ② 세금 부담 가중 우려
- ③ 비용 지원에도 부모 부담 여전
- ④ 재정 지원 불안정
- ⑤ 기타( )

8-2. 전 계층 양육수당 지원 정책이 바람직하지 않다고 생각하는 가장 큰 이유는 무엇입니까?

- ① 소득(고소득층과 저소득층 등)에 따른 비용지원 정책에 차별화가 필요함
- ② 세금 부담 가중 우려
- ③ 비용 지원에도 부모 부담 여전
- ④ 재정 지원 불안정
- ⑤ 기타( )

9. 귀하는 그동안 정부의 출산·육아 비용지원 정책이 추가 출산이나 출산 계획에 어느 정도 영향을 미쳤다고 생각하십니까?

- ① 매우 많은 영향을 미침
- ② 어느 정도 영향을 미침
- ③ 보통
- ④ 별로 영향을 미치지 않음
- ⑤ 전혀 영향을 미치지 않음

10. 귀하는 우리 사회가 영유아 자녀를 키우기에 안전한 사회라고 생각하십니까?
- ① 매우 그렇다(☞11로)  ② 그렇다(☞11로)
- ③ 보통(☞11로)  ④ 그렇지 않다(☞10-1로)  ⑤ 매우 그렇지 않다(☞10-1로)
- 
- 10-1. (안전하지 않다고 응답한 경우) 우리 사회의 가장 큰 불안 요인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우선순위 2개)
- ① 국가 안보(전쟁, 북핵 문제 등)  ② 자연재해(태풍, 홍수, 지진 등)
- ③ 환경오염(대기, 수질, 토양, 해양오염 등)  ④ 인재(화재, 교통사고, 건물붕괴 등)
- ⑤ 경제적 위험(기업 파산, 실업 등)  ⑥ 자원(에너지 고갈)
- ⑦ 도덕성 부족(부정부패 등)  ⑧ 신종 질병(신종 바이러스 등)
- ⑨ 범죄 발생(유괴, 아동학대, 살인, 성폭력 등)  ⑩ 빈부 격차로 인한 계층 간 갈등
- ⑪ 기타( )
- 
11. 현재 0-5세 영유아에 대한 육아지원정책에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① 매우 잘 하고 있음  ② 약간 잘하고 있음
- ③ 보통임  ④ 약간 잘못하고 있음
- ⑤ 매우 잘못하고 있음

## VI. 개인 배경

1. 본인(및 배우자)의 학력은 무엇입니까?

(※ 중퇴, 수료는 졸업이 아님)

- ① 무학  ② 초등학교 졸업  ③ 중학교 졸업
- ④ 고등학교 졸업  ⑤ 전문대 졸업  ⑥ 대학교 졸업
- ⑦ 대학원 석사학위 취득  ⑧ 대학원 박사학위 취득

본인	배우자

2. 본인(및 귀하의 배우자)는 현재 어떤 형태로 일을 하고 있습니까?

- ① 규칙적으로 출퇴근  ② 불규칙하게 출퇴근
- ③ 출퇴근하지 않음(재택, 농어민)  ④ 휴직 중
- ⑤ 무직(주부 포함)  ⑥ 모름

본인	배우자

3. 본인(및 배우자)의 현재 종사상 지위는 무엇입니까?

- ① 고용주  ② 자영업자
- ③ 상용근로자  ④ 임시근로자
- ⑤ 일용근로자  ⑥ 무급가족종사자
- ⑦ 무직(무직, 군인, 학생, 주부 등)  ⑧ 모름

본인	배우자

4. 본인(및 배우자)의 현재 직업은 무엇입니까?

- |   |   |
|---|---|
| <input type="checkbox"/> ① 관리자              | <input type="checkbox"/> ② 전문가 및 관련 종사자 |
| <input type="checkbox"/> ③ 사무 종사자           | <input type="checkbox"/> ④ 서비스 종사자      |
| <input type="checkbox"/> ⑤ 판매 종사자           | <input type="checkbox"/> ⑥ 농림어업 숙련 종사자  |
| <input type="checkbox"/> ⑦ 기능원 및 관련 기능 종사자  |   |
| <input type="checkbox"/> ⑧ 정치·기계조작 및 조립 종사자 | <input type="checkbox"/> ⑨ 단순 노무 종사자    |
| <input type="checkbox"/> ⑩ 군인               | <input type="checkbox"/> ⑪ 기타(     )    |

본인	배우자

5. 귀하 가구의 월평균 총가구소득(세전 근로소득, 이자, 임대수입 등의 합)은 얼마나 됩니까?

가구
만원

◆ 응답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연구를 위한 소중한 자료로 사용하겠습니다. ◆

행복한 육아문화 조성을 위한  
KICCE 육아정책 여론조사(Ⅲ)

**육아정책연구소**  
Korea Institute of Child Care and Education



9 791190 485159

ISBN 979-11-90485-15-9